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국기원
세 계 태 권 도 분 부

제 출 문

국기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12

책임연구원 김 영 선

참여 연구진

책임연구원 : 김영선 (연세대학교)

공동연구원 : 송형석 (계명대학교)

보조연구원 : 최종구 (중앙대학교)

목 차

I. 연구 개요	1
1. 문제의 제기	3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6
3. 연구 문제	11
4. 연구 방법	12
II. 태권도 정신체계	17
1. ‘태권도 정신체계’의 기본 개념	19
2. 왜 ‘태권도 정신’이 아니라 ‘태권도 정신체계’인가?	20
3. ‘태권도 정신체계’의 구성 요소	21
4. ‘태권도 정신체계’의 설정 원칙	23
III. 태권도 정신	29
1. 서론	31
2.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	34
3. ‘태권도 정신’의 근원으로서 ‘태권도의 정의(定義)’	44
4. ‘태권도 정신’의 개념	49
5. ‘태권도 정신’의 세부 영역	59
6. 이전에 제안된 ‘태권도 정신’의 내용	64
7. ‘태권도 정신’의 설정 원칙	75
8. ‘태권도 정신’으로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	84
9. 결론	104

IV. 태권도 수련자 신조	111
1. 서론	113
2. ‘수련자 신조’의 개념과 정의	117
3. ‘수련자 신조’의 관련 사례	125
4. ‘수련자 신조’의 이론적 배경	130
5. ‘수련자 신조’의 구성 원리	137
6. ‘수련자 신조’의 구성 내용	145
7. ‘수련자 신조’의 활용 방안	185
8. 결론	193
V. 태권도 지도자 행동강령	20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5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206
3. 강령의 의미	208
4. 강령의 제정 절차	211
5. 강령의 제정 지침	212
6. 태권도 지도자 행동강령	217
VI. 태권도인 상(像)	227
1. 서론	229
2. 태권도의 이해	233
3. 태권도인의 덕	246
4. 바람직한 태권도인의 상	257
VII. 결론	263
◎ ‘공인 태권도 정신’ 수립을 위한 견해조사 결과	271

표 목 차

표 III-1. 태권도 정신의 용어 개념에 대한 정의	51
표 III-2. 태권도 정신의 세부 영역에 대한 구분	59
표 III-3. 태권도 정신의 다양한 구성 항목과 내용	64
표 III-4. 태권도 정신 설정을 위한 기준과 조건	75
표 III-5. 태권도 정신의 이원적 구분 원칙에 대한 관련 이론	81
표 III-6. 태권도 정신의 개념과 구성 내용	104
표 IV-1. 수련자 신조의 가치영역에 준거한 해당 덕목	143
표 IV-2. 수련자 신조의 구성 덕목	147
표 IV-3. 수련자 신조의 대상 연령별 유관 덕목의 응용 방안	189
표 V-1. 강령 제정절차	211
표 VI-1. 태권도인의 덕	250

그림 목 차

그림 I-1. 이전의 국기원 엠블렘	8
그림 I-2. 연구 방법 및 절차	14
그림 II-1. 태권도 정신체계 구성 요소간의 위계적 모형	24
그림 III-1. 나를 이기는 의지력	84
그림 III-2. 태권도 정신의 개념 구성	105
그림 IV-1. 수련생과 수련자의 개념	118
그림 IV-2. 용기 있는 태권도인	159
그림 IV-3. 인내를 상징하는 포스터	169
그림 IV-4. 예의를 상징하는 포스터	174
그림 IV-5. 공정성을 상징하는 이미지	183
그림 IV-6. 태권도 정신과 수련자 신조의 구성	193
그림 V-1. 윤리현장의 예 : 축구인 현장	209
그림 VII-1. 태권도 정신체계의 구성 요소와 세부 내용	267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의 핵심적 가치인 ‘태권도 정신’을 비롯해서 ‘수련자 신조’, ‘지도자 행동강령’, ‘태권도인 상(像)’ 등을 일컫는 ‘태권도 정신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태권도인들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와 견해조사를 통한 분석적 연구(analytical research)가 채용되었다. 즉, 선행연구의 장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술적 근거와 설득력 있는 서술 방식을 갖추으로써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보편타당한 논지를 세우는 작업이다. 연구를 통해 확립된 태권도 정신체계의 위계적 구성 원리와 설정 기준에 따라 ‘태권도 정신’, ‘수련자 신조’, ‘지도자 행동강령’, ‘태권도인 상(像)’ 등의 세부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태권도 정신’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Taekwondo spirit is overcoming of oneself and then benefiting the world).”이다. 이것은 ‘나를 이김’이란 자기 내적인 의지력 요소와 ‘세상을 이롭게 함’이란 외향적인 사회적 덕목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이념이 합쳐진 문장이다.

‘수련자 신조’는 앞의 추상적 태권도 정신을 구체화시킨 태권도인의 생활 지침으로서 ‘(태권도)열정’, ‘용기’, ‘인내’, ‘예의’, ‘정의’ 등 다섯 가지 덕목이 채택되었다. 이들 수련자 신조는 그간 태권도 정신으로 간주되었던 여러 덕목들 중에서 태권도인들의 보편적 인식 실태와 현 시대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핵심 가치들로 구성되었다.

‘지도자 행동강령’은 전문, 본문, 서약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지도자의 역할 및 직무에 따라 태권도 지도자는 도장지도자, 경기지도자, 판정지도자, 행정지도자로 분류될 수 있다. 행동강령 전문(全文)은 네 종류 지도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본문은 각 지도자별로 차별성을 둔 세부 내용으로 해설되었다.

‘태권도인 상(像)’은 수련자 신조에 근거하여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태권도를 수련하는 자이며(열정), 수련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종 난관과 고통을 용기와 인내로써 극복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시켜나가는 사람이다(용기, 인내). 아울러 가능성 확장을 통해 얻은 신체 및 심리적 힘들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으며 언제나 타자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예의바른 자이며(예의), 태권도 활동에서 공정성을 발휘하며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자이다(정의). 바람직한 태권도인은 한 마디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는 인간’인 것이다.

I 연구 개요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1. 문제의 제기

태권도는 수련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며, 그 개념들은 다양한 정신적 가치들을 포함하게 된다. 즉, 태권도는 자기 방어를 위한 호신술로서, 정신수양을 위한 무도(武道)로서,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신체 운동으로서, 투기적 특성의 스포츠 경기로서 뿐 아니라 수련자의 인성 발달에 기여하는 체육(體育) 또는 교육적 소재로 규정되며 각 개념마다 다양한 가치들을 함축한다. 여기서 태권도 개념을 규정하는 외연(外延)인 호신술, 무도(武道), 인성(人性), 체육, 교육 등은 태권도의 바람직한 정신적 가치를 반영하는 명칭이다(김영선외, 2014). 맨손 격투술 또는 무술의 한 종류인 태권도가 이처럼 여러 정신 요인들이 반영된 외연들로 규정되는 것은 태권도의 정신적 중요성을 단적으로 알려준다.

태권도의 정신적 영역의 중요성은 현대 태권도의 창설자들의 저서와 태권도 공식 교본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청도관 창설자 이원국(1968)은 “태권도란 승패를 궁극 목적으로 하는 무술이 아니라 시련을 넘어서서 땀을 흘리고 수련을 통해 인간완성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서술했다. 한편 태권도 강덕원의 창시자 박철희(1957)는 무예의 수련 목적으로 정신수양을 으뜸으로 간주하고, 둘째는 신체단련이고, 셋째는 자기방어를 꼽았다. 무덕관의 창시자 황기(1950)도 현대 최초의 무예서적인 ‘화수도 교본’에서 기술보다는 수도(修道)와 정신수양(精神修養)을 강조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발간한 최초의 공식 태권도교본(1972)은 태권도를 하나의 행동철학으로 정의하며 태권도 정신적 육구를 신념의 작용으로서 그리고 자아를 극복하고 대아의 경지에 도달하는 철학적 요소를 지닌 체육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같이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기술과 더불어 태권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이 출범한 이후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이렇다할 태권도 정신의 내용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지난 30년간 태권도 정신을 주제로 여러 차례 세미나에서 집중적 논의를 통해 대안적 정신 항목과 내용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태권도인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태권도 교육 현장에서는 1959년에 발표된 최홍희의 5대정신이 편의상 널리 활용되는 실정이다(이재돈, 2014). 그런데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등 5대정신은 간단명료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를 대표하는 현 시대의 정신적 가치관으로는 크게 두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가지 점에서 미흡하다. 첫째, 5대정신은 태권도의 세계화에 따른 태권도의 원대하고 숭고한 이념을 결여하고 있다. 즉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정신력 요인과 예의, 염치 등 사회적 덕목에만 국한된 협소성이 큰 결점으로 지적받는다. 두 번째 결점은 5대정신의 다섯 가지 항목들이 예의와 인내로 압축되는 개념의 중복성 문제이다. 도덕적 행위의 근본인 염치는 예의의 포괄적 개념에 속할 수 있고 극기와 백절불굴은 의지력 요인의 대표성을 갖는 인내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김영선, 2011). 현 시대의 정신적 가치관으로 부적절한 최홍희의 5대정신이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는 것은 태권도 정신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태권도 정신은 인간주의, 화합과 상생, 자존감 및 타인존중, 공정과 정의(正義) 등과 같은 21세기 현대사회의 가치관에 부응하는 정신적 내용이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무예와 차별화된 한국 고유성을 표방함으로써 태권도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의 태권도 정신에는 올림픽 경기에 진출하고 글로벌 한류의 원조가 된 작금의 시대에 걸 맞는 이념과 가치성이 그 주요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김영선, 2015).

태권도 정신의 확립 필요성은 최근 태권도 지도자가 연루된 판정비리, 폭력, 성추행 등 사건들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2013년 태권도장 관장이던 한 선수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참가했던 경기에서 자행된 심판의 편파 판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스포츠계에 만연된 판정 비리와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사정 바람이 불었다(무카스미디어, 2014.9.15.). 또한 한 태권도장 관장은 관원들에게 교육이란 미명 아래 구타와 체벌을 일삼아 전격 구속되기도 했다(동아닷컴뉴스, 2015.9.20). 또 다른 태권도장 관장은 수련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서슴없이 저지름으로써 수련생과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본인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매일신문, 2015.11.29.).

이처럼 극히 일부 태권도 지도자들이 자행한 사리사욕과 부도덕한 행실이 사회 문제로 부각됨으로써 태권도의 전체적인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있다. 이 같은 사건들로 인해 태권도 수련이 전인교육(全人教育)과 인성교육에 긍정적 효과를 올린다는 태권도계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태권도계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지도자 개개인의 건전한 가치관 부재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서 찾아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올바른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해야 하는 국기원의 교육적 기능에도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도자들의 태권도 활동과 연관된 어떤 불법적 사건이든지 개인의 부당한 욕망에서 비롯되는 문제이지만 개인이 속한 집단의 풍토, 즉 태권도계의 분위기와 행정 기관의 교육적 기능도 연관될 수 있다. 바람직한 태권도계 풍토에서 지도자 개인들의 바람직한 행동과 건전한 분위기가 창출되고 진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국기원과 같은 교육기관은 전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하고 자질 있는 지도자를 양성함과 아울러 태권도 지도자와 수련생 등 구성원들을 안정되게 유지시키는 책임과 기능을 담당한다. 한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그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에 필요한 규범과 가치, 태도 등을 사회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즉, 그 집단 속의 다수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는 공동의 가치 또는 규범의 존재들은 전체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에 부응하려는 실천적 가능성을 확대한다(김천기, 2013).

태권도 교육기관은 지도자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태권도계의 긍정적인 풍토를 조성하고 지도자의 탈법 행위를 저하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와 같이 태권도 행정 차원에서도 지도자의 자질과 도덕적 품행을 효율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한 방안이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와 행위 규범을 담은 정신체계를 명문화하는 일이다. 즉,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태권도인들이 정신적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올바른 정신적 가치관이나 수련자 신조(信條), 지도자 행동 강령 등을 확립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의 핵심적 가치인 태권도 정신을 비롯해서 수련자 신조, 지도자 행동강령, 태권도인 상(像) 등 태권도 정신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태권도인들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태권도 정신을 비롯한 태권도 정신체계는 기술체계와 더불어 태권도의 주요한 지식으로 승격될 수 있다. 또한 태권도 정신체계는 태권도 일선 현장에서도 긴요한 교육적 소재로 활용되며 나아가 건전한 태권도계 풍토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태권도 정신체계를 수립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첫째, 연구자들이 전제하는 태권도 정신체계¹⁾ 개념의 의미가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개념의 하위 구성요소를 태권도 정신, 태권도 수련자 생활신조, 태권도 지도자 행동강령, 태권도인의 상(像) 등 네 가지로 설정한 이유와 각 요소들의 의미, 그리고 상호 관련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에 근거하여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의 내용이 명문화된 형태로 도출되어야만 할 것이다.

2) 연구의 필요성

2010년 5월 19일 제정된 특수법인 국기원 제정 정관 제2조에 따르면 국기원은 “한국 고유문화 소산인 태권도 정신과 기술을 계승·발전시켜 태권도 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 강화”(국기원, 2012: 261)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태권도 정신과 기술의 계승 및 발전’과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 두 대목이다. 국기원 정관이 규정하는 국기원의 설립 목적은 한 마디로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일인데, 이 일은 태권도 정신과 기술의 계승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1) 사회를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보고 분석을 시도한 사회구성체론의 관점과 유사하게 태권도를 기술체계와 정신체계의 통일체로 이해하고자 한다.

는 의미이다.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는 다른 말로 태권도의 세계화 또는 성공적 세계화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기원의 설립목적은 태권도 정신과 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통해 태권도를 세계화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 또는 성공적 세계화는 표준화를 전제한다. 세계화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맥도널드햄버거는 세계화와 표준화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맥도널드회사는 햄버거의 재료와 함량은 물론이고 종업원들의 복장과 헤어스타일까지 표준화시켰다. 표준화는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맥도널드햄버거의 세계화를 획기적으로 촉진시켜주었다.

이 사례는 태권도가 성공적으로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태권도의 무엇이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태권도는 기술과 정신의 혼합체라고 할 수 있다. 즉, 태권도는 단순히 격투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격투 기술에 어떤 정신적인 요소가 개입되어야 비로소 태권도라고 말한다.²⁾ 한편 태권도 격투기술은 기본기술, 품새, 겨루기, 격파 같은 다양한 하위요소들의 체계적 통일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태권도 기술체계’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며, 태권도 정신 역시 여러 가지 태권도관련 가치와 덕목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태권도 정신체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본다면 태권도에서 표준화되어야 할 대상은 태권도 기술체계와 태권도 정신체계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 기술체계는 심사제도가 정착되고, 경기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꾸준히 표준화의 길을 걸어왔다. 이와 함께 기술의 수련 시 착용해야할 복장, 즉 도복과 띠의 디자인과 색상도 함께 표준화되어왔다. 이제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태권도 도장을 찾아갈 경우에 지도자들과 수련자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통일된 도복과 띠를 착용하고 동일한 품새와 겨루기 기술을 수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태권도기술 및 복장의 표준화는 낯선 지역에서도 태권도를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세계무대에서 태권도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태권도 정신체계는 기술체계와 비교할 때 아직 표준화의 문턱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태권도 관련 개인이나 단체는 각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서로 상이한 가치와 덕목들을 태권도 정신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추종

2) 정신적 요소를 배제한 채 격투 기술만을 수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쪽짜리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이다. 온전한 의미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려는 자는 기술과 함께 정신 수련도 게을리하지 말아야만 한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하고 있다. 태권도를 대표하는 공식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기원조차도 표준화된 태권도 정신체계를 제시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기원이 표방하는 태권도 정신이 표준화되지 못했다는 점은 국기원이 심벌마크, 교본, 홈페이지 등에서 각기 다른 내용을 태권도 정신으로 소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기원은 1976년 2월 1일 기존의 발차기모양이 포함되어 있는 심벌마크를 아래와 같은 심벌마크(2005년 10월 1일 백색바탕에서 청색바탕으로 바뀜)로 형상화하여 발표하였다. 국기원에 따르면 이 심벌마크는 태권도 정신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림 I-1. 이전의
국기원 엠블렘

즉, 이 마크는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된 이후 태권도가 세계적인 무도 스포츠로 부상하면서, 태권도에 관심이 있는 세계인에게 태권도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시키기 위해 태권도 정신을 상징적으로 기호화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구도는 넓은 의미의 천지인天地人(하늘, 땅, 사람)과 좁은 의미의 자타만自他萬(자기, 남, 온누리)을 나타내는 삼원三圓으로 이루어져 동양적인 사상을 나타내었고, 내부 중앙에는 지구를 중심축으로 사통팔달을 의미하는 산틀막기 자세를 형상화하였다는 것이다. 즉, 온 누리의 인류가 한국의 태권도를 통해 평화와 우정을 다지며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가는 대약진의 진취적인 기상과 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디자인센터인터넷사이트). 이 마크는 한 마디로 평화와 우정을 태권도 정신으로 소개하고 있다.

국기원이 간행한 국기 태권도교본(국기원, 2006)에 나타난 태권도 정신은 호국, 충효, 무언실행의 바탕위에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고 인격완성을 도모하며 결국 홍익인간의

정신과 평화를 추구하는 책임감 있는 인간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국기원이 공인하고 있는 태권도 교본은 호국, 충효, 무언실행, 정의를 수호하는 결백정신, 평등, 인격완성, 홍익인간, 평화정신, 책임감 아홉 가지 덕목을 태권도 정신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국기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기원은 “태권도가 생활무예스포츠로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극기, 희생, 봉사 등 태권도 정신이 전 세계인의 생활 규범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태권도 역사, 정신 등의 문화 전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태권도 정신은 극기, 희생, 봉사로 나타나 있다(<http://www.kukkiwon.or.kr> 2015년 6월 25일 검색).

이상에서 보았듯이 국기원은 심벌마크, 교본, 홈페이지에서 각기 다른 내용을 태권도 정신으로 소개하고 있다. 태권도 정신과 관련하여 국기원이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태도는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태권도 정신의 혼란스러운 상황 그 자체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국기원이 태권도의 세계화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술체계의 표준화 뿐만 아니라 정신체계의 표준화를 위해서도 힘써 노력해야만 한다. 이 연구가 도출하고자 하는 공인 태권도 정신체계는 표준화된 태권도 정신체계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태권도의 세계화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표준화된 공인 태권도 정신체계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첫째, 바람직한 태권도인 양성의 규범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태권도 이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태권도인의 건전한 가치관과 신념체계를 형성시키는 바탕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일선 도장에서 어린이, 청소년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의 주요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국기원에서 발간하는 태권도교본이나 지도자연수교재뿐만 아니라 국기원 공식 홈페이지에 태권도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가치체계를 제시할 수 있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3)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이 공인 차원의 태권도 정신을 확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 결과물은 국기원 공인 차원의 표준화된 태권도 정신 확립을 위한 이론적 바탕이 될 것이다. 아울러 태권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실질적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바람직한 태권도인을 양성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정신체계’의 확립은 태권도의 가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태권도 보급과 저변 확대에도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태권도 정신체계’ 결과물은 추후 태권도 지식체계의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기원 지도자 교재와 국기원 교본, 홈페이지 게재용으로 긴요히 활용될 수 있다.

셋째, ‘태권도 정신체계’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어 교육적 효과도 높일 수 있다.

넷째, ‘정신체계’의 구성 내용은 태권도인의 정신적 가치가 집약된 ‘태권도 정신’, ‘태권도 수련자 신조’, ‘태권도 지도자 행동강령’, ‘바람직한 태권도인 상(像)’ 등을 포괄함으로써 태권도인들의 성품 향상과 건전한 태권도계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 과제인 ‘태권도 정신체계’는 태권도의 기초(基調) 정신을 비롯하여 모든 태권도인들의 수련 신조, 현장 지도자들의 행동 강령, 태권도인 상(像)까지 망라하는 방대하면서 실용적인 주제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또는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고찰을 진행함으로써 각 세부 주제들에 대한 최선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주제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태권도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찰하는 ‘태권도적 서술 방식’을 전개함으로써 태권도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실용적 효과도 거두게 될 것이다. 각 세부 주제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을 종합하고 고찰한 결론들은 일목요연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도표나 모형들로 제시될 것이다.

‘태권도 정신체계’에서 ‘정신체계’란 말은 ‘정신(spirit)’과 ‘체계(system)’의 합성어로서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경험적 또는 실증적 지식을 다루는 분야와는 달리 ‘정신을 다루는 철학에는 개인들의 주체적 인식이나 철학적 가치관의 차이가 내재된 정신이론이나 논리의 특성상 확고부동한 진리나 정답은 없다는 점이다. 즉, 원래부터 ‘정신’을 규명하는 문제는 사회과학적 문제와는 달리 철학적인 과제로서 존재론적이고 규범적이면서 분석적인 특성을 띤다(Brody, 1977). 둘째, ‘체계’란 말은 개인의 주관적 논리와는 달리 태권도인들이 폭넓게 동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이론지식으로 확립된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따라서 본 정신체계 연구는 기권도 정신 관련 선행연구와 실증적 사회조사들을 토대로 논리적 근거를 도출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보편타당한 태권도 정신을 제시할 뿐 아니라 수련자와 지도자들이 주지해야할 바람직한 실천적 행동규범을 설정하는 등 태권도 교육현장까지 연결시키는 특징을 갖는다. 아울러 태권도 정신체계는 정신에 관한 추상적인 이론이나 단편적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인들의 바람직한 사고방식과 행동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는 과학적 사실 여부를 판명하는 작업이 아니라 기준에 제시된 갖가지 논리들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 지식들을 선별하여 체계화시킴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한 논리적 대안을 도출해내는 이론화 작업에 속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태권도와 관련된 특정한 정신적 의미와 가치성을 설정하는 만큼 도장과 경기장 등 수련과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인 지식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4. 연구 방법

이 연구 과제는 태권도 철학과 인성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세 명의 전문 연구자가 참여하는 공동 연구로 실행된다. 세 명의 연구자는 태권도 정신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견해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진은 태권도 정신을 구성하는 세부적 개념 분석과 구체적 정신 내용의 검토를 바탕으로 정신 체계의 설정 기준과 확립 방안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정신체계를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와 견해조사를 통해 태권도 정신체계와 관련한 개념과 구성 내용, 근거, 세부 항목 등을 고찰함으로써 공인의 논지 채택을 위한 합당한 기준 등을 도출하고 적절한 정신체계의 초안을 제시하는 작업이다. 즉, 선행연구의 장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술적 근거와 설득력 있는 서술 방식을 갖추으로써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보편타당한 논지를 세우는 작업이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와 견해조사를 통한 분석적 연구(analytical research)를 채용한다. 분석적 연구는 그 명칭이 함축하고 있듯이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세밀하게 고찰하고 평가하는 연구방법이다. 즉, 태권도 정신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분석연구에 속하는 철학적 연구(philosophical research)와 문헌고찰(reviews of literature) 두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Jerry & Jack, 2001). 주어진 문제에 대한 철학적인 작업이란 문제와 관련된 경험적인 자료를 직접 분석하고 설명하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철학적인 작업이란 그러한 경험적 접근과 분석의 과정에 성공적인 탐구를 보장하는 일종의 지침을 제공하는 작업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철학은 경험적인 탐구의 길잡이 노릇을 하는 근본적이면서 우선적인 탐구라 할 수 있다(석봉래, 1992).

아울러 ‘태권도 정신체계’ 확립이라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태권도 정신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반구조화한 심층면접이 실행되었다. 태권도 정신의 용어 개념과 하위 영역의 인식, 공인 태권도 정신 제정의 필요성 등 7개 문항의 심층면담식의 견해조사를 통해 태권도 정신 수립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도출하였다. 이 견해조사를 통해 태권도 전문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기준들을 취합함으로써 광범위하고 유용한 관점과 통찰력을 생성하고 반영할 수 있다. 견해조사 결과물의 주요

내용은 태권도 정신의 단락에서 각 세부 주제별로 인용되었다. 견해조사 결과는 본 연구결과물에 부록 형식으로 수록되었다.

선행 연구 또는 문헌 고찰은 공인 태권도 정신의 근거와 내용을 도출하는 데 주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태권도 정신에 관한 개념이나 정의(定義), 하위 항목 등 기존의 교본이나 학자들의 논지를 탐색하고 공인 태권도 정신의 근거와 설정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 고찰이 필수적이다. 선행 연구 대상으로는 국기원 등 태권도 기관에서 발주한 태권도 정신 용역 수행 및 연구 결과물을 포함한다. 특히 2014년 국기원 연구소가 수행한 ‘태권도 수련의 정신적 가치 연구’는 본 과제 수립에 주요한 자료가 된다. 그 연구는 태권도 정신에 대한 수많은 태권도 지도자들의 의식과 실태를 조사한 실증적이고 사실적인 결과를 제공하므로 본 정신체계의 수립 방향에 큰 시사점을 준다. 그 외에도 태권도 정신에 대한 학술 논문 관련 교본 및 단행본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태권도 정신, 수련자 신조, 지도자 행동강령, 태권도인 상(像) 등을 수립하기 위해 각 세부 주제에 관한 개념적 접근도 채용되었다. 철학에서 채용하는 ‘개념적 접근법’은 태권도 정신체계를 수립하는 연구 주제에 적절한 방법이다. 태권도 정신과 관련된 언어적 개념과 구성 논리들에 대해 그 비판점과 수용점을 파악하고 태권도 사례에 적절한 연관성을 규정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탐구이며 그 주된 방법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규정하는 개념들에 대한 탐구일 수밖에 없다(장용규외, 2013).

이와 같이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각 세부 과제별로 적절한 설정 원칙을 세우고 태권도 정신체계의 핵심논지(중핵 개념)를 수립한다. 최종적으로 핵심논지를 구성하는 각 정신 항목들의 의미와 태권도적 연관성에 대해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본 연구 방법과 절차는 다음 도표로 그려질 수 있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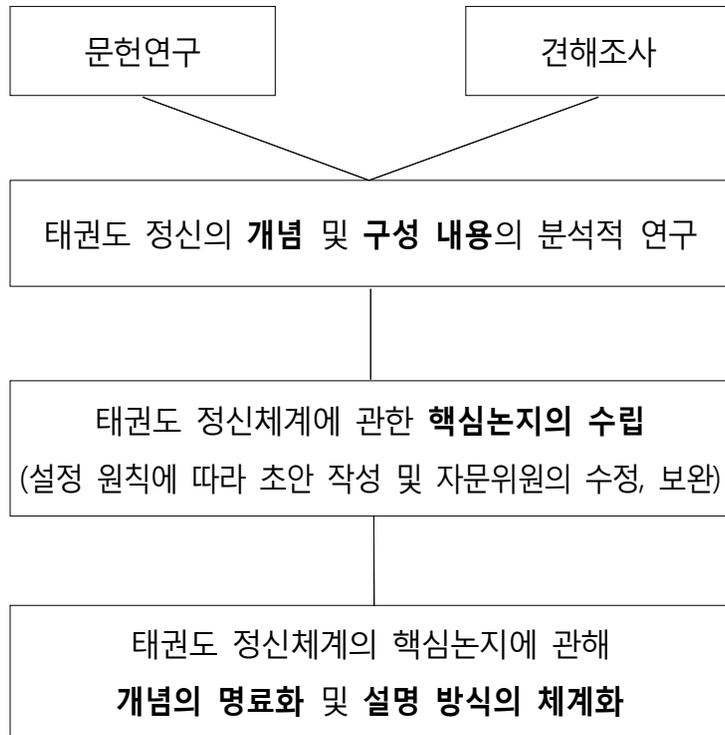


그림 I-2. 연구 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 국기원(2006). 태권도교본. 국기원. 60.
- 국기원(2012).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40년사. 국기원.
- 국기원공식홈페이지. <http://www.kukkiwon.or.kr>. 2015년 6월 25일 검색.
- 디자인센터 국내심볼로그. 국기원 http://ivdesign.co.kr/sp/symbol_logo.29452. 2015년 5월 25일 검색
- 김영선(2011). 태권도 정신론. 1급 태권도지도자 연수교재. 국기원. 72.
- 김영선,곽정현,이세환,박선미(2014). 2013 태권도 교육백서. 세계태권도연수원. 11-12
- 김영선(2015). 태권도 정신에 대한 김영선의 견해는? 서성원기자. 태권저널. 2015.01.15.
<http://www.taekwonjournal.com/news/article.html?no=827>
- 김천기(2013).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33-38.
- 대한태권도협회(1972). 태권도교본 품세(품새)편. 대한태권도협회. 14.
- 동아닷컴뉴스(2015.9.20). ‘틱장애’ 제자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2심도 실행.
<http://news.donga.com/List/3/0304/20150920/73749490/1>
- 매일신문(2015.11.29.).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0대 수강생 5년간 ‘성폭행, 촬영, 협박’ 충격.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6406&yy=2015
- 무카스미디어(2014.9.15.). 자살부른 편파판정. 학부모 청탁으로 시작된 ‘승부조작’. 한혜진기자. https://www.mookas.com/media_view.asp?news_no=15418
- 박철희(1957). 파사권법. 강덕원. 17.
- 석봉래(1992). 물질과 의식. 역자 서문. 서울: 서광사.
- 송형석, 배영상, 이규형(2005). 태권도의 철학적 탐구. 태권도란 무엇인가. 대구: 이문출판사.
- 이원국(1968). 태권도교범. 서울: 진수당. 29-30.
- 이재돈, 유동현, 송선영, 김동욱, 송정명(2014). 태권도 수련의 정신적 가치 연구. 국기원연구소 용역과제. 국기원. 220.
- 장용규, 이창후(2013). 태권도인의 상(像) 정립을 위한 연구. 국기원 태권도연구. Vol. 4. No. 2. 21.
- 황기(1950). 화수도교본. 서울: 조선문화교육출판사. 38-46.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Brody B. A.(1977), *Beginning Philosophy*. New Jersey: Prentice-Hall. 이병욱역(1990). 철학과의 만남. 서울: 서광사. 10.

Jerry R. T. & Jack K. N.(2001), *Research Methods in Physical Activity*. Fourth Edition. Champaign. Human Kinetics. 김병식, 김상국, 남덕현, 윤승호 역(2004). 스포츠연구법. 서울: 대한미디어. 136.

Ⅱ 태권도 정신체계



국기원
세 계 태 권 도 본 부

1. ‘태권도 정신체계’의 기본 개념

본 연구의 주제인 ‘태권도 정신’을 비롯하여 ‘태권도 수련자 신조’, ‘태권도 지도자 행동강령’, ‘태권도인 상(像)’ 등 네 가지 태권도 정신과 교육 영역을 포괄하여 ‘태권도 정신체계’란 용어로 조작적인 정의(定義)를 한다. 여기서 ‘정신’과 ‘체계’란 두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新造語)인 ‘정신체계’를 도입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체계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말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말하며 영어로는 ‘system’으로 번역된다(국립국어원). 철학에서는 객관적으로 이것은 서로 구별되는 여러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전체적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된다. 즉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조직된 지식의 통일된 전체로 체계가 정의된다(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12).

태권도 영역에서는 ‘수련체계’ 또는 ‘기술체계’란 명칭이 흔히 사용되는데, 이는 기본 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호신술, 시범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세부적인 기술과 상세한 설명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최치선외, 2013; 임신자, 2010; 이경명, 2005; 정태성, 2010).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기술체계와 상응하는 취지에서 태권도 정신 뿐만 아니라 다른 세 가지 구성 요소 모두를 의미적으로 포괄하는 ‘태권도 정신체계’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정신체계란 명칭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태권도가 크게 기술과 정신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정신은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의 태권도 기술체계와 비견될 정도로 조직화된 태권도 정신체계가 그 세부적 구성요소 및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제시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태권도 정신에 대한 학술적 설명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정신의 개념들을 현장 태권도인들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에까지 형상화시킬 수 있는 수련자 신조와 지도자 행동강령은 물론 이상적 태권도인 상(像)까지 제시할 수 있는 방대하면서도 상세한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태권도 정신체계’는 태권도 정신에 관한 이론이자 실천적 지식으로서, 강인한 정신력이나 의지력의 고양을 포함한 개인적 차원의 성향은 물론이고 사회적 차원의 덕목, 나아가 태권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념 등을 포괄하는 내용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태권도 정신체계는 기술체계와 더불어 태권도의 가치를 크게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태권도 정신체계’는 태권도 정신을 핵심으로 한 이론적 개념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과 하위 영역 등 세부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할 뿐만 아니라 태권도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천적 지침으로서 수련자 신조나 태권도 지도자 행동강령 그리고 바람직한 태권도인 상(像)을 망라한 이론이자 실천적 지식이 될 것이다.

2. 왜 ‘태권도 정신’이 아니라 ‘태권도 정신체계’인가?

선행연구와 견해조사지를 분석한 결과 태권도 정신이란 명목 하에 하나의 차원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다차원적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 차원에 속해 있는 가치들을 태권도 정신이라는 단일 차원으로 묶어낼 경우에 태권도 정신의 이해와 관련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렇게 구성된 혼합 차원적 태권도 정신은 그 규범적 기능(방향 안내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미 연구 구상단계에서 태권도 정신을 이념, 사회적 덕목, 개인의 심적 능력 등 세 차원으로 구별할 필요를 느꼈고, 그와 같은 생각을 견해조사지 관련 문항에 보충설명으로 삽입하여 태권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사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이와 같은 정신 차원의 분류가 필요하며 적절하다고 말하였다.

정신체계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허인욱의(2014)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상위 개념인 태권도 정신과 그 정신을 얻기 위해 수련과정에서 태권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하위 개념의 태권도 수련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수련 원칙은 수련자가 가져야 할 수련 과정에서의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권도 지도자들이 수련생을 가르치는 기준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말한다. 상위 개념인 태권도 정신에 도달하기 위한 하위 개념으로 태권도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태권도인의 자세는 다시 태권도 수련인의 자세와 태권도 지도자 수칙으로 구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허인욱의 이 같은 주장은 본 정신체계가 설정되는 데 큰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이와 같은 태권도 정신 관련 분야에 대한 구별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이미 태권도 정신이 단일 차원으로 묶을 수 있는 가치들의 모음이 아니라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가치체계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이상의 경험 및 사유 과정에 더해, 국기원 측과 협의과정에서 ‘공인 태권도 정신 수립’이 아니라 ‘공인 태권도 정신체계 수립’으로 연구주제의 폭을 확장하고, 그 하위 내용으로서 ‘태권도 정신’, ‘태권도 수련자

신조, ‘태권도 지도자 행동강령, ’태권도인 상(像)’ 등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서 기존의 포괄적 ‘태권도 정신’(이념, 사회적 덕목, 심적 능력을 모두 포괄)과 태권도 정신체계의 하위 개념으로서 ‘태권도 정신’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연구자들은 견해조사 결과를 참고하고 이와 병행하여 수행된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이념 차원의 정신 요소만을 태권도 정신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및 개인적 덕목 차원의 태권도 정신은 수련자 신조나 지도자 행동강령에 별도로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견해조사 결과에서도 세 차원의 가치군 가운데서 이념 차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가장 많았다.

- 이와 같은 이념과 신조/강령의 구별 및 표기 방식의 정당성
- 이념 수준을 정신으로 규정하고 덕목 수준은 신조와 강령으로 제정
- 태권도 정신은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일차 덕목이어야만 한다.
- 그렇지 않을 경우에 수단화 또는 도구화될 우려가 있다.
- 사회적 차원의 덕목이나 개인적 차원의 덕목은 대개 그 자체로서 좋다 또는 나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가치중립적 성격을 지닌 것들이 다수이다. 이것들이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이념에 종속될 때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상의 이유에서 연구자들은 태권도 정신을 태권도 정신체계로 범주화하였고, 태권도 정신체계의 하위요소로서 이념적 성격의 태권도 정신, 덕목 성격의 수련자 신조와 지도자 행동강령, 그리고 두 가지 특성이 구현된다. 그리고 확립된 태권도 정신의 바탕으로 바람직한 태권도의 인간상을 설정하였다.

3. ‘태권도 정신체계’의 구성 요소

전술했듯이 태권도 정신체계는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바 각 요소들의 기본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한 문장으로 풀이될 수 있다.

‘태권도 정신’이란 “태권도와 관련된 정신적 요인 중에서 태권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정신적 가치”를 말한다. 즉 태권도인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도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하고 이상향이 깃든 문구로서 '태권도 훈(訓)' 또는 '태권도인들의 좌우명(座右銘)'이라고 볼 수 있다.

'수련자 신조'는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수련자들이 현실생활에서 깊이 명심하고 주지하고 실천해야 할 굳건한 태도나 사회적 덕목이다.

'지도자 행동강령'은 어린이, 청소년 등 수련생을 교육하는 태권도 지도자들이 명심하고 지켜야할 윤리규범이자 구체적 실천사항이다.

'태권도인 상(像)'은 '태권도인의 본보기' 또는 '모범적 태권도인'으로서 바람직한 태권도인의 이미지를 말한다.

위 네 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별도의 단락 별로 각각 나누어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4. ‘태권도 정신체계’의 설정 원칙

태권도 정신체계가 보다 논리적인 구조 형식과 이론적인 적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태권도 정신’, ‘태권도 수련자 신조’, ‘태권도 지도자 행동강령’ 및 ‘태권도인 상(像)’ 등 네 가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연관성은 물론 세부적 내용을 설정하는 원리 또는 원칙들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즉, 정신체계의 각 구성 요소들의 세부 내용들이 유효적절하게 확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적절한 설정 기준을 수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태권도 정신체계의 설정 원칙은 본 연구에서 최초로 제시되는 만큼 선행연구는 전무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맡은 세 명의 구성원들이 심층적 논의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 단락에서는 태권도 정신체계의 구성상 핵심적인 설정 원칙만 제시하고 각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 원칙들은 이어지는 단락에서 상세한 설명이 제시될 것이다.

1) 태권도 정신체계의 위계적 구성 모형

태권도 정신체계의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은 태권도의 본질과 수련 행위와 핵심적이면서 구체적 연관성을 맺게 한다. 즉, 태권도 정신체계의 네 가지 각 구성 요소들은 아래의 <그림 II-1>처럼 위계적 또는 상관적 관계 등 유기적인 관련성으로 구조화됨으로써 누구든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태권도인 상’은 태권도의 수련자 신조와 지도자 행동강령 등 실천적 행위를 바탕으로 한 태권도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으로 설정된다. 또한 태권도 정신은 설정 원칙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수련자 신조와 지도자 행동강령의 세부 사항과도 개념적 연결성을 갖게 된다. 태권도 정신의 내용 설정 원칙과 내용에 준해서 하위요소인 ‘수련자 신조’나 ‘지도자 행동강령’ 등의 세부 항목과 내용들이 개념상 종속적으로 배정되도록 한다. 즉 태권도 정신의 구성 내용이 우선적으로 설정되면 그 설정된 내용들로부터 개념적으로 종속된 수련자 신조와 지도자 행동강령의 세부 내용들이 구성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2>에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태권도 정신이 수련자 신조와 지도자 행동강령 등 두 영역으로 다시 나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정신과 신조, 강령 등 세 영역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되 단지 구성 개념상 수련자 신조와 지도자 행동강령의 세부 내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용들이 상위 개념인 태권도 정신의 설정 내용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론 단락에서 상세히 명기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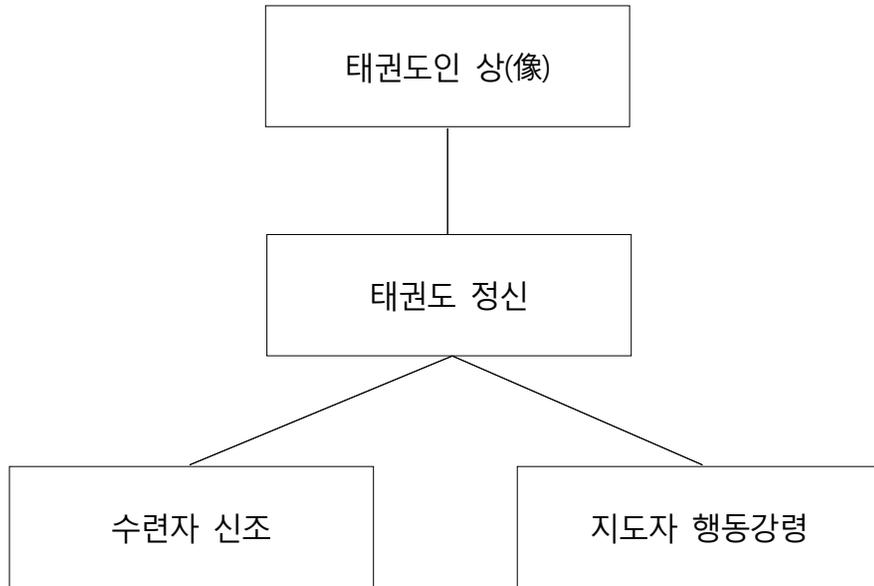


그림 II-1. 태권도 정신체계 구성 요소간의 위계적 모형

2) 이론적 구성 형식과 언어적 설명 체계의 중요성

태권도 정신체계가 많은 태권도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논리 정연한 이론적 구성과 더불어 언어적 표현 형식도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정신체계의 구성 개념과 핵심 논리 그리고 세부 항목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도출 근거는 물론 태권도인의 수련 현장과의 관련성에 이르기까지 체계성 있는 이론적 구성은 물론 태권도 현장과 구체적으로 연관되는 실질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각 정신체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은 간단명료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어야만 현장 지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3) ‘태권도 정신’의 설정 원칙

유효적절한 태권도 정신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 등 크게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형식 면에서는 ‘태권도 훈(訓)’이나 ‘태권도인의 좌우명(座右銘)’처럼 간단명료하면서도 태권도의 정신적 핵심 가치나 이념을 함축한 단어나 문장으로 태권도 정신이 표현되어야 한다. 내용 면에서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의 격투기술적 본질이나 다양한 수련 목적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핵심적 가치를 내포할 뿐 아니라 한국적 특색이 있는 태권도의 원대한 이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태권도 정신의 내용적 구성 항목으로서 새롭고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제시안 중 태권도와의 연결성 면에서 가장 보편타당성이 높은 항목들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 개념 풀이와 태권도 본질적 또는 현장적 관련성을 상세히 규명하기로 한다. 아무리 의미심장한 내용이라도 생소하거나 난해한 정신 이념 항목은 태권도인들로부터 호응과 공감대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의 결점 분석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4) ‘수련자 신조’의 설정 원칙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 정신의 하위 요소로서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태권도인들의 수련 생활과 일상 활동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태도나 심적 능력, 사회적 덕목을 명기한다. 기존의 태권도 정신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정신 항목들 중 현장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실천적 특성을 지닌 덕목들을 선별하여 수련자 신조의 세부 항목으로 배정하기로 한다.

5) ‘지도자 행동강령’의 설정 원칙

지도자 행동강령은 태권도 전문지도자이자 청소년 교육자로서 태권도 지도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전문직 능력 함양과 더불어 도덕성의 확립, 사회적 정화에 동참하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는 일원으로 실천해야할 세부 사항들이 명기된다. 아울러 현 태권도계의 사회적 비리나 명폐에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을 설정한다. 현재 태권도 교육과 경기 현장에서 유발되는 폭력, 성폭력과 성추행, 판정비리, 금품수수 등 탈법적 문제는 물론 부적절한 이성 관계, 음주, 도박, 흡연 등 제반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는 지도자의 준법정신과 윤리 도덕성의 확립 등 바람직한 행동 규범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6) ‘태권도인 상(像)’의 설정 원칙

태권도인 상은 모범적 태권도인 그 자체로서 존재 양식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태권도인의 본보기’ 또는 ‘바람직하고 이상적(理想的)인 태권도인의 이미지’를 설정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태권도인 상의 확립을 위한 핵심 논리는 태권도 정신이나 수련자 신조, 지도자 행동강령 등에 나온 제반 사항들을 현실 생활에서 부단히 실천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태권도인의 모습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다. 즉, 정신적으로 기술적으로 신체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태권도인의 구체적인 모습이 태권도인 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이경명(2005). 태권도 품새론. 서울: 상아기획. 26.
- 임신자(2010). 태권도 경기 겨루기의 기술체계 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체육학회 인문 사회과학. 49(4).
- 정태성(2010). 태권도 품새의 수련체계에 관한 기술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철학사전편찬위원회(2012).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 최치선, 임태희(2013). Gentile의 운동학습 이론에 근거한 태권도 기술체계 분류. 국기원태권도연구. 국기원. 4(3).
- 허인욱, 김 산, 남덕현(2014). 태권도 9대관 정신 및 기존 정신 리뷰 연구. 용역연구 보고서. 국기원. 81-82.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Ⅲ 태권도 정신



국기원
세 계 태 권 도 분 부

1. 서론

앞 단락에서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구성 원리가 상세히 제안되었다. 즉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태권도 정신체계는 태권도의 기초 정신과 수련자 신조, 지도자 행동강령 등을 포함하는 기능적 구분과 유기적 통합성을 갖는다. 태권도 정신체계 내에서 태권도 정신, 수련자 신조, 지도자 행동강령 들은 각 구성 요소 별로 적합한 용도를 고려하여 수립되어 태권도인들의 정신 발달에 활용될 것이다.

태권도 정신체계의 상위적 가치는 태권도 정신이다. 태권도 정신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야 수련자 신조와 지도자 행동강령도 도출될 수 있다.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기술과 짝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태권도를 인간에 비유하여,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듯이, 태권도 역시 기술(인간의 몸에 해당)과 정신(인간의 마음에 해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사용하는 개념이다.

인간의 마음에도 여러 겹이 있을 수 있듯이 태권도 정신에도 여러 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심리학이 연구하는 마음과 종교 또는 윤리가 연구하는 마음은 차원을 달리한다. 집중력, 인내력, 판단력 등이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라면, 사랑, 박애, 선한 의지, 회개 등은 종교와 윤리의 관심 대상이다(김수철, 1995).

먼저 주제가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지 질문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풀어 써 보자. 연구의 서론 단락에서 조사할 연구 주제를 명료한 질문으로 진술하는 것이 현명하다. 연구 문제의 진술은 주제에 관해 특별하고 정확한 개요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독자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독자로 하여금 연구의 주 목적을 발견하는데 유용하다(Jerry & Jack, 2001).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한 질문은 “태권도 정신이란 무엇인가?”이다. 이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난해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의 본질과 가치는 물론 수련자의 목적의식과 깊이 연관될 뿐 아니라 철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이론이 적용되는 광범위한 학술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철학만 해도 동서양의 형이상학적 존재론과 윤리학을 포함하는 가치론은 물론 도덕철학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방대한 주제가 태권도 정신이다.

아울러 “공인 차원의 태권도 정신으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가?”란 질문은 더욱 복잡다단한 문제로 확대된다. ‘공인 태권도 정신’은 1985년에 한승조 교수에 의해 처음으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로 학술적 정립이 시도된 이래 30년 이상 연구가 지속되었지만 이렇다 할 적당한 결론을 얻지 못한채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한승조, 1985). 공인 태권도 정신에 대한 이 같은 특성을 이해하면서 태권도 정신체계의 핵심이 되는 태권도 정신의 연구 목적을 진술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인 차원의 태권도 정신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태권도 정신의 개념과 근원에 관한 근본적인 지식 뿐 아니라 최근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를 탐색하고 유효적절한 수립 방안을 찾는 작업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권도 정신’을 형성하는 개념과 세부 항목 구성을 비롯한 다양각색의 선행 논지들을 검토 분석함으로써 공인 태권도 정신 수립을 위한 적절한 설정 기준을 설정되고 그에 따라 가장 적절한 공인 수준의 태권도 정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정신 과제 해결을 위해 본 연구진은 철학적 방식의 분석 연구(Analytical research)를 채용한다. 분석 연구라는 명칭이 내재하는 것처럼 복잡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제에 따른 비판적 평가를 포함한다(David & Harrison, 1988). 분석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진이 실시한 견해 조사와 문헌고찰 연구(reviews of literature)를 병행해서 실행하기로 한다.

이 문제가 난해한 만큼 그 적절한 답안을 찾기 위해서 방대하면서 세부적인 주제들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이 주제는 일반적인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과 공인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 두 가지 논점으로 구분되어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태권도 정신의 근원으로써 태권도의 정의(定義)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권도의 정의는 무도, 호신술, 교육, 체육 등과 같은 규범적인 외연(外延)으로 규정됨으로써 태권도 정신이 비롯되는 원천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태권도 정신의 개념과 세부적 하위 영역들이 파악되어야 한다. 개념이나 그 세부 영역들이 명확히 고찰됨으로써 공인 수준의 태권도 정신을 수립하는 이론적 토대를 닦을 수 있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태권도 정신의 내용들도 본 과제의 수립에 중요한 이론지식을 제공한다. 태권도 정신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물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취사선택함으로써 보편타당한 공인 태권도 정신을 수립하는 적합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다섯 째, 선행연구 분석 결과로 세워진 공인 태권도 정신 수립을 위한 설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 낸다. 공인 태권도 정신으로서 제안된 항목이 어떤 이유로 그리고 태권도와 어떤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2.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

일반적 스포츠와는 달리 태권도 수련에 내존되어 있는 정신은 태권도의 가치를 높여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태권도 정신이란 태권도 수련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올바른 인간 행동의 바탕이며 주된 수련목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국기원, 1987; 2006). 정신 영역은 태권도의 가치를 높여주는 주요 부분이므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상세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1)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에 대한 개관

축구나 야구, 테니스 등 수많은 운동 종목과는 달리 태권도 종목에 올바른 정신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태권도가 자기와 타인 모두를 해칠 수 있는 격투기술이기 때문이라면 복싱, 레슬링 등 서양 격투기보다도 태권도와 같은 동양무술들에 있어 특히 정신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질문들은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 또는 정신의 가치성에 대한 시사를 준다. 본 단락에서는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은 물론 최근에 조사된 지도자들의 인식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여러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등 사회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일반적인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과 더불어 ‘공인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태권도인에 따라서는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을 절감함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정신을 구태여 협소하게 한정시켜 제정하거나 공인화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은 태권도인에게 태권도 정신이 왜 필요한지 그 가치성의 내용에 대한 것이다. 반면 ‘공인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은 국기원 또는 태권도 기관 차원에서 공인하는 태권도 정신이 확립될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이는 국기원의 입장에서 태권도 정체성 확립의 일환으로 본 과제가 착수된 취지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2) 태권도 정신의 일반적인 필요성

태권도 정신의 일반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정된 지면에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주장들이 제시된 바 있다. 태권도의 수련 목적이 기술의 완성보다는 정신수양(mental discipline), 인격완성, 인간완성 등을 추구하는 교육적 입장이 중시되기 때문이다. 즉 기술은 수단으로 국한되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람직한 인격을 함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손천택, 2012). 특히 태권도에 반영된 교육적 수련 목적과 내용은 그 격투기술적 본질과 무도적 특성에서 기인하므로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 태권도의 격투술적 본질과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태권도의 격투기술적 본질 면에서 태권도는 수련자의 무절제한 충동이나 자만, 위협 등 부정적 언행은 종종 심각한 폭력사태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어 자기와 타인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만일 한 수련자가 오로지 길거리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술적, 체력적 수련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면 그는 사범으로부터 올바른 정신을 결여하고 있다는 충고를 들을 것이다. 어떤 지도자든지 자신의 제자가 태권도를 배워서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기보다는 심신이 강건한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송형석, 2005a). 정신이 삐뚤어진 자가 기술을 지닌다는 것은 미친 사람이 칼을 지닌 것과 같으므로 수련생들이 기술보다는 올바른 정신자세부터 확립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현대 태권도의 창시자들은 정신의 중요성을 한결같이 강조했는데, 그들이 언급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태권도 무덕관의 황기, 청도관의 이원국, 국제태권도연맹의 최홍희 등 순으로 그들이 저술한 무예 교본에 나온 정신의 중요성을 살펴보자.

무예는 기술보다 수도(修道)가 필요하다. 무예를 악용(惡用)하면 위협천만이지만 선용(善用)하면 귀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수련(精神修練)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수련인 중에는 단순한 생각으로 싸움의 도구로 또는 실전(實戰)에서 승리를 해야만 배울 가치가 있다는 등 폭언을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이는 한심한 일이며 진정한 무예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예이다(황기, 1950).

태권은 예의를 존중하는 ‘군자의 무술’이다. 이는 태권이 결코 싸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말한다. 즉 태권의 목적은 일격일축(一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擊一蹴)으로 상대를 살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연마를 통해서 신체를 단련하는 동시에 정신까지도 아울러 수양하여 덕을 배양하는 것이다. “태권에는 선수(先手)가 없다.”라 하듯이 태권에서 자진해서 남과 싸우거나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호신상의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고서 절대 태권의 위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태권의 정신을 잊고 위력적인 기술을 그릇 사용하여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 남용을 삼가야 한다(이원국, 1968).

수양이란 닦는 것인데 모든 닦음이란 노력과 인내와 지성과 계속되는 힘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성은 신념을 낳고 신념은 또한 목적을 달성케 한다. 태권도에 있어서 수양은 무도인으로써 해선 안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욕심내서 안 될 일은 욕심 부리지 말고, 오로지 태권도와 자신이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전심전력을 기울임을 말한다. 태권도에 있어서 특히 정신수양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자체의 위력이 큰 만큼 기술에만 치우치고 그를 억제하는 정신요소가 결여된다면 이는 마치 폭한에게 흥기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과 같다(최홍희, 1973).

이와 같이 태권도는 심각한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격투기술적 본질로 인해 감정이나 충동을 통제하는 정신수양이란 명목으로 굳센 의지력과 가치관이 요청되었다. 무술의 격투기적 본질을 추구하되 타인을 향한 공격성을 배제한 철학이 반영되었는데, 격투술이란 명칭보다는 ‘호신술(護身術)’로 칭하는 이유가 바로 평화적 방어 호신사상을 반영하고자하는 지도자의 의도 때문이다.

그러면 앞 단락에서 제시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살펴보자. 세계 어느 나라이든 고대에는 맨손격투기를 포함한 칼, 창, 활 등 무기를 사용해서 싸우는 무예들은 무인들의 생존을 위한 전투 기술이자 출세 수단이었다. 그런데 태권도에서 복싱, 레슬링 등 서양격투기에 비해 정신적 가치성이 더욱 중시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유불도(儒佛道) 등 동양의 정신문화 때문이다. 즉 고대부터 동양에서 성행한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태권도와 같은 동양무예에 스며들었다. 비단 한국의 태권도뿐만 아니라 유도, 공수도, 검도 등 일본 무도를 비롯하여 소림권, 태극권 등 중국무술도 그러하다. 한국, 중국, 일본은 같은 동양 문화권이었지만 특히 전투와 무예수련을 업으로 하는 무사(武士)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일본에서 근래에 와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유교의 오상(五常)을 비롯해서 충성, 용기, 명예 등 주군에

게 충성하고 개인보다는 가문을 중시하는 유교적 도덕률이 고대 및 중세 무인(武人)들에게 존재를 위한 명분으로서 작용했다. 그 예로서 충(忠), 효(孝), 신(信), 용(勇), 불살생(不殺生) 등 유교와 불교의 계율을 혼합한 화랑도의 세속오계(世俗五戒)가 고대의 무사도(武士道) 정신을 대변한다. 세부적 무술사상으로는 소림권의 깨달음과 해탈(解脫), 태극권의 주역(周易)과 기공(氣功) 사상, 검도의 검선일여(劍禪一如), 만리일공(萬里一空), 무념무상(無念無想), 부동지(不動智), 평상심 등과 유도의 유능제강(柔能制剛) 등이 있다(이진수, 2004).

태권도를 포괄시키는 유개념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것은 무예(武藝), 무도(武道), 무술(武術), 호신술, 격투술 등이다. 이들 유개념 각각은 그 의미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 상대를 물리치기 위한 '격투 기술'이란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무도란 언어 형성 과정에서 정신 단련에 치중하는 일본적인 영향이 많이 반영되긴 했지만 무도는 신체적인 기술 연마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통해 수련자의 정신성을 높이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영선, 2011).

무도(武道) 개념의 핵심은 심신수양(心身修養)이다. 특히 유, 불, 도(儒,佛,道) 등을 비롯하여 음양(陰陽), 태극(太極), 팔괘(八卦) 등 자연과 인성에 대한 철학사상이 무술 분야와 결부되었다. 무술의 원리와 구조, 무도인의 윤리관, 정신능력과 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갖가지 동양의 철학 사상과 정신 단련법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유교의 군자(君子)와 대장부(大丈夫) 사상과 도가(道家)의 도사(道士) 사상은 물론 선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소림권(小林拳)과 무사도(武士道) 등이 결부하게 되었다. 전통적 무술은 인간이 전쟁터나 개인 격투에서 생사가 걸린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상대를 살상하는 형이하학적 기술(武術)이었지만 형이상학적 개념인 도(道)가 술(術)을 대신함으로써 무도(武道)란 말이 성립하게 되었다(富木謙治, 1991). 이 같은 무도 사상의 영향으로 태권도 또한 '도(道)'가 부각된 정신적 의미가 강조된다.

이와 관련해서 송형석(2011)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태권도는 기술과 정신의 혼합체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태권도는 단순히 격투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여기에 어떤 정신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을 때라야 비로소 태권도라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신적인 요소를 배제한 채 오직 격투 기술만을 수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쪽짜리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이 된다. 온전한 의미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자 한다면 기술의 수련과 함께 정신의 수련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만 한다. 정신과 기술의 수련을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함께 할 때라야 비로소 온전한 태권도를 수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태권도에서 정신이 거론되는 이유는 태권도의 격투기술적 특성에서 기인하며 수련자 자신을 위해서든 사회를 위해서든 바람직한 태권도 수련의 목적의식을 강조하려는 지도자의 교육적 의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술과 정신은 수련의 두 바퀴에 비유할 수 있다. 즉 기술 없는 정신, 정신 없는 기술, 어떤 경우든지 수련자가 이끄는 태권도라는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수련자는 수레의 양 바퀴와도 같은 정신과 기술을 이용해서 몸(신체)과 더불어 앞으로 전진한다는 심기병행(心技並行)의 수련관이다.

기술과 정신과의 관계는 마음이 주(主)가 되고 기술은 말단(末端)이 되는 심본기말(心本技末)의 무도 사상과도 연결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술을 수단으로 도(道)를 구한다.”라고 해설할 수 있다(松本芳三, 1975). 한편으로 기술을 정신보다 더 치중하는 경향도 있다. “태권도는 기술보다도 정신이 중요하다.” 또는 “태권도의 가치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The value of Taekwondo is not skill, its spirit.)” 라는 명제에서 태권도의 기술적 실용성보다 정신수양이나 인격완성을 더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정신이 결여된 기술은 강압이나 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지만 기술이 미흡한 정신은 최소한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태권도의 가치는 분명 무도이자 스포츠라는 태권도의 특수성에 있다. 태권도의 정체성 및 체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태권도의 무도적 입장과 스포츠적 입장에서 모두 드러날 수 있는 내적 의지력과 외적 행동력이 모두 발현될 수 있는 정신세계를 하나로 정립하고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세계화의 입지를 더욱 더 다지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안영찬, 2011).

이와 같이 무도나 무예에서 정신이란 기본적으로 감정이나 충동을 통제하는 정신수양이란 명목으로 태권도의 폭력기술적 타락을 방지하는 도덕적 실행력과 더불어 심리학적인 굳센 의지력의 발휘를 의미했다. 아울러 동양의 유불선 사상으로부터 기인하는 이상적 인간상에 부응하는 사회적 덕목이 반영되고 무예 수련의 목적의식과 구체적인 기술의 원리와 결부된 이념과 사상체계에 이르기까지 정신 개념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3)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에 대한 775명의 설문조사 결과

태권도 정신의 일반적 필요성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넘어서서 태권도인들의 대중들의 사실적인 의견은 어떠할까? 태권도 정신에 대한 실증적 조사 연구들은 태권도인들의 다양한 견해들을 수치적인 비율로 명확히 알게 해준다. 많은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이며 어떤 주제에 대한 특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주요한 정보가 된다. 현대 사회과학에서 계량적 통계분석을 통한 양적 연구는 주관성에 의존하는 질적 연구 등에 비해서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면에서 장점이 두드러진다(김상욱, 2004).

이재돈 연구진(2014)이 실시한 ‘태권도 수련의 가치에 관한 연구’ 내용 중 ‘태권도 정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음 결과가 나왔다. 정확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총 775명의 조사 대상자 중 대부분이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 상세 내용으로는 복수응답 방식으로 무응답을 제외한 641개(100% 기준)의 단어가 추출되었다. 태권도에서 정신이 필요한 이유로는 예의(19.2%), 인성 또는 인성교육 (12.6%), 삶의 필수요소(7.0%), 태권도의 본질(6.2%), 올바른 가치관(5.3%), 사회성(5.3%), 태권도의 무도적 특성 때문에 정신이 필요하다(5.1%), 인내(3.6%), 심신수련(3.1%), 정신교육 (2.7%), 태권도의 유지(2.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한 대상자로부터 얻어낸 ‘태권도 수련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답변 내용도 살펴보자. 775명의 복수응답의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무응답을 제외한 1,093개(100%)의 단어가 추출되었다. 그 상세 내용으로는 인내(25.1%), 예의(18.3%), 정신력(6.4%), 자신감 (6.1%), 끈기(5.7%), 도전정신(4.3%), 인성교육(2.8%), 집중력(2.5%)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 결과를 해석하면 많은 태권도인들은 예의, 인성, 인성교육 등을 태권도 정신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로 들었으며 정신은 태권도 기술 수련과 더불어 태권도인으로서 삶의 필수 요소가 된다는 인식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의 답변에서는 ‘예의(19.2%)’가 ‘인내(3.6%)’ 보다 훨씬 많은 수치를 보인 반면 ‘태권도 수련의 정신적 가치’ 문항의 응답에서는 ‘인내(25.1%)’ 요인이 ‘예의(18.3%)’를 훨씬 상회한 수치를 보였다. 이 설문 결과는 동일한 태권도인일지라도 실질적인 태권도 수련의 목표를 완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지력으로서 인내의 가치를 예의보다 더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태권도인들의 전반적 경향은 예의, 인내 등의 5대정신과 인성교육적 관점의 태권도 가치들을 마음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응답 결과를 통해, 많은 태권도인들은 태권도 수련 또는 지도를 하는 개인적 입장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면서도 협소한 정신 덕목들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태권도 5대정신의 지대한 영향력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4) ‘공인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

(1) ‘공인 태권도 정신’이 필요한 이유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 또는 태권도 수련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는 별도로 ‘공인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인’이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어느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국립국어원). 즉 개인의 주관적 태권도 정신이 아닌 많은 태권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태권도 기관 차원에서 제정하는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이 주제는 보편 타당한 공인 수준의 태권도 정신에 관한 지식을 확립하고 교육해야 하는 국기원 지도자 연수원과 같은 기관에서는 절실한 필요성을 갖는 반면 개인 태권도인이나 현장 지도자의 개인적 관점에서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을 수 있다. 개인 수련자나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예의, 인내 등 기존의 5대정신 등을 견지하거나 개인적 가치관과 정신철학 또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덕목들을 사용하는 등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인 태권도 정신이 없어도 태권도 수련과 지도에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활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태권도의 보급발전을 주도하는 국기원이나 협회의 입장에서는 공인된 태권도 정신철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태권도 정신은 기술과 더불어 태권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므로 표준화된 태권도의 이론 체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2년 국기원이 출범한 이후로 40년이 넘도록 아직도 이렇다 할 태권도 정신이 공식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태권도 기술의 표준화 작업과

병행하여 ‘공인 태권도 정신’도 정립되어야 한다.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 차원에서 ‘공인 태권도 정신’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절실한 과제이다. 본 연구과제가 착수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지도자교육, 대학교 태권도학과, 태권도장 등 태권도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인 태권도 정신체계’가 수립됨으로써 태권도의 이론 지식이 발전할 수 있으며, 아울러 바람직하고 문무겸비한 태권도인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태권도계 최초로 공인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을 역설한 김영선(1989)은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한국의 대표적 무예로서 중국, 일본 등 여타 무술과 경쟁적 위치에 있는 태권도는 사상적 기반과 정체성 구축을 위해 각양각색의 개인적 견해에서 벗어난 명실상부한 태권도 정신론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태권도의 무예적 본질을 바탕으로 스포츠 경기로 전개되는 현 시점의 전반적 추세에 적합한 태권도인의 확고한 가치관의 설정은 공인 정신론 정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태권도의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하는 사회 일선의 태권도 도장이나 학교의 태권도 수업에서 심도 높은 태권도 교육의 기본 소재로서 공인 태권도 정신의 교육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한편 이창후(2003)는 공인 태권도 정신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표준화된 지식체계란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태권도의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교류와 적절한 정체성의 확립. 이를 통한 통합을 위해서는 태권도 정신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즉 태권도 정신의 정립이 태권도의 교류를 촉진하고 광범위한 태권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특히 공식적인 지도자 교육을 주관하는 국기원 연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인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지도자교육에서 표준화되지 못한 과목은 담당 강사의 주관성에 따라 지식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안영찬(2011)은 “현재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태권도의 정체성 논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기준과 태권도의 정신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바로 잡고 수정, 보완하는 노력은 물론 올바른 해석과 이해를 통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할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태권도 정신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태권도 정신은 지도자이든 학자이든, 개인의 주관적 다양성에 간혀 있어서는 ‘태권도’라는 큰 틀의 공동체가 구심점을 형성할 수가 없다. 개인 차원의 각양각색의 주장과 이론들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여러 방법을 통해 이론이 여과되고 결집됨으로써 공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인 수준의 핵심 이론으로 진보되어야 한다. 특히 현 시점에서 태권도는 다른 무술하고 차별화된 수준의 정체성 확립과 표준화 차원에서 공인 태권도 정신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김영선, 2015.1.15).

본 연구자는 앞의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공인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을 다음 다섯 가지 이유로 정리했다. 첫째, 태권도는 흥미 위주의 스포츠나 운동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이자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한 심신 통합 수련의 주요 종목이므로 공인 태권도 정신의 확립은 태권도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둘째, ‘공인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보급과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선도장에서 어린이, 청소년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 교육의 주요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인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인의 건전한 가치관과 신념 체계를 형성시키는 바탕이 되므로 바람직한 태권도계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공인 태권도 정신’은 다른 무술과 차별화된 ‘국기(國技) 태권도의 정신 철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공인 태권도 정신’은 국기원에서 발간하는 태권도 교본이나 지도자 연수 교재 뿐 아니라 국기원 공식 홈페이지에도 삽입되어야 할 주요한 지식 체계이다. 아울러 공인 태권도 정신을 제정한 작업의 결과물은 국기원 지도자 교육 현장과 일선 도장에서도 긴요히 활용될 수 있으리라 예견된다. 이 같은 여러 이유들은 본 과제 착수의 명분과도 부합하며 공인 태권도 정신이 태권도 수련자의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서 태권도계 전반적 공감대를 조성함으로써 태권도의 이론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와도 직결된다.

(2) ‘공인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어떤 이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 종사자들의 대중적 의견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인 태권도 정신’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주관적 경향의 태권도 정신을 범 태권도적 지식체제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채용되는 실증적 조사방법으로부터 필수적이며 관련 주제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얻어낼 수 있다. 사회과학 방법론은 특정 주제들에 대해 설문조사나 심층면담 등의 실증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우리는 신문이나 대중매체에서 저명인사들이 설문 조사 결과의 수치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술지에서도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로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밝히는 논문들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이성용, 2003). 본 연구진 또한 타당성 높은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서 관련 설문 조사 결과들을 검토하고 아울러 심층면담식의 견해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을 반영하기로 한다.

태권도 정신에 대한 태권도인의 인식 실태 조사 중 공인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다음 세 건의 설문조사들은 태권도인들의 사실적인 견해들을 알려준다.

태권도인 775명 대상의 설문조사(이재돈외, 2014)는 ‘태권도 정신의 통일 여부’라는 질문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 775명중 태권도 정신의 통일 여부에 대해 “통일되어야 한다.”는 응답자 수가 377명으로 48.6%를 기록했고 “통일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자 수는 374명으로 48.3%로 나타났다(무응답자 24명 제외). 공인 태권도 정신의 찬반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는 거의 동일한 백중세로 파악되었다.

한편 태권도인 145명 대상의 심층면담에서 ‘태권도 정신의 통일 여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권도 정신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가 66명(45.5%)으로 나타났으며, “통일될 필요가 없다가 61명(42.1%)”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설문 결과 역시 찬반의 응답 비율이 대등한 양상을 보였다(이재돈외, 2014).

공인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에 대한 앞의 두 조사에서 동의와 비동의의 비율이 대등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태권도 정신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과반수에 육박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이 많은 태권도인들이 공인 태권도 정신 제정에 찬성하는가하면 그에 못지않은 많은 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태권도인들이 공인 태권도 정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 유용성을 낮게 평가하는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진다.

한편 본 연구진은 총 51명의 태권도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공인 태권도 정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견해조사를 실시했다. 제정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38명(74.5%),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6명(11.8%), “필요하지 않다.”는 4명(7.8%), 무응답은 3명(5.9%)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정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압도적인 비율을 보인 것은 앞의 두 설문결과와는 대조적이다. 그 이유로는 반구조화된 견해조사 질문 형식에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취지를 담은 배경설명이 응답자들로부터 긍정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3. ‘태권도 정신’의 근원으로서 ‘태권도의 정의(定義)’

태권도 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인간문화의 한 양식으로서 태권도는 사람이 행함으로써 그 존재가 드러나듯이 태권도 정신 또한 사람의 사고나 행동 방식, 설명체계 등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태권도 정신은 어느 누구나 거론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태권도 수련에 정진했던 달인이나 지도자 그리고 지적(知的)으로 태권도를 깊이 있게 탐구했던 연구자나 학자에 의해 그 세부 내용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태권도 정신은 달인이나 지도자, 학자에 의해 두 가지 방식 즉, ‘실천적 행동’이나 ‘언어적 설명’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태권도 정신 영역에서 ‘실천적 행동’과 ‘언어적 설명’은 상호 긴밀한 관련성을 갖지만 이 단락에서는 태권도 정신에 대한 언어적 설명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기로 한다. 태권도 정신의 근원은 지도자나 학자들이 태권도 특징이나 목적의식을 간단한 문장으로 규정한 ‘정의(定義)’속에서 그 개연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의(定義; definition)’란 일반 사전에서는 “첫째,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 또는 그 뜻. 둘째, <논리> 개념이 속하는 가장 가까운 유(類)를 들어 그것이 체계 가운데 차지하는 위치를 밝히고 다시 종차(種差)를 들어 그 개념과 등위(等位)의 개념에서 구별하는 일. ‘사람은 이성적(理性的)인 동물이다.’와 같이, 판명하려는 개념을 주어로 하고 종차와 최근류(最近類)를 객어로 하는 판단으로써 성립한다.”로 풀이한다(국립국어원). 한 철학사전에서는 “어떤 대상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줌으로써 대상 개념의 특성을 설명한 종차(種差)와 그 대상이 속한 유개념(類概念)을 들어 규정하는 방식이다(임석진, 1988).”라고 설명한다. 사전의 설명에 따라 태권도의 정의는 “태권도는 ∞하는 O이다.”라는 문장 표현 형식을 띠게 된다. 여기서 ‘∞’란 부분은 대상의 특성을 설명한 종차 또는 내포에 해당하고 ‘O’는 대상이 속한 가장 가까운 개념인 유개념 또는 외연(外延), 최근류(最近類)를 말한다.

태권도를 정의한 대부분의 문장들은 이 같은 언어적 표현 형식을 띠게 되는 데, 그간 제시된 태권도의 정의 사례들을 통해 상세히 검토해 본다. 여러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태권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태권도를 글자로 풀이하면 태(跆拳道)는 발로 댄다, 찬다, 밟는다라는 뜻이요, 권(拳)은 주먹을 의미하며 도(道)는 길, 무도 혹은 방법을 의미한다. 즉 태권도란 몸에 아무런 무기도 호구도 갖지 않고 발로 뛰고 차고 밟고 피하고 그리고 손 또는 주먹으로 찌르고, 때리고, 뚫고, 막고 하는 기술에다 정신수양을 겸한 무도(武道)이다(최홍희, 1966).

◦ 태권은 적수공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체 모든 부분 특히 수족을 조직적으로 단련하여 무기와도 같은 위력을 발휘, 그 일격일축(一擊一蹴)으로 불시에 적을 쓰러뜨릴 수 있게 수련된 호신술이며, 전신을 상하, 전후, 좌우로 균등하게 합리적으로 움직여서 평상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기 때문에 수족의 발달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칠 우려가 전혀 없는 극히 이상적인 체육이다(이원국, 1968).

◦ 태권도란 인간 생존 의식의 육체적 표현인 동시에 정신 육구를 구체화하려는 체육적 활동이라 하겠다. 태권도의 모든 동작은 자아방위 본능을 기본으로 하여 점차 필요성에 따른 신념의 작용으로 소극적인 동작에서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행동 단계에 이르는 동시에 자아를 극복하고 대아의 경지에 도달하는 철학적 요소를 지닌 체육이다(대한태권도협회, 1972).

◦ 태권도란 아무런 무기나 호구(護具)도 갖지 않고 발로 뛰고 차고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고, 손 또는 주먹으로 지르고, 찌르고, 때리고, 막는 기술에다가 심신을 연마함으로써 인간(무도인)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운동이다(정찬모, 1976).

◦ 태권도란 신체적 훈련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수양을 쌓는 무도 즉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만드는 체육적 활동이다(이규석, 1982).

◦ 태권도란 건전한 인격 형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체의 중요 부위를 단련 무기화 시킴으로써 신체를 종합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동적인 무도(武道)이다(김철, 1986).

◦ 태권도는 특정한 기술과 품새를 수련하고 무기를 쓰지 않는 한국의 <무예(武藝)>이며 적극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신뢰와 용기를 제공하는 한편 내면적으로 자기 확신과 믿음을 제공해 주는 철학적 생활방식이자 호신술이다(김대석외, 1987).

◦ 태권도는 자신과 상대와의 극단적인 생존의 대립관계를 세상 안에 설정하거나 가정하고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통해 그 대립관계를 극복하는 가운데 인간의 조화된 성장과 개선을 지향하는 활동양식이다(이창후, 2000).

◦ 태권도는 단련을 통해 심신을 강건하게 하며 특히 정신 수양을 가능케 하며 예술적 심미를 느끼게 하며 나아가 바른 삶의 길을 인도하는 행동철학이다(이경명, 2003).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 태권도란 사실적으로 정의하자면, 한국 무술(싸움기술, 투기)로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떨어져서 겨루며 타격방식의 발기술 위주로 이루어진 기예이다. 그리고 규범적으로 정의하면 인간의 길, 기술의 길, 수행의 길을 걷는 기예이다(송형석외, 2005b).

◦ 태권도란 심신 수련을 통해 건전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무기를 쓰지 않는(맨손) 격투기 형식의 무도 스포츠 예술이다. 폭을 넓혀서 정의하면 태권도는 정신 교육, 심리 교육, 체력 교육, 호신 교육을 통하여 값진 삶을 추구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아를 완성시켜가는 인격완성을 추구하면서 수행하는 무도(武道)이다(이규형, 2010).

◦ 태권도는 아무런 무기 없이 손과 발의 기술 체계를 습득하여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심신의 조화와 개선을 이루어 인간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운동이다. (권오민외, 2011).

◦ 태권도는 손과 발을 사용하여 방어와 공격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정신을 연마함으로써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통 무예이다(손천택, 2011).

◦ 태권도란 신체적 견지에서 자기 방어를 위한 체계적인 몸짓으로 몸의 자유를 추구하는 심신 수련과정이다. 사회적 견지에서 올바른 생각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도덕적 실천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몸짓 교육이다. 철학적 견지에서 예(禮)를 갖춘 절제된 몸짓으로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다(김석련, 2012).

◦ 태권도는 손발을 사용하여 방어와 공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동작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무예스포츠이다(손천택, 2012).

◦ 태권도는 자신과의 끝없는 투쟁을 통한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심신을 단련하는 운동이다(김용철, 2014).

◦ 태권도란 주먹, 발 등 신체의 강한 부분을 사용하여 특히 발차기로 상대의 급소를 타격하는 한국의 맨손무예이며 강건한 신체와 건전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이다(김영선외, 2014).

태권도 정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사실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태권도라는 말의 의미가 사실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이 뒤섞임으로써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태권도는 무술, 운동경기 또

는 스포츠의 한 종목을 지칭하는 사실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태권도는 그 단어를 이루고 있는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축구, 농구, 유도, 검도 등과 같이 일련의 몸기술과 규칙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가치중립적 행위양식’을 지칭한다. 다음으로 태권도 정의에는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행위양식’을 지칭하는 규범적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태권도는 특정한 가치나 태도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행위로서 이해된다. “태권도를 배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가?”라는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속에서 태권도는 규범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송형석외, 2011).

사실적 개념으로서 태권도는 말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지만, 태권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갖는다. 한편 규범적 개념으로서의 태권도는 말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는 태권도가 극기, 용기, 인내 등과 같이 개인의 정신력을 길러주는 교육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이는 겸손, 존중, 사랑, 예절, 신의, 충, 효 등과 같은 타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길러주는 수련체계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태권도에 대한 앞의 모든 정의들은 사실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이 혼합되어 태권도의 기술적 특징과 함께 수련목적을 명기하거나 관련된 유개념을 담고 있다. 즉 태권도의 정신적 요소들은 규범적 개념과 일치되는 데, 태권도 정의를 서술한 문장 속에 바람직한 수련 목적을 서술한 종차나 유개념에서 찾아질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정신과 관련된 어휘들을 밑줄로 표시했는데, 그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자.

먼저 바람직한 수련 목적으로는 ‘정신수양’, ‘신념의 작용’, ‘자아를 극복하고 대아의 경지에 도달하는 철학적 요소를 지닌’, ‘심신을 연마함으로써 인간(무도인)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인간수행’, ‘자기완성’, ‘인격형성’, ‘자아실현’ 등이 서술되어 있다. 아울러 태권도가 종속된 유개념에는 태권도 정신적 또는 교육적 의미가 함축된 포괄적 개념어들이 제시되어 있다. 인간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뜻하는 ‘무도(武道)’, 신체 활동의 교육적 의미가 내재된 ‘체육’,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몸을 지키는 데만 사용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갖는 ‘호신술’ 등이 정신적 요소를 함축한 유개념이다. 그에 반해 무술, 운동, 스포츠, 격투기술, 활동양식 등은 규범적 요소가 배제된 사실적 의미의 유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태권도의 정의(定義) 고찰을 통해 우리는 정신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태권도를 정의한 여러 지도자 또는 학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규범적 요소인 태권도의 정신적, 교육적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그 우선적인 이유로는 태권도의 격투기술적 본질에서 야기될 수 있는 폭력적 문제가 수련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계몽적 의도가 깔려있다. 사실 태권도는 본질적으로 격투기이므로 수련자가 격투 능력과 힘이 솟구쳐 혈기가 지나친 나머지 사소한 감정에도 심각한 폭력사태가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기감정을 조절하는 절제심이나 의지력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덕목과 건전한 인격형성을 육성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정신수양, 자아완성, 참나[眞我], 무도(武道) 등의 단어에서 나타나듯이 심신일여(心身一如) 또는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진리를 추구한다는 동양사상적 수행관이 결부되어 있다. 다시 말해 무도수련의 핵심은 단지 신체적 기예의 숙달만이 아니고 가치 있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 내면적 삶의 중심을 깨닫도록 하는데 수련의 목적을 두는 것이다(이경명, 2011).

정의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로는 각 정의자마다 태권도의 본질이나 가치, 즉 어떤 사실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설명 내용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점이다. 각 정의자의 인식이나 가치관에 따라 강조하고자 하는 태권도의 수련 목적이 정신수양, 인격함양, 인간완성, 자아실현 등으로 표현되거나 무도, 무예, 체육, 스포츠, 운동 등으로 그 유개념이 규정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태권도 정의에서 드러나는 태권도 정신에 대한 각양각색의 인식과 견해들이 존재하는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정의하는 사람마다 태권도의 사실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중 어떤 점을 강조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태권도의 목적과 내용이 가지각색으로 묘사된다.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수련 목적이나 유개념을 통해 태권도의 규범적 의미가 서술됨으로써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는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이나 견해들이 무성하게 표현될 수 있다.

4. ‘태권도 정신’의 개념

태권도 정신을 상세히 고찰하기에 앞서 그 개념이 뜻하는 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권도 정신이란 용어의 명확한 의미 즉 개념 규정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올바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말하는 용어들을 정의(定義)해 보라. 당신이 ‘선(善)’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 말한 후에야 우리는 윤리학(倫理學)을 시작할 수 있다.” 라든가 “그것은 모두 정의(definition)와 관련된 문제이다.”라는 문장들은 용어의 정의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준다(안건훈역, 1993). 이 단락에서는 태권도 정신은 개념상 어떤 특성을 갖으며 어떻게 정의되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1) ‘태권도 정신’이란 용어의 난해성

태권도 정신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전에 태권도 정신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부터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 단락에서 고찰했듯이 태권도 정신의 의미에 대해서 학자나 지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가치관의 다양성으로 인해 태권도 정신을 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이다.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와 ‘정신’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특히 정신이란 난해한 단어로 인해 각자 상이한 뜻으로 ‘태권도 정신’을 연상하게 되면 개념의 혼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언어적 충돌을 야기시킨다(김영선, 2011).

그 이유로는 태권도 기술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가시적 속성을 지니지만 정신은 그 실체를 직접 볼 수 없는 비가시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비가시적 속성 때문에 태권도 정신의 의미에 관한 논의는 처음부터 어려움에 직면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일은 태권도 철학에 부여된 주요과제라고 할 수 있다(송형석, 2007).

태권도 수련의 정신적 가치를 연구한 이재돈(2014)은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정신을 논하지만, 이 ‘정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보니 태권도 정신을 하나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태권도 정신의 개념을 설명한 한 예를 살펴보자. 태권도용어정보사전(이경명외, 2010)에서는 태권도 정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태권도 정신이란 오랜 수련의 결과로서 체득되고 일상적 행동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는 태권도인의 신념, 가치, 문화 체계 등 객관적 정신체계를 말한다.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무도가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범주로서 기술의 본질, 사상, 철학 등 정신의 내면적 소산의 총칭이다.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과 정의 등 덕목이며 최고의 정신적 수준이다. 정신은 무엇보다 인간의 행동의 장이고, '나'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존재의 현현이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동시에 다른 것에 일정한 구조를 부여한다(상징, 기술, 윤리적 행위 등).

용어사전의 일반적 특성상 태권도 정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어 해설되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 정신에 대한 위의 설명은 태권도 정신의 개념이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추상적이며 복잡다단한 의미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위 사전의 설명 중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을 걷어내게 되면 태권도 정신의 핵심 어휘로서 신념, 덕목, 윤리적 행위 등 세 단어로 귀착된다. 즉 이 용어사전이 해설한 태권도 정신의 개념은 태권도 수련 행위와 관련된 태권도인 개인의 신념으로서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사회적 덕목 또는 윤리적 행위 등 사회적 차원의 행동 원칙까지 포괄하는 의미를 띠고 있다. 이 점은 태권도 정신의 하위영역으로서 개념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며 이어지는 단락에서 보다 상세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2) 태권도 정신에 대한 태권도인들의 개념 인식

태권도 정신의 내용 고찰에 앞서 태권도인들이 태권도 정신에 대한 용어 개념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그 연원과 내용을 살펴보자.

1959년 태권도 정신을 최초로 언급한 최홍희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등 5대정신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정신의 개념 규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태권도 정신을 무도정신의 일부로 간주하여 무도인이 갖추어야 할 고상한 인격의 도야를 뜻하는 정신수양을 강조했다(최홍희, 1966). 최홍희는 그의 최종 저서인 태권도백과사전에서도 태권도 정신의 개념을 규정하기보다는 5대정신과 더불어 인의예지신 등 유가(儒家)의 오상(五常)과 노자 사상, 덕을 쌓으라, 본심으로 돌아가라 라는 많은

정신적 가치가 갖는 문구들을 해설함으로써 정신수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최홍희, 1990). 그가 저술한 태권도교본들은 일반인 대상의 특성상 태권도 정신에 대한 개념을 따지는 학술적인 의미보다는 태권도인들의 정신력이나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태권도 정신의 개념 정의는 1987년 국기원 교본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태권도의 지도’ 단락에서 태권도 정신의 개념은 교육과정 즉, 지도의 주요한 소재이자 지도 목표로서 생활지도와 함께 조명된 바 있다. 그런데 국기원 교본에 서술된 태권도 정신의 개념 정의가 ‘태권도 정신철학’이 아닌 ‘태권도의 지도’ 단락에서 명기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태권도의 정신철학’ 단락에서 태권도 정신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데도 그 내용은 전연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은 국기원 교본에 나온 ‘태권도 정신철학’의 내용이 상당히 미흡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판 국기원 교본에 나온 태권도 정신철학 등 많은 내용들이 전연 수정이나 보완 없이 무려 20년이 지난 2006년판에 고스란히 재판되었다. 그 정확한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지만 교본에 등재할 만한 보편타당한 태권도 지식으로서 태권도 정신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태권도 정신의 개념은 국기원 교본에서 최초로 언급되었고 이후 여러 태권도 학자들이 태권도 정신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했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 도표로 구성되었다.

표 Ⅲ-1. 태권도 정신의 용어 개념에 대한 정의

발표자	발표 연도	출 처	태권도 정신의 용어 개념
국기원	1987	국기태권도교본	태권도 수련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올바른 인간 행동의 바탕이며 주된 수련 목표의 하나이다.
김영선	1989	태권도 정신론 정립을 위한 모색. 대한태권도협회 계간태권도지 69호	태권도의 근본 의의나 목적 또는 태권도 수련과 행위에 내포된 근원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의식이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이규석 이승환 한형조 안용규	2006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 국기원 용역과제	첫째, 태권도 수련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몸과 마음의 고양 된 상태이고, 둘째, 태권도 수련에 임하는 자세 혹은 태권도 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이다.
이창후	2007	태권도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정신. 태권도학 연구(상야기획)	태권도에서 윤리적으로 요구되는 행위규범을 지키고자하는 마음자세이다.
류병관	2007	태권도수련의 정신화 과정. 대한무도학회지. Vol. 9. No. 2.	태권도의 의식적 가치체계로서 태권도가 궁극적으로 무 엇이냐는 가치에 대한 내재적, 외재적 표현이다.
이경명의	2008	태권도 품새학	태권도의 정신이란 오랜 수련의 결과로서 체득되고 일상 적 행동에서 드러나는 태권도인의 신념, 자제력, 의지, 삶 의 태도 등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정신세계를 말한다.
이경명의	2010	태권도용어정보사전. 세계태권도연맹. (상야기획)	태권도 정신은 기술이 만들어 낸 소산물이라 할 수 있듯이 정신은 숙련된 기술의 표현에서 수반되는 내면의 표출이다.
전병술 노영선	2012	전통 사상의 구현 관점 에서 바라 본 태권도 정신 (한국문화연구 제 22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첫째, 태권도인이 응당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둘째, 태권도 안에 녹아든 정신사적 의의 (예, 스며들어 있 는 한국 전통사상)
송형석	2012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 지 제 20권)	가치중립적인 태권도기술과 그 습득과정에서 길러지는 심리의 용도를 바르게 정해주는 규범이다.
김용철	2014	태권도 예의론 (한국사진흥화원)	태권도인들의 정신과 사상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내면의 사고의식 세계를 말한다.

이상과 같이, 태권도 학자들이 단행본이나 논문을 통해 태권도 정신을 정의한 사례는

10건 정도로 그치고 있다. 태권도 정신으로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제시한 사례는 많지만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거나 해설한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그 이유로는 정신이 갖는 난해성 뿐 아니라 용어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는 학문적 접근이 다른 태권도학 분야에 비해 태권도 정신 분야에서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사료된다.

한편 본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연구진은 심층연구 방식의 견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 중에 태권도 정신의 용어 개념에 관한 주제도 포함되는데, 특기할 만한 답변 내용을 명기하기로 한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태권도 정신의 개념을 간단한 문장부터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태권도 정신이란,

- 태권도라는 문화 안에 깃든 정신이다(강신철).
-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정립된 태권도인의 가치관이다(김병운).
-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인격 도야를 지칭한다(최성곤).
- 태권도 수련자가 수련을 통해 깨닫고 얻게 되는 인간의 모범된 모습이다(남승현).
- 태권도 수련에 임하는 자세 또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안재로).
- 태권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정신을 얻을 것인가 이고 태권도인의 정신이란 내가 태권도를 배운 사람으로서 어떤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를 말한다(곽기욱).
- 태권도의 기(技)와 도(道)에서, 도(道)의 차원이다. 태권도의 도적 차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해서 이해시키려고 할 때,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권도의 정신은 태권정신을 강조하는 표현이며, 이 둘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표현이라고 보아야 하겠다(최의창).

이와 같이 태권도 정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관점에서 각양각색의 정의들이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과 철학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언어의 다양성에 김용옥(1990)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어떤 경우든 기본적인 전제는 철학, 정신 등에 대해 지금까지 규정된 모든 정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의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을 결정하게 하는 사회적 요구와 문화적 형태의 소산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태권도 정신을 정의하는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사람들의 개인적 주관성에 의존한 견해들은 공인 수준의 태권도 정신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큰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3) ‘태권도 정신’에 대한 개념 탐색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와 ‘정신’의 합성어이다. ‘정신’의 뜻으로부터 ‘태권도 정신’ 개념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태권도 정신의 용어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철학이나 심리학 등 학술서적이거나 논문으로부터 정신의 개념을 검토하고 도출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엄밀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난해한 학술적 단어 개념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나 논문 자료마다 의미와 내용에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개념의 명확한 도출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중적인 일반 사전에서 정신의 의미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정신에 대한 일반 사전들은 정신의 의미를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반면 해당 단어에 대한 학술적 전문성이 결여됨으로써 그 명확한 의미 판단과 전문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태권도인들이 태권도 정신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검토함으로써 그 세부적 의미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이 또한 두 가지 방안이 실행되어야 하는 데 첫째, 태권도 정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태권도 정신을 주제로 실시된 실증적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이같이 정신의 개념을 파악하는 각각의 방법은 나름대로 특징과 장단점이 있다.

(1) 철학 학문에서 비롯되는 정신의 개념

태권도 정신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학술 논문이나 전문서적을 살펴보자. ‘정신(mind, spirit)’은 육체(신체) 또는 물질과 대립하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 요소로서 오래 전부터 철학, 종교학, 심리학 등 학문의 주요한 연구 주제였다. 정신과 유사어로는 정기(精氣), 정령(精靈), 영혼(靈魂), 마음[心], 이성, 이념, 의식 등 수 많은 단어들이 나

타난다. 정신이란 말은 대개 영혼이란 용어와 같은 뜻으로 쓰였거나 때로는 인간의 영혼 보다 단계가 높은 신(神) 적인 기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어떤 학자는 정신을 “인간이 주변 세계에 대하여 그리고 그와 상관관계 가운데서 각 사람이 처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필요한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행동의 틀이다.” 라도 정의하기도 했다(C.A. 반 퍼슨, 손봉호역, 1989).

정신과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 말로는 크게 물질(물체), 신체(육체, 몸) 등 다수가 있다. 이것은 ‘정신’ 이라는 말이 그만큼 복잡다단하고 애매모호함을 말해준다. 마음과 몸 또는 정신과 육체와의 관계는 철학에서는 ‘심적 인과의 문제’라고 불리는 형이상학적 난제이자 풀리지 않는 철학적 수수께끼로 규정될 정도로 난해하다(하종호, 2002). 이 같은 난해하고 복잡한 용어와 개념들이 사용되는 학문적 접근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음을 알게 된다.

정신은 철학이나 사상, 이념과 유사하게 쓰이므로 관련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태권도 정신(Taekwondo spirit)을 흔히 태권도 철학(-哲學, Taekwondo philosophy)과 동일시하지만 양자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원래 철학이란 말은 희랍어 지식(지혜가 아닌) 사랑에서 나왔다. 철학(哲學)이란 한자어는 ‘밝을 哲’ 과 ‘배울 學’ 의 합성어이며 이에 해당되는 순수한 우리말은 밝은 배움이 된다. 철학의 영어명인 philosophy는 고대 그리스어인 philein(사랑)과 sophia(지;知)가 결합된 말로서, 지식에 대한 사랑 또는 학문 일반을 의미하였다(엄정식, 2002). 철학이란 인생 및 세계의 궁극적인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학(學) 또는 사물의 근본 혹은 최고의 원리를 다루는 학이라고 정의된다(황세연편역, 1987). 동시에 그 존재 방식에 관해서 철학은 자연적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인 태도를 문제로 하며 이런 뜻에서 단순한 기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상(思想)이라는 성질을 갖는다(임석진외, 2009).

그런데 흔히들 태권도 철학이란 태권도인이 가져야 할 도덕적 행위 규범의 의미로 간주되고 있다. 태권도인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정신이나 행동 원칙을 태권도 철학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개념은 틀린 바는 아니지만 태권도 철학을 협소하게 한정짓고 있다. 태권도 철학은 그러한 규범적·실천적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의 본질과 가치, 이념을 다루는 사유성과 실천성 그리고 학문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를 본질과 가치를 대상으로 철학적 방법과 견해를 적용하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는 학문 또는 바람직한 행위의 근거와 실천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김영선, 2011). 즉 태권도의 의미나 가치, 행동의 밑바탕에 깔린 사고방식과 사상 등을 문제 삼는 학문이고 태권도인의 실천적 태도와 직결되는 것이 태권도 철학인 것이다.

(2) 대중적 국어사전에서 파악되는 정신의 의미

정신의 의미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국어사전이 태권도 정신과의 관련성을 알기 쉽게 잘 설명한다. 통상의 국어사전은 어떤 단어 개념에 대한 일반적 참고자료로 활용되지만 학술적 시각에서는 그다지 신뢰성이 있는 자료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쓴 대중적, 개연적 의미가 태권도 정신과 연결되는 적합성을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태권도 정신의 개념을 사용하는 당사자 대부분은 태권도인들로서 국어사전적 의미의 범주에서 이해하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정리한 표준사전에서는 정신이란 뜻풀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첫째,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둘째,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 셋째, 마음의 자세나 태도. 넷째, (주로 일부 명사 뒤에 쓰여)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 또는 이념이나 사상. 다섯째, 철학 용어로서 우주의 근원을 이루는 비물질적 실재. 만물의 이성적인 근원력이라고 생각하는 헤겔의 절대적 정신이 대표적이다(국립국어원).

또 한 국어사전에서는 정신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정신을 생각이나 감정 따위의 작용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또는 마음을 가지는 방향(예, 의지력, 봉사의 정신) 그리고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 (예, 화랑도의 정신) 등으로 적고 있다(신기철외, 1987). 또 다른 사전에 나온 정신에 대한 정의(定義)가 관련 개념을 보다 명확하고 적합하게 구분 짓고 있다. 첫째, 마음의 자세나 태도, 예) 봉사 정신, 절약 정신,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둘째,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 예) 맑은 정신. 정신을 가다듬다, 정신을 집중하다. 정신이 번쩍 들다. 등. 셋째, (주로 일부 명사 뒤에 쓰여)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 또는 이념이나 사상, 예) 민주주의 정신, 3·1 운동의 정신. 넷째,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육체와 정신, 예) 건전한 정

신은 건전한 신체로부터 시작한다. 등이다(네이버백과사전).

이 같은 정신에 대한 여러 사전적 풀이들을 토대로 태권도 정신의 의미를 연결시켜 보면 ‘정신’은 다음 네 가지 뜻으로 구분된다.

첫째, ‘마음을 가지는 방향으로서 마음의 자세나 태도’인데 충효정신, 예의정신, 공평무사 등 올바른 사회적 덕목으로서 인격 배양과 성품 형성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뜻한다.

둘째,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으로서 정신력의 개념을 포함한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적 능력을 일컫는다. 용기, 인내 등은 사회적 덕목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과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정신적 능력에 속한다. ‘심적 능력’의 개념에는 의식의 몰입, 흐름(flow)이나 의식의 확장, 각성, 깨달음 등 태권도의 도(道)와 관련된 형이상학적, 심미적(審美的) 인식 작용도 포함될 수 있다(임석진, 1988).

셋째,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 또는 이념이나 사상’을 뜻하는데 화랑도정신, 홍익인간정신 등 태권도의 이념성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같이 정신의 개념은 사회적 덕목, 정신력 및 심미적 인식, 이념 등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고찰된 정신의 의미를 태권도와 연결시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을 가지는 방향으로서 예의, 관용, 정직 같은 사회적 덕목, 둘째, 인내, 자신감, 용기, 집중력 같은 과제 성공 위한 정신력과 심미적 의식 영역을 포괄한 심적 능력(임석진, 1988) 셋째, 태권도 수련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을 담은 이념 영역 등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 정신이라고 했을 때 개별적 인식이나 문장의 용례에 따라 세 가지 상이한 뜻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위 세 가지 세부적 의미가 혼용되어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각각 상이하면서 주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여기서 도출된 정신의 세 가지 의미를 살려 태권도 정신의 구성 원리가 설정되고 포괄적인 의미의 태권도 정신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

‘태권도 정신’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자의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법에 대해 열띤 논쟁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관점이 옳고, 어느 관점이 그르다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다. 태권도 정신의 어떤 면을 강조하느냐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그리고 태권도인 당사자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태권도 정신론이 전연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정신(spirit)과 의식(consciousness)은 사실적 판단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수께끼와 같은 형이상학적 영역일 뿐 만 아니라 가치의 절대적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도덕적 판단과 뒤엎힌 철학의 그림자와 같다(박이문, 2008).

이상과 같이 태권도 정신이란 명칭에 포함된 정신이란 단어가 상당히 복잡다단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태권도 정신’을 인식하고 소통하는데 혼란스러운 문제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정신의 개념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태권도 정신을 정의할 수 있다.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에 부여된 정신적 가치로서 태권도인이 얻고자 하는 정신력과 심미적 인식을 포함한 심적 능력은 물론 지켜야 할 사회적 덕목이며 지향해야 할 이념이다.”

5. ‘태권도 정신’의 세부 영역

태권도 정신에 대한 개념 고찰을 좀 더 깊이 있게 진행하기 위해 태권도 정신의 관련 영역 또는 세부 영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신의 개념이 철학, 심리학, 종교학의 분야에서 비롯된다 하더라도 태권도 분야에서는 태권도인들의 사고(思考)와 인식, 또 다양한 자료적 근거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구분될 수 있다.

태권도 정신에 대한 태권도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 요지를 일목요연한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

표 Ⅲ-2. 태권도 정신의 세부 영역에 대한 구분

발표자	발표 연도	출 처	영역 수	세부영역 내용
국기원	1987 2006	태권도의 지도. 국기 태권도교본 및 태권도교본. 국기원	2영역	마음의 능력으로서 정신력(의지력), 정신력 발휘의 기준이 되는 행동이념
이창후	2007	태권도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정신. 태권도학 연구(상아기획)	3영역	윤리적 덕목, 행위의 규범, 마음의 자세
류병관	2007	태권도가 정신 건강에 좋아요. (광림북하우스)	2영역	도덕성(도리정도), 실행(실천적 행동)
박대복	2009	태권도 정신특성 개념 구조 탐색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영역	자아정신, 무도정신, 인성정신, 수련정신
이경명	2010	이경명칼럼, 걸핏하면 태권도 정신을 말하는 데. 태권도타임즈	2영역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념(사상)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김영선	2011	태권도 정신론 (국기원 연수원 1, 2급 태권도 지도자교재)	4영역	정신력, 의식의 확장, 사회적 덕목, 이념
송형석 나채만	2011	태권도의 철학적 탐구 (한국학술정보)	3영역	기술적 차원, 심리적 차원, 윤리적 차원
이재돈외	2014	태권도 수련의 정신적 가치 연구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4영역	정신건강, 정신력, 정신교육, 정신철학

여기서 정신의 영역 구분에 대해 앞 단락에서 도출된 태권도 정신의 세부 영역으로서, 정신력 및 심미적 의식을 포함한 심적 능력, 사회적 덕목, 이념 등 세 가지 관련 영역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심적 능력 - 주로 개인적, 주관적, 내면적 차원의 능력이나 가치를 말한다.

‘심적(心的) 능력(Spiritual Ability)’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개념의 특성상 깊은 내포와 넓은 외연을 갖지만, 정신력과 심미적 의식으로서 주로 개인적 차원의 능력이나 내면적 가치를 말한다. 여기서는 태권도와 관련해서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심적 능력은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으로서 ‘정신력’과 ‘심미적 의식’ 둘로 다시 나누어 질 수 있다.

‘정신력(mental toughness)’은 태권도와 같은 무예와 스포츠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술 수행과 경기에서의 승리 등 자신의 목표 성취를 위해 필요한 이상적 심리상태를 뜻한다. 정신력의 하위 요인으로는 자신감, 끈기, 승부욕, 오기 등(정창희, 1998)과 인내력, 승부욕, 불굴의 투지, 한계상황 극복, 분투노력 등 다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한다(김원배, 2002). 정신력은 경기력 향상이란 엘리트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주요 요인으

로서, 스포츠심리학 뿐 아니라 최근에는 긍정심리학 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다(문용린 외, 2009). 스포츠에서 정신력이란 생각이나 감정의 조절을 통해 경기 상황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경기력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신적인 전략이나 기법으로 정의된다(박성배, 2009). 경기상황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최적의 심리상태를 오랫동안 강하게 유지하는 힘으로서 자신의 정신적인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심리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태권도 분야에서 정신력은 주로 태권도 경기인들에게 인식되는 태권도 정신의 일부로서 겨루기, 품새, 격파 등 경기에서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동요되지 않고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는 능력과 승리를 위해 각고의 훈련을 견디며 집중하며 노력을 쏟아야 하는 능력을 말한다. 태권도와 관련된 정신력 관련 어휘로는 용기, 불굴의 정신, 극기, 인내, 백절불굴, 도전, 성취, 절제 등이 있다.

한편 ‘심미적 의식(aesthetic consciousness)’ 영역은 태권도 정신의 개념에 속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 상세한 의미를 밝히도록 한다. 심미적 의식은 예술적 인식과 같은 고차원적인 심적 능력을 가리킨다(임석진외, 2009). 태권도 정신 영역의 개인적 또는 주관적 차원으로서 시인이나 예술가들의 심미적 가치와 일맥상통하며 철학의 현상학적, 심미적 각성(aesthetic or philosophical awareness or enlightenment)을 포함한다. 심미적 의식은 인간완성 또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동양 철학 또는 동양 무예의 수련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 동양적 관점에서 인간은 완성이 될 수 있는 인간을 의미하며 인간은 나의 본성 밖에 외재적으로 존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내면에서 상호교섭을 통해 형성되어 감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수련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선정(禪定)을 통해 인간의 완성(해탈, 열반)을 추구하고 유교는 수신(修身)을 통해 대장부의 완성된 인격을 길러내고 도교는 단련을 통해 불노장생의 선인의 경지에 도달한다(김용욱, 1993). 다시 말해 동양적 사고에서의 완전한 인간이란 신체훈련, 정신교육, 자기수양을 거쳐서 완전한 인간을 지향한다(이정학, 2005). 태권도 기술 수행 중에 깨달을 수 있는 몰입 경험과 흐름(flow), 내적 자각 등이 심미적 의식에 해당되며 형이상학적 자아의식이다. 무예 또는 무도 영역에서 심미적 의식은 심오한 도적(道的) 또는 내면적(內面的) 의식 차원으로부터 체험된 신체라는 소매틱 교육(somatic)의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여인성, 2001). 심신일여(心身一如), 심기합치(心技合致), 부동지(不動智), 깨달음, 평상심, 삶의 안쪽으로 초월, 심기합치(心技合致), 강(強), 속(速), 정(正), 만족, 직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直), 항심(恒心) 등은 태권도와 무예, 무도의 형이상학적 인식 등이 심미적 의식 영역에 속한다.

(2) 사회적 덕목(virtue) - 대인관계 및 사회정의(社會正義) 영역

사회적 덕목은 덕목(德目; items of virtue)을 말하는데, 충(忠), 효(孝), 인(仁), 의(義) 따위의 덕을 분류하는 명목을 말한다(국립국어원). 여기서 덕(德)이란 도덕성의 원리나 사회규범에 따른 삶과 행실 그리고 실천적 태도와 올바른 행위의 습관 및 품성으로 표현된다(하우동설, 1995). 사회적 덕목(Social virtue)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예의, 염치, 겸양, 성실 등 윤리적, 도덕적 덕목이나 규범을 뜻한다. 덕목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쌓아가고 획득하는 것이다. 덕은 성품(character)에 관한 것이지 인성(personality)에 관한 것이 아니다. 즉 성실, 정직 등이나 수줍어한다거나 내성적인 것은 인성과 관련된 것이다(최병태, 1996). 반면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공동선을 추구하며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가 곧 '도덕(道德)'과 '윤리'가 되는데 덕목은 도덕 윤리적 행위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항목이나 내용이라 말할 수 있다. 태권도 분야에서 사회적 덕목으로는 예의, 예절, 염치, 겸양, 예의, 신의, 성실, 정직, 감사심, 희생, 온화, 호국, 충효, 책임감, 술선수범, 예의범절, 애국, 준법, 신동, 중절, 약속, 명예, 개방, 의리, 호연지기, 공평무사, 도리정도, 공명정대, 청렴결백 등이 있다.

(3) 이념(idea) -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상적인 관념

이념(理念)이란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관념'으로서 그 용례로는 '건국이념으로서 나라를 세우는 데 최고 이상(理想)으로 삼는 정신'이다(국립국어원). 또 관념이란 것에 의해 의식에 형성되는 상(像)을 의미하지만, 이것과는 구별하여 이성적 사고의 작용으로 얻어지고, 사물의 본질과 그 의의, 또 사물의 창조자라는 의미를 갖게 될 때, 그러한 관념은 이념으로 불리운다(임석진외, 2009). 또 '어떤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생각이나 견해'를 말하지만 때로는 '추구하는 가치와 준수할 규범의 기준'을 이념이라 하기도

한다. ‘행정이념’이라 할 때의 이념이 그 예이다(하동석, 2010). 교육 이념(ideals of education)은 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관념을 말한다(두산백과).

이념의 개념을 태권도와 연결시켜 ‘태권도 이념’을 풀이하면 태권도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관념이 된다. 또는 태권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거나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관념을 말한다. 태권도에서 거론되는 이념으로는 홍익인간, 평화, 상생, 평화, 결백, 정의, 과사현정, 정도선행, 진성보국, 평등, 중용, 조화, 합일, 창조 등이 있다.

6. 이전에 제안된 ‘태권도 정신’의 내용

1) 태권도 정신에 관한 주요 선행 논지

태권도 정신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선행 논지나 연구결과물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권도 교본이나 지도자교육용 교재, 단행본, 논문 등에서 개진된 태권도 정신 내용들이 각 주창자에 의해 어떠한 태권도 정신 개념을 규정하였고 또 어떠한 정신 내용을 제시하였는지를 상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주요한 태권도 정신 논지는 김영선(2011)과 이재돈외(2014)의 연구 내용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다음 표로 정리되었다.

표 III-3. 태권도 정신의 다양한 구성 항목과 내용

발표자	발표 연도	출 처	태권도 정신의 세부 항목
황 기	1950	화수도교본	화랑도 세속오계(世俗五戒) 사상에 입각한 심신수련 평화정신 : 우리민족은 평화의 천사이다. 결백, 정의(正義), 화수도에 선수가 없다.
박철희	1957	파사권법 (破邪拳法)	불굴의 정신, 용기, 예절, 엄치, 극기, 정의감, 파사현정(破邪顯正) 등. 정도선행(正道善行)과 진성보국(盡誠報國)의 정신
최석남	1955	권법교본	자신감, 정신력(권법은 연마와 아울러 자기자신에 자신을 갖게 하 고, 따라서 만고 부동의 정신력을 가지게 한다.) 겸양의 덕, 무의 경 지
황 기	1958	당수도교본	허심으로 수련하며, 항상 겸양하고, 온화한 인격으로 수련해야 한다.
최홍희	1959	태권도교본	5대정신 : 예의, 엄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간단명료한 5개 항목을 지정함으로써 현재까지도 활용된다.
이교윤	1965	백만인의 태수도 교본	정신력의 통일, 안정력, 인내력, 인격완성을 위한 정신 도야
이원국	1968	태권도교범	호신방어사상, 예시예종(禮始禮終), 예절, 용기, 극기 정신수양: 예의, 온화, 공명정대, 청렴결백, 겸양 등

대한 태권도 협회	1972	태권도교본 (품새편)	자아를 극복하고 대아의 경지에 도달하는 행동 철학이다. '예의'는 마음 속에서 우리나라와 행동으로 표현되는 값진 인격의 기본이다. 예의 규범의 내용을 3쪽을 할애하여 상세히 설명함
김운용	1977	태권도 제 22호 대한태권도협회	충(忠)과 효(孝). 당시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 회장은 권두언을 통해 충과 효를 근본으로 하는 호국정신을 제안하였음.
한승조	1985 1987 2006	「한국전통사상 과태권도」제1회 세계태권도학술 발표회. 국기태권도교본 (국기원) 태권도교본(국기 원)	'민족 고유의 정신세계와 태권도'란 제목으로 화랑도정신, 무인정신, 유불선(儒佛仙), 동학 사상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항목들이 제시되었으나 정작 중요한 태권도와의 구체적 관련성 서술은 생략됨. 호국정신, 지행합일, 충효, 화랑도정신, 홍익인간, 제세이화, 경천애인, 자주정신, 평등사상, 평화정신, 결백정신, 책임감, 겸양, 예의 등 수 많은 정신 관련 이념과 덕목을 제시함
최영렬	1988	태권도겨루기론 (삼학출판사)	극기, 인내, 백련천마(百鍊千磨), 희생, 봉사정신
이규석	1993	동양사상과 태권 도 정신에 관한 고찰	극기, 술선수범, 예의범절
이경명	1997, 2000, 2002 외 다수	<빛깔있는 책들, 태권도>, <한국 전통 무예의 철 학, 태권도> 등	민족 전통의 한 사상을 중심으로 균형, 중심, 조화, 도전, 성취, (천지인)상생의 정신
하태은	1998	실전태권도(공학 사)	동서양의 무사도정신을 바탕으로 최홍희의 5대정신 형식으로 표현. 예의, 정직, 성실, 용기, 신의
안용규	1998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대한 태권도협회 용역 과제)	우리나라 전통의 '한'사상을 근간으로 태권도 수련 행위와 연관시킴. 평화정신, 애국정신, 충효정신, 예의정신, 부동심, 극기정신, 준법정신, 호연지기 등 8가지 정신 항목을 제시함.
이창후	2003	태권도 교류의 확대와 태권도 철학의 발전방 향. 태권도학 연	근본적으로 삶의 안쪽으로의 초월이며 삼재강유론적 정신체계이다. 삼재-경건함(敬), 절제(節制), 중용(中庸) / 강유 - 의(義), 예(禮)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구(상야기획)		
이규석 이승환 한형조 안용규	2006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 (국기원 용역과 제) 태권도 동작과 기상 - 정직, 극기, 신동, 중절, 정의, 태권도 예절과 규칙 - 애국, 충효, 예의, 준법, 평등 태권도 도복과 상징 - 평화, 조화, 합일, 창조, 약속
류병관	2007	태권도가 정신 건강에 좋아요 (광림북하우스) 도덕성 : 도리(규율성) - 호국, 충, 효, 예, 준법, 홍익인간 등 정 도(바른마음) - 엄치, 의리, 정의, 조화, 평등, 중절 실행(실천적 의지와 행동) - 인내, 극기, 성실, 책임감, 무연실행 등
세계 태권도 연맹	2009	태권도 정신과 올림픽 이념은 동일하며 태권도를 통해 OVEP(올림 픽 가치 교육 프로그램)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태권도 수련 자 신조를 채택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실천해 나가도록 권고한 다. OVEP(올림 픽 가치교육 프로그램) 태권도인신조 (무예신문) ① 나는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가꾸어 의롭게 산다. ②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을 사랑한다. ③ 나는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와의 신의를 지킨다. ④ 나는 이웃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나라에 충성한다. ⑤ 나는 자연과 함께하며,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김영선	2011	태권도 정신론. 1,2급 태권도지 도자 연수교재 (국기원) 삼도오덕(三道五德) 삼도(三道) : 홍익인간, 삼재강유, 심기합치(心技合致) 오덕(五德) : 예의, 인내, 용기, 공평무사, 호연지기
송형석 나채만	2011	태권도의 철학적 탐구(한국학술정 보) 윤리적 차원의 태권도 정신 : 절제, 명예, 개방성 심리적 차원의 태권도 정신 : 집중, 인내, 협동
이재돈	2011	무예와 스포츠, 그 행위의 본질 에 기반한 태권 도 정신. 국기원 태권도연구 무예로서의 태권도 정신 : 강(강함), 속(빠름), 정(정확함)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정신 : 공정, 예의, 인내, 조화, 만족

김용철	2014	태권도 예의론 (한국사신문화원)	예의, 직(直), 의리, 용기, 항심(恒心) 5대정신의 형식에 준해서 다섯 가지 단어를 들었다.
허인욱 김 산 남덕현	2014	태권도 9대관 정 신 및 기존 정신 리뷰 연구(국기원 태권도연구소)	“가라테에 ‘선수(先手)’ 없다.”를 언급하고 상위 개념인 ‘태권도 정신’과 그 하위 개념으로서 ‘태권도인의 자세’, ‘태권도 지도자 수칙’ 등 개념과 영역 구분을 제안함

2) 기존 태권도 정신의 문제점

위 선행연구 결과물은 ‘공인 태권도 정신’을 확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총 21종의 선행논지를 통해 태권도 정신에 대한 다양한 정신 항목들이 각 지도자와 학자에 따라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태권도 정신을 깊이 있게 논하기에 앞서, 공인 수준의 합당한 태권도 정신을 수립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여러 선행 논지들의 문제점은 다음 세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태권도와와의 관련성 문제이다.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의 정신이므로 당연히 태권도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태권도 정신으로서 어떤 항목이 제시되었을 때, 태권도와 구체적 연관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어떤 특정한 덕목이나 이념이 태권도 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태권도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가 연결점 확립이 필수적 조건이다. 예를 들면 태권도 정신으로 주창된 화랑도정신이나 불교의 호국사상, 도교의 무언실행(無言實行) 사상이 어떤 점에서 태권도와 관련되는지 그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고대의 무인사상(武人思想)이 지금의 태권도와 무슨 관련이 되는지에 대해 소상한 설명이 없이 그 연관성만 간략히 설명한다고 해서 태권도 정신으로 정착되기 어려운 일이다.

둘째, 태권도 정신의 항목 수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태권도 정신은 앞 단락에서 나왔듯이 심적 능력(정신력과 심미적 의식), 사회적 덕목, 이념 등 세 가지 정신의 하위 영역들이 혼합됨으로써 여러 항목들이 제안된 사례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태권도의 특성과 연관된 항목들이 적게는 3개부터 많게는 9개까지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항목 수가 많고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복잡할수록 일반적 태권도인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서 이창후(2003)는 태권도 정신이 지나치게 많은 덕목들로 구성되는 것을 오히려 수련자들이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공리공론의 산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를 들면 안용규(2006)는 태권도 수련의 결과로 인해 생성되는 태권도 정신으로 우리 전통의 「한」 철학 사상을 근간으로 평화 정신, 애국정신, 충효 정신, 예의 정신, 부동심, 극기정신, 준법정신, 호연지기 등 9가지로 규정했다. 또 김영선(2011)은 삼도오덕(三道五德)으로 예의, 용기, 인내, 호연지기, 공평무사, 홍익인간, 삼재강유, 심기합치 등 총 8가지를 제안했다. 이 같이 많은 항목 수는 정신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포괄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복잡성으로 인해 일선 지도자들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웠다. 그 결과 1959년 최홍희가 주창한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등의 ‘태권도 5대정신’이 지금까지도 선호되는 실정이다.

셋째, 언어적 설명체계의 부실성이다. 태권도 정신으로 어떤 항목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태권도와 왜, 어떻게 밀접히 연관되는 지에 대해 상세하고 체계적인 설명이 따라야 한다. 태권도 정신으로 제안된 대부분의 항목들이 설득력 있는 설명체계의 미비로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개인적 주장에 그치고 말았다. 즉 태권도 정신 제안자가 어떤 항목이 태권도 정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왜 그것이 태권도 정신이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 즉 태권도와의 연관성이나 효용성을 잘 기술해주어야 그 타당성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태권도 정신이 태권도 본질이나 기술이나 수련 현장과 상통하는 설명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태권도 정신의 항목 수와 내용과 관련해서 박대복(2009)은 태권도 정신에 대한 문헌자료와 지도자 설문조사를 병행함으로써 태권도 영역에서 논의되는 수많은 정신특성 요인에 대해 예절, 수양, 절제, 용기, 노력, 투지 등 총 39개의 정신 특성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태권도 정신과 관련해서 수많은 항목들이 제안되었음을 단적으로 시사해준다.

위 수 많은 태권도 정신 내용 중에서 현재 태권도인들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누가 주창한 어떤 태권도 정신일까? 이재돈(2014)의 연구에 의하면 태권도 정신에 관한 수많은 제안 항목 중에서도 최홍희의 5대정신이 단연 으뜸으로 꼽히며 현재까지도 태권도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실증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공인 태권도 정신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홍희의 5대정신의 장단점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5대정신은 1959년 주창된 이래 태권도계의 주된 정신으로 널리 보급된 만큼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 극명하게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3) 최홍희의 5대정신의 개요

태권도 정신이 최초로 선보인 것은 1959년 최홍희에 의해 이루어 졌다. 최홍희는 자신의 ‘태권도 교본’ 서적을 통해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등의 ‘태권도 5대정신’을 주창했다. 무덕관 창시자 황기의 ‘화수도(花手道)교본(1950)’, 태권도 강덕원의 창시자 박철희의 ‘파사권법(破邪拳法. 1957)’ 등 관련 서적의 영향이 있었다 해도, 최홍희 씨의 5대정신은 태권도에 대한 그의 권위와 활발한 보급 활동상, 간단명료성이 작용하여 오늘날까지 널리 확산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기원이 설립된 이후로 최홍희의 5대정신을 대체하기 위해 지도자나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여러 정신 항목들이 제안되었다. 충효, 겸양, 배려, 관용, 절제, 도전, 성취, 용기, 화합, 상생, 조화, 정직, 평정심, 정의(正義), 공명정대, 한 철학, 삼재강유, 도리정도(道理正道)와 같은 항목들이다.

4) 최홍희 5대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

많은 태권도인들이 5대정신을 공감하고 활용하였다. 그 중 전병술과 노영선은(2012)은 ‘태권도 5대정신’은 유교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덕목인데, 이를 태권도 정신에 적용하여 태권도인이라면 응당 지녀야 할 덕목으로 설정했다. 5대정신이 갖든 수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닦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의 질서와 조화 유지에 동참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그의 주장이다.

또 박영만과 전용태(2009)는 경호수행에서 태권도 5대정신의 중요성과 적용하는 연구를 했다. 태권도 정신은 경호원의 경호임무 수행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으로 파악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첫째, 경호원들은 평상시 태권도 수련 중에 요구되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정신을 태권도수련을 통하여 수양함으로써 몸과 마음으로써 태권도 정신을 획득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렇게 체득된 태권도 정신은 경호임무 수행 중에 얻게 되는 각종 스트레스와 위해상황의 발생, 조직 내의 갈등과 같은 부정적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중요기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경호원들은 일상에서 요구되는 바른 마음가짐, 정신적 건강, 유연한 사회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바탕을 5대정신이 제공해준다는 신념을 가진다고 연구자는 결론지었다.

5) 최홍희 5대정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5대정신이 태권도 정신으로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그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었다. 특히 5대정신을 주창한 최홍희는 군부 실권자 출신으로 태권도계를 주도했던 원로였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때부터 별도의 태권도 단체를 이끌면서 태권도계와 심한 갈등을 야기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반발감으로 5대정신에 반론을 제기한 인사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정치적 입장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한 태권도 연구자인 신성환(2005)은 5대정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태권도 5대정신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터득한 삶의 지혜나 인생철학이 아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 누적되어 온 사회적 통념을 예컨대 예의, 인내 등 덕목을 태권도라는 수련체계 위에 주입시킨 것이 태권도 5대정신이다.”라는 말했다.

한편 이경명(2010)은 “최홍희의 태권도 5대정신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5대정신은 태권도를 수련하는 데 수련자가 가져야할 마음의 자세, 태도, 각오 등을 일컫는 듯하다. 다섯 가지 신조로 삼아, 일가를 이루자는 수련생들의 좌우명(座右銘·자기 옆에 갖추어 두고 반성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격언)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그의 태권도 정신은 앞서 예시한 ‘3·1정신, 민족정신’ 과는 동일한 선상의 ‘이념과 사상’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3·1정신, 민족정신이라는 경우와 태권도 정신의 차이로서 앞의 것은 과거사에 의해 도출된 정신이고, 뒤의 것은 수련에 임하는 태도로서 그 결과로 “~이라는 태권도 정신”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공간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평했다.

또 김영선(2015)은 “5대정신이 지금까지도 건재한 이유는 ‘그 간단 명료성’ 때문인데 이 오대정신이 나름 장점이 있긴 하지만 어떤 한계나 결함이 있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며 오대정신의 두 가지 중대한 결함을 이렇게 설파했다. “첫째는 개념의 중복성 문제이다. ‘염치’는 넓은 의미에서 ‘예의’ 개념에 속한다. 존경의 뜻을 표하는 예로써 나타내는 말투와 행동을 일컫는 ‘예의’는 체면을 차리고 부끄러움을 알고 행동하는 ‘염치’와도 크게 상통한다. 그리고 ‘극기’와 ‘백절불굴’ 역시 참고 견디며 노력한다는 뜻인 ‘인내’의 포괄적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오대정신은 의미상 ‘예의와 인내’, 두 가지 단어로 압축될 수 있다. 오대정신의 두 번째 문제는 ‘예의’라는 사회적 덕목과 ‘인내’라는 정신 능력, 이 두 가지 영역만으로 협소하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현재 시점에서 태권도 정신은 다양한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정신적 가치관은 물론 차별화된 한국 고유 이념을 표방해야 태권도 정체성이 상승된다고 보아진다. 태권도가 올림픽 경기에 진출하고 글로벌 한류의 원조가 된 작금의 시대에 걸 맞는 이념과 가치성이 설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련자들이 태권도 실제 수련과 더불어서 힘겨운 일상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굳센 마음가짐으로 무장해야 하고, 그리고 태권도가 올림픽 같은 국제 경기로 현재 활발히 전개되는 만큼 모든 경기 참여자들이 깊이 새기고 실행해야 할 행동 원칙도 중요하다. 아울러 세계적 보편성을 충족하면서도 특징적인 한국 고유 이념이 깃든 태권도 정신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6) 최홍희 5대정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재돈(2014)의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태권도 5대정신’에 현재 태권도인들의 선호도가 예상 밖의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다. 응답자 총 775명 중 태권도 5대 정신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태권도 5대 정신에 동의한다.”가 686명 (88.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의하지 않는다.”가 75명(9.7%)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14명(1.8%)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충격적인 설문 결과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태권도인들이 1959년, 정확히 56년 전에 만들어진 5대정신을 ‘태권도 정신’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5대정신이 공인 태권도 정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신이나 다름없으므로 굳이 바뀌야 할 필요성조차 없다는 견해들도 적지 않았다.

사실 태권도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오대정신을 대체하는 새로운 ‘태권도 정신’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는 별로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실정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7) 기타 제안된 태권도 정신

미국 A.T.A 총재였던 이행웅은 태권도의 신체적 수련과 정신적인 수련을 병행하여 인격 함양을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미국의 교육학 전문가들에 의뢰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세부 내용으로 1년 12달을 기준으로 12개 정신향목을 설정했다. 극기(self-control), 우정(friendship), 인내(perseverance), 정의(justice), 명예(honour), 예의(respect), 충성(royalty), 자신감(self-confidence), 성실(integrity), 용기(courage), 관용(generosity), 조화(harmony)가 그것이다(태권마루사이트).

그는 평소 제자들에게 “도(道)의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자신 스스로 매우 엄격했다고 전해진다. 태권도의 도는 동양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제력과 극기를 기본으로 한다”며 ▷돈을 탐하지 말라. ▷여자를 멀리하라. ▷행락을 피하라 등 이 세 가지 신조를 태권도의 도훈(道訓)으로 삼았다. 이처럼 그는 태권도 수련을 일종의 ‘생활 신조’로 삼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나는 태권도 정신으로 임한다. 동료를 아낀다. 선생을 존경한다. (중략) 1천여명의 참석자들은 전원기립 박수를 보내며 ‘마스터 리’를 소리 높여 불렀다.” ‘마스터 리’는 바로 이행웅이었다.”(태권라인미디어)

8) 견해조사에서 도출된 태권도 정신 내용

본 연구진이 실시한 견해조사에서 도출된 태권도 정신을 살펴본다. 주제는 ‘공인’ 태권도 정신의 언어 형식과 내용의 규정이었다. 질문 내용은 “단어나 문장 등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에 준해서 귀하께서는 ‘공인’ 태권도 정신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였고 다음과 같은 응답들이 도출되었다.

태권도 정신은,

“홍익인간, 파사현정, 경천애인이다.”

“기술의 소산으로서 예, 의, 인,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이다.”

“예의, 신념, 가치, 백절불굴이며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다.”

“홍익인간 정신을 구현하기위한 자기수양이다”

“인간적 성취와 상생 정신으로 弘益人間 구현을 위해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이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감투정신 인류평화, 화합, 평등, 공명정대하고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이다 - 어질고, 의로우며, 예절을 지키고, 지혜롭고 믿음을 가짐이다.”

“충. 효. 정직. 근면. 순리에 따라 세상을 살자.”

“예의, 정의감, 배려심이다.”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자신의 평화를 지키고, 가족과 국가를 지키는 평화의 정신이다.”

“예의(禮義), 정의(正義), 극기(克己), 정성(精誠)이다.”

“예의, 염치, 인내, 조화, 사랑이다.”

“예의, 신뢰(약속), 인내이다.”

“존중, 경청, 정직, 화합, 리더이다.”

“삼원(상단전, 중단전, 하단전)과 오행의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이다.”

“홍익인간, 이화세계이다.”

“무성(武聖; 무예의 성스러움)이며 효연(孝戀‘부모님께 효도하고 남을 사랑한다), 예도(禮道)예절을 수련하는 곳, 유심(有心; 깊은 마음을 닦는 곳), 부직(곧게 자란다.)이다.”

“예의, 인내, 노력, 정의, 충효이다.”

“신체로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수련하고, 이러한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다.”

“예의, 인내, 배려, 정직, 품위이다.”

“기술의 소산이며 바람직한 인간육성을 위한 체계이다.”

“인간의 삶에서 경(敬)을 실천하는 자아실현이다.”

“집중, 절제, 존경, 용기이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극기, 예의, 화합, 평화이다.”

“격투, 자기규율, 힘이다.”

“의(義), 예(禮), 신(信), 용(勇)”으로 강국화세(強國和世)를 추구한다.“

“고된 훈련을 통한 자기성취하고 사회봉사 하는 것이다.”

“올바른 삶을 통해 가는 인간완성이다.”

“인간 존엄과 내·외의 평화의 구현이다.”

“한민족의 선비정신이다.”

“예의, 모험정신, 존경심, 희생정신, 성찰이다.”

“충, 효, 신, 용, 인, 덕이다.”

“외유내강, 세계평화, 인류행복이다.”

“홍익인간, 파사현정, 심신일여이다.”

“극복, 예절, 낮춤, 자각, 의로움, 포용이다.”

“도덕성과 겸손이다.”

“예의, 염치, 인내, 사랑, 극기, 나눔이다.”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도전의식, 책임의식, 극기와 도리이다.”

“수신(修身)이다.”

7. ‘태권도 정신’의 설정 원칙

1) 이 전에 제안된 설정 원칙

공인 차원의 태권도 정신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준이나 설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어떤 원칙들을 세우고 우선적으로 적용하는가에 따라 태권도 정신의 구성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공인 태권도 정신의 설정 원칙’이라 칭할 수 있는데, 몇몇 학자들은 여러 설정 원칙 또는 조건들을 제안하였다.

공인 태권도 정신을 설정하는 원칙 또는 기준은 김영선(1989)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다. 김영선은 태권도 공인정신론이 확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의미성, 내재성, 독자성 그리고 논리적 타당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공인 수준의 태권도 정신론은 태권도 기술이나 수련 행위의 본질에 근거를 둔 바람직한 내용이어야 하고 다른 무술 사상과 구별되는 특성을 살리고 또한 논리 정연한 이론 체계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후(2007)는 공인 태권도 정신의 성립 조건에 대해, 보편성, 특수성, 단순성, 수련과의 일치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규석외(2006)는 특히 태권도 동작과 기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나, 태권도 수련상황에서의 예절과 규칙, 태권도의 직접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나, 태권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방향이거나 상징적 내용으로부터 태권도 정신이 추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재돈(2014)은 이러한 조건과는 상관없이 연구자마다 새로운 개념을 내놓거나, 기존의 개념을 통폐합하는 형태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고 언급했다.

그간 학자들이 제안한 공인 태권도 정신의 설정 원칙들은 다음과 같이 표로 요약될 수 있다.

표 Ⅲ-4. 태권도 정신 설정을 위한 기준과 조건

발표자	발표 연도	출 처	태권도 정신의 설정 조건
김영선	1989	태권도 정신론 정립을 위한 의미성 - 수련자에게 바람직한 의미를 주어야 한다. 모색. 대한태권도협회	내재성 - 태권도 행위의 본질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독자성 - 다른 무술사상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지녀야 한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계간태권도지 69호	논리적 타당성 - 논리정연하고 짜임새 있는 이론 수준이어야 한다.
안용규	1998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대한태권도협회 용역과제)	본질성 - 태권도 본질과 긴밀한 연관성 의미성 - 수련자에게 바람직한 의미를 주어야 한다. 독자성 - 다른 무술사상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지녀야 한다. 이론성 - 단편적인 신념이 아닌 일관성 있는 이론 수준
이창후	2003 태권도 교류의 확대와 태권도 철학의 발전방향. 태권도학 연구(상아기획)	보편성의 원리 - 세계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함 고유성의 원리 - 한국 문화적 정체성이나 한국적 가치성을 담아야 함 단순성의 원리 - 너무 많거나 복잡해서는 안 됨 일치성의 원리 - 기술에 근거해야만 함
이규석 이승환 한형조 안용규	2006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 국기원 용역과제	태권도 동작과 기상에서 나타나는 특징, 태권도 수련상황에서의 예절과 규칙에서 나타나는 특징 태권도 도복과 상징에 나타나는 특징 태권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방향이거나 상징적 내용
김영선	2011 태권도 정신론. 1,2급 태권도지도자 연수교재(국기원)	태권도적 연관성과 효용성을 규명하는 원리 정신의 총체적 의미를 반영하여 부여하는 원리 세부 항목 수를 적절히 선택하는 원리 효율적이고 적절한 언어적 표현성의 원리
송형석	2012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제 20권)	역사적 조건 - 전통사회에서 무예수련을 업으로 하는 집단에게 요구되었던 덕목 사회적 조건 -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태권도수련자에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덕목
허인욱	2014 태권도 9대관 정신 및 기존 정신 리뷰 연구(국기원)	태권도 정신 - 수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상위개념 태권도인의 자세 - 태권도 정신을 얻기 위해 태권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하위 개념으로서 마음가짐이며 지도자들이 수련생을 가르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2) ‘태권도 정신’의 기본적 설정 원칙

설득력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태권도 정신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한 구성 원리가 있다. 태권도인이 받아들일만한 타당성이 있는 제반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방안과 기준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태권도 정신에 대한 세밀한 검토 과정을 통해 본 연구진은 ‘(공인) 태권도 정신’ 확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을 반영하면서 세 가지 구체적인 과정을 거쳐 태권도 정신체계의 수립 방향을 정했다. 이 결론들은 태권도 정신의 개념과 하위 영역 구성과 기존의 선행연구의 설정 기준의 장단점을 고찰한 결과로부터 도출되었다. 아울러 태권도 수련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이재돈외, 2014)와 본 연구팀의 견해조사(2015)를 토대로 설정 원칙이 추가되었다.

(1) ‘태권도 정신’과 ‘수련자 신조’를 조합시키는 원칙

태권도 정신체계’는 그간의 정신의 개념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무엇보다도 본 정신체계 구성상 이전의 태권도 정신의 개념과는 전연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했다. 정신체계란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태권도 정신’, ‘수련자 신조’의 조합으로 기존의 태권도 정신 개념과 내용을 구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되었다.

(2) 태권도 정신의 간단명료성과 추상성을 반영하는 원칙

정신체계의 상위 구성 요소로서 태권도 정신은 그 핵심 가치나 기조이념으로서 간단 명료한 구성 항목이 설정되어야 한다. 반면 태권도 정신의 종속 요소인 수련자 신조에는 구체적 실천 지침을 배정할 수 있다. 태권도 정신으로 적합한 항목 수가 얼마 정도가 가장 적합할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태권도 현장과 관련되는 정신 항목을 두루 반영하면서도 태권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핵심 항목 수가 면밀히 고려되어 정해져야 한다. 아무리 태권도 정신으로 적합한 항목이라도 수가 많아질수록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복잡해지고 설득력이 저하된다. 태권도 정신 하위 항목 수는 학자 개인마다 태권도 관련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적은 항목으로 간단명료하게 지정되어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3) 태권도 정신에 정신력, 사회적 덕목, 이념을 포함시키는 원칙

태권도 정신은 앞서 고찰한 세 가지 세부적 구성요소가 총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구성원리를 채용해야 한다. 즉 우리가 태권도 정신이라고 말할 때는 개인적, 사회적, 이념적 차원으로 구분해야만 이해하기가 쉽다. 즉 인내, 용기 등 정신력(심적 능력), 예의, 공평무사 등 사회적 덕목, 홍익(인간) 등 이념성이 담긴 어휘 등이다. 이 세 가지 의미 전부가 태권도 정신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한 요인일 뿐 아니라 현 시대상황에 적합한 어휘를 채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태권도 정신이 이들 세 가지 의미 중 일부만을 담게 된다면 태권도의 현실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 미흡한 내용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4) 태권도 5대정신을 선호하는 중론(衆論)을 고려하는 원칙

최홍희 5대정신의 일부를 반영해야 하는 원칙이다. 2014년 775명의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재돈외)에 의하면 응답자의 무려 88%가 5대정신을 태권도 정신으로 긍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태권도인들의 5대정신에 대한 비중 높은 인식 상황을 고려하여 공인 태권도 정신의 구성 항목으로 5대정신의 일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진이 태권도 정신체계를 수립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현 지도자들이 5대정신에 대한 비중 높은 인식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태권도 정신에 속한 세부영역의 구분 방식에 따라 정신 항목이나 내용을 설정하는 태권도 정신으로 항목으로 생소한 정신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태권도인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5대정신 등의 기준에 제시된 정신 항목 중 가장 적절성이 높은 단어를 채택해서 그 의미를 현 태권도 상황에 맞는 의미 부여와 태권도 현장과도 구체적 연결성이 잘 설명되어야 한다.

(5) 태권도 정신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언어적 표현성을 고려하는 원칙

태권도 정신이 이론적 관점에서는 논리적인 문장으로 설명되고 말로 표현되는 언어적 형식에 준할 수밖에 없다. 이전의 정신론들을 살펴보면 언어적 설명 체계상의 문제가 적지 않다. 가능한 언어적 간결성은 물론 이해하기 용이한 표현성이 적용되어야 그 내용이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 일단 태권도 정신은 ○○이다.” 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된 정의(定義)를 규정하는 것부터 출발하여 하위 항목을 분류하고 상세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바람직하다. 태권도 정신에 대한 내용 그 자체 뿐 아니라 언어상의 표현에 있어서 어린이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만한 내용과 설명 방식이 채용되어야 한다. 논리가 맞지 않는 개념적 비약(飛躍)이나 일관성이 결여된 서술이나 복잡하고 난해한 철학적 용어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고 어려운 개념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서술 방식이 중요하다.

태권도 정신의 여러 항목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태권도인의 인생에 귀감이 되는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가치가 함축된 어구를 한글로 표기된 가훈(家訓)이나 학교의 급훈 형식도 검토되었다. 예를 들면 학교의 급훈으로는 ‘높은 이상, 알찬 실천’, 즉 “학생들이 이상을 높이 갖고 실천은 하나하나 착실하게 하여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든지 또 “힘차고 바르게 살자.”처럼 “무한의 용기와 도전 의식을 가지고 진취적인 삶과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최창학, 2005).”는 등의 문장 형식이나 언어적 표현 내용도 고려했다. 이와 같이 남녀노소 태권도인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적 표현의 단순성을 살려 태권도 정신의 구성 항목에 대한 이해하기 쉽고 상세한 설명체계가 요청된다.

이론적 구성 체계와 언어적 표현 방식도 고려되어야 한다. 태권도 정신체계가 많은 태권도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시대 상황에 맞는 논리 정연한 이론적 구성과 더불어 언어적 표현 형식도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정신체계의 구성 개념과 핵심 논리 그리고 세부 항목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도출 근거는 물론 태권도인의 수련 현장과의 관련성에 이르기까지 체계성 있는 이론적 구성은 물론 태권도 현장과 구체적으로 연관되는 실질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각 정신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은 간단명료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어야만 현장 지도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자들이 공감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세계 각국의 남녀노소 태권도인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언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6) 태권도 정신 항목이 태권도의 본질과 밀접한 연결되는 원칙

선택된 정신 항목이 태권도적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채택하고자 하는 태권도 정신 항목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태권도의 본질이나 수련 목적과 어떤 관련성을 맺는지, 아울러 태권도인의 실생활에 어떤 구체적 연결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득력 있고 태권도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논리성을 갖춘 설명 내용이 중요하다.

3) ‘태권도 정신’ 수립을 위한 5단계 설정 과정

(1) 기존에 제안된 태권도 정신의 수 많은 항목 중 핵심가치로서 대표적인 두 개의 정신 항목을 택하되 정신의 세 영역을 포괄하는 항목으로 지정하였다. 공인 수준에서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인이 수련을 통해 개인적 성취를 이루는 위해 그 바탕이 되는 내면적 가치 뿐 아니라 대외적 행동 이념 등 두 가지로 간단히 나누어 각각 정신적 핵심가치를 채택하는 방안이다.

(2) 앞에서 언급된 두 가지 하위 영역이란 ‘내면적 가치성’과 ‘대외적 가치성’이다. 내면적 가치성으로는 정신력을 포함한 ‘심적 능력’이고 대외적 가치성으로 ‘사회적 덕목’과 ‘이념’을 합쳐서 규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태권도 정신체계의 구성 원리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태권도 정신으로 태권도인의 개인적 성취에 필수적인 근원적인 의지력과 사회 덕목적 의미를 포괄하는 태권도의 원대한 이념을 설정하기로 한다. 즉 태권도 정신체계에서 ‘수련자 신조’와 연계시킨 ‘태권도 정신’으로서 태권도인 개인의 ‘내면적(內面的) 의지력’과 더불어 사회적 덕목을 포괄하는 공동선(共同善)을 함의한 대외적 이념성을 띤 간단명료한 기조 정신만 설정하는 방안이 설정되었다.

(3) 태권도 기조정신으로서 ‘내면적 가치’와 ‘대외적 행동이념’ 등 두 영역으로 구분하는 이론적 근거로는 다음과 같다. 태권도 정신이 기술과 체력 증진과 더불어 주된 수련 목표로서 그 하위 영역을 ‘마음의 능력’과 ‘행동 이념’ 등 둘로 구분될 수 있다. ‘마음의 능력’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조절하고 지배하는 정신력 또는 의지력에 해당된다. 이 정신력은 체력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집중력, 인내와 끈기, 극기, 용기, 자신감 등이 포함되는데, 기술, 체력 훈련과 더불어 향상시킬 수 있다(김성훈외, 2010). 또한 ‘행동 이념’은 양성된 정신력을 발휘하는 행동 기준이 되고 도덕적 행위의 바탕이 된다. 탁월한 격투 능력과 강한 힘을 지닌 태권도인으로서 행동방침으로서 예의, 겸손, 배려, 공정 등이 이에 속한다(국기원, 1987; 2006). 또 태권도 정신의 이원적 영역 구성과 관련하여 안영찬(2011)은 “태권도의 정체성 및 체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태권도의 무도적 입장과 스포츠적 입장에서 모두 드러날 수 있는 ‘내적 의지력’과 ‘외적 행동력’이 모두 발현될 수 있는 정신세계를 하나로 정립하고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세계화의 입지를 더욱 더 다지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태권도 정신을 ‘내적 의지력’과 ‘외적 행동력’ 등 두 가지로 구분한 견해와도 일치한다. 이 밖에도 태권도 정신의 이원적 영역 구성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들이 다음 표로 정리되었다.

표 Ⅲ-5. 태권도 정신의 이원적 구성 원칙에 대한 관련 이론

발표자	발표연도	출 처	태권도 정신과 관련된 이론
국기원	1987 2006	국기태권도교본 태권도교본	생각이나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으로서 정신력 (의지력), 양성된 정신력 발휘의 기준이 되는 행동이념
정범모	1997	인간의 자아실현. 단행본	긍정적 자아의식으로서 대내의식 (나)과 대외의식 (다른사람, 세상)
안영찬	2011	한국 태권도 정신의 시 대별 변천 과정. 석사학위논문.	태권도의 정체성 및 체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태권도의 무도적 입장과 스포츠적 입장에서 모두 드러날 수 있는 내적 의지력 과 외적 행동력 이 모두 발현될 수 있는 정신세계를 하나로 정립하고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함

김윤섭	2006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학 강의. 단행본	교육 목적에 관한 사고는 인간지향적인 것과 사회지향적인 것 의 큰 두 갈래가 있다.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기저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교육 목적의 인간지향과 사회지향은 같은 하나로 합일(合一)한다.
박재주	2012	인격함양을 위한 도덕교육. 단행본	도덕의 원리를 내적 의지력과 외적인 도리(道理) 로 규정함. 도덕은 도(道)와 덕(德)의 합성어이다. 인간이 가야 할 길이 도라면 덕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 내지 의지력이다. 인간이 따라가야 할 도리로서의 도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외적인 것이며,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인간 내적인 것이다. 그 힘을 가지고 있음이 인간다움, 즉 인격이다. 도리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도덕교육이다.

(4) 태권도 정신이 단순명료한 두 개의 단어로 된 항목으로 구성되면 모든 태권도인들이 용이하게 기억하고 주지하기에 큰 장점을 갖는다. 그렇지만 이념 등의 정신 항목이 추상적이고 난해한 특성을 지니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문장이나 상세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5) 태권도 정신과 수련자 신조의 분리 배정으로 인해 그간 정신으로 제안된 여러 항목들은 정신체계란 새로운 틀 속의 ‘수련자 신조’로 배정될 것이다. 아울러 태권도 정신과 수련자지침의 각 구성 항목의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 그 항목이 왜 공인 태권도 정신 또는 수련자지침으로 적절한지 그리고 태권도와 어떤 구체적 연관성을 맺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 체계가 제시될 것이다.

한편 태권도 정신의 심적 능력에 속하는 ‘심미적 의식’이나 소매틱 교육적 영역은 본 공인 태권도 정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그 이유는 태권도인들이 오랜 수련으로 얻을 수 있는 심미적 의식이나 통찰력은 형이상학적이고 주관적 체험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즉 신체적 기술 행위와 의식이 융합된 철학적 깨달음이나 통찰력, 심미적(審美的) 체험 등은 객관적인 정신적 가치 기준을 수립하는 공인 태권도 정신과는 별개의 영

역으로 간주되었다. 개인의 주관적, 내재적 체험의 세계는 ‘열린 개념’으로 공인 태권도 정신 영역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8. ‘태권도 정신’으로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

1)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의 설정 원칙

“공인 수준의 태권도 정신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모범 답안 설정의 첫째가는 원칙으로 오늘날 태권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념 과도 합치해야 한다는 것, 둘째 원칙으로는 간단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부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태권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근본이념은 자기완성, 자아성취 등 수련자 개인의 목표 성취와 함께 타인과의 원만한 삶을 영위하며 함께 상생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면적 가치’와 ‘대외적 행동이념’의 융합이다. 이 항목과 내용을 간단명료한 문장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판단되었다.

이런 원칙에서 정해진 것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이다. 이것은 ‘나를 이김’이란 자기 내적인 의지력 요소와 ‘세상을 이롭게 함’이란 외향적인 사회적 덕목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이념을 합친 문장이다. 태권도 수련을 통해 나약한 자기를 극복하고 자아실현을 성취하는 의지력이 바로 ‘나를 이기는 정신력’이다. 이 자아실현을 바탕으로 타인과 함께 공존하며 인류 사회에 유익한 태권도인이 되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이며 태권도 수련의 궁극적 목적이며 이념인 것이다.

이는 태권도 수련을 통한 개인적 성취를 함축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태권도인을 육성하는 태권도 교육의 목적에도 부합된다. 또한 수련자 본인의 바람직한 욕구와 목표 충족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 즉 세상을 위해 유익한 행동을 지향하는 원동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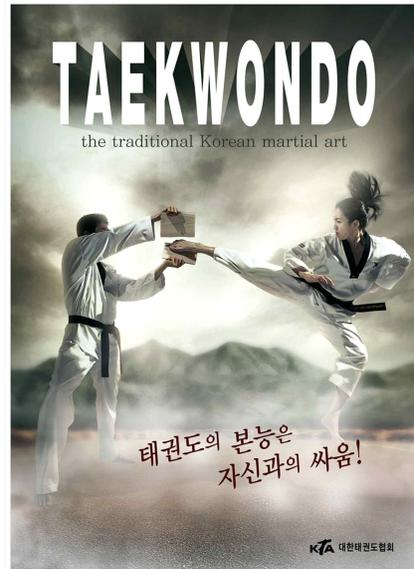


그림 Ⅲ-1. 나를 이기는 의지력은 곧 나약한 자기를 극복하고 자아실현을 이루는 능력이다.(K.T.A 포스터)

될 수 있다.

(1) 태권도의 기초 정신으로서 이원적 가치관의 융합

태권도의 교육적 관점에서 다음의 여러 질문들이 제기된다.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어떠한 정신적 가치를 얻을 것인가?”, “태권도인들은 어떠한 바람직한 정신을 가져야 하는가?”, “태권도인으로 어떤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태권도인들은 어떠한 원대한 이념을 추구해야 하는가?”

태권도 정신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이다. 즉 태권도 정신은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신적 가치이며, 태권도인들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정신이자 추구해야 할 원대한 이념이며, 태권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지표인 것이다.

태권도 정신으로 “나를 이긴다.”는 정신력 또는 의지력을 말하며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사회 덕목과 이념이 융합된 이원적 가치관이 깃들여 있다.

태권도인의 진취적 인생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나약한 자신을 이김으로써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영위하며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 것이 바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이며 자아실현과 더불어 원대한 이념을 지향하는 행동들이 태권도인의 바람직한 삶이 될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바람직한 인간 형성의 과정이자 작용이다. 이때 바람직한이란 올바름, 적절함, 합당함, 참됨, 진선미, 지덕체 등 다양한 말로 표현될 수 있다(신창호, 2005).

도덕의 의미를 태권도 정신에 결부시키면 태권도 정신은 “나를 이긴다.”란 도를 닦으며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덕행을 실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나를 이긴다.”는 인간의 내면적 구성요소이며,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외향적 구성요소이다. 또한 교육의 가치가 내재적, 외재적 구분과 합치됨을 알 수 있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2) 태권도 정신을 두 영역으로 구분한 이론적 근거

태권도의 핵심적 기조정신으로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나를 이긴다.”와 “세상을 이롭게 한다.” 등 한글로 된 두 문장이 합쳐진 것이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태권도인이 발휘해야 할 ‘굳센 의지력’과 더불어 ‘사회적 덕목’을 포괄하는 ‘원대한 이념’이 결합된 문장이다.

앞에 언급되었듯이 정신력 그리고 사회 덕목과 이념 등 태권도 정신의 세부 영역과 인간의 가치성 창출에 대한 도덕과 교육의 이원적 요소에 근거하여 태권도 정신을 채택한 것이다.

즉, ‘나를 이긴다.’ 는 내적 의지력(정신력) 또는 자기 통제력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지향적인 범주이다. 한편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대외적인 행동력이며 외적인 도리이며 사회지향적인 범주로서 함께 조합되어 인간의 건전한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를 갖는다.

2)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의 언어적 특징

태권도 정신은 정신의 구체적 실천 덕목인 수련자 신조를 도출시키는 근거가 되는 이념이므로 추상적인 언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한국 고유사상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에서 유래하여 한국적 전통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원만한 인간상’과 결부된 홍익인간의 의의를 살펴보자. 홍익인간 사상이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백낙준(1963)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홍익인간이란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이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까? 남에게 이익을 주려면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또한 해되지를 아니할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다 각각 ‘원만한 인간’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백낙준이 언급한 ‘원만한 인간’은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태권도인에게도 해당되는 아름다운 어휘이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란 문장을 ‘극기, 홍익’ 등 한자어로 간단명료하게 표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지만, 이 단어에 대한 태권도인들의 주관적인 선입견으로 인

해 본 연구진이 제시하는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이 많아, 우리 말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1)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의 언어 분석적 의미

기초 정신을 “나를 이긴다.”와 “세상을 이롭게 한다.”의 두 개념으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나를 이긴다.”는 “나를 극복한다.”라는 극기(克己)와 “나를 이긴다.”란 자승(自勝)의 의미가 혼합되어 있다. 또는 “나를 다스린다.”라는 수양(修養), 수기(修己), 치기(治己)의 의미도 포함된다. 영어로는 ‘overcome’과 또는 ‘control’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나약함과 부당함을 극복한다.”는 의미와 “나를 이겨서 성공한다.” 또는 “자기를 이겨서 목표를 성취한다.” 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다양한 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과 통하는 의미로 구체적 사회 덕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세상을 이롭게 한다.”,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 또는 “세상에 기여한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며, 영어로는 ‘contribute’로 해석할 수 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 영어로 번역된 문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장 간명하여 누구나 선호할만한 영역문으로는 “Taekwondo spirit is the overcoming of oneself and then benefiting the world”, “Taekwondo spirit is the overcoming of oneself and then benefit the world.” 등이 있다. 또 “널리 이롭게 하다.”는 “홍익하다.”와 동의어이므로 ‘to promote or to contribute public welfare’로 대체할 수 있다. ‘이기다’의 의미를 영어로 직역한 ‘winning’은 소위 말하는 konglish 해석으로 뜻이 다르게 와전될 수 있는 부적합한 단어이다(네이버영어사전).

(2)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의 언어적 표현법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태권도 정신은 그 언어의 추상성으로 인해 다양한 표현으로 전개될 수 있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나를 이겨서 성공하고 태권도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자기를 이겨서 목표를 성취하고 태권도로 널리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

“자아실현을 위해 나약함과 부당함을 이겨내고 태권도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또는

“나약하고 부당한 자기를 이겨서 참인간을 완성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태권도인이 된다.”

(3)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의 의미

태권도 기술의 본질은 맨손무술 또는 맨손격투기이다. 발차기, 겨루기, 품새, 격파 등 태권도 기술의 모든 동작들이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여 상대의 급소를 차거나 치는 방식의 타격식의 무예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에게 이기려면 먼저 나를 이겨야 한다. 상대가 강할수록 자신과 더욱 치열하게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된다.

참다운 태권도인이란 ‘나를 이기는 사람’이다. ‘난관을 이겨내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자신의 부당한 욕심을 억제하고 자신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나를 이김’은 ‘자기통제력’ 또는 ‘자기제어(self-control)’와 동일 선상에 있다.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제어’가 원활히 되어야 한다. 자기를 제어하는 사람은 운명도 제어할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를 제어하는 정도에 따라 행복과 현명함과 위대함을 얻는다. 자기를 제어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환경, 그리고 운명도 함께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김은희, 2004).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고 주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자아를 실현하여 세상에 유익한 사람’, ‘자신의 부당한 욕심을 억제하고 자신을 완성하여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참다운 태권도인이다.

태권도 정신으로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태권도인이 나약한 심성과 부당한 욕구를 극복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강인한 의지력을 양성하며 나아가 태권도 활동을 통해 널리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는 태권도의 원대한 이념을 구현한다.”라고 풀이되는 근본정신이다.

3) ‘태권도 정신’으로서 ‘나를 이김’

태권도인의 개인적 성취에 필수적인 심적 능력의 핵심가치로는 '나를 이김'이 설정되었다. 즉 태권도 정신체계에서 수련자 신조, 지도자 행동강령과 연계시킨 태권도 정신으로서 '나를 이김'의 개념은 개인의 '내면적(內面的) 의지력'을 내포한다.

(1) 태권도의 기조정신으로 '나를 이김'이 채택된 이유

태권도의 대표적 정신으로 자기 극복의 강인한 의지력을 뜻하는 '나를 이김'이 채택된 이유는 태권도와 관련을 맺는 다음 세 가지 적합성 때문이다.

첫째, 부단한 태권도 수련과 지도, 경기 등 태권도인들의 제반 활동과 영역에서 '나를 이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중론(衆論)에 의해서이다. “상대에게 이기려면 먼저 나를 이겨야 한다. 상대가 강할수록 자신과 더욱 치열하게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면에서 '나를 이긴다.'는 의미는 선수를 비롯한 태권도 수련자가 나약하고 나태한 심성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실현하기 위한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여러 태권도 학자들과 더불어 현장 지도자와 젊은 선수에 이르기까지 내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강인한 정신력의 근원으로서 '나를 이김'을 태권도 정신의 핵심적 항목으로 중요시했다.

둘째, '나를 이김'은 태권도인이 나약함을 극복하게 하는 정신력 향상 뿐 아니라 바람직한 도덕적 행위까지 작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인생 영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나를 이김(극기)의 어원이 논어의 '극기복례(克己復禮)'에서 유래하는 만큼 자기의 부당하고 사악한 욕망들을 절제하고 극복함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여러 사회적 덕목까지 확장될 수 있다(강영수, 2009). 태권도는 세계적 맨손 격투무예로서 그리고 인간 교육 수단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21세기 올림픽 경기스포츠로서 전개되는 태권도가 갖는 현저한 특징 때문에 '나를 이김'에 함축된 정신적 가치성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나를 이김'이 지닌 단어의 추상성은 전체적인 태권도 정신체계의 구성상 상위 개념에 가장 적합한 기조정신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태권도인들이 생활하는 현장에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서 필요한 수련자 신조와 지도자 행동강령의 세부 내용들은 “자기 자신을 이김으로써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태권도의 기초정신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 정신과 수련자 신조지침, 지도자 행동강령의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이 영역과 특성상의 구분된 위계성과 내적 구성상의 유기적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원리에 합치됨으로써 비로소 ‘태권도 정신체계(The system of Taekwondo Spirit)’가 성립된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 의해 ‘나를 이김’이 태권도의 기초정신으로 제시되었다.

(2) 정신적 가치로 본 ‘나를 이김’

원래 ‘나를 이김’의 동의어인 극기는 논어(論語)의 극기복례(克己復禮)에서 유래한다. 인(仁)을 몸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자가 제시한 실천 수행법이 극기였다. 극기복례의 본질적 의미는 인간의 합리적 행동질서와 인간의 자연적이고 무절제한 욕망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욕망의 절제를 통해 합리적 행동질서를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공자에 의해 제시된 하나의 수양법이라 하겠다(강동효, 2001).

‘나를 이김’은 극기복례의 극기에서 유래하지만 여기서는 정신력 또는 의지력을 뜻한다. 자기의 나약함을 이겨내고 자아실현을 위해 긍정적인 정신력을 발휘하는 것이 ‘나를 이김’이다. 태권도에서 ‘나를 이김’이란 태권도인들은 태권도 수련과 활동을 통해 나약한 욕망을 넘어서고 극복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마음’이란 연약하고 부질없는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부질없음을 이겨내는 것보다 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정신력은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한다. 정신력이라는 신비한 도구를 활용하면 승리, 성공, 번영, 행복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다. 우리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력을 이끌어 내는 현명한 지혜와 노력들이 발휘되어야 한다(슈워쯔, 2004).

‘나를 이김’과 관련해서 현자(賢者)가 알려주는 두 가지 뜻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나를 이김’이 자신에 대한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억제’가 아니라 ‘건설적 조절’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신을 돌보이고자 하는 욕심에서 자신의 진짜 성질을 억누르고 감추는 것은 자기 제어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위선’일 따름이다. 둘째는 ‘나를 이김’에는 태권도 경기와 같은 승부 세계에서 아름다운 패배의 미학(美學)

도 중요시한다. 인간이 아름다운 때는 이기고 자랑할 때가 아니다. 지고 나서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담담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를 축복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패배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순간적인 휴식을 의미한다. 그에게 패배는 다음 도전을 위한 기회이다. 깨끗하게 질 줄 아는 것. 바로 패배의 미학이 인간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Indra, 1997).

한 태권도 장애인국가대표 팀을 맡은 I 씨는 자신이 책임을 맡은 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짐을 했다(무카스, 2015.10.14).

첫째는 감독이라는 모든 기득권을 없애고 권위의식을 버리자.

둘째는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가 되자.

셋째는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임하자.

(3) 의지력 또는 정신력으로서 ‘나를 이김’

‘나를 이김’은 목표 성취, 인간 완성 또는 자기수양을 실천하는 의지력’으로서 강인한 정신력을 뜻하는 심리적인 면과 부당한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신념 또는 실천적 행동으로서 두 가지 뜻을 함축하는 데 모두 태권도 정신과 밀접히 연결되므로 상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는 ‘자기수양의 근원적인 의지력’으로서 ‘나를 이김’은 극기와 동의어이며 “욕망과 정념(情念)을 누르고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전념하는 일이다”라고 풀이된다.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많은 극기가 필요하다.”는 예문을 들 수 있다. 영어로는 perseverance, self-control 등으로 번역된다(국립국어원 ; 네이버영어사전).

‘나를 이김’의 첫 번째 뜻으로 자기의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력, 스포츠 선수의 목표 성취를 위한 ‘스포츠 정신력’ 또는 ‘자기관리’와 관계가 깊다.

‘나를 이김’이란 수련자 개인의 내면적 성취를 위한 의지력으로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 될 수 있다. 첫째는 ‘나를 이김’은 강인한 정신력의 근원으로서 힘겨운 무예 수련이나 태권도 수련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참고 이겨내며 기술 완성이나 경기에서 승리와 같은 현실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신 능력으로 작용한다. 나약한 심성이나 육체적 고통 등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누리고 싶은 욕구도 절제하고 과단성 있게 목표 성취만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것이 ‘나를 이김’의 과정이다. 근래에 유행하는 ‘극기훈련’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혹독한 신체적 훈련을 통해 담력이나 정신적 강인함까지 체득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하고자 하는 심신통합 특별 교육과정으로 선호된다.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많은 극기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다. ‘나를 이김’을 영어로 직역하면 ‘overcoming myself’ 이지만 perseverance, self-control(자기통제) 등으로 번역된다(네이버어학사전). 흔히 태권도와 같은 무예는 타인을 살상하는 투쟁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간주함으로써 자기수양을 강조하는 원로지도자의 가르침도 종종 접할 수 있다. ‘나를 이김’이란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나아가 타인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근원적인 신념이자 이념으로 될 수 있다.

두 번 째로 ‘나를 이김’은 나약하고 부당한 자아를 극복하는 도덕적 실행력이 될 수 있다. 폭 넓은 의미에서 ‘나를 이김’ 개념은 개인적 성공을 위해 나약하고 부당한 내면적 욕구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력이자 이념이기도 하다. 나를 이기기 위해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정당한 수련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수련하고, 용기와 인내를 발휘해야 한다. 아울러 폭력이나 성추행 등 개인의 탈법적 사태를 야기시키지 않는 윤리 도덕적 의지력의 실행으로 확장되는 것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다.

(4) 태권도 정신으로서 지도자들이 언급한 ‘나를 이김’의 관련 내용

태권도 영역에서 태권도인들이 추구하는 특정한 이상과 목표는 무엇일까? ‘인간완성’, ‘인격완성’, ‘자아실현’, ‘자아성취’ 등 추상적인 용어도 제시되지만 개인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 ‘성공’이나 ‘출세’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태권도인이란 통상 태권도를 수련했거나 현재 수련 중인 모든 사람을 일컫지만 개념 구성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지도자나 경기에 참가하는 전문 선수들이다. 인생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태권도 지도자에게 그리고 경기에서 승리를 지향하는 선수에 있어 ‘나를 이김’ 즉 극기 정신은 필수적인 정신 능력이다.

태권도 5대정신의 하나로서 ‘극기’를 주창한 최홍희(1973)는 극기를 태권도 수련 활동과 일상생활과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도장 내외를 막론하고 자신을 억제한다는 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이다. 가령 자유대련의 경우 어떠한 실수로 인하여 하급자나 동료로부터 맞았을 때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으로 공격을 가한다면 그것은 곧 사고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검소하고 절제 있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허영심에 사로잡힌다면 무도인으로서의 위치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극기는 현대 태권도의 초기 시절 각 도장의 창시자들이 지정했던 관훈이나 개인 교본에서도 빈번히 나타나는 주요한 정신 덕목 중의 하나이다. 현대 태권도의 주요 유파인 송무관(관장 노병직)은 극기를 관훈으로 지정했다(이정명, 2010). 그리고 청도관의 창시자 이원국과 강덕원의 창시자 박철희는 자신들이 펴낸 교본에서 부단한 태권도 기술 수련의 근원적 의지력으로서 극기정신을 언급했다.

즉 기술이라는 것은 그 진수(眞髓)를 탐구하고 수련하는 데 요하는 긴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중에서 중단한다면 도저히 정신수양을 이룰 수가 없다. … 기술과 아울러 예절, 용기, 염치, 겸양, 극기의 미덕을 닦아 자신의 생애를 더욱 빛나게 해야 한다(이원국, 1968).

무도 수련을 통해 … 어떠한 난관이 닥쳐오더라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이 함양되며 진지한 태도로서 용기, 예절, 염치, 극기, 정의감.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높은 덕성(德性)을 연마하는 정신을 기른다(박철희, 1957).

태권도계 원로인 홍중수 대사범은 “모름지기 무인(武人)은 먼저 자신을 수양해서 극기(克己)할 줄 알아야 한다[武人先修乃克]” 이란 문구를 강조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강신철, 2002). 한편 태권도 격파 기술 수련과 관련해서 강신철(2008)은 “격파란 자신과의 싸움이다. 격파의 본질은 점진적인 훈련의 반복으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 따라서 태권도의 진수에 도달하기 위해 나 자신은 극기를 기르는 과정으로 정진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극기는 전통적인 도장 지도자들 뿐 아니라 196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태권도 겨루기 경기 분야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격투기 종목의 특성상 선수들은 상대와 맞서 차고, 치고, 부딪치는 치열한 경쟁에서 부상의 고통과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탁월한 기술과 더불어 투철한 승부 근성을 갖지 않고서는 승리의 영예를 차지하기가 힘들었다. 선수들이 견디기 어려운 심신의 고통을 수반하는 훈련과 시 과정과 시합에서 갖가지 난관을 극복한다는 투철한 정신력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겨루기 수련과 경기 활동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 한 선수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휘한 ‘극기정신’을 태권도 정신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글로 표현했다(강남원, 2007). “치열한 토너먼트 경쟁 속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 그 짧은 시간에 승리를 위해 하루 5시간 이상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의 오랜 훈련, 부상을 입어도, 정상을 위해 참고 또 참는 7전 8기 정신,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 완벽한 준비를 위한 파이터들의 정신력,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체중 감량을 위해 밥, 물 거르는 그야말로 헝그리 정신, 죽을 순 있어도 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태권도 정신이다.”

이상과 같이 극기는 굳센 의지력 또는 정신력을 함축함으로써 열성적인 태권도 수련생을 길러내야 할 입장에 있는 도장 및 경기 지도자 뿐 아니라 겨루기 선수들에 이르기까지 태권도 정신의 주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5) 태권도 학자들이 설명한 ‘나를 이김(극기)’의 관련 내용

태권도 정신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은 ‘나를 이김’과 동의어인 극기를 태권도 수련 과정이나 구체적 기술과도 밀접한 중요한 심적 능력으로서 간주했다. ‘극기’를 영어로 번역하면 self-control 인데 자기통제 또는 자기조절로 표현될 수 있는데 1970년대부터 태권도학 이론 정립에 다대한 역할을 했던 김대식(1987)은 태권도 수련과 자기통제와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태권도는 단순한 호신기술 이상의 것이다. 태권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격렬하고 충동적 행동을 유발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훈련’, ‘자기통제’, ‘마음의 평온’을 갖도록 고무해주는 것이다. 즉 태권도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해주며 축적된 감정이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작용을 한다.” 라고 태권도의 정신 발달적 측면 중에서 ‘나를 이김’을 중시했다.

1998년 대한태권도협회 용역과제로서 태권도 정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안용규(1998)는 ‘극기’를 태권도 정신으로 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태권도의 수련과정에서는 자아의 극기를 통해서만이 완성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무수히 많다. 또한 태권도의 기본 동작 중에는 부동자세와도 많은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동작들은 태권도의 무도적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 태권도의 품세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동작들은 수 없이 많은 연습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극기심을 배양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기(成己)에 이르러 자아를 실현하게 된다. 즉, 주춤서기의 동작에서부터 태권도의 발차기 기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공중에서 3~4번을 찬다거나 540도를 회전해서 뒤후리기를 하는 동작에 이르기까지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겨내

는 극기의 정신이 함양되는 것이다.

2006년 국기원 용역과제로 발간된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 결과물에서는 태권도의 대표적 정신으로서 극기정신, 예의정신, 평화정신, 조화정신 등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이규석외, 2006). 그 중 극기정신은 수련 과정과 연결되어 “태권도 수련과정에서 획득되는 정신으로 예의와 더불어 극기정신이다. 태권도 수련과정에서는 자아의 극기를 통해 부단한 인내와 수련이 요구되며 수없이 많은 연습과정에서 인내와 극기정신이 체득된다. 태권도 수련과정에서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극한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이 극기정신인 것이다.”라고 해설되었다.

태권도 경기겨루기 초창기 대표선수 출신이자 전문 학자인 이규석(1993)은 극기를 예의정신, 솔선수범과 더불어 태권도 3대정신으로 규정했다. 태권도 정신과 인체 생리학적 원리를 연구한 류병관(2000)은 “무도 태권도의 정신에서 말하는 ‘극기를 통한 자기완성’이 바로 신체의 단련과 정신의 강화를 동시에 이루어야 완성되듯이 수련의 과정 없이 얻어지는 지식적 인성은 실천력이 없으면 결코 완전한 정신체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태권도 정신으로서 극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태권도 본질과 정신, 기술 등을 망라하는 50여권의 태권도 전문서적을 저술했던 이경명(2011, 이글루사이트)은 극기 등 최홍희의 5대정신과 홍익인간을 아울러서 태권도인에게 필요한 태권도 정신으로 간주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교본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태권도 정신은 ‘5대정신’과 ‘홍익인간(弘益人間)’이다. 앞의 것은 I.T.F(국제태권도연맹) 최홍희 총재가 저술한 『태권도교본(1959)』에 나온 정신이고 후자는 국기원이 펴낸 『국기 태권도교본(1987)』의 「태권도의 정신철학」에서 나온 태권도 정신이다. (중략). 최홍희는 장군 출신이어서 전쟁(戰爭)에서 필요한 무(武)의 요소인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정신과 그 인간됨의 정신으로 예의, 염치를 5대 정신에 담아냈다. 두 부류의 정신은 태권도의 수련세계에서는 고된 연마를 지속적으로 행하려면 인내하고 자기를 이기는 극기 그리고 차이고 넘어지고 하는 행위에서도 백절불굴하는 무(武)의 정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다. 홍익인간의 이념에는 남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마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태권도의 정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국기원의 교본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인류공영의 정신이 숨쉬고 있다. 태권도 정신이라는 덕목은 암기력(暗記力)과는 거리가 멀다. 몸소 보일 수 있는 몸의 예의이고 염치를 기르는 것으로 인간됨이 먼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저이다. 그 과정은 인내, 극기, 백절불굴이 따르고 함양된다. 그 다음으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호혜적 공존 지혜가 가능하다. 태권도 정신이란 인간됨이 오대 정신으로 말미암고 홍익인간이라는 인간미가 넘치는 훈훈한 향기로 다가설 수 있는 가르침이요 덕목인 것이다.

(6) 태권도 정신에서의 ‘나를 이김’의 의미

‘나를 이김’이란 말은 지극히 추상적인 어휘이므로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 준해서 극기란 어떤 사람이 ‘이상(理想)이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감정이나 욕심, 충동 따위를 이겨내거나 극복한다는 뜻이다. 즉 ‘나를 이김’이란 개인이 설정한 어떤 특정한 이상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나 행동을 말한다. 여기서 ‘어떤 이상’인지 그리고 ‘어떤 노력이나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지만 윤리적 또는 교육적 측면에서 ‘나를 이김’이란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부정적인 자아를 극복하고자하는 노력이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자아실현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있던 자아의 본질을 완전히 실현하는 일로서 인간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며, 윤리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하우동설, 1995). 자아실현은 개체의 목적과 본질을 중시하는 교육사상가들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부정적인 자아’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 장애가 될 수 있는 감정이나 욕심이나 충동을 말하며 ‘나약한 자아’와 ‘부당한 자아’를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나약한 자아는 의지가 굳세지 못한 자아를 일컬으며 어떤 과제 성취를 위해 극복해야 할 정신적 요인으로서 불안, 무기력, 좌절감, 나태감, 회피, 해이함 등이 있다. 최근에 청소년들의 극기 훈련이란 산악훈련, 해상훈련, 담력증강 교육과정을 통해 고통과 무서움을 이겨내는 신체적 강인함뿐 아니라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본자세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하여 익혀서 자기의 감정이나 욕심, 충동 따위를 이성적 의지로 눌러 이기는 것으로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있다(강보영, 2002).

4). 태권도의 제 2의 기조정신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

(1) 태권도 기조이념으로 왜 ‘세상을 이롭게 한다.’가 채택되었는가?

태권도의 원대한 이념이자 사회적 덕목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가 채택된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세계화된 태권도는 단지 자신을 위한 무예가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해 기여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전 인류를 위해 태권도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태권도는 전 인류의 건강과 전 인류의 자기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으며, 태권도인은 세계와 인류를 위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수련하는 것이 태권도의 실질적인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롭게 함’이란 ‘사회적 덕목 발휘를 위한 도덕적 실행력’을 뜻하고 태권도의 원대한 대의명분이 ‘이념(대의명분)’까지도 포괄하는 태권도의 기조정신을 구성함으로써 태권도 공동체의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2) ‘세상을 이롭게 함’이 도출된 과정

한글로 된 명사형 문장인 ‘세상을 이롭게 함’은 원래 홍익인간에서 유래하며 아래와 같은 2단계 언어적 변환 과정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 홍익인간(弘益人間) → 홍익(弘益) → ‘세상을 이롭게 함’

‘세상을 이롭게 함’이란 홍익인간에서 유래하는 한글 어휘이지만 여기서 홍익인간의 이념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원래 홍익인간이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 홍익(弘益)은 일반명사로서 ‘큰 이익’ 그리고 ‘널리 이롭게 함’이란 뜻을 갖는다(국립국어원).

태권도의 기조정신은 “나를 이긴다.”와 “세상을 이롭게 한다.” 두 문장이 결합된 것이다. “나를 이긴다.”는 ‘자기 극복’ 또는 ‘극기’에서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 또는 ‘홍익인간’에서 유래한 문구이다. ‘극기’나 ‘홍익인간’은 여러 지도자나 학자들에 의해 태권도 정신으로 오래 전부터 언급된 주요한 어휘이지만 여기서는 종전의 명칭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과 의미상으로 그리고 표현 형식상으로 차별화하는 의도에서 “나를 이긴다.”와 “세상을 이롭게 한다.”란 어휘를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 주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극기’와 ‘홍익인간’이란 각자가 자기 개념에 따라 태권도인들이 저마다 연상하는 선입견에 따라 제각각 각양각색의 불명확하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본 정신체계는 극기나 홍익인간의 의미가 종전의 개념에서 다소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본 정신체계에서 뜻하는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이유에서 종전의 ‘극기’와 ‘홍익’이 아닌 “나를 이긴다.”와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새로운 언어 개념을 도입했다.

(3) 태권도 정신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과 어떻게 다른가?

태권도의 기초 정신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란 한국 민족의 고유사상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의 ‘홍익’에서 유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구별하고자 한다.

태권도 정신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의 이념은 기존의 홍익인간의 사상적 의미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본 연구자들이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弘益人間)’ 대신 ‘인간’이란 단어를 배제한 ‘홍익(弘益)’이란 말에서 유래한 “세상을 이롭게 한다.”의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를 학술적 근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홍익인간’ 이념은 한민족 건국신화의 기본 통치사상으로 전해 왔으며,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홍익인간’ 이념으로부터 국내적으로는 민족정체성 확립, 세계화 부작용 견제, 사회통합과 도덕적 정화, 민족화합과 남북통일 수행, 인류문명의 이상 제시 등과 같은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반면에 이 ‘홍익인간’ 이념은 세계화 실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족주의의 한계, 시대적 차이, 한국인의 관심과 세계인의 인식의 부족, 저항집단의 반대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권성아, 2002).

태권도 정신은 한국의 민족성 또는 국수주의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태권도 정신은 종교 또는 종파적 편협성을 탈피한 범세계적이고 범 민족적인 이념이나 사상이 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신념이나 신앙으로 단군사상을 믿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 이념으로 ‘홍익인간’ 사상의 숭고한 이념을 계승하여 세계적인 태권도의 정신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정신적 가치 관점에서 본 ‘세상을 이롭게 한다.’

웬만한 한국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또는 “널리 사람을 돕는다.”란 뜻으로서 고려시대 일연(一然)이 지은 삼국유사에 나온다. 우리나라 건국이념이자 상생과 평화를 중시하는 세계관이 깃든 교육 이념으로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정영훈, 2009).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익인간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인성교육진흥법의 기조이념으로 계승됨으로서 21세기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고유 이념이다(충북일보, 2015.3.29).

홍익인간이 태권도 정신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인류공영에 기여할 소중한 한국고유사상으로서 세계를 포용하는 원대한 사상성을 갖기 때문이다. 아울러 타인을 유익하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의미는 평화로운 인간관계 추구하고 공동선(共同善)을 담음으로써 태권도인들이 지향할 수 있는 바람직하면서 구체적인 사회적 덕목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즉 홍익인간은 추상성과 포괄성이 강한 장점을 지닌바 상생, 봉사, 헌신, 배려, 희생 등의 바람직한 덕목을 생성하는 이념이다.

홍익인간은 조화, 평화, 인류공영의 정신을 함축함으로써 국제 친선을 도모하는 세계화와 올림픽 이념과도 일치되는 훌륭한 태권도 정신철학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태권도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 태권도를 통해 국가와 민족, 종교에 얽매임이 없이 지구촌의 인간 교류를 수행해 왔다. 세계 온누리에 퍼져있는 태권도 세계화 이념의 밑바탕으로 바로 홍익인간이 합치된다. 홍익인간사상과 관련해서 “태권도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을 널리 유익하게 한다.” 는 우리 태권도인들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열성적으로 실현해 온 것이다.

홍익인간은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서 운동경기의 이념과 축제 이념이 합치된 올림픽

■■■ 태권도 정신세계에 관한 연구

경기와도 밀접히 관련을 맺는다. 민주와 평등사상이 반영된 운동경기 정신과 평화와 화합의 축제인 고대올림픽의 이상(理想)이 결합된 올림픽 경기는 조화와 평화의 홍익인간 정신과 연결되는 국제 친선을 위한 체육 행사이다.

이와 같이 올림픽은 세계 평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고 태권도도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올림픽의 국제 친선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홍익인간은 태권도의 세계화 물결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서 올림픽정신과 동일한 평화와 상생의 인류공영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선수, 지도자, 심판, 경기진행자, 주최자, 관중, 그리고 전세계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스포츠경기에서 참여하고 관심 갖는 모든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스포츠 경기의 이념과도 결부되는 것이 홍익인간이다.

또한 태권도에 포함된 다원적 가치관이 태권도를 통해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정신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과 활기를 불어넣는 심신운동으로서, 불의의 공격에 대비한 맨손호신술로서,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을 도와주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방식 형성에도 기여하는 체육활동으로서, 젊음의 열정과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올림픽경기로서, 고단한 삶을 극복하는 정신력 함양과 자아성취의 인생철학으로서 그 활용성이 무궁무진하다. 최근에는 태권춤, 태권로빅, 태권예술극, 태권드라마 등 문화공연의 특성을 살린 태권도의 흥미로운 활동 형태가 홍익인간 이념을 널리 실현하고 확장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최고의 무예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태권도가 홍익인간의 원대한 이념을 실현하는 구체적 인간 활동 분야가 된다. 아울러 국제 친선과 세계 평화를 위한 올림픽 이상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이념적 경향의 태권도 정신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간주된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조화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태권도인의 중국적 바램이다. 그 원동력이 다름 아닌 한민족의 얼이 서린 홍익인간정신이라고 보는 것이다.

‘세상을 이롭게 한다.’란 홍익인간에서 유래하는 어휘로서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인들의 유익함을 구현하는 태권도의 원대한 이념을 담은 기조 정신으로 볼 수 있다.

(5) 태권도에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함’ 이란 의미의 중요성

홍익은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홍익인간의 이념에서 유래된다. 광복직후

우리나라 교육이념 채택에 다대한 역할을 했던 백낙준(1963)은 홍익인간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홍익인간의 의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든 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이익을 주려면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또한 해되지를 아니할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다 각각 ‘원만한 인간’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홍익을 하기위한 절대적인 선행조건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홍익을 하지 못할망정 최소한의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신념화되는 과정, 실천적 행동으로 옮기는 ‘원만한’ 인간상을 제안하였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 또는 남에게 물심양면으로 베푸는 사람을 일컬어 ‘홍익인’을 제안하였다(한기언, 2005)

“널리 이롭게 함”이라는 홍익의 원래 의미는 타인과 상생 공존하는 평화정신은 물론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행위까지 포괄됨으로써 태권도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과도 관련을 맺는 한국 고유이념이다. 홍익 이념은 태권도가 세계적 전파와 보급을 수행하는 근본적인 의의가 될 뿐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덕목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홍익과 태권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앞 단락에 제시되었다.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은 ‘극기’와 더불어 추상성이 강한 정신 항목으로서 태권도 정신과 관련된 모든 개인적 성취 요인은 물론 사회적 덕목과 가치를 두루 포괄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는다. 그러한 장점 때문에 ‘홍익’은 본 태권도 정신체계의 구성상 수련 자지침과 지도자강령의 세부 덕목들을 도출시키는 기조 정신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극기’와 ‘홍익’의 태권도 정신은 수련자지침과 지도자강령에 배정될 하위의 세부적 정신 항목들과 내용면에서 상호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5) 태권도 정신의 목적으로서 자아실현

태권도인들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를 구현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자아실현(self actualization)’을 위해서이다. 자아실현의 학술적 의미는 다양하지만 간단히는 ‘인간성의 실현’ 또는 ‘타고난 소질을 계발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태권도인의 자아실현이란 태권도인으로서 태권도 수련과 지도 등 제반 활동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창조적으로 발휘하여 긍정적 자아를 성취하겠다는 욕구를 말한다(정범모, 1997).

자아실현에 대해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인생의 목표도 거론된다. 인생의 목표 중에 가장 대중적인 것은 ‘출세’라고 할 수 있다. 출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금전적인 성공이고, 둘째는 지위 권력의 성공이며, 셋째는 명성, 명예의 성공일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가치같이 보이지만, 생각에 따라 사회적 가치로도 연결될 수 있다(김승용, 2010).

태권도인으로서 자아실현이란 태권도 수련과 지도 등 제반 활동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창조적으로 발휘하여 긍정적 자아를 성취하겠다는 욕구를 말한다. 아울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회적 공동선(共同善)의 추구도 인간완성을 위한 자아실현으로 규정할 수 있다. 태권도 분야에서 자아실현은 성공, 행복, 만족, 보람 등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태권도 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해당된다. 호신기법 통달, 강건한 심신 단련, 기술성취, 시합승리, 스트레스해소, 다이어트, 재능발휘, 정신수양, 인격함양, 자기완성 등 여러 바람직한 수련 목적과 목표를 완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삶과 행복을 누리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6)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에 나타난 태권도 수련의 목적

본 연구진이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결정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란 태권도 정신은 기존의 극기라는 동일한 단어와는 차별화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가 말하는 극기흥익은 태권도 정신으로 제안된 기존의 개념과는 일부분 연결될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구성이나 내용들은 완전히 다른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우선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의 원대한 이념 목적이며, 기존의 연구에서 정신 항목에 열거되었던 개인적 사회적 덕목들은 수련자 신조에 배정되었다. 신조와 연결하여 태권도 정신을 태권도인의 기조이념으로 삼아 해설하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태권도를 열심히 수련하고 굳센 마음으로 예의를 잘 지키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다.“ 또는 “ 태권도 수련 열정으로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완성하며, 예의를 지키고 정의롭게 살며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된다.” 라는 것이 태권도의 정신이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9. 결론

지금까지 태권도 정신을 논의한 결론은 다음 도표와 그림으로 작성될 수 있다.

표 III-6. 태권도 정신의 개념과 구성 내용

번호	정신의 하위 범주	개 념	태권도적 의미	태권도 정신의 구성	목적
첫째	정신력	정신적 활동의 힘	태권도인들의 다양한 수련 목표 및 목적 완수를 위한 의지력	나를 이김	자아실현
둘째	사회 덕목	사회 도덕적 규범 또는 대인관계에서 바람직한 마음과 태도	태권도인들이 당연히 지켜야할 도덕적 규범	세상을 이롭게 함	
셋째	이념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견해	태권도인의 원대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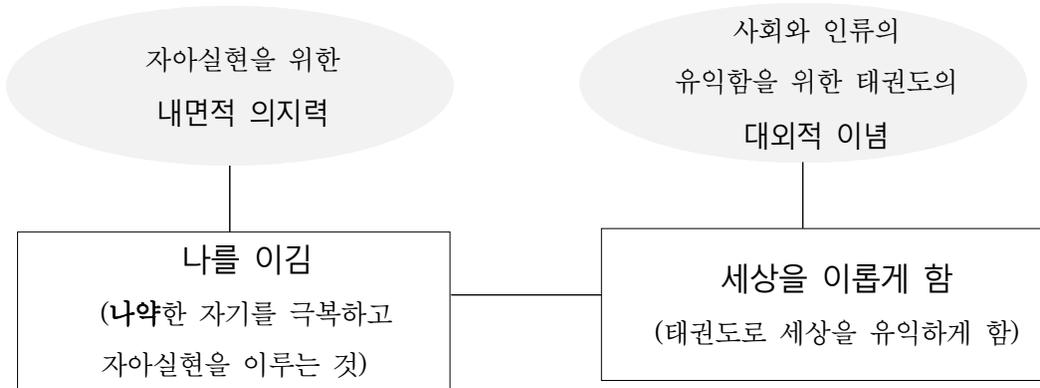


그림 Ⅲ-2. 태권도 정신의 개념 구성

태권도인들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를 구현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아실현(self actualization)’을 위해서이다. 자아실현의 학술적 의미는 다양하지만 간단히는 ‘인간성의 실현’ 또는 ‘타고난 소질을 계발한다’는 뜻으로 쓰인다(조화태외, 2008).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인들이 왜, 무엇을 위해서 그런 힘든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에 주는데, 다음 주제인 수련자 신조에서 상세히 서술될 것이다.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의 핵심가치에 해당됨으로써 오랜 세월이 흘러도 영속적인 가치로 태권도인들의 자기 향상과 사회적 성숙에 기여하리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 강신철(2002). 사진으로 보는 태권도. 수원: 사람과 자연. 131.
- 강신철(2008). 강신철화보집. 수원: 사람과 자연. 68.
- 강영수(2009). 지혜. 서울: 문지사. 121.
- 강남원(2007). “이것이 바로 태권도 정신.” 태권도신문 제 643호. 2007.4.23.
- 강동효(2001). Basic 고교생을 위한 윤리 용어사전. 서울: 신원문화사.
- 강보영(2002). 극기훈련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권성아(2002). 21세기 통찰한국인상과 흥익인간 교육. 교육학연구. Vol. 40(5).
- 권오민, 장권, 최광근(2011). 태권도 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14.
- 국기원(1987). 국기태권도교본. 서울: 국기원. 85.
- 국기원(2006). 태권도교본. 서울: 국기원. 127.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김대식, 김광성(1987). 태권도지도이론. 나남. 38.
- 김상욱(2004). 교육평가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김석련(2012). 멈춤의 몸짓 ; 태권도 교육철학. 서울: 서정문학. 18-19.
- 김성훈, 노갑택, 신정택(2010). 태권도 선수들의 정신력 개념 구조 파악. 대한무도학회지 Vol. 12(3). 36-37.
- 김수철(1995). 철학의 이해. 서울: 교문사. 90-99.
- 김승용(2010). 켈러리맨의 성공기술. 서울: 매월당. 26.
- 김영선(1989). 태권도 정신론 정립을 위한 모색. 태권도 69호. 서울: 대한태권도협회
- 김영선(1995). “태권도란 무엇일까요?” ; 태권도의 개념과 정신. 어린이를 위한 태권도 교실. (계간)태권도 1995년 3월호. 대한태권도협회.
- 김영선(2011). 태권도 정신론. 1·2급 태권도 지도자 연수교재. 국기원. 65.
- 김영선,곽정현,이세환,박선미(2014). 2013 태권도 교육백서. 서울: 세계태권도연수원. 10.
- 김영선(2015.1.15). 태권도 정신에 대한 김영선의 견해는? 최홍희 오대정신의 한계와 과제 설파. 태권저널. 서성원기자. <http://www.taekwonjournal.com/news/article.html?no=827>
- 김원배(2002). 스포츠 정신력 개념 구조 탐색 및 측정도구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3(3). 21-36.

- 김용옥(1996). 아름다움과 추함. 서울: 통나무.
- 김용옥(2002). 철학강의. 서울: 통나무.
- 김용철(2014). 태권도 예의론. 서울: 한국사진문화원. 16.
- 김운용(1977). 태권도. 제 22호. 대한태권도협회.
- 김운섭(2006).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학 강의. 서울: 한울출판사. 373.
- 김은희(2004). 마음의 연금술. 제임스 알렌저. 서울: 동서문화사. 133.
- 김 철(1986). 태권도교육론.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85.
-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 네이버영어사전 <http://endic.naver.com/>
- 대한태권도협회(1972). 태권도교본. 서울: 대한태권도협회. 14.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2015.11.15.검색.
- 류병관(2007). 태권도가 정신 건강에 좋아요. 서울: 광림북하우스.
- 류병관(2007). 태권도수련의 정신화 과정. 대한무도학회지. Vol. 9. No. 2. 89.
- 무예신문(2009.8.10.). 2009 WTF 올림픽 가치교육 국제포럼.2-15.12.5.검색.
http://www.mooye.net/sub_read.html?uid=1432§ion=sc1§ion2=%C5%C2%B1%C7%B5%B5
- 무카스(2015.10.14.)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임영진글. 2015.9.12.검색.
http://www.mookas.com/media_view.asp?news_no=16131
- 문용린, 김인자 외 공역 (2009), 긍정심리학의 입장에서 본 성격 강점과 덕목의 분류.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박대복(2009). 태권도 정신특성 개념구조 탐색.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박성배(2009). 고등학교 유도선수들의 정신력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13-14.
- 박영만, 전용태(2009). 경호수행을 위한 태권도정신 활용의 질적 접근. 한국경호경비학회지. Vol.18.
- 박이문(2008). 당신에게 철학이 있습니까. 서울: 미다스북스. 74.
- 박재주(2012). 인격함양을 위한 도덕교육. 철학과 현실사. 5.
- 박철휘(1957). 파사권법. 강덕원. 21.
- 백낙준(1963). 한국의 현실과 이상. 서울: 동아출판사. 22-23.

■■■ 태권도 정신세계에 관한 연구

- 손천택(2011). 태권도 교육론. 3급 태권도 지도자 연수교재. 국기원. 303.
- 손천택(2012). 태권도 교육의 이해. 태권도와 사회과학.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321.
- 송형석, 배영상, 이규형(2005a). 태권도란 무엇인가. 서울: 이문출판사.
- 송형석, 이규형(2005b). 태권도 개념의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 Vol. 44. No. 3. 65.
- 송형석, 나채만(2011). 태권도의 철학적 탐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21.
- 송형석(2012).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20(1), 181-195.
- 슈위쯔(2004). 정신력의 기적. 이정빈역. 서울: 지성문화사. 3.
- 신기철, 신용철(1987).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2957.
- 신성환(2005). 서정윤의 태권영어 <24> - 태권도정신 9. 태권도신문. 2009.4.22.
<http://www.tk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7>
- 신창호(2005). 교육학 개설. 고양: 서현사. 27.
- 안건훈 역(1993). 철학적 분석. 사무엘 고로비츠외 지음. 서울: 고려원.
- 안영찬(2011). 한국 태권도 정신의 시대별 변천과정.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안용규(1998).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 대한태권도협회 용역과제.
- 엄정식(2002). 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학사상사. 22.
- 여인성(2001). 동양무도사상의 소매틱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9(2).
- 이경명(2003). 태권도의 정신세계. 서울: 상아기획. 16.
- 이경명, 이송학, 서민학(2008). 태권도 품새학. 세계태권도연맹. 서울: 정담미디어. 71.
- 이경명, 김영관, 김유규, 김주연, 서민학, 정현도, 조춘환, 지유선, 허홍택(2010), W.T.F 태권도 용어정보사전. 세계태권도연맹. 서울: 상아기획. 368.
- 이경명(2010). 태권도 정신이란 무엇인가. 태권풍류. <http://tkdphil.egloos.com/1235122>.
- 이경명(2011). 태권도, 도와 하나가 되다. 서울: 어문각. 111.
- 이교윤(1965).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15.
- 이규석(1982). 동남아 태권도에 대한 고찰. 대한태권도협회. 계간지 41호.
- 이규석(1993). 동양사상과 태권도 정신에 관한 고찰. 체육과학 연구논총 Vol3. No.1. 용인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 이규석, 이승환, 한형조, 안용규(2006). 태권도 역사, 정신에 관한 연구. 국기원태권도연구소. 태권도진흥재단용역과제 세미나집. 72-73.
- 이규형(2010). 태권도 품새란 무엇인가. 서울: 오성출판사. 13.
- 이성용(2003). 여론 조사에서 사회 조사로. 서울: 책세상. 26-27.

- 이진수(2004). 동양무도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이재돈(2011). 무예와 스포츠, 그 행위의 본질에 기반한 태권도 정신. 국기원연구소.
- 이재돈, 유동현, 송선영, 김동욱, 송정명(2014). 태권도 수련의 정신적 가치 연구. 국기원.
- 이원국(1968). 태권도교범. 서울: 진수당. 29-30.
- 이정학(2005). 체육과 스포츠의 철학적 탐구. 서울: 대한미디어. 345-346.
- 이창후(2000). 태권도의 철학적 원리. 서울: 지성사. 57.
- 이창후(2003). 태권도 교류 확대와 태권도 철학의 발전 방향. 태권도학 연구. 서울: 상아기
- 이창후(2007). 태권도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정신. 서울: 상아기획. 68-71.
- 임석진(1988). 철학사전. 서울: 이삭. 331-332.
- 임석진의 30인(2009), 철학사전. 서울: 증원문화사. 360.
- 전병술, 노영선(2012). 전통 사상의 구현 관점에서 바라 본 태권도 정신. 한국문화연구 제22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33.
- 정범모(1997). 인간의 자아실현. 서울: 나남. 328-329.
- 정영훈(2009). 홍익인간사상과 한국문화. 한민족연구 제8호. 한민족학회.
- 정찬모(1976). 체육교육자료총서 태권도. 문교부. 11.
- 정청희, 이춘만, 김원배(1998). 한국 고등학교 운동 선수들의 정신력 검사지 개발. International Sport Science Congress. 365-376.
- 조화태, 김계현, 전용오(2008). 인간과 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4-206.
- 최석남(1955). 권법교본.
- 최영렬(1988). 태권도겨루기론. 서울: 삼학출판사.
- 최창학(2005). 결국 교육이다. 대전: 오늘의 문학사. 80-81.
- 최홍희(1959). 태권도교본. 서울: 성화문화사. 9.
- 최홍희(1966). 태권도지침. 서울: 정연사. 14. 18.
- 최홍희(1973). 태권도교서. 서울: 정연사. 17-18.
- 최홍희(1990). 태권도백과사전. 제1권. 평양: 국제태권도연맹. 45-68.
- 충북일보(2015.3.29).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위한 제안. 이윤성. 2015.10.15.검색.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90027>
- 태권라인미디어 <http://www.taekwonline.com/detail.php?number=645&thread=23r04>. 2015.8.12.검색.
- 태권마루사이트 <http://www.taekwonmaru.com/2510850>. 2015.9.15.검색
- 하동석(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서울: 새정보미디어.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 하우동철(1995).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대 교육연구소.
- 하종호(2002). 마음과 몸. 풀리지 않는 철학적 수수께끼. 철학과 현실사. 3.
- 하태은(1998). 실전태권도. 대구: 공학사.
- 허인욱, 김산, 남덕현(2014). 태권도 9대관 정신 및 기존정신 리뷰 연구. 국기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한기언(2005). 한국교육이념의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 한승조(1985). 한국전통사상과 태권도. 제 1회 세계태권도학술발표회논문집. 국기원.
- 한승조(1987). 태권도의 정신철학. 국기원. 39-42.
- 한승조(2006). 한국전통사상과 태권도. 국기원. 56-60.
- 황기(1950). 화수도교본. 서울: 38-39.
- 황기(1958). 당수도교본. 서울: 계량문화사.
- 황세연 편역(1987), 철학입문, 서울: 중원문화사. 11.
- C.A. 반 퍼슨, 손봉호·강영안 옮김, 『몸, 영혼, 정신』, 서광사. 188-189.
- David H. C & Harrison C,(1988) Research Processes in Physical Education 2nd edition. New Jersey : Prentice Hall. 98-101.
- Indra. C. (1997). Ai no Kotodama, Spiritual Message. 이상영역(2001). 마음을 다스리는 100가지 명상. 서울: 경성라인. 168-169.
- Jerry R. T. & Jack K. N.(2001), Research Methods in Physical Activity. Fourth Edition. Champaign. Human Kinetics. 김병식, 김상국, 남덕현, 윤승호 역(2004). 스포츠연구법. 서울: 대한미디어. 136.
- 松本芳三(1975). 柔道のコーチング. 現代スポーツコーチ全集.
- 富木謙治(1991), 武道論, 東京: 大修館書店.

IV 태권도
수련자 신조



국기원
세 계 태 권 도 본 부

1. 서론

격투기적 성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무예 태권도는 오늘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과 공정한 조건하에서 힘과 지혜를 겨루는 경쟁스포츠로 진화함으로써 세계화에 성공한 현대적 무예스포츠가 되었다. 오늘날 태권도는 수련자의 정신적 성숙을 중시하는 심신 운동으로서, 그리고 맨손 호신술로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 태권도는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의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인교육 수단으로 폭 넓게 인정받고 있다(이규형, 2012).

태권도지도자들은 오래 전부터 태권도수련에 있어서 정신 또는 정신수련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해왔다. 태권도 정신은 기술 또는 신체기능에 대응하는 용어이며, 태권도기술을 수련하는데 있어서 근원적 의지이자 지향점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인이라면 마땅히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행위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김영선, 1989).

본 연구의 주제인 태권도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인이 태권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따라야 할 생활 지침으로 규정될 수 있다. 즉,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의 주요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별화, 명료화, 체계화의 논거에 따라 태권도 수련자 신조의 세부 항목과 내용을 확정함으로써 태권도 정신에서 도출한 태권도 교육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수련자 신조의 개념을 탐색하고 관련 사례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어 수련자 신조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수련자 신조를 구성하는 원리들이 조명될 것이다.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수련자 신조가 수립될 것이며, 수립된 신조 항목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명과 학술적 근거들이 제시될 것이다. 또한 수련자 신조가 태권도 현장에서 대상자의 연령별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끝으로 수련자 신조의 활용 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태권도 교육 현장에서 수련자 신조가 원만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1) ‘태권도 수련자 신조’ 수립의 의의

인간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현대 사회의 교육 영역에서 신조(信條) 형식을 활용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사실 아무리 좋은 신조일지라도 그것이 특정한 가치체계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한다면, 그것은 전체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나 특정 종교 집단의 교조적 억견과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회단체나 기업에서 구성원을 위한 윤리강령이나 신조를 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단체의 구성원들이 법률이나 도덕규범을 위배하는 치명적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조직 전체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단체는 일탈을 막고 안정을 되찾기 위한 대책으로서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을 쇄신하는 신조나 강령을 제정, 공포하게 된다. 공무원 신조, 직장인 신조, 그리고 최근에 제정된 해병대 신조 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정, 공포되었다(스포츠조선, 2015). 또한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보다 견실한 회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 이념을 세우고 윤리경영 뿐 아니라 회사원들의 결속과 분발을 촉구하는 여러 방침을 제정한다. 삼성의 기업정신 중에서도 핵심가치는 모든 삼성인의 신조로서, 투철한 정신으로서 구현된다.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한다.”, “늘 앞선 변화를 선도한다.”, “언제나 바른 길을 간다.” 등이 그것이다(삼성공식홈페이지).

태권도 역시 백년대계의 굳건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태권도인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위해 태권도의 기조정신과 함께 실질적인 생활신조(creed of life) 또는 행동지침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태권도의 정신과 신조의 용도는 태권도에 몰두하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수련생과 지도자들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게 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목표 지향적 행동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수련자 본인과 가족은 물론 주변인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다. 아울러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인들이 현실 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갖가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강력한 내면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의 핵심요소인 정신과 기술 수준을 격상시키고 태권도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태권도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돈독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태권도 수련자 신조’의 수립 목적

태권도 수련자 신조(이하 ‘수련자 신조’로 약칭함)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태권도의 기조 정신과 연계된 구체적 생활 덕목으로서, 그 수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인이 일상생활에서 발휘해야 할 내면적 의지력과 사회 덕목으로서, 그 제정 목적은 수련자들이 바람직한 목표 지향적 삶을 성취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아울러 수련자 신조를 통해 전 세계 수련자들에게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인식시키고 실행하게 함으로써 태권도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키고 태권도를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다.”

태권도 정신체계의 일부로 수련자 신조는 추상적인 의미의 태권도 정신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생활 수칙이자 덕목들이다. 즉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태권도의 기조(基調) 정신은 수련자 신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의 기조정신이 수련자의 일상생활에서 보다 분명하게 실천되도록 하는 교육과정이자 태권도 교육의 한 방식이다.

아울러 신조는 태권도 정신이 태권도인의 머릿속에만 담겨 있는 이상향(理想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실천을 통해 실현될 수 있게 해준다. 태권도 신조는 태권도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나약함과 부당함을 극복하는 굳센 의지력을 발휘하게 하고 나아가 유능한 태권도인 양성의 근거가 되는 신념 체계이기도 한다. 즉, 수련자 신조는 수많은 태권도인들이 태권도를 평생 수련하도록 권장하며 태권도 지도와 제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3) ‘태권도 수련자 신조’의 특성

태권도 분야에서 수련자 신조를 도입하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수련자 신조는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태권도인들이 믿고 따라야 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의 신념 체계이다. 수련자 신조는 ‘태권’이라는 맨손격투 기술 향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기에 사람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뜻하는 ‘도(道)’를 보탬으로써 비로소 태권도(跆拳道)의 의미를 완성시킨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99둘째,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태권도의 핵심적인 정신적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인이 굳게 믿고 따르고자 하는 조목(국립국어원)’으로서, 그 하위 덕목과 내용은 태권도 정신에서 발췌된 것이다. 아울러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와 관련된 많은 정신적 가치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덕목들만으로 구성된 것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단어와 간단명료한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다.

셋째, 앞서 해설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란 추상적인 태권도의 기조정신은 신조 형식에 의해 태권도인들의 현실 생활에서 효율적으로 인식되고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 본 고의 태권도 정신체계에서 기존의 각양각색의 정신 항목들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화, 명료화 그리고 체계화됨으로써 태권도의 정신과 신조라는 각 특성을 달리하는 두 가지 요소가 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정되었다. 태권도 정신인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자아실현을 위한 의지력과 이념을 담고 있지만 그 명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으므로 인내, 용기, 예의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 덕목들로 된 신조 문장들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넷째, 태권도 집단 또는 단체 교육의 특성상 신조 방식의 지침만이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교육의 방식으로 볼 때 태권도 교육은 태권도 기술 수련과 관련된 운동을 소재로 주로 집단교육으로 이루어진다(이규형, 2002).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다수인 사회 태권도장에서 본격적인 수련에 앞서 태권도 정신을 포함한 신조 체계를 효과적으로 주지시킬 수 있다. 즉, 수련자들이 정신과 신조를 간단히 낭독함으로써 수련에 임하는 의연한 마음가짐을 가다듬거나 바람직한 행동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

다섯 째, 21세기로 접어든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태권도인들은 신조 형식을 통해서라도 스스로의 나약함, 부당함, 편협함을 극복하고, 의지적, 도덕적, 이념적으로 재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태권도계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수련자 신조는 현장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련생의 역할모델(role model)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수련자 신조는 수련생이든 지도자이든 불문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더욱 굳건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절차탁마하는 모든 태권도인에게 꼭 필요한 행동 지침인 것이다.

2. ‘수련자 신조’의 개념과 정의

1) ‘태권도 수련자 신조’의 개념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 정신체계의 위계적 구성상 ‘태권도 정신’으로부터 비롯되며 수련자들이 태권도 수련과 활동 영역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정신적 가치이다. 태권도 수련자 신조를 이루는 단어의 개념과 관련 어휘들을 상세히 고찰해보자. ‘태권도 수련자 신조’는 용어 구성상 핵심어인 ‘태권도 수련자’와 ‘신조’로 나누어진다. 먼저 ‘태권도 수련자’의 개념을 살펴보자.

2) ‘태권도 수련자’의 의미

본 연구자가 ‘태권도 수련자’의 개념 고찰을 위해 독립적 단락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많은 태권도인들이 ‘수련자’와 ‘수련생’을 동의어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수련자(practicer)란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태권도인들을 일컫는다. 반면 수련생(student, trainee)은 지도자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을 말한다. 즉, 수련생은 지도자를 전제로 성립하는 명칭으로서 도장이나 학교 또는 개인적으로 태권도를 교습 받는 사람을 지칭한다.

본 고에서 수련자와 수련생을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진정한 태권도 지도자라면 수련자로서도 평생 동안 수련을 지속해야 한다는 바람직한 철학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남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열성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하는 자인 것이다. 많은 태권도인들이 4단이 되어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나면 수련자에서 지도자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범이 될 경우에 지도자로서 수련생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자신이 수련자라는 사실을 잊게 되기 쉽다. 그러다 보면 지도자는 정작 중요한 본인의 수련을 등한히 하면서 지도 활동에만 매달릴 수 있다.

어떤 태권도 지도자들이 과거에 국가대표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태권도는커녕 운동조차 멀리하여 배만 불쑥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다. 태권도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성공해야 하지만 태권도 전문 수련자로서 체력적, 기술적 바탕이 갖추어져야 실질적인 태권도인으로 자타가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이 모든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주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련자와 수련생의 구분 개념을 수학 공식으로 설명하자면 [수련자 = 수련생+지도자] 이다. 이 개념을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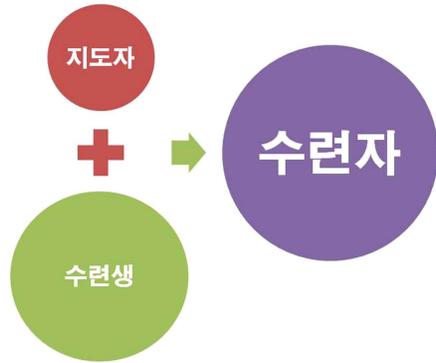


그림 IV-1. 수련생과 수련자의 개념

3) ‘신조’의 의미

신조(信條; creed)란 “굳게 믿어 지키고 있는 생각”을 말한다. ‘신앙의 조목 또는 교의(敎義)’라는 종교적 의미도 밀접하며 동의어로는 소신(所信. 굳게 믿는바 또는 생각하는바), 신념 등이 있다. 사전에 나온 용례에 준해서 “그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를 신조로 삼고 있다.” 는 신조의 내용을 서술한 사례가 된다(네이버국어사전).

또 다른 풀이로서 ‘신조’란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의(敎義)처럼 굳게 믿고 있는 생각 하는 조항”이란 뜻으로 ‘생활신조’란 용례가 있다(이희성 편, 2007). ‘생활신조 (creed of life)’란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의처럼 어김없이 지키고자 하는 조항이다(국립국어원).

생활신조는 최근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원자의 성장과정과 자기소개, 인생관 등과 함께 가장 빈번히 질문하는 항목이다(김연옥, 2010). 최근 이력서나 신상명세서 등에는 ‘나의 생활신조’라는 난이 있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김승용, 2010).

이 같은 신조의 어휘 풀이에 따라 ‘태권도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 수련자가 마음 깊이 새기고 이행해야 할 신념 또는 조항”으로 풀이된다. 또 ‘태권도 수련자의 생활신조’라고 표현도 가능한데 ‘태권도인의 신념으로서 현실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나 덕목’으로 해설될 수 있다.

4) 신조의 유의어

신조와 일맥상통하는 단어로 ‘지침’이나 ‘강령’이란 유의어가 있는데 태권도 영역에서 함께 쓰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지침(指針, guidelines, guide)’이란 원래 “시계, 나침반, 계량기의 바늘인데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을 뜻한다. 처세의 지침, 행동 지침, 지침을 마련하다 등 예문이 있다(국립국어원).

지침이 태권도 교육에 결부되어 ‘수련생 지침’이란 말이 있다. 이는 “태권도 수련생들의 행동을 인도해주는 준칙”을 뜻한다. 아울러 태권도 인성교육과 같이 지도자가 수련생에게 전인 교육적 일환으로 실시하는 올바른 행동 내용을 지칭한다. 따라서 지침이란 태권도 수련생에만 국한된 협소한 의미인 반면 신조는 지도자, 수련생 구별 없이 모든 태권도인들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신적 지표와도 같다. 본 고에서 ‘수련생 지침’이란 말 보다는 ‘수련자 신조’란 명칭을 채용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수련자 신조’와 ‘수련생 지침’과의 명확한 구별을 위해서, 이어지는 단락에서 구체적 수련생 지침을 제시하기로 한다.

한편 ‘강령’이란 말도 신조와 혼돈되는 유의어이다. 강령(綱領, code)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있다. 첫째는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인데 일을 시작할 때는 우선 강령을 세우고 그에 따라 세부 지침을 정해야 한다는 용례가 있다. 둘째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과 같이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그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열거한 것으로서 “그 정당에서는 새로운 강령을 채택했다.”라는 예문이 있다(네이버국어사전). 강령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구성원의 사명과 권익옹호, 윤리덕목 등을 역설한 규정이다. 윤리강령(code of ethics)은 한 단체가 직업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덕목이나 권고를 압축해서 제시한 강령의 종류이다(유재봉, 2004). 강령의 실례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국민권익위원회, 2011), 교원윤리강령(code of ethics for teachers, 1958년 제정. 하우동설, 1995), 미국고교코치연맹(NFHS) 윤리강령 등이 있다.

근래에 널리 사용되는 행동 원칙인 ‘강령’이란 말 대신 여기서 수련자 ‘신조(信條)’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본 정신체계에서 ‘지도자 행동강령’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신조는 단순명료한 핵심 내용인 반면 강령은 행동강령, 윤리강령, 실천강령 등 다양한 하위개념으로 구성된 복합체계로서 특징을 갖는다. 본 정신체계에서는 신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조는 모든 수련자를 대상으로 하고, 행동강령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수련자들이 명심하고 행동해야 할 조목이 ‘수련자 신조’이고 태권도 지도자들이 이행해야 할 주요 행동 원칙은 ‘지도자 행동강령’이다. 또 신조와 비슷한 말로는 좌우명(座右銘; motto)이 있다. 좌우명이란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文句)”이다 (국립국어원).

5) 수련생 지침(규칙)의 예

(1) 도장에서의 ‘수련자 준수사항(국기원, 2006)’

- 도장 출입 시 경건한 자세로 국가에 대한 예를 한 다음, 관장 사범 고단자 순으로 인사를 한다.

- 도장 내에서는 정숙히 행동한다.

- 수련자끼리 정중히 대하며 사범의 지시에 순종한다.

- 수련 시작 10분 전에 입실하여 수련 준비를 완료한다.

- 수련 전에 신체의 부착물은 수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한다.

(예: 시계, 안경, 반지 등).

- 수련 중에는 태권도 수련에만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 습득한 태권도 기술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 자주 목욕하고, 손톱 발톱을 깎고 수련에 임한다.

- 땀에 젖은 도복은 세탁하거나 말려서 청결하게 관리한다.

- 수련 전후에는 수련장의 청소와 용구정리에 솔선수범한다.

- 기타 태권도의 예의 규범을 익혀서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2) 미국 태권도장의 ‘수련자 지침’의 예

* 태권도의 불문율(김대식외, 1987)

◦ 태권도 수련자는 예의가 바르고 겸손해야 한다. 다른 형태의 무예나 지도자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는다.

◦ 태권도 수련자는 떠벌리거나 으스대지 않아야 한다. 도장 밖에서의 싸움은 결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생과 사가 위협당하거나 타인의 그것을 목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태권도 수련자가 격투를 했을 경우 모든 수련을 받을 수 없다.

◦ 절(bowing)은 도장의 안과 밖에서 지도자와 모든 선배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관습적 인사이다. 도장을 들어오고 나갈 때,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인사하여야 한다. 연습이 시작되고 끝날 때, 각 반이 시작되고 끝날 때 인사해야 한다.

◦ 질문을 함으로써 수업을 방해하면 안 된다. 질문이나 답변할 시간이 없으면 수업이 끝날 때 공손히 지도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수업시간에 자리를 먼저 뜨려면 지도자의 허락을 말아야 한다.

◦ 수업 시작 전후에 앉거나 꿇어 앉아 묵상을 해야 한다.

◦ 도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거나 크게 떠들어서는 안 된다.

◦ 난폭한 놀이를 하지 말라. 태권도에는 치명적이다.

◦ 모든 연습은 통제, 정확, 그리고 비접촉에 강조를 둔다.

◦ 지도자의 허락 없이 품새나 겨루기를 하거나 가르치면 안된다.

◦ 지도자로부터의 적절한 가르침이 없이 주먹이나 발의 격파능력, 손 단련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도장에서는 모든 수련자들이 청결해야 한다. 마루를 깨끗이 청소하고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치워야 한다. 모든 수련자들은 순번을 정하여 도장의 마루를 닦아야 한다.

◦ 예절과 훌륭한 스포츠맨 정신을 모든 수련자가 가져야 한다. 자유겨루기에서 상대자가 훌륭한 공격을 하고 점수를 획득하면, 겨루기를 계속하기 전에 예의바른 인사로 즉시 존경심을 표시하여야 한다.

◦ 태권도는 역센 운동이며 여기에 적합한 신체가 요구된다. 매일 운동하고 수업 시작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수업이 끝난 뒤에 가벼운 마무리 운동을 해야 한다. 청결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한 위행이 중요하다. 손톱을 잘 다듬고 유니폼을 깨끗이 하고 수업을 끝마친 후 더운 물에 샤워를 한다.

(3) 서울 상도태권도장 수련생 도장 생활 10대 규칙(정문자외, 2015)

1. 수련생은 수련 규칙을 기억하고, 잘 지키도록 노력합니다.
2. 수련생은 도장에서 복장을 단정히 하고, 자기수련의 장으로서 존중의 태도를 갖습니다.
3. 수련생은 반드시 도복과 띠를 단정히 착용해야 합니다.
4. 수련생은 지도자와 동료들 만났을 때 존중하는 태도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5. 수련생은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합니다.
6. 수련생은 수련시간에 동료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7. 수련생은 수련을 할 때,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8. 수련생은 수련의 목표를 노력과 향상에 두고 도전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9. 수련생은 수련도구를 사용한 후 제자리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0. 수련생은 배운 기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4) 정읍 호림태권도장 수련생 도장 생활규칙(정문자외,2015)

1. 수련장에 출입 시 먼저 사범님을 찾아 인사를 합니다.
2. 수련장에서 절대 누워있지 않습니다.
3. 태권도복은 반드시 착용하며 단정하게 착용합니다.
4. 수련 중 도복을 정리 시 반드시 뒤로 돌아서 옷을 정리합니다.
5. 수련 시 선배가 앞줄에 서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 줍니다.
6. 수련 중 절대 사범님 앞에서 잡담을 하지 않습니다.
7. 도장 내에서는 반드시 높임말을 사용 합니다.
8. 수련 중 자리를 떠야 할 경우, 반드시 사범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9. 수련 중에 벽에 기대거나 눕지 않습니다.
10. 약한 친구나 동생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11. 욕을 하지 않습니다.
12. 본 운동전 반드시 자율운동을 합니다.
13. 인사를 바르게 합니다.
14. 자기물건을 잘 챙깁니다.
15. 항상 거짓되지 않게 행동합니다.

(5) 서울 경희대 효 태권도 수련생 도장 생활규칙(정문자외, 2015))

1. 도장에 들어오면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실시하고, 관장님, 사범님께 인사하고, 선·후배·동료들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 양손은 배에 공손하게 두고 인사합니다.
 - 인사를 한 후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속으로 1.2.3 세고 허리를 펴줍니다.
2. 운동 시작 전에 몸가짐을 바르게 합니다.(도복정리, 띠 묶기, 머리 묶기)
3. 서로 모르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4. 서로 놀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5.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6. 수련이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고, 꾸준히 노력하여 체력을 기릅니다.
7. 자신의 물건은 스스로 잘 챙깁니다(양말, 가방, 도장안내문 등).
8. 수련시간을 지킵니다(지각하지 않기,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가기).
9. 자신이 잘못된 일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10. 서로 간에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11. 흐트러진 물건을 정리합니다(신발장, 가방, 미트, 콘, 사각매트, 줄넘기 등).
12. 도장의 물건을 소중히 다룹니다(보호매트 잡아 뜯지 않기 등).
13. 껌은 휴지에 싸서 버립니다.
14. 스스로 도복을 예쁘게 접어 개어놓습니다.
15. 띠를 목에 매고 다니지 않습니다.
16. 태극기를 등지고 옷을 가다듬습니다.
17. 도장에서 나눠주는 음식 말고는 도장에서 음식물을 먹지 않습니다.
18. 고자질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19.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는 공손하게 합니다.
20. 수련시간 중간에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수련 후에 물어봅니다.
21. 사무실에 출입할 때에는 허락을 말합니다.
22. 사무실 출입 시 관장님 또는 사범님이 통화를 할 때에는 조용히 기다렸다가 용건을 말합니다.
23. 전화기 사용 시 허락을 말합니다.
24. 충고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25. 자신만의 목표를 갖고 수련에 임합니다.
26.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27. 서로간의 실수를 감싸준다.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줍니다.
28. 쉬는 시간에는 배운 것을 연습하고,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29. 선배는 후배를 아끼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30. 후배는 선배를 믿고 따릅니다.
31. 올바른 행동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32. 수련시간에 늦거나 결석을 하게 되면 체육관에 미리 연락을 합니다.
33. 수련 중간에 도장에 들어오게 되면 조용히 하여 수련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34. 도장 내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줄넘기 제외, 특히 사무실)
35. 지도자나 선·후배에게 물건을 받을 때에는 두 손으로 받습니다.
36. 주운 물건은 관장님이나 사범님께 알려드립니다.
37.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3. ‘수련자 신조’의 관련 사례

1) 관련 신조에 대한 개관

본 정신체계의 주요 부분인 태권도 신조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선행 신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선행 사례로는 태권도계에서 선보인 두 건의 신조 뿐 아니라 정부 소속 공무원 신조나 기업 직장인 신조 등 사회 일반적 사례들도 존재한다. 이들 신조들은 제정의 목적 뿐 아니라 핵심 덕목의 구성, 문장 수, 문장의 서술 방법 등 사례 형식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같은 신조 사례들은 본 연구팀이 태권도 신조를 수립하는 데 적지 않은 통찰력과 시사점을 주므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는 여러 신조 사례 중 특기할 만한 것들 네 가지로 제한했다. 먼저 제시한 두 가지는 정부와 군대에서 제정한 신조 사례이고 후반부 두 건은 태권도계의 선행 신조 사례이다.

2) 한국 공무원의 신조

신조의 첫 번째 사례는 정부 소속의 ‘공무원의 5대신조’이다. ‘공무원의 5대신조’는 이전의 ‘공무원의 신조’를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서 1980년 대통령훈령 제44호로 선포되었다(두산백과). ‘공무원의 5대 신조’는

첫째, 국가에 헌신과 충성을
 둘째, 국민에 정직과 봉사를
 셋째, 직무에 창의와 책임을
 넷째, 직장에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 청렴과 질서를” 등을 주요 덕목으로 채택하였다.

2015년, 한 지자체는 매월 정례 직원조회에 새내기 공무원이 공무원 윤리헌장 낭독으로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갓 입문한 신규 공무원에게 청렴의식과 성실의무를 다하는 자세를 심어주는 윤리헌장을 낭독케 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아시아뉴스통신, 2015).

3) 우리나라 해병대의 '5대 생활신조'

한국 군대 중 특수부대에 속하는 해병대는 2015년 '해병대 생활신조'를 제정했다. 그 간 해병 전우 간의 구타로 인해 탈영, 살상 등 심각한 사건들이 계속 발발하자, 사령부는 전우들 간에 상호 신뢰성과 단결력을 복돋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신조를 만들어 공표한 것이다. 해병대 신조의 내용과 형식은 가장 최근에 제정되어 본 고의 태권도인 생활신조 수립에도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된다.

우리나라 해병대사령부는 예하 2사단에서 발생한 구타·가혹행위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5대 해병 생활신조'를 사령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제정했다. 2015년 7월, 해병대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2사단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구타·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5대 해병 생활신조를 제정해서 일선부대에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달했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5).

해병대 생활신조는,

- 해병대는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 해병은 선임을 존경하고 후임을 사랑한다.
- 해병은 해병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
- 해병은 약자를 보호하고 힘든 일에 앞장선다.
- 해병은 전우를 지키며 끝까지 함께한다. 등 5개 항목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모든 해병부대는 매일 아침 5대 생활신조를 낭독하고 일과를 시작하도록 했다"면서 "모든 해병 부대원이 이 생활신조를 암기하고 실천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가 병영에 뿌리내린 악습을 강력히 뿌리 뽑자는 취지에서 해병대 창설 이래 5대 생활신조가 등장했다(한국경제, 2015).

해병대 생활신조는 대원들이 원만한 병영생활을 영위하기위해 시행되는 정신교육의 일환이다. 어떤 경우든지 집단에 뿌리 내린 악습이 쉽게 해결되지 않겠지만 신조 낭독과 자기 다짐을 통해 심각한 사태를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은 될 수 있다.

4) 1966년 최초의 ‘태권도 5개 신조’ 탄생

태권도 역사상 최초의 수련자 신조는 1966년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채명신 중장(1926-2013)에 의해 빛을 보았다. 그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이 직접 작성한 태권도 5개 신조가 등장하게 된 상세한 연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태권도는 정신수양이 주요 목적이지만 사람 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수양과 신체 단련을 통해 인격을 바르게 완성시키자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맹호사단의 태권도 정신이라고 했다. 맹호사단에 와서 내가 만든 태권도 5개 신조가 있는데, 꼭 이것을 모든 태권도인이 운동 시작 전에 크게 소리쳐 외우도록 했다. 5개 신조는 다음과 같다.

- 우리는 태권도 수련으로 심신을 연마하여 반공의 초석이 된다.
- 우리는 신의와 겸손을 생명으로 하여 상호 단결하여 정의의 사도가 된다.
- 우리는 인내와 근면으로 숭선수범하는 나라의 일꾼이 되자.
- 우리는 예의와 명예를 존중하며 친절과 봉사으로써 약자를 보호하는 등불이 되자.
- 우리는 연마된 심신과 기술을 정당방위에만 행사하는 참다운 무도인이 되자.

태권도 교관단이 베트남에서 태권도를 보급할 때 수련생들에게 꼭 이 신조를 외우게 하는 한편 수 만 개의 전단을 만들어 현지 사람들에게 배부했다. 채명신 사령관은 베트남의 대통령, 부통령, 국방장관 등 상층부 주요 인사들에게 신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한국의 태권도가 강패나 폭력배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켜 나갔다(채명신, 2006).”

당시 채 장군(중장)의 직책은 수많은 한국 군인들을 이끌고 외국에 파견된 사령관이 었다. 적군과 일촉즉발의 생사를 건 전투를 지휘해야 하는 그는 일과생활이 지극히 긴장되고 분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조까지 만들어 휘하 장병들과 현지인에게 태권도 정신을 강조했다(하태은, 1998). 채명신 장군의 각별한 태권도 애정은 베트남 파견 수년 전, 태권도계를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태권도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했던 전력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前歷)에서 연유한다. 그는 1962년 12월, 최초로 창립된 대한태권도협회 초대 회장직을 역임함으로써 태권도와 불가분의 인연을 맺었다(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

채 장군의 태권도 5개 신조는 50년 전 당시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 이 된다.”, “- 이 되자” 등 두 종류의 문장 서술 방식이 뒤섞여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20개가 넘는 추상적 덕목 단어들이 다섯 가지 서술 문장으로 조합됨으로써 수련자들이 명심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과제의 신조 작성에 다음 세 가지 점에서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는 태권도 수련자들이 수련 전에 낭독하고 외우기 쉽게 ‘간단명료한 5가지 문장’ 형식으로 되어있다. 둘째, 5개 신조에 나온 ‘겸손’, ‘정의(正義)’, ‘인내’, ‘예의’, ‘약자 보호’, ‘정당방위’ 등 신조의 중핵(中核) 어휘들은 태권도 정신으로부터 도출되었고 태권도인의 구체적 행동 방침인 신조로 규정해서 현실화시킨 점이 참조될만하다. 셋째, 이 신조가 주는 무엇보다도 큰 장점은 태권도에 포함된 추상적인 정신적 가치들을 머릿속으로부터 이끌어 내어 현실 생활에 실천하도록 다짐하는 교육적 방식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수련자들이 실제 수련 전에 짚막한 다섯 가지 문장들을 구호 방식을 통해 쉽게 상기함으로써 정신적 교육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였다고 판단된다.

5) W.T.F 수련인 5개 신조

태권도 역사상 두 번째의 ‘태권도 수련인의 신조(The Creed of Taekwondo Practitioners)’가 2009년 W.T.F(세계태권도연맹)에 의해 제정되었다. ‘태권도 수련인의 신조’는 2009년 8월 6일 서울에서 열린 W.T.F가 주관한 올림픽 가치교육(OVEP) 국제포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택되었다(연합뉴스, 2009).

태권도 수련인으로서,

1. 나는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가꾸어 의(義)롭게 산다(개인).
2.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을 사랑한다(가정).
3. 나는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와의 신의를 지킨다(사회).
4. 나는 이웃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나라에 충성한다(국가).

5. 나는 자연과 함께 하며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세계).

전 세계 ‘태권도인의 수련인 신조’는 ‘태권도 정신과 올림픽 이념을 동일시하며 태권도를 통해 OVEP(올림픽 가치 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수련인이 태권도 수련과정에서 태권도 정신을 체득케 함과 아울러 태권도를 통하여 OVEP를 실천하기 위함이다(이경명외, 2011a). 신조의 구성 방향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심신을 수련하는 데 수척으로 삼아온 ‘화랑오계’의 격식과 태권도 정신을 토대로 하여 OVEP 정신을 구현하는 시각에서 구성되었다(이경명, 2011b).

W.T.F가 태권도인의 행동 원칙으로 최근에 제정한 이 신조는 몇 가지 장점과 특징을 갖는다. 그 첫 번째 장점으로서는 간단명료성을 들 수 있다. 태권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핵심 덕목들이 짙막하면서도 다섯 개의 문장으로 정리되어 태권도인 누구나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용이하다. 두 번째 장점으로서는 체계성으로서, 태권도인이 덕목을 발휘해야 할 대상을 개인 스스로의 차원에서 시작해서 부모와 가족, 스승과 어른 및 친구, 이웃과 지역사회 및 나라, 자연과 세계 인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확장되는 형식이다. 세 번째는 덕목 발휘의 대상자에 따라 각 문장에서 두 가지의 덕목을 설정하여 적절히 배정한 점이다.

이와 같은 여러 장점들을 갖는 반면, 태권도의 특성을 신조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점이 미흡하게 여겨진다. 다섯 문장의 신조 내용이 태권도인 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개연적인 신조로 봐도 무방한 정도이다. 아울러 각 항의 신조들이 왜 태권도인 신조가 되는지 그리고 태권도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들이 생략되어 있다. 예컨대 첫째 문장에서 “- 의(義)롭게 산다.”는 태권도인으로서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태권도인들은 그 내용을 대충 이해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W.T.F 신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행사에 낭독되고 태권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정도로 그 용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4. ‘수련자 신조’의 이론적 배경

본 고에 제시된 수련자 신조의 세부 항목과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태권도 정신에서 도출되었다. 즉, 수련자 신조로 설정된 세부 항목들과 내용들은 수많은 기존의 태권도 정신 항목들 중에서 태권도인의 현장적 구체성에 따라 선별되고 명료화된 것이다. 수련자 신조의 항목들은 최근에 확립된 태권도 인성교육 지식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관된다. 아울러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 인성교육의 이론지식과도 밀접히 연결되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인간의 성품 발달을 다루는 ‘도덕철학’이나 ‘도덕교육론’ 또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과 같은 학문과도 결부된다. 이들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 정신’으로부터 도출된다.

수련자 신조의 항목이나 내용 구성은 태권도 정신에서 나온다. 즉, 수련자 신조는 그 간 태권도 지도자와 학자들이 개진한 태권도 정신의 항목 또는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태권도인들은 태권도와 관련된 긍정적 정신적 요인 또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신적 가치들을 통상 태권도 정신으로 간주해 왔다.

예를 들면 태권도 지도자나 수련자는 대개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최홍희, 1959)을 태권도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국기원의 태권도교본(2006)에는 호국, 충효, 무언 실행, 정의를 수호하는 결백정신, 평등, 인격완성, 홍익인간, 평화정신, 책임감 등이 태권도 정신으로 소개되었다. 안용규(2007)는 정직, 성실, 신동, 중절, 정의, 애국, 충효, 예의, 준법, 평등, 평화, 조화, 합일, 박실, 약속 등이 태권도 정신이라고 했고, 이경명(2006)은 천인합일, 홍익인간, 심신일여가 태권도 정신이라고 했으며, 이창후(2007)는 태권도 정신은 “윤리적으로 요구되는 행위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자세로서 그 구체적인 명칭은 삼재강유(三才剛柔)이다”라고 썼다. 또 김영선(2011)은 홍익인간, 삼재강유, 심기합치(心技合致), 예의, 인내, 용기, 공평무사, 호연지기를 태권도 정신으로 제안했다. 송형석(2012)은 윤리적 차원의 태권도 정신을 참된 의미의 태권도 정신이라 규정하고 그 세부 항목으로 절제, 명예, 개방을 들었다.

이 같이 여러 지도자와 학자들에 의해 수많은 태권도 정신의 항목들이 개진되었다.

그런데 이들 태권도 정신 항목들은 정신 개념을 형성하는 세 가지 세부 영역들이 큰 구별 없이 뒤섞여 구성되어 있다. 즉, 용기, 인내, 백절불굴, 절제, 극기 등은 어떤 난관을 극복하는 의지력 또는 정신력 요인에 속한다. 예의, 염치, 겸손, 배려, 공평무사 등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위한 사회적 덕목으로 구분될 수 있다. 홍익인간, 평화, 정의 등은 인류가 지향해야 하는 고귀한 이념적 특성의 용어들이다.

이 같은 태권도 정신의 하위 영역이나 항목 중에서 태권도인의 현실 생활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는 정신 항목들을 신조로 구별하는 것이 본 정신체계의 핵심적 논지이다. 즉, 태권도 정신은 홍익인간이나 평화의 이념처럼 고차원적이면서 추상적인 특성을 갖는 단어나 문장으로 배정되어야 하며, 수련자 신조는 현실 생활에서 발휘해야 할 정신력 요인이나 구체적 사회적 덕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정신체계의 신조 개념의 설정 논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종관(2009), 허인욱(2014), 김현성(2015)의 주장들과도 밀접히 관련되므로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국기원에서 오랜 세월동안 지도자 교육을 담당했던 이종관 대사범은“태권도 정신은 수련자가 몸의 수련을 거쳐 마음으로 터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태권도 5대 정신’은 개념상‘태권도 정신’이라기보다는 태권도인의 ‘행동강령’으로 봐야 한다. 기존의‘태권도 5대 정신’은 태권도인이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이며 지켜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다”라고 언급했다. 즉,‘5대 정신’은‘태권도 정신’이라기보다는‘행동강령’으로 개념상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 같은 지적은 태권도 정신에 대한 중요한 인식의 전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 태권도 인문학 학자인 허인욱은 태권도 정신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고찰한 최근의 용역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성실, 노력, 정의(正義), 인내, 예의 등은 그간 태권도 정신 또는 관훈(館訓)으로 제안된 항목이다. 그러나 그것들은‘태권도 정신’이라기보다는‘태권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로 보아야 한다. 수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상위 개념인‘태권도 정신’과 그 정신을 얻기 위해 수련과정에서 태권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하위 개념의‘태권도 수련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수련 원칙은 수련자가 가져야 할 수련 과정에서의 마음가짐과 태권도 지도자들이 수련생을 가르치는 기준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말한다.”허인욱은 기존의 태권도 정신은‘태권도 수련인의 자세’와‘태권도 지도자 수칙’으로 구분되어 별도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가 역설했다. 이러한 주장은 본 정신체계의 구성 원칙과 요소들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이 되었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에서도 앞서 유사한 견해가 도출되었다. 국기원 지도자 연수원장인 김현성(2015)은“태권도 강령과 태권도 정신은 구분되어야 한다. 태권도 강령 속에 태권도인의 육체적 강함, 덕목, 심적 능력을 배정하고 태권도 정신은 이념적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태권도 수련자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며 세계평화를 구현한다는 뜻이 담긴 태권도 정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신 수립 과제에서 태권도 정신만 다루지 않고, 태권도 강령을 함께 다루어 정리를 하면 기존의 태권도의 보편적 정신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인의 교육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행동해야 할 실천 덕목에 해당한다. 즉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에 일관해서 흐르는 기초 정신(basic spirit, keynote spirit)으로 설정되고 그것으로 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생활 덕목들이 수련자 신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간 태권도 정신으로 간주되던 주요 덕목들은 수련자 신조로 구체화되는 발상의 전환이 본 연구진이 채용하는 핵심 논지이다.

2) ‘태권도 인성교육’의 이론

수련자 신조의 항목과 내용은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를 태권도 교육에 적용하는 태권도 인성교육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태권도 인성교육은 오래 전부터 태권도 현장 교육에 인성교육 이론이 접목되어 독립된 명칭으로 태권도장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다. ‘태권도 인성교육’이란 주제는 296편의 학위논문과 47편의 국내학술지 논문이 검색될 정도로 지금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 분야이기도 하다(RISS검색결과).

태권도 인성교육은 태권도와 인성교육이란 두 단어가 결합한 복합 명사이다. 인성교육의 뜻이 무엇이나에 따라 태권도 인성교육의 의미가 성립될 수 있다. 인성교육(人性敎育)이란 근래에 생겨난 용어로서“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격과 종합적 인격을 함양하기 위한 심성교육”이란 뜻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1997). 왕석순(2004)은 “인간성을 기르는 교육 또는 인격을 함양하는 심성교육”을 인성교육이라 정의했다. 또 정미경(2003)은“개인에게 인성요소인 도덕적 지식,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을 함양하기 위한 계획적인 노력”으로 인성교육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앞의 인성교육의 의미를 토대로 ‘태권도 인성교육’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태권도 인성교육이란 “태권도를 소재로 하여 수련생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심성교육 또는 인간됨됨이 교육”이다. 태권도 인성교육은 수련생의 기본 생활 습관은 물론 인내심, 집중력 등 자기통제력과 사회성 발달 등 전인적(全人的) 발달을 도와주는 교육의 한 방법이다(김영선, 2010)

태권도 인성교육 관점에서 개발된 태권도 인성교육 매뉴얼(김병준외, 2012)은 태권도와 관련된 여러 덕목들을 체계적으로 명시하였다. 그 연구 결과물에는 태권도 관련 인성을 구성하는 세부 영역으로 자기가치 영역, 대인관계 영역, 사회정의 영역 등 세 분야로 구분했고 총 24개 덕목들이 수록되었다.

김병준의 연구 성과는 태권도 수련 목표에 부합하는 인성 덕목들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에 있다. 태권도 관련 덕목들을 모두 수집해서 세 개의 가치영역에 따라 범주화하고 위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가치영역의 구분은 본 신조 수립에 주요한 이론적 근거로 채용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자기가치 영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역으로서 개인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인성 덕목이다. 둘째 대인관계 영역으로서 자기와 타인의 관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인성 덕목이다. 셋째, 사회정의 영역으로서 지역사회, 국가와 민족과 관련된 인성 덕목이다.

세 개의 가치영역에 따른 인성 덕목들의 영역별 구성을 나열해본다. 자기가치 영역으로는 예의, 정직, 인내, 책임감, 성실, 절약정신, 자신감, 자기존중, 신중, 용기, 주도성, 열정 등 12개 덕목들이다. 대인관계 영역으로는 배려, 우정, 용서, 신뢰, 존경, 리더십, 사랑, 공평 등 8개 덕목이다. 사회정의 영역으로는 협동, 준법정신, 애국심, 정의 등 4개 덕목으로 구성된다(김병준외, 2013).

이 같은 24개 덕목들은 매뉴얼에서는 덕목들의 근거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태권도인(특히 어린이)의 바람직한 성품과 올바른 행동 기준들을 수집해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4개 덕목 중 예의가 자기 가치 영역에 포함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예의는 사회적 덕목 즉 대인관계 영역의 대표적인 덕목이다. 예의는 태권도인들의 도덕 수양에 필요한 행위의 규범과 규칙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올바른 언행이다. 타인 존중, 존경, 배려 등 타인에 대한 공손한 마음가짐이 격식 있는 인사나 고운말로 표현되는 것이 예의이다(김용철, 2014). 따라서 예의는 개인 가치 영역보다는 대인 관계 영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여기서 수련자 신조와 태권도 인성교육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인성교육은 수련생의 성품 발달에 도움이 되는 모든 관련 덕목들을 활용한다. 즉 태권도 교육적 관점에서 도덕교육이나 바른생활 또는 인성교육의 내용과 지도 방법론을 도입해서 태권도 현장 영역에서 적절히 교육하는 것이 태권도 인성교육이다. 반면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 중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항목들로만 설정된다. 태권도 인성교육은 수련자의 품성 향상과 관련된 모든 유용한 덕목들을 다룰 수 있지만 수련자 신조는 제한된 항목 수에만 국한된다.

만일 다섯 가지의 덕목이 수련자 신조 항목으로 설정된다면 이는 태권도 인성교육의 소재로 삼는 여러 덕목들 중에서 태권도의 본질과 수련 목적에 가장 잘 합치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즉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 인성교육의 일부로 포함되고 그것의 핵심 가치로 간주될 수 있다. 적절한 기준에 의거하여 설정된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 인성교육의 주요한 소재가 될 것이다.

3) ‘긍정심리학’ 이론

태권도 신조는 태권도 인성교육의 덕목들과 함께 최근 확립된 긍정심리학과도 이론적 연관성을 갖는다. 덕목 중심의 본 태권도 생활신조를 설정함에 있어 ‘긍정심리학’의 이론은 21세기 현대에서도 중요시되는 학술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긍정심리학은 1998년 미국 심리학회장으로 취임한 마틴 셀리그만(Martin E. P. Seligman)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는 심리학이 부정적 심리 상태가 아니라 긍정적 정서에 대하여 연구하고, 개인의 강점과 미덕을 추구하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새로운 심리학을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라고 명명하였다 (Seligman, 김인자 역, 2009).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행복, 웰빙, 성장, 실현, 번영 등 긍정적인 측면을 심리학적 기초 위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문이며,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최선의 기능 상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이다. 긍정심리학은 개인, 집단, 사회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요인을 찾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권석만, 2010).

2004년에 발표된 ‘V.I.A 성격 강점 및 덕목 분류 체계’는 방대한 경험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시대와 지역을 넘어 보편적으로 실재하는 인격 특질을 밝혀낸 것이다. 이것은 6개 ‘덕목’과 그에 속한 24개의 ‘성격 강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덕목’과 ‘성격 강점’은 모두 윤리학의 덕(德)에 해당되는 것이다(윤병오, 2012).

즉, 상위의 덕목 6개와 이에 속하는 하위의 성격강점인 24개가 역사와 문화를 넘어 보편적으로 존재하거나 적어도 편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덕목(virtue)’으로 명명된 상위의 덕은 지성, 용기, 인간애, 정의, 절제, 초월이다. 각 ‘덕목’은 3 ~ 5개의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들로 구성된다(문용린외, 2009).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 지성(wisdom & knowledge)은 지식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인지적 덕목이다. 성격 강점으로는 창의성(creativity), 호기심(curiosity), 개방성(open-mindedness, 비판적 사고), 학구열(love of learning), 지혜(wisdom) 등 5가지가 있다.

- 용기(courage)는 내적·외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지적 덕목이다. 성격 강점으로는 용감함(bravery), 끈기(persistence, 근면), 진실성(integrity, 정직성), 활력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vitality, 열정) 등 4가지가 있다.

◦ 인간애(人間愛, humanity)는 타인을 돌보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과 관련된 대인 관계 덕목이다. 성격 강점으로는 사랑(love), 이타성(altruism, 친절, 관용, 배려),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 정서지능) 3가지가 있다.

◦ 정의(justice)는 건강한 공동체 생활의 바탕이 되는 시민적 덕목이다. 성격 강점으로는 시민의식(citizenship, 협동심, 책임감), 공정성(fairness), 리더십(leadership) 등 3가지가 있다.

◦ 절제(temperance)는 지나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부터 보호해 주는 덕목이다. 성격 강점으로는 용서(forgiveness), 겸손(humility), 신중성(prudence), 자기조절(self-regulation) 등 4가지가 있다.

◦ 초월(transcendence)은 현상과 행위에 의미를 부여해 주고 더 큰 세계와 연결해주는 덕목이다. 성격 강점으로는 심미안(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 감사(gratitude), 낙관성(optimism), 유머(humor), 영성(spirituality) 5가지가 있다.

덕목은 추상적이지만, 성격강점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다. 또한 VIA 분류체계는 24개 각 성격 강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VIA 분류체계는 덕 윤리가 지닌 덕과 행복에 대한 기본관점과 전제들을 수용하면서, 덕윤리가 결여하고 있는 실증성을 갖추고 있고 덕 윤리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교육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저자들의 말대로 VIA 분류체계는 덕 윤리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이고, 덕 윤리는 “성격강점에 대한 철학적 접근”(Peterson & Seligman, 2004)인 것이다 (윤병오, 2013).

이 같은 긍정심리학의 덕목과 성격 강점들은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나 수련자 신조 논리와도 직결될 수 있는 학문적 성과이다. 후속 단락에서 다루게 될 수련자 신조의 항목에 대한 개념 설명에 대해 긍정심리학의 발달된 이론을 인용하게 될 것이다.

5. ‘수련자 신조’의 구성 원리

수련자 신조는 어떤 설정 원칙에 의해 수립될 것인가가 본 주제의 관건이다. 즉 태권도 정신과 수련과 관련된 여러 덕목들과 가치들 중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설정하느냐에 수련자 신조를 구성하는 논리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다음 다섯 가지 구성 원리에 따라 수련자 신조를 결정하였다. 첫째, 적절한 신조 항목의 개수를 지정하는 것이다. 둘째, 태권도의 기초정신인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를 구현하는 구체적 실천 덕목을 정한다. 셋째, 수련자 신조에는 태권도인의 인식과 선호도가 반영될 필요도 있다. 넷째, 수련자 신조에는 가치영역에 따라 덕목이 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련자 신조로는 태권도계 문제 상황을 개선하는 덕목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수련자 신조’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

수련자 신조는 몇 개의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수련자에 생활에 필요한 덕목들이 가능한 많을수록 좋을까? 단적으로 대답하면 그렇지 않다. 수련자 신조는 핵심적이면서 간단명료해야 어린이 수련생을 포함한 태권도인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몇 개가 가장 적절한 지는 기존의 신조 관련 사례들로부터 참조할 수 있다.

앞 단락에 제시된 ‘태권도 5대 신조’ 등 관련 신조들은 모두 다섯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최홍희의 5대정신’도 다섯 개 항목이다. 이는 신조나 정신 내용이 다섯 개 정도면 가장 적절하다고 널리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들면, 다섯 개 문장이면 어떤 신조의 내용을 무리 없이 담아낼 수 있고 아울러 신조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들이 모두 이해하고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5가지 항목의 단어나 문장으로 태권도의 실천덕목을 수련자 신조로 지정하는 것이 첫 번째 구성원리이다.

2)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의 기초 정신에서 비롯된다.

수련자 신조는 정신체계의 위계적 구성 원칙에 따라 태권도의 기초정신인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문장에서 파생된다.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 정신의 하위 영역으로서 상호 연결된 구조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정신과 신조 각 항목 간의 논리적 연결성이 잘 설명되어야 한다. 의지력과 도덕적 실행력을 의미하는 ‘나를 이김’과 태권도인의 원대한 이념성인 ‘세상을 이롭게 함’에서 파생되는 구체적으로 실천 덕목이 수련자 신조 내용이 요청된다.

먼저 ‘나를 이김’의 의미와 관련된 구체적 실천 덕목을 살펴보자. ‘나를 이김’이란 자기의 나약함이나 부당함을 이겨내는 의지력 또는 정신력을 뜻한다. 한자어로는 ‘극기(克己)’로 표현된다. 극기는 “자기를 극복하다.(to overcome oneself).”한 뜻으로 태권도 정신에서 널리 활용되는 어휘이다. ‘극기’란 명사 단어와 같이 ‘자기를 극복함’, 또는 ‘자기를 이김’, ‘나를 이김’등 명사 형식의 문장으로 서술될 수 있다.

‘나를 이김’의 의지력을 구체화하는 태권도인의 생활덕목으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까? 그 세부 덕목 내용은 김병준(2013)의 태권도 인성교육 연구에서 참조될 수 있다. 김병준은 태권도 수련 목표와 관련된 모든 덕목들을 취합해서 24개의 세부 덕목으로 제시하였다. 이 덕목들은 기존의 추상적인 정신적 어휘들을 배제하고 태권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덕목들로만 선별되었다. 이 24개 덕목들은 본 과제인 수련자 신조가 도출될 수 있는 적절한 근거 항목이 된다.

김병준의 세 개의 가치영역 구분에 근거한다면 ‘나를 이김’은 ‘자기가치 영역’을 포괄하는 추상적인 어휘가 될 수 있다. 즉 ‘나를 이김’은 김병준이 제시한 11개 덕목들이 포괄하는 자기가치 덕목들을 포함할 수 있는 추상적 어휘이다. 태권도 현장에서 추구되는 자기가치 영역의 덕목으로는 정직, 인내, 책임감, 성실, 절약정신, 자신감, 자기존중, 신중, 용기, 주도성, 열정 등이다. 이 11개 덕목들이 수 많은 태권도 정신 항목 들 중 선별 화됨으로써 수련자 신조의 후보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태권도의 기초 정신으로 ‘세상을 이롭게 함’은 ‘홍익(弘益)’이란 명사 단어를 명사 문장으로 서술한 것이다. ‘홍익’은 한국 고유사상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에서 유래한다. 홍익인간의 가치관과 관련 덕목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기로 한다. 박의수외(2000)는 홍익인간이란 말뜻에서 나타나듯이 그 가치관은 소아(小我)보다 대아(大我)를 존중하는 정신을 강조했다. 이 대아(大我)를 추구한다는 가치관은 자기 이익을 더불어 타인의 유익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숭고한 이타주의(利他主義) 사상을 함축한다. 이에 대해 정영훈(1999)은 “홍익인간은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거나 편협성이나 독단성을 배척하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나를 낮추는 겸양, 관용, 포용의 덕으로 통한다.”라고 기술했다. 이 같은 ‘세상을 이롭게 함’이란 홍익의 의미와 관련 덕목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영훈(1999) :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나를 낮추는 겸양, 관용, 포용
- 권성아(2002) : 통일 한국인상의 한 모형으로서 조화, 평화, 상생의 삶
- 정영훈(2002) : 개인과 사회, 인류공영의 인본주의사상으로서 사랑, 헌신, 봉사
- 강정모(2014) : 상생과 소통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자유, 정의, 평화
- 민영현(2010) : 포용, 어울림, 조화, 봉사, 희생, 상생의 철학

학자들이 제시한 ‘세상을 이롭게 함’의 관련 덕목들은 홍익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추상적인 어휘들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태권도 신조로서 부적절하며 결국 태권도 인성교육 관련 덕목들을 참조해야 할 것 같다.

‘세상을 이롭게 함’과 관련해서 앞서 논의한 김병준(2013)의 연구에서 추출된 세 개의 가치영역을 먼저 살펴보자. ‘세상을 이롭게 함’이란 홍익 이념은 대인관계 영역과 사회정의 영역을 포괄할 수 있다. 앞의 ‘홍익’의 뜻풀이에서 나왔듯이 홍익 이념은 주변사람부터 시작해서 사회, 국가, 인류공영까지 확대되는 대상을 위해 유익한 행동을 실천하자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김병준이 구분한 대인관계 영역과 사회정의 영역은 홍익 이념에 적절히 편입될 수 있다. 즉 예의, 배려, 우정, 용서, 신뢰, 존경, 리더십, 사랑, 공평 등의 9개 대인관계 덕목들과 협동, 준법정신, 애국심, 정의 등 사회정의 영역의 4개 덕목이 홍익 이념에 배정될 수 있다. 이 같은 총 13개 덕목들이 홍익의 하위 실천 덕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선택안이 된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3) 수련자 신조에는 태권도인의 인식과 선호도가 반영될 필요도 있다.

태권도인들이 태권도 신조로서 가장 선호하는 덕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별도의 엄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렇지만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한 실증적 연구는 수련자 신조로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시사한다.

2014년 국기원 용역과제로 이재돈 연구팀이 수행한 ‘태권도 수련의 정신적 가치 연구’는 본 수련자 신조에 해당하는 적합한 덕목들을 제시하였다(이재돈외, 2014). 이재돈은 7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태권도인들이 현재 인식하는 정신적 가치들을 양적 연구방법으로 파악해냈다. 그 상세 내용을 고찰해본다.

(1) 태권도 수련의 정신적 가치

인내(25.1%), 예의(18.3%), 정신력(6.4%), 자신감(6.1%), 끈기(5.7%), 도전정신(4.3%), 인성(교육)이 2.8%, 집중력(2.5%)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5대 정신, 건강, 겸손, 자기성찰, 마음가짐, 심신단련, 배려, 협동심, 정의, 염치, 용기, 의리 등이다.

(2) 국기원의 정신적 지표 또는 원훈

예의(103개), 도전정신(45개), 인내(44개), 청렴결백(44개), 세계화(39개), 태권도인다움(36개), 국기태권도(33개), 자신감(27개), 사회성(22개), 염치(18개), 극기(14개), 겸손(12개), 인성(12개), 강인함(9개), 백절불굴(8개), 배려(8개), 기본(7개), 5대정신(6개), 실력(3개), 정신력(5개), 신념(4개)로 나타났다.

3) 진정한 태권도인이란?

총 641개의 다양한 답변이 도출되었는데, 범주화된 내용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 (138개), 품격 있는 사람 (90개), 겸손하고 배려하는 사람 (74개)
 정정당당한 사람 (69개), 강인한 사람 (49개), 심신이 건강한 사람 (34개),
 노력하는 사람 (32개),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 (25개), 태권도 5대 정신을 갖춘 사
 람 (22개)
 정의로운 사람 (18개), 태권도 실기능력이 뛰어난 사람 (18개),
 기본에 충실한 사람 (10개), 충효를 실천하는 사람 (7개)

위 세 가지 문항의 응답 내용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항목에서 태권도 수련의 정신적 가치로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인내, 예의이다. 이 응답 결과는 통상 납득할 수 있는 예상치로 보이지만 인내, 예의에 대한 태권도인들의 높은 선호도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둘째 항목은 국기원의 정신적 지표에 대한 개방식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질문 내용이 국기원의 정신적 지표나 원훈이었는데 응답자들은 전체 태권도인들의 지표로 이해한 것 같다. 역시 예의가 최고의 비율로 나왔고 도전정신, 인내, 청렴결백이 뒤를 이었다. 셋째 항목은 진정한 태권도인의 상(像)에 대한 주제로서 다양한 답변 내용이 제안되었다. 이 문항에서도 역시 예의에 대해 태권도인들의 높은 선호도가 여실히 나타났다. 진정한 태권도인이 지녀야 할 자질로서 예의에 이어 도출된 품격, 겸손, 배려, 정정당당함, 강인, 정의 등은 상당히 의미 있는 덕목들로 판단된다. 이 들 덕목들은 무예 운동가인 태권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성품으로서, 본 수련자 신조 내용에도 신중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4) 수련자 신조에는 가치영역에 따라 덕목이 배정되어야 한다.

앞 단락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태권도의 기조 정신에 따라 다섯 개의 신조 항목들이 가치 영역에 따라 적절히 배정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해 필요한 덕목과 ‘세상’을 위한 유익한 행동 덕목들이 각각 두 세 개씩은 배분되어야 전체적인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 즉 ‘나를 이김’은 ‘자기가치 영역’으로서 개인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인성 덕목과 결합한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정직, 인내, 책임감, 성실, 절약정신, 자신감, 자기존중, 신중, 용기, 주도성, 열정 등이 있다. 아울러 ‘세상을 이롭게 함’은 자기와 타인의 관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인성 덕목인 ‘대인관계 영역’과 사회, 국가,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사회정의 영역’과 결부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즉 예의, 배려, 우정, 용서, 신뢰, 존경, 리더십, 사랑, 공평 등 대인관계 덕목들과 협동, 준법정신, 애국심, 정의 등 사회정의 영역 덕목이 있다(김병준, 2013).

그런데 ‘태권도 수련자 신조’를 지정함에 있어 앞의 세 가지 가치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바로 ‘수련자 신조’가 진정한 태권도인을 양성하는 참다운 ‘태권도 수련자’의 신조로서 그 존재 가치와 기능을 강화시키는 사안이다. 다시 말해 태권도 신조에는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수련자들에게 태권도 수련 자체에 대한 열정이 강조되어야 하는 점이다. 태권도인의 개인적 성취와 사회 도덕적 행동,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꾸준한 태권도 수련으로 양성될 수 있는 진정한 태권도인의 실력과 기품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모든 태권도인은 평생 태권도를 사랑하고 몸소 수련하며 탁월한 지도와 참여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수련자 신조에는 태권도인의 필수 자격 조건으로 태권도 수련 열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태권도의 기조 정신과 수련자 신조는 가치 영역과 취지에 따라 세부적 실천 덕목들을 갖는다. 이 둘 관계를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 수련자 신조의 가치영역에 준거한 해당 덕목

태권도 정신의 범주	가치 영역	의 미	관련 덕목
태권도인 필수 조건		태권도 수련과 지도 및 제반 활동에 대한 투철한 신념	태권도 수련과 활동에 대한 열정, 정열, 열의, 열성
나를 이김	자기가치 영역	개인차원에서 실현가능한 덕목	정직, 인내, 용기, 성실, 자신감, 책임감, 집중력
세상을 이롭게 함	대인관계 영역	자기와 타인의 관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덕목	예의, 배려, 겸양, 신뢰, 존중, 존경, 리더십, 사랑, 의리, 관대, 관용, 상생,
	사회정의(正義) 영역	사회, 국가,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홍익의 절대조건	정의, 공정, 준법, 평화, 공평무사, 인간애(人間愛)

앞 도표에 나온 ‘관련 덕목’들은 신조의 선택안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다. ‘관련 덕목’의 내용들은 김병준(2013)과 이재돈(2014) 그리고 기타 관련 연구에서 도출된 태권도 덕목들로 채워져 있다. 이 해당 덕목 내용들 중에서 적절한 기준에 따라 신조가 확정되게 된다.

5) 수련자 신조로는 태권도계 문제 상황을 개선하는 덕목이 반영되어야 한다.

수련자 신조의 마지막 구성 원리는 현 시대, 우리가 몸담고 있는 태권도계의 문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한 덕목을 반영해야 하는 구성 원리이다. 여기서 수련자 신조를 실행해야 할 당사자에 대해 재차 언급해 본다. 수련자 신조를 지켜야 할 대상자는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태권도인들이다. 도장의 어린이 수련생들과 지도자,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들과 경기 지도자, 공인 9단의 나이 지긋한 고단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태권도인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들이 수련자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같은 많은 태권도인들 중에서 몇몇 지도자급 인사가 저지른 불법적 사건들이 신문방송에 보도되기도 한다. 경기 판정에 얽힌 금전거래, 구타, 폭력, 성추문 등 도덕적 차원을 넘어선 불법적 사건들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확산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수련자 신조를 통해 사회 정의 의식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상을 이롭게 함’란 기조 정신이 태권도의 대외 선전용 구호로만 사용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를 기본 수준이라도 실천하려면 사회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공정하고 준법적 행동을 지극히 당연한 듯이 실천해야 한다. 그 정정당당함을 바탕으로 도덕적 성품도 축적하고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기여하는 멋진 태권도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6. ‘수련자 신조’의 구성 내용

그간 태권도 정신으로 간주되었던 여러 덕목들 중에서 현 시대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다섯 가지 덕목을 선별해서 신조의 핵심가치로 지정했다. 앞 단락에 진술된 다섯 가지 구성 원리에 따라 본 연구진은 여러 차례 신중한 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확정된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열정’, ‘용기’, ‘인내’, ‘예의’, ‘정의(正義)’이다. 이 다섯 가지 신조들은 대부분 태권도 정신으로 거론되었던 어휘들이다. 이 중 ‘용기’, ‘인내’, ‘예의’ 등은 기존의 태권도 정신으로서 태권도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정신 덕목이다. 반면 ‘열정’과 ‘정의(正義)’은 다른 신조에 비해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으므로 상세한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한다. 다섯 가지 신조들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열정은 간단히 ‘태권도 열정’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태권도 수련에 대한 열정’을 말한다. 태권도 열정은 태권도인의 필수적 조건으로써 모든 수련자들이 평생 수련을 실행한다는 투철한 마음가짐을 표현한다. 더 풀어보면 ‘태권도 수련과 지도, 태권도 행사 및 참여 등 태권도 제반 활동에 관한 열정’까지도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열성, 열의, 열중, 성실, 노력 등 유의어가 있다. 열정은 태권도를 사랑하고 도복을 입고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 ‘평생 태권도인’을 양성한다. ‘태권도를 사랑하고 수련에 정진하는 사람’, ‘태권도에 몰입하는 사람’, ‘정통 태권도의 멋을 알고 태권도의 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심신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태권도인’, ‘태권도 실기 또는 기량이 뛰어난 사람’, ‘태권도 달인 또는 명인(名人)’ 등의 여러 태권도인 상(像)이 창출될 수 있다.

둘째, 용기는 ‘나를 이김’이란 태권도 정신을 실천하는 덕목이다. 목표 성취를 위한 의지력으로서 자기가치영역을 대표한다. 승리의 목표 성취를 위한 태권도 전문 선수들은 물론 일반 수련자들까지도 요구되는 정신 능력이다. 자신감, 도전정신, 의연함, 정직, 리더십 등은 용기와 연결되는 개념어들이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 ‘굳센 마음을 지닌 사람’ 등 용기와 관련된 태권도인 상(像)이 된다.

셋째, 인내 역시 용기와 더불어 ‘나를 이김’이란 태권도 정신을 실천하는 덕목이다. 목표 성취를 위한 의지력으로서 자기가치영역을 대표한다. 인내가 채택되는 것은 세 번째 신조 구성원리에서 언급되었듯이 태권도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정신적 가치로 꼽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한다. 참을성, 끈기, 과제집착력, 절제, 자제, 성실 등의 유의어와 연계덕목이 있다. 인내와 관련된 태권도인 상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 ‘강인한 태권도인’ 등이 있다.

넷째, 예의는 ‘세상을 이롭게 함’이란 태권도 정신을 실천하는 덕목이다. 대인관계 영역을 대표하는 핵심 덕목이다. ‘예의’가 수련자 신조로 채택되는 것은 태권도인들이 으뜸가는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로 세 번째 신조 구성원리에 준거하였다. 유의어와 연계덕목으로 배려, 타인존중, 존경, 겸손, 겸양, 애국심, 효도, 등이 있다. ‘예의바른 태권도인’, ‘기품 또는 품격 있는 태권도인’, ‘겸손하고 배려하는 사람’, 등이 예의 관련 태권도인 상(像)이다.

다섯 째, 정의는 ‘세상을 이롭게 함’이란 태권도 정신을 실천하는 덕목이다. 사회정의 영역을 대표하는 핵심 덕목이다. 정의는 신조의 다섯 번째 구성 원리에 따라 결정된 덕목이다. 정의는 여러 차례의 본 연구진과 전문가 집단의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현 시대 태권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확정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태권도 종목의 교육적 기능(사회 및 학교 태권도장), 현저한 경기적 특성, 방대한 조직체계 등이 다른 어느 종목보다 활성화된 세 가지 특성에서 기인한다. 바로 이 세 가지 태권도의 특성에서 비롯된 특별한 상황이 태권도인의 올바른 정신과 수련자 신조, 지도자 행동강령, 바람직한 태권도인 상(像)을 절실히 필요하게 만든다. 태권도계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불협화음, 말썽, 부조리, 비리 사건, 사태 등은 공평, 공정성이 깃든 정의(正義)의 부재에서 대부분 기인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권도 교육과 경기, 단체 활동에 종사하는 주요한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정의만 잘 지켜도 태권도는 큰 지장 없이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지도자급 태권도인들이 사리사욕이 배제된 공정성과 정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란 태권도의 기조 정신을 세계에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 정의는 태권도가 인류와 더불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이나 덕목이다. 공정, 공평, 정직, 청렴결백, 공평무사, 공명정대, 약자 돕기 등은 정의와 연결되는 단어이다. ‘정정당당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공평무사한 태권도인’ 등은 정의를 표출하는 태권도인 상(像)이다.

앞의 신조 항목들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란 태권도 정신에서 도출되는 자기가치, 대인관계 및 사회정의를 포괄하는 정신적 가치로 구성된다. 5대 신조는 태권

도인들이 추상적인 개념의 태권도 정신을 현실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다. 5대 신조를 구성하는 정신적 가치와 핵심 덕목들은 언어상으로는 일반적 덕목들과 동일하지만 태권도의 본질이나 수련 목적 그리고 태권도인의 가치관을 반영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덕목들과 차별화되는 태권도의 특성을 갖는다. 즉 열정이나 용기, 정의는 일반적인 언어의 미덕 단어를 채택한 것이지만 태권도 분야에서 사용되는 의미나 내용은 다른 분야의 의미 내용과 차별화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섯 가지의 신조 구성 원리에 따라 확정된 수련자 신조 구성은 다음 표로 간략히 정리될 수 있다.

표 IV-2. 수련자 신조의 구성 덕목

태권도 정신의 범주	가치 영역	핵심 덕목
태권도인 필수 조건		(태권도) 열정
나를 이김	자기가치 영역	용기, 인내
세상을 이롭게 함	대인관계 영역	예의
	사회정의(正義) 영역	정의

앞의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 수련자의 근본 조건인 열정 항목과 더불어 총 다섯 가지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정을 제외한 신조의 3개 하위영역들은 첫째, ‘자기가치’ 영역으로는 용기와 인내, 둘째, ‘대인관계’ 영역으로는 예의, 셋째, ‘사회정의’ 영역으로는 정의 등으로 구성됨으로써 각 영역별로 항목들이 적절히 안배되었다. 특히 대인관계와 사회정의 영역은 각 1개씩의 덕목이 배정되었고 자기가치 영역에 한해서 용기와 인내의 두 덕목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각 가치 영역별로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신조 덕목들이 확정되었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이어지는 소 단락에서는 각 신조의 항목별 의미와 내용을 선행 자료를 토대로 해설하기로 한다. 각 항목들이 신조로 채택된 이유를 설명하고 아울러 태권도 정신과 관련된 이유를 밝히기로 한다.

1) (태권도) 열정 Passion - 평생수련, 태권도 사랑

(1) 태권도 수련자 신조로서 ‘열정’이 채택된 이유

태권도 수련자 신조로서 ‘열정’이란 ‘태권도 열정’이다. 열정이 태권도 신조의 으뜸가는 항목으로 채택된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태권도 열정’은 ‘바람직한 태권도인’을 규정하는 기준이자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태권도 열정 없이는 태권도인도 없다. 즉 태권도인은 태권도 열정과 그 실행 정도에 따라 색깔이 연하거나 진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 열정은 수련자의 정신과 몸에 태권도 색깔을 진하게 입힘으로써 진정한 태권도인을 만드는 원동력이자 절대 조건이 된다.

둘째, ‘열정’을 태권도 신조에 도입함으로써 바람직한 태권도인을 양성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태권도인은 태권도 열정을 신조로 삼게 되면, 평생 수련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태권도 지도와 제반 활동에 동참하며 궁극적으로 태권도에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수련에 정진하는 성실하고 참다운 수련자를 양성하는 바탕이며, 현재에도 앞으로도 태권도를 열심히 수련하기 위한 조건인 것이다. 태권도 열정이란 짧은 시절 한 때의 열정이 아니라 몸을 가눌 수 있는 한 평생 지니고 가는 것이다. 평생 태권도를 사랑하고, 태권도를 수련하며, 태권도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를 지니는 원동력인 것이다.

셋째, 열정은 우리가 왜 태권도를 수련해야 하는지, 즉 태권도 수련 목적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이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근본 이유는 ‘태권도를 사랑해서’이다. 태권도인은 태권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태권도를 열심히 수련하고 태권도를 평생 수련하고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힘쓰며 태권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즉 태권도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태권도 수련에 정진하고, 태권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태권도 발전에 동참하는 것이다.

“태권도 열정 없이는 태권도 정신은 물론 기술 성취도 성공도 없다.”라는 명제에 따라 태권도인의 개인가치, 대인관계, 사회정의 등을 포괄한 수련자 신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조건이 열정이다.

(2) ‘열정’의 개념

‘열정(熱情)’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으로 풀이된다(국립국어원). 유의어로는 열성, 열의, 정열이 있다(어휘정보처리연구소). 열정은 철학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졌지만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을 비롯한 심리학의 주제이기도 하다.

열정이란 “개인이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자 하는 강한 성향”을 일컫는다. 심리적 관점에서 열정은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Vallerand & Miquelon, 2007: 207). 열정은 인간의 내적동기와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열정을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열의의 지니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열정은 심리적 만족에 의한 결과로 생성되는 것인 만큼, 열정이 높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 상태를 가지게 된다.

열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열정은 개인이 지닌 장애 혹은 난관을 딛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결국에는 수월성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안도희외, 2009).

한편 열정의 교육적 의미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목표는 있으나 어떻게 이뤄나가야 하는지 망설이는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명확한 목표 설정 과정과 동기 부여에 대한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김병준외, 2013).

인생철학적 관점에서 표현된 짙막한 문구들에서 열정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고 널리 깊숙이 스며든다.

-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명확한 목표와 그것을 이루려는 뜨거운 열망(passion) - 브래드 머든
- 열정이란 어떤 목표 완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뜨거운 원동력이다 (Colan, 2006).
-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사명감을 갖고 하나만을 억척스럽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만이 어떠한 일이든 성취해낼 수 있다. - 피터 드러커
-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를 밟아 나아가라. 그것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다. - 마이클 조던

(3) 태권도 분야에서 ‘열정’의 의미

열정에 대해 태권도 정신이나 교육과의 연관성을 거론한 내용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김병준(2013)의 태권도 인성교육에서 열정이 나오는 정도이다. 그는 열정을 24개 덕목의 하나로 포함시켜 자기 가치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김병준은 특히 어린이 태권도 수련자들의 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으로 열정을 설명했다.

본 고의 논지는 김병준의 논지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그렇지만 본 고는 수련자 신조를 인식하고 발휘해야 할 대상자가 모든 태권도인이며, 태권도 수련 행위와 활동과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그의 관점과 다소 차별화된다. 앞 단락에서 거론한 열정의 개념을 종합해서 태권도에 접목시켜 보면, ‘태권도 열정’이란 태권도와 관련한 수련과 지도, 제반 활동을 포괄하는 열정을 말한다. 즉 ‘태권도 열정’이란 본 고에서는 수련자 대상과 목표에 따라 ‘태권도 수련 열정’과 ‘태권도 지도 열정’, ‘태권도 활동 열정’ 등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태권도 수련 열정’이란 수련자가 태권도를 직접 수련해야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열정으로, 승급 승품 심사에 합격하기 위해,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또는 어떤 태권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열심히 수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권도 열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수련 열정이다. 초보 수련자가 초기에는 단순한 흥미에 이끌려 아니면 호신술 습득을 위해 태권도를 시작한다. 수련 도중에는 승급, 승품단 심사 합격을 목표로 태권도 기술을 습득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도 한다. 또 기량이 높아지면서 수련자는 태권도 시범이나 대회 출전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정해 열정적으로 수련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자신의 건강이나 활력 증진을 위한 목표로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평생 태권도인으로서의 열정을 갖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태권도 지도 열정’이란 태권도 지도자들이 수련생들이 태권도를 몰입하게 만들기 위해 지도 행위에 총력을 쏟는 것을 말한다. 즉 수련생의 기술 발전과 흥미도, 인격 형성에 도움되는 효율적인 지도 내용(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도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열정을 의미한다. 태권도가 세계화되기까지는 세계 여러 나라로 진출하여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태권도 뿌리를 내린 지도자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각 지역의 사정과 그들의 성향에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맞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태권도 지도 방법을 개발한 지도자들의 열정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태권도 선수가 배출되고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정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국내 태권도 수련생들이 어린이, 청소년들로 국한되면서 많은 지도자들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적합한 지도자로 변신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또한 사회 경제난, 저출산, 태권도장끼리의 치열한 경쟁 등이 지도자들에게 고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 일수록 태권도 지도자들의 투철한 열정이 태권도를 존속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태권도 활동 열정’이란 태권도인이 태권도에 관련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열정을 한다. 즉 태권도 행사 주최 및 참여, 시범 활동, 심판, 연구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해 태권도와 관련된 본인의 해당 전문 분야에 참여하는 열정이다. 태권도 진행자, 태권도 대회 심판, 이론지식 연구자 등 그들의 열정들에 의해 태권도가 세계 널리 뻗어 나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혁신적인 태도로 내실 있는 태권도의 성숙에 주력하는데 앞장서야 할 상황이다.

이와 같이 태권도에서 열정은 단순히 흥미로운 동기가 작용해서 태권도를 열심히 수련하려는 마음가짐인 열정에서부터 평생 태권도를 추구한다는 확고한 신념의 수준까지 포괄한다. 즉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시 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평생 수련한다는 투철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개인적 수련 행위가 태권도 열정의 가장 근본이 된다. 최근 본 연구자는 태권도 열정의 가장 모범적인 전형을 접할 수 있었다. 무덕관 출신의 어떤 사범님께서 현재 공인 9단으로서 나이가 70대 중반인데 88세까지 팔팔하게 태권도를 수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품고 수련에 열중하시는 모습이였다. 이 처럼 태권도 수련 행위를 꾸준히 지속하면서 아울러 태권도 지도와 관련 활동에 소신 있게 참여하면서 바람직한 태권도인의 인생을 영위하는 것이 태권도 열정에서 비롯한 것이다.

2) 용기 courage - 굳센 마음, 자신감, 도전정신, 리더십의 기본 조건

(1) 태권도 수련자 신조로서 ‘용기’가 채택된 이유

용기(courage)는 '행하기 두려운 일을 하게 하는 정신적 능력'이며 심리학적 개념인 자신감(confidence)이나 담력, 결단력, 도전정신 등 여러 유의어를 갖는다(Robert, 2001; 서울대학교국어연구소, 2010). 용기가 태권도신조로 채택된 것은 다음 네 가지 이유에 의해서이다.

첫째는 태권도 정신체계에서 수련자 신조의 상위 요소인 태권도의 기조정신, ‘자기를 이긴다(극복한다).’란 태권도 수련 목표 성취와 관련된 구체적 생활신조로서 용기는 적절한 정신 항목이 되기 때문이다. 즉 태권도의 기조정신인 ‘나를 이긴다.’란 수련자의 자아실현을 위해 나약한 심성을 극복하고 강건한 자아를 확립하는 정신력과 더불어 부당한 욕망을 극복하겠다는 신념이자 도덕적 실행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건하고 정당한 자아를 구현하는 ‘나를 이긴다’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용기는 필수적인 능력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추상적인 ‘나를 이긴다’란 개념은 자기가치 영역에 속하는 ‘용기’라는 하위 정신 덕목에 의해 수련자의 성공적 인생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타인과 겨루는 격투기법인 태권도의 특성상, 용기는 전통적으로 태권도인의 필수적 능력으로 많은 지도자들에 의해 중요하게 간주되기 때문이다. 심각한 부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폭력적 위기상황에서 굳센 용기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호신적 관점에서는 태권도인이 어떤 위급한 폭력적 공격을 당했을 때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격투술적 대응은 최종적 수단이며 우선적으로 그 상황을 적절하게 벗어나는 용기 있는 대응방안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예기치 않는 폭력 상황은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위축시키므로 침착하고 굳센 마음가짐은 사태 판단과 해결에 도움이 되며 태권도 수련에서 양성될 수 있는 정신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김영선, 2011).

셋째, 태권도 수련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긴장된 상황, 즉 태권도 심사, 시범행사, 경기 등에서 강한 정신력 또는 의지력으로서의 용기는 중요한 정신 요소이다. 특히 상대와 맞서 차고 치는 태권도 겨루기 기술에서는 필수적인 정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반복적인 태권도 수련은 기술의 습득과 발현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인지적, 정서적 목표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을 실현할 수 있는 의욕과 자신감 있는 행동력을 기르게 한다(류병관, 2004). 특히 어린이에게 태권도 수련은 침착성, 자신감을 의미하는 용기를 증진시키는 운동종목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이규형, 2002).

넷째, 자신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용기는 태권도 수련의 정신적 가치로 예의, 인내에 이어 많은 태권도인들에게 선호되기 때문이다. 태권도인 145명의 심층면접조사에서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신적 가치’로 자신감, 강인한 정신, 도전(정신), 패기 등의 용기 관련 항목들이 예의, 인내 항목에 이어 세 번째 순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775명을 대상한 설문조사에서도 정신력, 자신감, 극기, 도전정신 등의 응답이 인내(25.1%)는 예의(18.3%)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가치로 응답되었다(이재돈외, 2014).

또한 용기는 여러 태권도 지도자와 학자들로부터 태권도 정신의 일부로 규정되었으며 태권도의 무예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덕목이다.

원로 대사범이자 전 미국 ATA 회장이었던 이행웅은 태권도의 정신적, 교육적 가치 증대를 위해 미국의 교육 전문가들에 의뢰하여 6년에 걸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들은 수련생의 인격 함양을 위해 태권도의 특성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가치와 덕목으로 1년, 12달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했다. 바로 극기(self-control), 우정(friendship), 인내(perseverance), 정의(justice), 명예(honour), 예의(respect), 충성(royalty), 자신감(self-confidence), 성실(integrity), 용기(courage), 관용(generosity), 조화(harmony) 등 12개 항목이다(태권마루, 2008). 이행웅과 교육 전문가들이 설정한 12개 인성 덕목으로 용기는 유사어인 자신감과 더불어 태권도와 연관된 주요한 인성 덕목임을 알 수 있다.

태권도인에게 용기는 나약한 심성을 이겨내고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 굳센 마음가짐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태권도 수련 시 긴장 상황을 자신감 있게 이겨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태권도인이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 5대 신조에 포함되었다.

(2) ‘용기’의 개념

용기에 관한 많은 내용 중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골라서 요약하기로 한다. 우선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는 용기의 의미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 용기란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개(氣概)”라고 풀이된다. 여기서 용기의 유개념(類概念)인 ‘기운’은 ‘생물이 살아서 움직이는 힘(vigor), 원기(energy), 생기(vitality)’를 뜻한다. ‘기개(氣概)란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를 말하기도 한다(네이버국어사전; 네이버영어사전). 이 같은 사전적 정의는 용기의 개념을 간단명료하게 알려주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또한 사전에서는 기개나 원기, 절개 등의 또 다른 유개념이 제시되어 오히려 이해하는 데 혼돈을 준다. 따라서 용기의 개념에 대해 다른 세부적 정보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자어인 ‘勇氣(용기)’의 핵심어인 ‘용(勇)’은 날래다는 뜻으로 ‘甬(용)’과 ‘力(힘 력)’의 합자이다. ‘甬(용)’은 ‘솟아오르다’라는 뜻이므로 ‘용(용)’은 ‘힘이 솟아오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로부터 용기라는 의미가 생겨났다(허성도, 2007). 일상에서 용기(勇氣)라는 말은 씩씩하고 용감한 기운으로 사용되며, 보통 ‘날래다’, ‘용감하다’, ‘과감하다’, ‘결단력이 있다’ 등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위의 어원적 풀이에 따르면, 용기라는 말은 펄쩍 뛰듯이 솟는 힘으로 심신(心身)의 활력을 뜻한다(崔枢华外編, 2000).

한편 영어권에서 용기는 ‘courage’라는 단어로 대표된다. 이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위험, 두려움, 고통 등등에 직면할 수 있게 하는 마음 혹은 정신의 특질’, ‘두려움, 고통, 위험, 불확실성, 혹은 험박에 맞서는 능력(ability)’,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위 하고자 하는 자신의 확신에 관한 담력(배짱)’ 등을 뜻한다. 이의 반대말은 ‘cowardice’로 우리말 겁, 소심에 해당한다. 어원적으로 보면, courage라는 단어는 심장, 마음, 감정의 중추, 의지, 지혜 등을 의미하는 ‘heart’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세 영어에서 ‘heart’는 ‘자신의 마음 혹은 생각 속에 있는 것’으로 ‘bravery’의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또한 격노, 긍지, 확신 혹은 배짱, 원기왕성, 어떤 성향(inclination)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wiktionary).

이같이 용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집단 간의 전쟁에서 필수불가결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용(勇)’, 서양에서는 ‘courage’란 단어로 전승되었다. 유가(儒家)의 사서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四書) 중 하나인 중용(中庸)에는 ‘용(勇)’은 지(智)과 인(仁)과 더불어 천하의 달덕(達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달덕(達德)은 어디든지 통하는 공통의 실천원리(實踐原理), 즉 잠시도 떠날 수 없는 보편적 도리 또는 변함없는 도리라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이원목, 2005). 서양에서도 용기는 주요한 덕으로 간주되어 왔다. 저명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가 오직 전쟁터에서만 발견될 수 있었다고 보았는데, 이 때 용기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쟁터에 나가 물러나지 않고 싸우는 모습에서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Brafford, 2003). 우리나라에서도 용기는 고대 신라의 세속오계(世俗五戒)에 언급될 정도로 오래 전부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화랑도의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정신은 전사(戰士)로서 충의(忠義)와 용기의 신념을 발휘하여 죽음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정재민, 2012).

용기라는 개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미덕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오래전 전쟁터에서 싸우는 용감한 군인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어 일상적인 삶의 경험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권석만, 2008). 그런데 용기는 ‘무서움’ 또는 ‘두려움’을 전제로 성립하며 만용(蠻勇)이나 허장성세(虛張聲勢)와 같은 부정적 단어와는 상반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갖는다. 즉 어떤 일을 행하기가 어렵고 두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 용기는 발휘되어야 한다.

용기가 만용이나 허장성세와는 다른 점에 대해 우리나라의 저명한 교육학자인 정범모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인간교육이 지향하는 중국적 목표가 인간의 자아실현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중요한 덕목으로 창조, 몰입(열정)가 더불어 용기를 꼽았다. 정범모(1997)는 폭호빙하(暴虎憑河), 즉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맨몸으로 물을 건너려 하는 이른바 ‘만용(蠻勇)’이나 ‘허장성세(虛張聲勢)’와 용기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용’은 무서운 줄 ‘모르는’ 극단적인 경망스러움이나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드는 것은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움이 없기에 용기는 아니다. 무서움이 없으면 용기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릅쓸 힘도 생각도 없으면서 으스대기만 하는 ‘허장성세’ 또한 용기가 아니다. 혼한 표현대로 ‘대군(大軍)도 두려워하지 않음’이 용기가 아니다.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무릅쓰며 용기가 있다. 두려움을 모르는 ‘백전노장(百戰老將)’은 거짓말이다. 전쟁은 싸울수록 더 무서워진다. 다만 더 침착하고 더 슬기로워질 따름이다.”

용기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김태훈(2014)은 “누가 우리에게 용기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흔히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빌딩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방관의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불량배들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구하는 사람을 생각한다. 즉, 오늘날 우리는 용기에 대해 어떤 어려움을 곳곳이 참고 이겨내는 소극적 측면보다는 위험에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요청한다. 특히 한사람의 인간적 권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침해될 당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용기는 더욱 요청되고 있다. 용기의 미덕은 인간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자신을 완성하는 활동과 투쟁에서 응당 요구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유가에서 용기는 주로 도덕적 품격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덕으로 인식되어온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곤란, 위험, 침범, 협박, 압력, 방해에 직면하였을 때 겁내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용기는 철학이나 교육학의 범주에서 벗어나 긍정적 정신 요인으로 간주하는 긍정심리학이론으로 연구되는 단어가 되었다. 또한 긍정심리학을 토대로 불안 장애와 행동 치료를 다루는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 용기는 실증적인 연구의 주제로 부상되었다. 긍정심리학에서 용기(courage)는 “내적, 외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지와 관련된 정서적 덕목”으로서 ‘용감성(bravery)’, ‘인내(persistence)’, ‘진실성(integrity)’, ‘활력(vitality)’ 등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Peterson & Seligman, 2006). 그런데 여기서 인내 또는 끈기를 뜻하는 ‘persistence’가 용기 개념에 포함되는데, 그에 대해 Norton과 Weiss(2009)는 용기는 “두려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또는 인내하기”라고 규정하였다. 또 용기 개념에 포함되는 ‘두려움’과의 연관성이 중요한데, 심리 임상가였던 Rachman()은 “주관적인 두려움을 견디고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에 두려움이 없이 다가가는 것은 단지 ‘두려움이 없는 것(fearlessness)’이지 용기는 아니라고 하였다. 이 말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만용(蠻勇)’이나 ‘두려움이 없음’은 용기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리더십 국제적 강사로 유명한 로버트 스타웃(2001)은 “행하기 두려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용기이다.”라고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용기’라는 단어는 ‘심장, 가슴’을 뜻하는 프랑스어인 ‘coeur’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용기를 발휘한다는 것은 가슴에서 비롯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가슴에서 비롯된 용기는 늘 우리를 안내하도록 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가슴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용기는 가슴에 부합하는 본질적인 진실. 즉 당신의 인생은 소중하고,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며, 당신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진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용기는 고대에는 무사들의 용감성(bravery)으로서 도덕철학 또는 교육심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리학의 중심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리고 긍정심리학과 인지심리학에 이르기까지 학술적인 개념으로 발전한 강조되는 주요 덕목이다.

또한 용기는 유의어인 자신감(confidence)이란 단어와도 밀접히 관련되므로 그 핵심 내용만 간략히 살펴본다. 용기는 주로 철학이나 교육학에서 다루는 어휘이지만 자신감은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어휘이다. 자신감은 용기의 조건이기도 하며 상관적인 관계에 있는 연계덕목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스포츠심리학은 경기력 향상 요인으로서 체력과 기술력과 더불어 자신감을 포함한 심리적 능력을 취급한다. 체력요인에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신체조성 등이 있다. 그렇다면 심리기술의 하위 요인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학자를 비롯하여 각 선수나 지도자에 따라 시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심리기술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Vealey(1988)는 4개의 심리방법과 8개의 심리기술을 도출했는데, 자신감은 우수한 스포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심리기술로 규정했다. 또한 Loehr(1986)는 정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으로서 다른 6개 요인과 더불어 자신감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감 수준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의 지표이며, 경기력의 가장 좋은 예측수단의 하나이다. 이것은 어떤 주어진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몸에 배어 있을 때, 생기는 정신적 태도로 사기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Vealey(1986)는 스포츠 상황에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자신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자신감이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거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혹은 경기를 잘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자신의 내적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영역이며, 모든 스포츠종목에서 필수적인 심리적 요인 중의 하나이다. 자신감이 높은 선수는 스포츠 참여와 성취 활동이 적극적이며 어려운 과제를 도전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한다(김원배, 1999).

자신감 뿐 아니라 ‘강인(強忍)한 정신력’ 결단력, 용감성(braveness), 담력, 침착성, 백절불굴 등 강인한 정신능력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 중 ‘용기’를 채택한 이유는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언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태권도 분야에서 ‘용기’의 의미

태권도에서 용기는 화랑도의 무인정신에서부터 맨손 격투스포츠로서의 현대 태권도의 본질과 연관된 정신적 가치로 계승되었다. 용기는 화랑도의 임전무퇴(臨戰無退)에서 나타나듯이 전투에 임하는 고대의 무인(武人) 정신의 기본이었다. 태권도 정신은 생사를 건 전투와는 거리는 있지만 격투 무예의 본질상 용기와 밀접하다. 만일 상대방과 겨루어야 하는 위급한 격투 상황이라면 마음을 굳게 가지고 사태를 해결하는 용기와 대담성, 침착성, 결연한 태도 등 정신의 발휘는 기술과 더불어 중요한 능력으로 간주된다.

현대 태권도의 선두 도장이었던 청도관 창립자 이원국(1968)은 ‘용무(勇武; 용기 있는 무예)’라는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여 태권도가 특히 허약한 사람들에게 굳센 마음인 용기와 기상을 기르게 하는 훌륭한 정신 수련임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 교본에서 ‘태권도의 정신적인 의의’ 단락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양성할 수 있는 강인함, 담력, 자신감, 의연성 등을 함께 들어 용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대한태권도협회, 1972).

용기와 관련해서 안용규(2000)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호신능력을 갖추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 언급했다. 또 격투능력으로서 용기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창후도 “바로 힘이 세다는 신체적인 능력보다는, 용감하다는 정신적인 능력이 더 상대를 제압하는 격투능력에 필수적임을 드러낸다.”라고 설명했다(이창후, 『태권도심경』, 상아기획, 1장12절, 20-21쪽..

인류에게 잘 알려진 가장 위대하고도 용감한 행위에 대한 간단한 비석이 있는데 이 비문에는 “여기 의무를 다한 300 명이 고이 잠들어 있다”라고

태권도로 장애를 극복한 실라... “불가능은 없다”

◀무카스미디어 ▶한메진 기자▶ (2012-07-24 오후 8:08) | 후원수:0 |



그림 IV-2. 용기 있는 마음가짐으로 태권도에 열중하는 미국인 유단자 실라. 용기는 목표 성취를 위한 수련자의 의지력에 내포된 중요 요인으로서 자기가치 영역의 수련자 신조이다(무카스미디어).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씩어 있다. 이는 ‘레오니다스’(LEONIDAS)와 그의 가장 용감한 부하 300 명이 테모필래(THEMOPHYLAE)에서 ‘제르제’(XERXES)의 막강한 부대와 대적했을 때 백절불굴의 기백이 무엇인가를 전 세계에 보여 준 것을 말한다. 즉 그는 그의 용감성과 굳은 의지로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에 대하여 조금도 굴하거나 두려움 없이 끝까지 용전분투함으로써 백절불굴의 기백을 영영히 나타내 주었다.

이와 같이 올바른 태권도인이라면 평소에는 겸손하고 정직함은 물론이지만 정의감에 입각한 분이라면 그 상대가 누구건 또한 그 숫자가 얼마이든 추호도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과감히 불굴의 정신으로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선불리 태권도 기술로 맞서기 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강단 있고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사태 판단과 해결을 강구하는 것은 모든 무예인의 능력이기도 하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불리 폭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최대한 신속히 위협을 벗어나는 판단이나 지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피치 못할 경우 최선을 다해 태권도 기술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무예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로 실전 격투 상황에 대비한 강단 있고 침착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로 용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창후(2013)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태권도의 정체성의 기준에서 우리는 ‘용기’를 빼 놓고 논의할 수는 없다. 용기는 플라톤이 4주덕에서 군인이 갖추어야 하는 덕목으로써 강조한 것인데, 이 때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 즉 싸우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태권도가 상대를 제압하는 효율적인 공방기법을 의미하는 한에서 태권도인에게 필요한 덕목도 플라톤에서의 군인과 같이 용기를 필요로 함은 매우 명백하다. 플라톤은 인간의 정신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성적 정신이고, 둘째는 야성적 정신이며, 셋째는 감성적 정신이다(Plato, 441a). 이 중에서 태권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분은 당연히 야성적 정신이며, 야성적 정신에 필요한 덕이 곧 ‘용기’이다. 특히 플라톤은 용기를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키고 상대와 싸우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용기가 단지 군사상의 용기뿐만이 아니라 해상에서의 용기, 질병곤란, 정치상의 용기, 공포와 고통, 욕망과 쾌락에 대해서 만족함을 아는 용기, 자기를 지키는 용기, 혹은 상대를 공격하는 용기 등을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용기의 내용은 태권도의 현실적 조건과 매우 잘 일치한다.

이처럼 용기(勇氣)는 예의, 인내와 더불어 태권도 정신으로 흔히 거론되는 항목으로 사회적 덕성과도 연관되며 어떤 어려운 일을 극복해내는 강한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용기가 태권도 정신에 포함되는 이유에 대해 필자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파악한다. 첫째는 태권도의 격투기술적 본질과 관련된 침착하고 강인한 정신능력이고 둘째는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시련을 극복하는 굳센 심적 태도와 도전(挑戰)정신과 연관되는 마음가짐이고 셋째, 겨루기, 품새, 격파 등 마음이 동요되기 쉬운 태권도 경기 상황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는 씩씩한 기상(氣像)이나 기백(氣魄) 등과 깊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용기’는 오직 격투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자신감, 도전정신과도 연결되는 정신 능력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높아진다. 생활 중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심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기의 가치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초창기 수많은 태권도 사범들이 지구상 수 천만리 떨어진 나라에 온갖 고생과 시련을 겪으면서 태권도를 보급했던 도전과 개척 정신도 용기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열사(熱砂)의 나라 중동과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지구촌 구석까지 굳센 용기와 강인한 인내력과 의지력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도 다름 아닌 태권도 정신의 실천 사례들이다. 해외 사범 중 한 분은 태권도장 운영 자금과 워매인 사기 사건에 휘말려 빚더미에 올랐던 처절한 지경에 빠진 인생 위기를 태권도 정신으로 극복했던 사연이 소개되어 있다(박연환, 2006).

또 다른 예로서 중남미 국가인 온두라스의 포르피리오 로보 대통령(Porfirio Lobo Sosa)의 일화가 대중매체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태권도에 각별한 애정을 지닌 온두라스 로보 대통령은 오랫동안 태권도를 배워 1986년 공인 2단을 획득한 태권도 유단자이다.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그는 양국 정상 회담에서도 태권도 정신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송봉경 사범으로부터 규율, 용기, 인내를 배워 정치인으로서 냉정하며 침착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신 점이 기억에 남는다. 제 사범님은 훌륭한 분이었기에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큰 경외심을 갖고 있다(테일리한국, 2012).”

또한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발휘해야 할 강인한 정신력의 바탕이 바로 용기와 인내이다.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마음을 침착하게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정신적·신체적·기술적 능력이 용기와 자신감과 직결된다. 용기는 최근 몇 년 사이 장애인올림픽에 태권도 종목이 채택되면서 중요한 태권도 정신으로 부상했다. 휠체어 지체부자유인들의 용기 있는 도전 정신이 격투 기예인 태권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도 종목에도 진출했다. 어린이 위주의 태권도장에서 인성교육 관점에서 용기는 굳센 마음이고 자신감으로 전개된다. 심신이 나약한 어린이들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 예의바르고 강인하고 자신감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시키게 하는 것이 태권도의 주요한 기능이나 역할이 된다.

이와 같이 태권도 정신으로서 용기는 고대의 무사 화랑도의 ‘임전무퇴(臨戰無退)’ 정신에서 유래하며 최근의 사회적 가치관에도 부응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진정 중요한 일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은 태권도인들이 신조를 통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며 미국인의 서9부 개척정신에 비견되는 태권도인의 기상(氣像)이자 패기와 자신감의 원천이다. 용기는 태권도 수련자들의 바람직한 덕목으로서 지향성을 가질 뿐 아니라 수련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심적 능력이다.

3) 인내 perseverance - 참을성, 끈기, 목표 집착력

(1) 태권도 수련자 신조로서 ‘인내’가 채택된 이유

인내가 태권도신조로 채택된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인내는 예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로 많은 태권도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태권도인 145명의 심층면접조사에서 ‘태권도 정신으로 공인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항목’으로 인내는 예의에 이어 두 번째 순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7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태권도 수련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응답 결과, 인내(25.1%)는 예의(18.3%)를 큰 차이로 누르고 첫 순위를 기록하였다(이재돈, 2014). 이 사실로 미루어볼 때, 수많은 태권도인들이 심신의 어려움을 수반하는 태권도 수련이나 경기 활동에서 목표 성취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적인 정신 능력임을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인내는 수련자들이 “나를 이긴다”라는 정신 항목을 현실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위 덕목, 즉 생활신조로 편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이긴다(극기克己)’란 추상적이고 막연한 의미를 띠는 반면 인내는 참을성이나 끈기를 뜻함으로써 기술 완성이나 시합 승리 등의 수련상의 목표 성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진하는 구체적인 정신력(경기력 개념이 포함됨)으로 간주된다(김원배, 2002).

세 번째 이유로는 본 수련자 신조의 구성상 인내는 용기와 더불어 내면적 능력 향상과 자기 성취를 위한 가치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최적의 항목이기 때문이다. 태권도 수련자 신조로서 인내는 수련자들이 시합, 시범, 심사 등 수련 목표 완수를 위해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끈질지게 집착함으로써 목표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자기가치이다. 따라서 태권도인들의 정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인내는 주요한 수련자 신조로서 자기가치 영역에서 널리 부각되어야 한다.

인내는 인생에서 목표 성취와 성공을 추구하는 어느 누구에게 필요한 덕목이지만 특히 태권도와 같은 무예스포츠를 연마하는 수련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신적 능력이다. 인내의 필요성을 태권도 수련과 결부시켜 송형석(2013)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태권도의 수련과정은 끊임없는 고통의 과정이자 자기부정의 과정이다. 우리는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기쁨과 고통을 맞볼 수 있고, 땀을 흘리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으며, 성취감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이나 패배감을 맛 볼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달인(master)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여기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이다. 인내는 육체적으로 힘든 수련을 통해 기술과 정신력을 함양하는 근본적인 의지력으로 작용하며 극기와 절제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정신능력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내는 이와 같은 과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인내하면서, 수련자의 인내심, 즉 의식의 폭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인내는 단순히 태권도나 스포츠 정신력 가치에 국한되지 않고 ‘과제 집착력’이란 용어로 현대 영재 교육의 주요 요인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박지성, 김연아, 빌 게이츠, 비틀즈 등 이들의 공통점은 과제집착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과제집착력이란 한 가지 과제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능력을 말한다. 과제집착력은 지능, 창의성과 함께 영재의 3대 요소로 꼽히며 “지능이나 창의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날 확률이 높지만 과제집착력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향상이 가능하다”고 한다(송보명, 2010). 태권도신조로서 인내는 수련자들이 태권도 수련을 충실하게 수행할 뿐 아니라 학업이나 인생의 다른 활동 분야에서도 과제집착력이 발휘되도록 기대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이기도 하다.

(2) ‘인내’의 개념

인내는 유의어(類義語)인 끈기란 단어의 뜻과 비교하면 그 명확한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 인내(忍耐)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풀이되며 “고통을 인내하다.”, “인내의 정신을 기르다.” 등의 문장으로 표현된다. 인내는 영어로 *patience*, *endurance* 로 번역된다.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이란 뜻으로 ‘인내심’과 ‘참고 견디는 힘’이란 뜻의 ‘인내력’이란 말이 더 흔히 쓰인다. 인내와 유사한 뜻으로 ‘끈기’란 말이 있다. ‘끈기(*adherence*)’란 ‘물건의 끈끈한 기운’ 또는 ‘쉽게 단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견디어 나가는 기운’을 말한다(네이버국어사전). “끈기있게 버티다.”, “그는 끈기가 없다.”, “일단 목표를 정했으면 끈기 있게 밀고 나가라.” 등의 문장 용례가 있다. 끈기는 영어로는 *patience*, *perseverance*, *persistence*, *endurance*, *tenacity* 등으로 번역된다(네이버영어사전). 인내와 끈기를 영역(英譯)한 단어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내 또는 인내력은 사람의 ‘의지력(will-power)’이나 정신적 강인성을 뜻하는 ‘정신력(mental toughness)’ 등 유의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동서고금의 학자들이 어떤 의미로 해설했는지를 논의하자면 문제가 엄청나게 난해해 진다. 그러한 의문은 언어 개념의 명확성과 논리를 따지는 철학과 심리학은 물론 교육학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관련 내용만 간략히 제시하기로 한다.

동양에서 인내 개념은 유가 사상의 영향을 받아 ‘사욕(私慾)’을 배척하는 도덕적 용기, 수양(修養) 등과 같은 윤리적 개념으로 확장되었지만 사실 인내를 포함하는 윤리적 덕(德; virtue)을 실행하는 의지력이나 정신력으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저히 탐구되었다(고미숙외, 2010). 14세기 몽골이 세운 중국 원(元)나라의 학자, 허명규가 지은 ‘인내경(忍耐經 또는 忍經)’은 사람이 도덕적이고 화목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100가지 인내의 잠언집으로 전승되었다(허명규저, 이성희역, 2009). 우리나라에서도 18세기 조선 제 22대 왕인 정조 이산은 신하들과 토론하며 인내를 논의한 어록(語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남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며, 기꺼이 듣고 마음에 노여움을 품지 않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되겠는가. 싫어하지만 들어야 하고 노엽지만 참아야 한다.” 문무겸비를 겸비한 현명한 군주로 평가되는 정조는 인내와 극기, 다스림, 절제 등에 대해 심오한 사유와 상세한 생활 철학을 피력했다(손인순, 2008).

한편 의지력(意志力)이란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끈끈하게 지켜 나가는 힘으로서 영어로는 ‘willpower’로 번역된다(네이버국어사전 ; 네이버영어사전). 이 의지력에 관련하여 서양에서 BC. 4세기경 알렉산더대왕의 스승이었던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 품성의 덕, 자제력 없음, 중용(mesotes) 등 세부 주제들을 천착함으로써 현대 윤리학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론들과 실천철학을 체계화했다(김남두외, 2004). 제논 스토아학파의 수장으로 평생 의지력을 탐구한 클레안테스, 의지철학을 설파한 쇼펜하우어, 인내의 철학자 하이데거, 의지력의 절대적인 힘을 인식한 데카르트 등 여러 서양 철학자들은 인간의 정념과 부당한 욕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호한 도덕적 원리를 준수하는 원천으로서 냉철한 정신 작용인 의지력을 천명했다(두산백과; Kida, 1996; Martine, 1978).

인내와 결부되는 개념인 정신력(mental toughness)은 전문 경기(athletics)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고된 훈련과 경기 상황에서 참고 견디는 능력을 뜻하며 최근 스포츠 심리학의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주요한 연구과제이다. 정신력에 대해 김원배(2001)는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층 높은 재능과 기술을 향해 끊임없이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며, 선수들이 자신의 불리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굽히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끝까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승리하겠다는 의식이다. 정신력의 하위 요인으로는 승부욕, 분투노력, 인내/끈기, 불굴의 투지 등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김원배는 스포츠심리학적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인내와 끈기’를 한 단어로 합쳐서 정신력 개념을 이루는 주요 요소로 규정했다. “태권도와 같은 투기 선수들에게 인내력(endurance)은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와 체중조절에서 느끼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인내와 힘든 상황에서 시합을 지속해야 하는 고통 인내를 의미한다”(김원배, 2002)

인성교육 분야에서는 인격(character) 함양을 위한 한 덕목으로서 인내가 중시되는 데, Lickona(1998)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는 인내와 중용의 미덕을 체득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심성보(2008)는 “인간으로서 중요한 인격의 특성인 인내를 포함하여 여러 도덕적 가치들을 가르치는 ‘덕목교육’을 해야 하며 이런 도덕적 덕목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해설했다. 아동 교육적 관점에서 인내라는 말보다는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한글단어인 참을성이나 끈기란 말이 더 널리 쓰인다(김영선, 2011). 인내와 끈기는 유의어이지만 끈기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달라붙음”이란 긍정적 의미의 집착, 끈질김 또는 고수(固守)로 해석되며 “인내는 결집된 끈기다.” 라는 문구에서 나타나듯이 끈기의 강도나 지속성의 정도가 높은 것이 인내이다(토마스 칼라일, 1993).

인내는 영재의 필수 능력인 과제집착력과도 큰 관련을 맺는다. “과제집착력은 인내력, 끈기(지구력), 고된 작업, 헌신적연습, 자신감,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Renzulli, 2000).” 여러 학자들이 과제집착력의 특성으로 지구력, 헌신적 실천(많은 노력), 인내와 근면함, 자신감 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으며, 그밖에 전적인 과제 선택, 책임감, 성취목표, 자기통제력, 몰입(집중력), 문제 해결 의지 등의 요소가 언급되었다(장정은외, 2014).

인내에 관해 어떤 상황한 설명보다도 짙막한 명구(名句)들은 인생의 필수적인 능력으로서 인내의 각별한 의미를 일깨워준다. "인내는 천국의 열쇠다.". "인내가 세상을 정복한다.". "모든 운명은 인내로 극복된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성공을 이룰 때까지 열

마나 오랫동안 그 계획을 끈질기게 지속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David Cottrell).” 등의 명언들이 있다(Colan, 2008). 우리말에도 “참는 자에 복이 온다.”란 속담에서 사회적 미덕(美德)으로서 인내를 유념해 왔다.

(3) 태권도 분야에서 ‘인내’의 의미

인내는 그간 태권도 정신으로 간주되어 온 주요 항목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수련자들의 현실적 생활에 필요한 구체적 신조로 설정하는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한다. 인내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노력을 쏟아야하는 태권도 기법 체득에 필수적인 정신능력으로서 태권도의 주요한 정신으로 언급되어 왔다.

태권도에서 인내가 결부되는 근거는 태권도의 본질이 ‘무술스포츠(Martial Art Sport or Fighting Combat Sport)’ 또는 ‘무예스포츠’라는 특성에서 도출될 수 있다(W.T.F, 1981). 즉 무예적 특성의 태권도에 경기를 중심의 스포츠 체계가 수용되어 무예와 경기스포츠(athletic sport)가 융합됨으로써 마침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발전해 온 과정에서 수련자 또는 경기에 참가한 선수의 성공적 목표 수행을 위한 필수 능력으로 인내가 밀접하게 결부되었다.

먼저 태권도의 무예적 본질과 관련된 인내의 의미를 살펴보자. 인내가 태권도 정신으로 포함되는 이유는 오래 전부터 예의와 더불어 태권도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된 무예의 전통적 요인과 최홍희의 오대정신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인내는 현대 태권도의 창시자들이 저술한 교본을 통해 절제, 의지력(意志力), 극기(克己), 백절불굴 등 유사한 뜻을 가진 어휘들과 함께 전승되어 왔다(박철휘, 1957; 황기, 1958; 이원국, 1968). 태권도 수련 현장에서 인내는 수련을 오래 지속하는 부단한 의지력과 강인한 정신적 태도를 육성하는 의도에서 지도자들에 의해 강조되어온 정신 항목이다.

그 내용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현대 태권도의 원류인 무덕관의 창시자 황기(1958)는 무덕관에서 정신수양상 중점을 두는 11개 항목으로 인내심을 꼽았다. 인내와 관련해서 청도관 창시자 이원국(1968)은 부단한 연마를 실행하는 의지력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태권도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노력과 강한 의지력을 관철시켜야 한다. 태권도 수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한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끈기 있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게 계속하는 자만이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또는 기존의 수련자일지라도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열 번 하고 남이 열 번 하면 나는 일백 번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인내가 태권도 정신의 주요 항목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한 최홍희(1972)는 인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내란 참는 것이 덕이요 또한 백번 참으면 그 가정이 평화스럽다는 옛말과 같이 참는 자에게 행복과 번영이 오는 것만은 사실이다. 고단자이건 완벽한 기술의 소지자이건 간에 어떤 일을 달성하자면 먼저 목표를 설정한 다음 인내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향하여 매진함으로써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 (중략) 태권도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떠한 고난에 부딪히더라도 참고 그를 극복하는 것이 비결의 하나이다.”

태권도인이 부단한 수련을 통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필수적이며 그 기나긴 고통의 과정을 인내와 극기로서 극복해야 하는 격과 수련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격과란 자신과의 싸움이다. 격과의 본질은 점진적인 훈련의 반복으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 따라서 태권도의 진수에 달하기 위해나 자신의 극기를 기르는 과정인 것이다(강신철, 2008).”

인내력이 태권도인의 실제 생활에서 발휘된 사례로서 최홍희는 한 태권도 유단자의 실전 격투 일화를 자신의 교본에 게재했다. “어떤 태권도 유단자가 이유 없이 거리의 불량배 세 명과 시비가 붙었다. 물론 그의 실력으로 세 명의 무뢰한들을 때려눕힐 수 있었지만 그들의 잘못을 타이르기에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들은 둘러싸인 군중 앞에서 더욱 기세를 올려 나중에는 그 유단자에게 심한 구타를 가하기 이르렀다. 그는 할 수 없이 불량배들에게 나는 태권의 유단자이니 이 이상 괴롭히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으나 그들은 태권이면 다냐 하고 계속 행패를 부렸다. 드디어 그는 옆에서 있는 큰 나뭇가지를 손날로 내려쳐서 부서버림으로써 참다운 태권의 위력을 과시하여 그들을 굴복시킨 바 있었으니 이는 태권인의 인내력, 극기심을 충분히 나타냈을 뿐 아니라 유단자로서 가진 무서운 공격력을 인체가 아닌 물체에 행사함으로써 이 무도를 싸움의 도구로 사용치 않았던 것을 증명했다(최홍희, 1966).” 이 일화는 격투 무예가로서 태권도인이 불량배들의 부당한 폭력에 대해 인내심과 함께 지혜롭게 대처한 모범적 행동 사례를 담고 있다. 그 일화의 주인공은 태권도 유단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들에게 구타를 당했지만 인내심으로 의연하게 참아냈고 점점 구타가 심해지자 결국 태권도 실력으로 그들을 차고 쳐서 물리치기보다는 곁에 있는 나무를 깨뜨리는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불

량배들을 굴복시켰다는 의미는 “태권도로 절대로 사람을 치지 않는다.” 무예인의 규범을 충실하게 지켰다.

이와 같이 인내의 의미와 관련해서 김길평(1999)은 용기, 집중력, 예의와 더불어 인내를 태권도 무도 정신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태권도 무도 정신력의 하위 요소인 인내를 다섯 가지 관점에서 해석했다. 그 중 인내의 무도적 해석으로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으로 풀이했고 ‘추론 과정 판단’ 항목에서는 고된 훈련과 강한 의지력이 단련되어야 자기 통제력과 겸손을 얻을 수 있다는 도덕적 차원과 연결시키기도 했다.

인내력은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심신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매진해야 하는 태권도 선수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정신 능력이기도 한다. 최고가 되겠

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늘 태권도 선수들의 마음가짐에는 참고 견뎌야 하는 인내력과 자신감을 잃지 않는 용기로 점철되어 있다. 부상으로 인해 통증이 따르고 극도의 피로감으로 탈진하는 고통 속에서도 부단한 연습 과정과 심리적으로 긴장된 경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의지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아테네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장지원 선수는 후배 선수들을 위한 조언 중에 ‘당장 하고 싶은 즐거운 일’ 보다는 ‘힘들더라도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장차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인내심으로 성공을 이룬 사례를 담고 있다(김영선, 2011).

“힘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즐거운 날이 온다.”라든지 또 태권도 활동 중 시합에 대비한 훈련에서 “승리를 향해 인내하고 끊임없이 정진(精進)하라.”, “오늘 인내하는 자는 내일 웃을 수 있다.” 등 많은 글귀들은 지도자들에 의해 인내를 주제로 제자들에게 훈시되는 문구이다. 태권도 훈련과 시합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의지력이 인내란 말에 포함되어 있다.

인내와 태권도 수련과의 연관성에 대해 송형석(2015)은 극기, 백절불굴, 의지, 집중, 성실 같은 덕목들을 대표적인 심리적 차원의 태권도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그림 IV-3. 인내는 태권도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정신적 가치이다. 자기가치 영역에 포함되는 수련자 신조이다.(K.T.A 포스터).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인내는 태권도의 수련과정은 끊임없는 고통의 과정이자 자기부정의 과정이다. 우리는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기쁨과 고통을 맛볼 수 있고, 땀을 흘리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으며, 성취감이나 패배감을 맛 볼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달인(master)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여기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이다. 인내는 육체적으로 힘든 수련을 통해 기술과 정신력을 함양하는 근본적인 의지력으로 작용하며 극기와 절제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정신능력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내는 이와 같은 과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인내하면서, 수련자의 인내심, 즉 의식의 폭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인내의 태권도 교육적 활용성에 대해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분야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 태권도는 준비운동, 발차기, 품새, 겨루기 등 공격과 방어 기술을 익히는 힘든 훈련을 참고 견디는 인내 없이 수련이 불가능하므로 아동들에게 태권도 수련 경험은 인내를 기르는 중요한 과정이다. 인내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참고 끝까지 자신의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하겠다(신석령, 2004).

청소년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인내심 배양은 한국의 태권도장 수련생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린이들의 인성 발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태권도의 인성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한태권도협회는 인내와 끈기 주제로 인성교육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다.

태권도 정신의 현장 교육이나 지도상의 여건에 제한받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인내력(끈기)은 한 곳에 마음을 모으는 능력인 집중력과 절제심과 개념적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교육학계에서 주목받는 영재(英才)의 삼대 조건인 과제집착력 개념과도 연결되는 특성을 갖는다. 과제집착력은 흔히 어떤 과제나 특수한 수행분야에서 끈기 있게 수행해가는 에너지로(Renzulli, 2000), 자신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해 가는 능력을 의미한다(Schunk, 1989). 태권도 분야에서 대성한 선수와 감독, 도장 지도자 뿐 아니라 태권도인 출신인 사회 명사들은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 과제집착력을 발휘한 위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예 수련자의 기술 완성을 위해, 승리를 향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한 인성 교육을 위해, 지도자를 포함한 수련자들의 과제집착력 증진을

위해, 인내는 태권도신조로서 모든 수련자에게 참다운 가치로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4) 예의 courtesy - 타인존중, 존경, 겸손, 겸양, 배려

(1) 태권도 수련자 신조로서 ‘예의’가 채택된 이유

예의가 태권도 수련자 신조로 채택된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첫째는 태권도인들이 예의를 태권도의 정신 또는 정신적 가치로 가장 선호하기 때문이다. 총 920명의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련의 정신적 가치’를 연구한 이재돈(2014)은 수 많은 덕목들 중 ‘예의’가 압도적인 비율로 최고 정신적 가치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예의는 태권도인들의 현실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정신 항목으로 간주되므로 태권도신조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예의가 수련자 신조에 포함된 두 번째 이유로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극기홍익).”는 태권도의 기조정신의 하위 덕목으로서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즉 타인을 향한 공손한 언사와 예의바른 행동들은 원만한 대인관계의 밑바탕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다. 홍익 이념의 특징은 인류사회의 공존공영을 이룩하기 위해서 보편적 인본주의, 상호존중, 평등 및 평화의 원리, 대동주의, 덕치주의, 현세주의와 예절·규범의 생활실천의 원리를 강조한다(서보근, 2012).

그 세 번째 이유는 예의는 정신의 주요한 하위 범주인 대인관계 영역의 대표적인 덕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덕목의 하위영역 구분상 “자기를 제외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덕목”의 영역, 즉 ‘타인영역(류청산외, 2006)’ 또는 ‘대인관계 영역(김병준외, 2013)’ 중에서 수련자들의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행동과 직결된 으뜸 덕목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의는 타인존중, 공경심, 존경, 배려, 겸손, 겸양, 염치 등과 같은 연계덕목이나 유의어와 일맥상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적 성품을 발달시킬 수 있는 풍부한 잠재성을 갖는다(정유근외, 2011).

태권도에서 예의의 중요성에 대해 중국에서 유가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용철(2014)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의는 태권도 정신을 대표하는 핵심으로 자리 잡아 태권도인들의 도덕수양에 필요한 행위의 규범과 규칙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하여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태권

도 정신 중 가장 중요한 예의는 도덕수양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태권도신조로서 채택된 예의의 사상적 근원과 관련해서 첨예한 문제가 제기된다. 예의는 원래 공자, 맹자, 주자(朱子)를 주축으로 하는 중국 유가(儒家) 사상에서 비롯되므로 태권도신조 또한 중국적 특색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태권도신조 뿐 아니라 나아가 태권도의 정체성 문제까지 연결되므로 예의의 사상적, 문화적 기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동양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중국은 진작부터 문명이 발달하여 주변국인 한국, 일본에게 다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제자백가(諸子百家)로 대변되는 중국 철학 사상과 수박(手搏), 권법(拳法) 등 역사상의 중국무술들이 인접국에 전래되는 것은 ‘문화전파(culture diffusion)’란 용어로 불리우는 자연스런 문화현상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문화든지 다른 국가로 전송된 후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 국가나 지역 특성에 따라 변용되어 정착하게 되는 데, 그것을 ‘문화변용(acculturation)’이라 부른다(고영복, 2000).

즉 한국의 많은 문화 요소들은 그 기원이 중국에 있다하더라도 오랜 세월을 거쳐 이미 한국식으로 변한 한국 특유의 방식과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이다(임재해, 2006). 더욱이 지금 태권도계에서 말하는 예의는 유가에서 말한 예의라기보다는 서양에서 전래된 현대화된 에티켓이 태권도의 특성과 결부된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에서 예의는 한국사회에서 거론되는 현대식 예의범절을 토대로 태권도인의 제반 활동 상황에 적합한 내용들이 선별되고 수정, 보완된 것이다. 그 한 예로서 국기원(2011)이 공표한 ‘태권도인 예절’을 들 수 있다.

‘태권도인 예절’은 국기에 대한 예절, 대화 예절, 음주 예절, 인사 명함 교환, 용모 및 복장, 전화 예절, 의전 예절, 태권도 예절 지침 등 세부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 들 전반적인 내용은 현재 한국식 예식과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에티켓을 바탕으로 태권도식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이와 같이 예의 자체가 오래 전에 중국 유가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 시대의 한국식 예의가 반영된 태권도식 예의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예전 유가의 예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태권도에서 논의되는 예의는 중국식이 아닌 세계 보편적으로 현대화된 한국식일 뿐 아니라 태권도 특유의 맥락에서 재구성된 규범 체계이다.

(2) ‘예의’의 개념

예의는 동양에서 중요한 사회 덕목으로서 고대부터 발달된 사상이자 생활 방식이다. 사전적 정의로는 “예의(禮儀)란 인간 상호간의 사립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에 있어서 예를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이나 행동 등의 총체를 말한다(신기철외, 1989).” 아울러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 예로써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을 일컫는다. 예의가 바르다. 예의를 지키다. 예의를 차리다. 등의 용례가 있다(네이버국어사전).

‘예(禮)’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사회생활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가족, 동료 등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회인으로서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 예의는 사회생활의 기본이 된다. 예의는 사람의 인격 형성 요건인 동시에 사회생활의 기본 요건이며 인간의 공동체 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이정우, 1999).

예의와 예절은 동의어처럼 취급되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예절(禮節)이란 예의(禮儀)와 범절(凡節)의 줄임말로써 공동체 내에서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그에 합당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서로 상대방에게 갖추어야 할 말투나 몸가짐 등 제반 행위와 이를 표현하는 정해진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다(방은령, 2002). 따라서 예의는 반듯한 마음가짐이고 예절은 예의를 바탕으로 표출된 행동 양식을 말한다.

그런데 예절을 잘 갖춘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이나 표현방식을 익히는 것만이 아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생활태도로부터 나온다. 곧 자기관리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요구된다(한정란, 2002). 이처럼 예의는 끊임없는 자기수양을 통해 오랜 세월이 걸쳐 함양되



그림 IV-4. 예의는 태권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신 항목이다. 대인관계 영역의 수련자 신조이다.(K.T.A 포스터)

으로써 성숙한 인격 형성에 필수적인 덕목이다.

자기관리를 행하는 현대 교양인으로서 예절과 결부시켜 김형배(1996)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현대인이 사회생활을 원만히 하려면 우선 자기 관리가 선행된 품위 있는 교양인이어야 할 것이다. 교양인이란 예의가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 몸가짐, 인사 등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자기 관리의 개인 예절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 하면 예절은 인간성과 도덕성의 조화로운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한편 예의가 지닌 언어 개념상의 특징은 관련되는 유의어(類義語)와 연계덕목들이 많다는 데 있다. 예의와 연관된 덕목으로는 ‘타인존중’, ‘겸손(謙遜), 겸양(謙讓)’, ‘염치’, 공손, ‘배려’, 등이 있다. 이 덕목들은 ‘예의’의 밀접한 광범위한 개념적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데 모두 바람직한 사회적 덕성으로 중요시된다(김병준외, 2013; 류청산외, 2006;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2010; 정유근외, 2011).

(3) 태권도 분야에서 ‘예의’의 의미

태권도를 포함한 동양무예에서 ‘예시예종(禮始禮終)’ 즉 “예로 시작하고 예로 마무리한다.” 라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다. 태권도 수련자의 기본적 마음가짐으로서 예의는 항시 지도자들에 의해 수련생에게 강조되는 각별한 덕목으로서 태권도 도장이나 태권도 경기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행위 규범이기도 하다(이경명, 2006).

태권도 지도자들이 전통적으로 예의를 중시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태권도는 치고 차는 신체 타격식 겨루기 수련과 경기의 특성상 야기될 수 있는 감정으로 인해 선후배, 동료 등 지인은 물론 경기 상대방과 대인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그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일상 수련이나 겨루기 경기 전후에 상대방에게 정중한 인사를 표하는 예절을 통해 상호간의 기량 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게 한다. 둘째는 명실상부한 태권도 지도자란 탁월한 격투능력과 더불어 강건한 신체적 능력과 반듯한 예의와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로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특히 태권도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의 심성을 좌우하는 인성교육에 막중한 영향력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을 발휘하는 교육자로서 예의와 같은 덕목을 기본적인 소양으로 삼는다(이규형, 2012).

태권도에서 예의의 중요성에 대해 청도관 창설자 이원국(1968)은 “예의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올바르게 하고 나서 남을 대하는 것으로서, 태권도 수련자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상대에 대한 자신의 인격을 지키고 남이 범치 못하게 하는 자위(自衛)적인 수단과 권리로서 형식적인 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태도로서 신중을 기하는 마음” 이라고 해설했다. 특히 이원국은 ‘태권도와 예의’란 독립된 단락에서 태권도인들이 최고의 정신적 가치로 예의를 염두에 두고 지켜야할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열거하면서 그 세부 내용을 다루었다.

예의를 태권도 5대정신의 첫째 항목으로 설정한 최홍희(1972)는 “예이란 수련생들이 서로 양보하는 정신을 양양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악습을 부끄러워하고,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겸손하여야 하며, 정의감을 장려시켜야 한다. 아울러 사범과 제자 그리고 선배와 후배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해설했다. 최홍희는 예의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정의감 양성까지 언급함으로써 독자들이 개념상의 혼돈을 가지게 하지만 그가 설정한 5대정신 속의 예의는 지금까지도 면면히 계승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1970년대 초, 예의를 태권도인 전체 차원의 덕목으로 승격시켰다. 대한태권도협회(1972)는 태권도 행정단체 차원에서 1971년 예의규범을 제정해서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명기했다. “예의는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높고 값진 인간의 기본자세이다. 예의규범을 통하여 세계 곳곳의 모든 태권도 가족에게 같은 도복과 띠를 두르고 바르고 품위 있는 높은 인품을 지닌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한태권도협회 ‘예의규범’ 은 예의의 의미는 물론 인사법, 자리 앉는법, 도복 착용과 관리, 바른말씨, 생활 복장, 승차, 전화, 식사, 사교장, 방문, 수행 의례, 음주와 흡연, 지도자의 자세 등 다양한 생활 상황에서 태권도인의 구체적인 예절 법식이 나와 있다. 이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은 태권도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인사법으로서 “발 뒤축을 힘있게 붙인 차려 자세에서 머리는 45도로 숙이면서 허리는 15도로 굽힌다.” 라고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대한태권도협회, 1972).

이어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2011)도 ‘태권도인 예절’이란 제목으로 40년이 경과된 종전의 예의규범을 현 사회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했다. 그 내용은 첫째, 예절이란 무엇인가, 둘째, 태권도 예절 지침, 셋째, 태권도 복장 지침, 넷째, 태권도 의례 지침 등 네 단락으로 나뉘어 총 60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태권도 교육 현장에서 예의는 사범, 선후배, 동료 간의 정중한 인사와 공손한 말씨, 진지한 행동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실행된다. 특히 태권도 수련이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교육되기 때문에 예의바른 행동과 함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이규형, 2002).

예의범절과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태권도 교육은 세계 각국의 공교육에서 정식 교과로 선택되는 등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미국 공교육에 처음 진출한 태권도는 미국 동부지역만 70여개 학교가 태권도를 수업시간에 가르치고 있다(MBC뉴스, 2011). 또한 미국 LA지역 페어팩스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서부 지역 초, 중, 고등학교에서 태권도 교과목 채택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연합뉴스, 2010.8.3.). 1억 9,100만여 명의 인구에 삼바와 축구의 나라 브라질도 전국 총 3만여 개 초등학교 가운데 5천 개 학교가 태권도를 선택 교과목으로 채택했다(무카스미디어, 2010.3.25.). 중국 쓰촨(사천)성의 한 초등학교를 비롯하여(경향신문, 2006),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의 ‘팡정(方正)현 제1중학교’, 도 태권도를 정규 체육수업으로 지정했다(한국경제뉴스통신사, 2013). 이상과 같이 세계 각국의 수 많은 학교들이 태권도를 정규 교과과정으로 채택하는 이유는 다른 격투기와 달리 특히 태권도는 예절을 중시하는 심신건강 수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무카스미디어, 2012).

이 같이 태권도 수련이 수련자의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는 이유에 대해 김대식(1987)은 무예도장의 조직적 사회 환경을 들었다. “무예 수련자들은 서로를 존경하며 미덕을 장려하는 조심스런 의식들이 있다. 무예가들은 사범이나 상급자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는 인사와 복종의 예(禮)를 지킨다. 격투와 같이 격렬한 상황에서도 행위자의 사회적 규범에 의해 지속되는 존경, 상급자에 대한 복종, 그리고 하급자에 대한 예의 등은 무예도장의 행동 원칙이다. 그러한 미덕은 수련자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며 지내게 하는 좋은 도덕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같은 태권도의 교육적 성공사례들은 예의, 용기, 인내 등 정신요인이 강조되는 태권도의 인성교육적 특성과 함께 조직적 사회 환경으로서 태권도장의 기능, 그리고 지도자의 교육적 능력과 자질이란 요인들이 합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태권도의 주요한 정신적 가치인 예의는 수련자 신조를 통해 마음 깊이 새겨지고 확산됨으로써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 또한 더욱 빛나고 널리 인정되리라 판단된다.

5) 정의 (justice) - 법질서준수, 공정성, 공평무사, 공명정대

(1) 태권도 수련자 신조로서 '정의'가 채택된 이유

‘정의(正義, justice)’는 태권도 정신에 내포된 ‘세상을 이롭게 한다.’란 홍익이념의 절대 조건으로서 다른 어떤 덕목이나 가치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련자 신조로 채택되었다. 즉 정의의 실행 없이는 결코 홍익이념은 설립될 수 없으며 홍익은 공정성이 합치된 정의가 충족되어야만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백낙준, 1963)’ 또는 조화, 상생, 평등, 평화 등과 같은 고매한 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오화영, 2010).

정의의 의미는 도덕을 존중하고 따르는 자질과 덕성과 더불어 법률을 규정하는 이상적 규범을 담고 있다(조지안 시프르, 1995). 즉 정의롭지 못한 행위는 개인의 도덕적 범주를 넘어서는 심각한 위법적인 행태로 확대될 수 있는 문제이다. 정의의 개념에는 공정성(fairness)이 내포되어 있고 태권도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원, 코치, 선수, 주최진 등 모든 참여자들이 정해진 경기 및 판정 규칙을 공평하게 준수하는 행동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Sigmund Loland, 2014).

정의는 개인의 윤리나 사회 도덕적 차원을 포함할 뿐 아니라 법적 사안까지 연결되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태권도계에서 신조형식으로라도 반드시 주지되어야 한다. 이는 태권도인의 이상적 인간상의 하나로 ‘무예인으로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한 예로써, 어떤 태권도 심판이 잘 아는 코치로부터 사전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경기력이 낮은 그 코치 편이 선수가 이기도록 불공정한 판정을 행했다면 그는 정의롭지 못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 심판은 부당한 개인적 의리와 사리사욕(私利私慾)에 얽혀 심판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 즉 그는 정직하고 공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침으로서 위법적 행태를 저지른 것이다. 결국 개인적 사욕으로 인해 자신의 책무를 망각하는 부도덕한 행위는 탈법으로 번짐으로써 태권도 심판의 명예와 권위는 물론 태권도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더욱이 태권도 경기에서 심판원은 대부분 4단 이상의 태권도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

다. 태권도 지도자란 무도사범으로서 그리고 청소년 교육자로서 막중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수련생과 지역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손천택, 2011). 아울러 무도적 개념의 태권도는 페어플레이를 기본으로 하는 스포츠맨십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심신통합의 무예라는 정신철학이 깃들여 있다(이덕주, 2012). 일반인들보다 더 깊고 높은 도덕적 품성을 확립해야할 지도자급 인사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한 행동을 저지를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 태권도계 전반에 치명적인 손상이 아닐 수 없다. 태권도인의 올바른 행위의 기준이 되는 정의 문제는 이처럼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다.

또한 공정성을 기반한 정의는 태권도 경기 중 올림픽에 채택된 겨루기 종목에서 뿐 아니라 품새, 격파, 태권무, 시범 등 갖가지 태권도 종목들이 펼쳐지는 모든 경기의 현장에 통용될 수 있다. 우리가 태권도 경기를 개최하는 목적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태권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선수, 심판, 관중 등 모든 경기 참여자에게 유익함을 베푸는 ‘홍익이념’을 구현하는 행사이다(김영선, 2011).

정의는 비단 태권도 경기 영역에서 뿐 아니라 태권도 일선도장에서 인성교육 항목으로 중요시된다. 자기가치 덕목으로서 정직함이나 대인관계 덕목으로 공평함, 사회정의 덕목으로 준법정신과 정의로움은 모두 정의와 결부된 덕목이기도 하다(김병준외, 2013). 또한 미국의 심리학자 콜버그(L. Kohlberg)의 이론에 따르자면 정의는 인간 도덕성 발달의 최종 단계인 후(後)인습적 도덕성 수준 영역에서 보편원리 지향의 도덕적 판단의 준거로 개인이 공감하는 인류 공유의 가치, 기본적 권리, 인간존중과 존엄성, 객관적 원리와 같은 가치로 간주되었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21세기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대에 태권도 경기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과 비례해서 정의의 중요성도 그만큼 상승할 것이며 아울러 정의는 현장 교육과 관련된 가치들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다. 또한 정의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태권도의 기조정신인 홍익이념을 구현하는 필수조건으로서 태권도인들이 반드시 유념해야할 가치이다.

(2) ‘정의’의 개념

정의(正義)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을 말한다(이상수, 2006)”으로 풀이된다. 다른 문헌에서 정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이며 인간의 행위나 제도의 시시비비(是是非非)의 판단기준이다. 또한 정의는 철학에서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서 자유, 평등, 복지라는 현대사회의 중요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쟁점이기도 하다(21세기정치학대사전, 2002).

정의라는 용어는 보편적 이상과 더불어 개인적 미덕을 의미한다. 우리는 정의와 또한 정의로운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 한다. 정의로운 사람이란 남을 위태롭게 하거나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자신의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 곧음과 바름으로서 정직한 사람의 행실을 규정하거나 천칭(균형) 저울처럼 형평성과 동등성을 정의로 상징하기도 한다(Vergez & Huisman, 1990).

우리가 쓰는 정의라는 말은 일본식 한자어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영어의 ‘justice’를 번역한 말이다. ‘justice’가 ‘법’을 가리키는 라틴어 ‘유스(jus)’에서 나온 말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 말의 원래 개념은 ‘준법 행위’ 혹은 ‘준법성’과 가깝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덕으로서의 ‘의(義)’에 해당하는 영어권의 말은 ‘righteousness’와 가깝다(하동석, 2010). 따라서 우리말 ‘정의’는 전통적인 한자어 정(正)이나 의(義)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정의’가 ‘의(義)’와 달리 법적·공적 덕으로서의 ‘준법성’의 개념을 지닌 ‘새로운’ 개념의 말로 탄생된 것이다(염정삼, 2013).

정의는 공정과 혼동되는 개념이므로 구별될 필요가 있다. 공정은 정의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정의의 중요한 특징은 공정이다. 그렇지만 정의의 의미에 있어서 공정은 각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의미보다 하위의 개념이다. 예컨대, 도둑들이 남의 재산을 훔쳐서 공정하게 자기들끼리 나눈다 해도 그러한 행위는 정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도둑들의 그러한 공정한 분배행위는 훔친 행위, 즉 남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종속되는 행위로서 그들의 분배행위는 아무리 공정하다하더라도 남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의 연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의 본질적 의미는 남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김태훈, 2011).

정의는 도덕의 최고 원칙으로서 정의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창한 태기석(2012)은 “도덕이나 정의, 가치는 흔히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도덕론은 대체로 양심과 관련된 개인규범을 다루고, 정의론은 둘 이상의 사람들과 관련된 규범을 다룬다. 사람은 혼자서 정의로울 수 없다. 즉 정의는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규정되는 것이다.”라고 정의의 사회적 특성을 도덕과 비교해서 서술했다. 이처럼 정의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어떤 가치를 초점에 두느냐에 따라 학자들마다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부각된 정의에 관련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자.

2011년 한 저명한 미국인 학자가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로서 1만 5000명이 운집한 대학교 강당에서 ‘자유’, ‘평등’, ‘복지’, ‘권리’ ‘도덕’과 ‘공동선(共同善)’ 등 정의와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청중과 소통하는 획기적인 강연으로 세상의 이목을 끌었다(김명철 역, Michael Sandel, 2015).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인문학 서적의 불모지 한국에서 무려 130만부 이상 판매되었다. 이 책은 3억 인구의 미국에서 10만부 정도가 팔렸고, 인문학 서적이 잘 팔리는 일본에서도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음에도 불구하고 60만부가 팔리는데 그쳤다(김상운, 2015). 그런데 한국에서 130만부나 팔리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허태균(2015)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정의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뜨거워진 것은 한국인이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국인은 왜 이렇게 정의에 매달릴까? 심리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가족 확장성’과 ‘관계주의’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은 사회적 정의와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일대일 인간관계에서 인정에 끌려 판단하게 하고, 청탁을 거절하기 힘들게 하고, 공정함을 잃게 한다. 다시 말해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정의는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키워드의 하나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정의를 필요로 하는 사회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정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뜨거운 관심은 국내 태권도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의 열풍은 한국사회의 한 부분인 한 국내 태권도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3) 태권도 분야에서 ‘정의’의 의미

태권도 정신으로 정의를 언급한 태권도지도자와 학자들의 견해들은 정의가 태권도신 조로 채택된 주요한 근거로도 작용한다. 태권도 지도자와 학자들이 개진한 정의 내용에서 어떤 의미로 정의와 태권도 영역과 연관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다.

현대 태권도의 효시인 청도관 창립자 이원국(1968)은 “태권에서는 자진해서 남과 싸우거나 남을 해치지 않는다. 만물융화를 염원으로 하고 정의와 인도를 수호하는 뜻에서 호신상 피치 못한 경우가 아니고는 절대 태권의 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격투무예인 태권도는 안전을 위협받는 호신상의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서만 부득이 활용되어야 함으로써 그릇된 남용을 경계한 것이다.

한편 5대정신을 주창한 최홍희(1972)는 “태권도는 개인의 싸움에 쓸 수 없고 다만 약자를 돕고 정의를 위해서만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태권도를 절대 남용치 못하도록 하며, 모든 규율을 엄히 지키게 함으로써 준법정신을 높인다.”. 특히 최홍희는 격투기술인 태권도의 정의로운 사용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상세히 해설했는데 한 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박한 성품의 농부 출신인 어떤 유단자는 한 노파가 불량배에 의하여 돈을 강탈당한 것을 목격한 후 자신의 모든 일을 제쳐놓고 불량배의 뒤를 따라 야간에 수십리를 추격한 끝에 드디어 그들을 잡아 경찰에 인계함으로써 빼앗긴 돈을 찾아 준 사실이 있다. 이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서 싸운다는 태권도 정신의 발로인 것이다(최홍희, 1966).” 이와 같이 최홍희가 언급한 정의의 개념으로는 호신목적 등 태권도의 정당한 사용, 약자돕기, 준법정신 등이다.

미국 태권도 원로사범인 이행웅(1936~2000)은 교육전문가에게 의뢰하여 6년에 걸쳐 개발한 인성교육프로그램에서 태권도를 통해 인격 함양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12개의 정신적 가치 중에 정의(justice)를 포함시켰다(태권마루, 2008).

정의와 관련해서 태권도학자 안용규(1998)는 태권도 정신으로 준법정신을 채택하고 정의와 극기정신을 결부시켜 다음과 같이 개진했다. “태권도 수련에 의해 단련된 기술을 사회에서 선의(善意)로 사용하면 정의(正義)나 의협이다. 위급한 폭력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제력으로 이를 극복하는 극기정신과 준법정신은 깊은 관련을 맺는다.” 아울러

안용규는 후속 연구에서도 태권도의 동작과 기상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정신으로서 정직과 정의를 들기도 했다(이규석외, 2006).

학자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지만 정의의 상관 또는 하위 개념으로서 ‘공정성’은 정의와 불가분의 관계가 성립한다. 특히 태권도 경기와 관련해서 공정성에 기초한 정의는 코치,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심판원들의 공정한 판정 규정의 준수라는 점에서 스포츠맨십(sportmanship)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박은석(2007)은 태권도 경기에서



그림 IV-5. 태권도 경기장은 공정성을 기본으로 정의와 함께 ‘세상을 이롭게 함’을 실현하는 절대 조건이다.

지도자, 심판원들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지적한다.

“태권도 경기 현장은 승리지상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기간의 성적향상을 위해 기합이나 구타 등을 통한 강압식 훈련이 강요되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부모들의 로비나 승부조작 등에 개입되어 있다. 지도자는 폭력과 승부조작, 진학비리 등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이탈하는 것이다. 특정선수와 팀의 이익을 고려하는 태권도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심판의 공정성과 도덕적인 자세에 달려있다.”

이같이 교육을 빙자한 폭력이나 정의에 역행하는 불공정한 제반 행위와 비리들은 태권도 수련과 경기 현장에서 마땅히 사라져야 할 문제들이다. 태권도 경기와 얽힌 문제들의 해결은 정직하고 소신있는 도덕적 행동을 실행하는 지도자나 선수들 그리고 공평무사한 판정을 수행하는 심판원들에 달려있다. 그들은 태권도계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당사자이며 즉 ‘정의로운 태권도인’으로 간주된다. 태권도 수련과 경기장에서 정의의 명분으로 정정당당한 행동(fair play)과 더불어 공정한 심판 판정이 당연히 실행됨으로서 공평무사한 태권도 경기문화가 한시바빠 정착되어야 한다. 도덕적 양심에서 기인하는 정의로움은 자신에게 과대한 탐욕을 삼가고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몫을 주려는 항구불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변의 의지'로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할 실천적 신념이다(황경식, 2013).

한편으로 정의의 가치 영역은 오직 태권도 경기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 태권도장의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정의는 깊숙이 관련한다. 태권도 현장에 인성교육이론을 접목시킨 김병준은 정의의 개념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옳은 것은 지키고 잘못된 것은 따르지 않은 것과 정직하고 공정한 마음을 갖고 떳떳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태권도 교육현장에서 정의의 세부적 행동강령으로는 ‘올바른 결정’, ‘비겁한 행동의 삼가’, ‘약자 돕기’, 등이 명기되었다. 또한 정의의 연계덕목으로 정직, 용기, 공평 등이 제시되었다(김병준외, 2013). 이 같은 내용들은 정의와 관련해서 태권도장의 인성교육적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 생활 태도로 확립된 것이다.

이와 같이 ‘정의(正義)’ 개념과 가치는 태권도 영역에서 다음 세 가지 의미를 띠고 있다. 첫째, 자기 방어를 위한 호신 수단인 격투무예인 태권도는 불법적 폭력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당방위 즉 정의로운 목적에 따라 지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정당당함과 분투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맨십(sportmanship)은 물론 공정한 경기와 심판 규정 준수는 모든 태권도 경기 참여자들이 지켜야할 정의로운 행동의 일부라는 점이다. 셋째는 사회 태권도장의 인성교육에서 정의의 하위 개념에 포함된 질서와 규칙지키기,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약자돕기, 정직성 등은 수련생들이 지켜야할 구체적 생활태도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태권도 수련자들은 격투기술 능력 배양과 함께 정신적, 신체적 강건함을 함양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태권도를 더욱 가치롭게 만드는 길이다.

7. ‘수련자 신조’의 활용 방안

태권도 지도자는 태권도 정신과 신조를 교육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수련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신선한 식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영양소 많고 맛있는 음식은 인체의 피와 살이 되듯이 올바른 인성교육은 수련자의 건전한 심성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단락에서는 새롭게 수립된 태권도 정신과 수련자 신조를 지도자들이 어떠한 유효적절한 방식으로 태권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한점을 갖는지와 관련된 주제들을 논의하겠다.

1) 태권도 정신과 수련자 신조를 실천하면서 교육하는 지도자

일반적으로 지도자란 타인에게 사고체계, 행동방식, 행위 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러 수련자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는 사람은 명실상부한 지도자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며 사범의 행동과 생활태도와 말씨 등은 직접적으로 수련자의 전인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국기원, 2006. 102). 태권도 지도자 또한 수련자에 포함되며 태권도 정신과 수련자 신조를 실행해야 할 주요한 당사자이다. 즉 태권도 지도자는 한 사람의 수련자로서 태권도 정신과 신조를 마음 깊이 새기고 직접 실천하면서 수련생들을 가르쳐야 할 역할모델(role model)이기도 하다. 지도자는 태권도 정신과 수련자 신조를 신념화함으로써 최대한의 의지력을 발휘하고 원만한 인격을 닦음으로써 참여하고 각박한 경쟁사회에서 자아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지도자는 태권도 정신과 수련자 신조를 현실 생활에서 실천하며 끊임없이 자기 향상을 꾀하면서 수련생들이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를 발현시키도록 힘써야 한다.

2) 인성교육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어야 할 태권도 정신과 수련자 신조

인성교육의 소재로서 태권도 정신과 수련자 신조는 중핵(中核)에 해당된다. 태권도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정직, 협동, 책임감, 성실, 절약정신 등 모든 바람직한 덕목을 소재로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한다. 반면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훈(跆拳道訓) 또는 태권도인의 좌우명(座右銘)과 같고 수련자 신조는 가장 기본적인 태권도인의 생활 원칙으로도 볼 수 있다. 태권도 정신과 신조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인간의 고귀한 생명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삶의 목표들을 성사시키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주입식 및 타율식 교육 방식의 극복

‘신조(信條)’ 방식의 주입식, 획일적 도덕 교육 방식은 현대의 자유주의 교육 원칙에 역행하는 구(舊) 시대 발상으로 폐쇄적 교육 방식이란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사실 태권도 정신이나 신조가 실질적인 교육으로 적용될 때에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나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정신이나 신조란 용어가 자유, 민주, 자율성을 배제한 획일적이면서 강제적, 타율적 교육으로 간주되어 그런 교육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대처럼 가치관이 다원화되면서 어떤 특정한 가치 규범, 신념체계의 주입은 교조화(indoctrination)란 이름으로 일컬어지며 비판적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장용선, 2005).

정신과 신조에 대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과 신조 체계’를 수립하고 널리 보급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즉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격투무예 운동인 ‘태권도’가 갖는 본질과 특성을 활용하여 수련자들이 스스로를 이겨내는 의지력과 자아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태권도인의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 정신이나 신조 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에 대응하여 태권도 정신이나 신조 교육은 현 시대에 적합한 교육 방식들을 활용함으로써 극복되어야 한다. 즉 태권도 정신이든 수련자 신조이든 소재를 예전처럼 사용하더라도 교육 방식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즉 수련생의 인격이나 자유의사, 자아존중감 발달을 감안한 합리적 정신 교육적 방식을 실시함으로써 종전의 진부한 정신교육으로 인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교육 철학이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지도자가 태권도 정신이 지닌 바람직한 가치관 육성을 위해 수련생들에게

꼭 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지도 대상자인 어린이의 자아존중감이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분발을 독려하는 교육학적,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이규형, 2002).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이 본 정신과 신조가 갖는 특성인 덕목주의의 교육 철학과 지도 방식이 장점과 단점을 상세히 파악하고 장점은 고양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바람직한 정신과 신조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4) 수련자 신조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

(1) 신조 단어를 간단명료한 문장 형식으로 풀어쓰

태권도 정신과 수련자 신조는 사회 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지도자와 수련자를 위한 정신적 가치와 내용에 관한 설명체계이다. 즉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일반적 태권도인들이 이해하고 상기하기가 용이하도록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이야기가 간결할수록 웅변이다.”란 말처럼 최대한 간명한 문장을 사용하여 태권도신조의 핵심 내용이 표현되면 많은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다.

따라서 문장 서술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현보다는 태권도 현장과 수련자들의 현실 생활과 연관시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야 한다.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태권도 수련자들이 원만한 수련생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중요한 정신적 가치들이 선별되어 평이한 문장으로 표현될 것이다.

다섯 개의 수련자 신조는 그 자체로 교육 현장에 활용될 수 있지만 다섯 개 단어를 각 문장으로 풀어쓰거나 전체를 한 개의 문장으로 통합하면 활용상의 장점이 있다.

(2) 신조의 적용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3구분법

‘수련자’란 모든 태권도인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발달이론에 따라 동일한 신조 덕목이라도 수련자의 연령적 특성을 감안하여 신조를 설명하는 내용도 달리 표현되어야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한다.

인간의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의 구분은 신체적, 인지적, 성격적, 도덕적 발달 내용에 따라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한다. 통상의 발달 단계이론은 아동기(6세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로 널리 구분하기도 한다. 아동기가 시작되는 연령층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2세까지의 시기로 말할 수 있다(신명희외, 2013).

인간의 연령 구분에서 중요한 기준은 청소년과 성인(성년)의 연령 규정이다. 청소년의 연령 기준에 대해 국내 청소년 관련 법제가 명확히 진술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자로 13세 이상 아동기 이후의 연령대이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청소년은 성인 이전의 연령인 19세 미만의 대다수 중고생을 일컬으며 초등학교 어린이는 상황에 따라 포함되기도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조의 적용대상자인 수련자의 연령 수준은 우리나라의 학제 분류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을 포함한 연령대를 유소년, 중학생과 고등학교생을 포함한 연령대는 청소년, 19세 이상의 연령대를 성인(지도자 포함) 등 3개 연령군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신조를 구성하는 문장 덕목 선택과 서술 문장의 난이도는 이 같은 3개 단계의 연령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채용하기로 한다.

(3) 유의어 또는 연계덕목의 반영

수련자 신조에 서술되는 덕목들을 수련자의 연령별 대상에 따라 유의어 또는 연계덕목으로 변환해서 응용하는 방안도 시행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유의어(類義語)와 연계덕목을 합친 개념을 ‘유관덕목(有關德目)’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한다. 신조의 적용대상자 연령별 대상에 따라 유관덕목을 활용하면 신조의 언어적 다양성과 개념적 확장성을 살릴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유관덕목들이 연령별 대상자별로 언어적 단어의 선정과 개념이 적용되는 방안에 대해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인지심리학 이론처럼 엄밀한 학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의 언어 개념들은 그 의미 맥락이나 용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에 일반 사물처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언어적 근거를 다루는 위해 분석철학의 이론을 도입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단어의 개념의 의미와 활용성이 유사한 여러 자료들

의 근거로 다소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유관개념을 생성하였다.

그렇지만 태권도 덕목에 대한 김병준(2013)의 실증적 연구처럼 해당 덕목들을 수집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근거로 연계덕목들이 확립된 결과물도 반영되었다. 이들 유관 덕목들은 김병준(2013)의 연구를 비롯하여 류청산외(2006), 정유근외(2011)의 연구와 미덕가치 철학사전(Grayling, 2001; 채인선, 2011), 우리말유의어사전(어휘정보처리연구소) 등 여러 자료에서 참조되었다.

유관 덕목에 준거하여 각 신조 항목의 단어들의 의미를 풀어쓴 문장 형식으로 각 대상 연령 별로 제시해 본다.

표 IV-3. 수련자 신조의 대상 연령별 유관 덕목의 응용 방안

‘신조’의 핵심 덕목	유의어(類義語) 또는 연계 덕목		
	유소년	청소년	성인(지도자포함)
(태권도) 열정	열심 수련	열성 수련	평생 수련 및 태권도 지도 및 활동 추구
용기	씩씩함, 자신감	결단력, 침착성	용기, 도전정신
인내	참을성	끈기, 과제집착력	절제, 자제
예의	인사성, 고운말쓰기	타인존중, 존경	겸손, 배려
정의	질서 지키기, 약자돕기	규칙준수, 정정당당함	법질서 준수, 공명정대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4) 연령 대상별 신조 문장 내용의 예

수련자 신조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핵심 덕목들은 유관덕목과 더불어 세 연령 집단으로 구분된 대상자에게 각각 다르게 서술된 5개의 문장으로 구성될 수 있다. 아울러 연령별 수련자 신조들은 다시 한 개의 문장으로 압축, 요약됨으로서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또한 청소년 인성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집단적 낭독, 선서 또는 구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세 가지 연령 대상별로 구분된 신조 문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소년용 수련자 신조

1. 유치원생(6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13세)까지 대상

2. 5개 신조 형식 : 다섯 가지 정신 가치와 덕목 별로 나누어 세부적 해설
나는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 ① 태권도를 열심히 수련한다.(열정)
- ② 씩씩하게 행동한다.(용기)
- ③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마음을 기른다.(인내)
- ④ 인사를 잘하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예의)
- ⑤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질서를 잘 지킨다.(정의)

3. 한개 문장 형식(구호 또는 낭독용)

“나는 태권도를 열심히 수련하고 참을성과 자신감을 기르며 인사를 잘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② 청소년용 수련자 신조

1. 중학생(14세)부터 고등학생(18세)까지 대상

2. 5개 신조 형식 : 다섯 가지 정신 가치와 덕목 별로 나누어 세부적 해설
나는 건전한 심신을 기르기 위해,

- ① 열성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다(태권도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므로).
- ②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발휘한다(내 인생의 도약을 위해서).
- ③ 시작하면 끝을 보는 습관을 기른다(주어진 과제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 ④ 타인을 존중하고 예의를 잘 지킨다(타인과 더불어 즐겁게 살기 위해서).
- ⑤ 규정을 잘 지키고 정정당당한 태도로 산다(올바른 사회생활을 위해서).

3. 한개 문장 형식(구호 또는 낭독용)

“나는 태권도를 열성적으로 수련하고 도전정신과 끈기로 다하며,
예의바르고 생활 규정을 잘 지키고 정정당당한 태도로 산다.”

③ 성인용 수련자 신조

1. 18세 이상의 성인용 남녀 대상자(지도자 포함)

2. 5개 신조 형식 : 다섯 가지 정신 가치와 덕목 별로 나누어 세부적 문장으로 작성함

나는 성공적 삶을 위해,

- ① 평생 태권도를 수련하고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다.
- ② 인생의 위기는 넘어서라고 생기므로 강인한 정신력으로 난관을 극복해내자.
아울러 고난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신념을 갖는다.
- ③ 행복은 절제로부터 나온다는 신념을 가진다.
- ④ 겸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습관화한다.
- ⑤ 법질서를 존중하고 매사에 공명정대함을 잃지 않는다.

3. 한개 문장 형식(구호 또는 낭독용)

“나는 평생 태권도를 수련하고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 성숙하고 절제하고 겸손하며,
공명정대하게 행동한다.”

8. 결론

태권도 수련자 신조는 ‘(태권도)열정’, ‘용기’, ‘인내’, ‘예의’, ‘정의’ 등 다섯 가지 덕목으로 확정되었다. 본 연구진을 포함한 전문가 집단이 다섯 가지 구성 원리를 세우고 그에 따라 핵심적이면서 적절한 덕목을 선정하여 수련자 신조를 수립했다. 수련자 신조의 핵심 내용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태권도 정신에서 도출되며 그 상호연관성과 개념은 다음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 IV-6. 태권도 정신과 수련자 신조의 구성

본 신조 내용과 관련된 한 원로 태권도 관장의 글귀로 본 고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현대 태권도 주요 단체인 강덕원의 초대 관장이었던 홍정표(1971)는 “무분별한 기술과 위력 과시, 허영심, 편파적 당파성, 부당한 상업성에 현혹된 일부 태권도 지도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태권도는 무술로서 수련자가 정신수양의 바탕에서 육체적 힘과 신묘한 기능을 얻은 것이다. 꾸준히 쌓은 수련으로 우리는 인내력과 자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제력을 기르고 또 정의감을 기를 수 있다. 태권도는 무형의 정신을 단련하고 겸손과 예의범절을 중시하며 무아적(無我的) 경지를 추구함으로써 올바른 태권 정신과 건강한 육체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태권도의 정신적 중요성에 대한 그의 주장은 본 수련자 신조와 상통하는 면이 많으며, 다수의 태권도수련자가 그의 말에 공감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신철(2008). 강신철화보집. 수원: 사람과 자연. 68.
- 강정모(2014). 경제발전 정신으로의 홍익인간이념의 고찰. 제도와 경제. 8(2). 97.
- 경향신문(2006). 中 쓰촨성 초등교 태권도‘필수과목’.2006.6.5.
- 고미숙, 문용린(2010). 인문학 콘서트 1. 서울: 이숲. 162-163.
- 고영복(2000). 사회학 사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국기원(1987). 국기태권도교본. 87-88.
- 국기원(2006). 태권도교본. 60.
- 국기원(2011). 태권도인의 예절. 국기원연구소. 국기원.
- 국민권익위원회(2011). 공무원행동강령. 2011.2.3. 시행. 법체처 공식홈페이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8626&efYd=20110203#0000>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권석만(2008).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석만(2010). 욕망과 행복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욕망과 행복의 관계. 서울: 철학사상. 123.
- 김길평(1999). 아동의 태권도 수련 경험과 무도 정신력 성취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전남대학교 체육학과. 33.
- 김남두, 김재홍, 강상진, 이창후(2004).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해제.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김대식, 김광성(1987). 태권도를 통한 청소년 육성. 태권도 지도이론. 서울: 나남. 211-212.
- 김병준, 임태희, 정문자, 최중구, 이지훈, 이종천(2012). 태권도 인성교육 매뉴얼 개발. KTA 도장지원사업 프로젝트. 대한태권도협회. 24-26.
- 김병준, 임태희, 정문자, 최중구, 이지훈, 이종천(2013). KTA 태권도 인성교육. 서울: 상아기획. 26-28.
- 김상운(2015).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의 정의론 이래서 문제“ 비판 내용 살펴보니. 2015.1.25. 동아닷컴 뉴스.
- 김승용(2010). 쉐러리맨의 성공기술. 서울: 매월당. 26.
- 김연욱(2010). 대기업을 사로잡는 자기소개서. 서울: 세창미디어. 94.
- 김영선(1989). 태권도 정신론 정립을 위한 모색. 계간 태권도 제 69호. 대한태권도협회. 134.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 김영선(2010). 태권도 인성교육의 현장 적용. 태권도의 이론과 현장 지식 II. 연세대학교 태권도 최고지도자과정 연수교재. 277.
- 김영선(2011). 태권도 정신론. 1, 2급 태권도지도자 연수교재. 국기원. 110.
- 김원배(2001). 투기 종목 선수의 정신력 개념 구조 탐색 및 측정도구 개발. 미간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7-58.
- 김원배(2002). 스포츠 정신력 개념 구조 탐색 및 측정도구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3(3). 21-36.
- 김용철(2014). 태권도예의론. 서울: 한국사진문화원. 16-18.
- 김태훈(2011). 초·중학생들의 정의 개념 발달을 위한 도덕교육 접근 방안. 도덕윤리과교육. 34.
- 김태훈(2014). ‘용기(勇氣)’의 미덕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 44호. 2.
- 김현성(2015). 심층면담 내용. 공인 태권도 정신 제정을 위한 견해조사. 국기원 용역연구과제. 본 연구결과물의 부록에 수록됨.
- 김형배(1996). 예절교육 생활화를 통한 인성교육: 예절과 교양지도 자료집의 제작과 활용. 도덕 윤리과교육. 7.
-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 네이버영어사전. <http://endic.naver.com>
- 네이버한자사전. <http://hanja.naver.com>
- 대한태권도협회(1972). 태권도교본. 서울: 대한태권도협회.
-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 http://www.koreataekwondo.org/hta02_02.php
- 데일리한국(2012). 온두라스대통령의 스승, 송봉경 사범. 2012.11.23.
<http://weekly.hankooki.com/lpage/people/201211/wk20121123104148121450.htm>
- 류병관(2004). 태권도가 건강에 좋아요. 서울: 흥경. 170-171.
- 류청산, 진홍섭(2006).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덕목의 요인분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26(1).
- 무카스미디어(2010). 브라질 5,000개 초등학교에 태권도 선택 교과목 채택. 2010.3.25.
- 무카스미디어(2012). 태권도교육적 가치 UP. 미 공립학교 교과목 채택 확산. 2012.6.11.
http://mookas.com/media_view.asp?news_no=13963
- 박연환(2006). 태권도는 나의 종교. 지구촌 끝까지 I.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197.
- 박의수, 강승규, 정영수, 강선보(2000).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동문사. 35.
- 박철희(1957). 파사권법. 강덕원. 21.
- 방은령(2002). 가정에서의 예절교육. 제 2회 한일 가정교육포럼자료집.

- 삼성공식홈페이지. <http://about.samsung.co.kr/about/coreValue.do>
- 서보근(2012). 세계화 시대 홍익인간 이념의 실천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20(2)
-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2010). 넓은 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서울: 낱말어휘정보처리연구소.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1997).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자료 ; 조화로운 인간교육, 서울: 경인문화사. 7.
- 손인순(2008). 정조 이산 어록. 고전연구회 사암. 서울: 포럼.
- 손천택(2011). 태권도 교육론. 3급 태권도 지도자 연수교재. 국기원.
- 송보명(2010). 과제집착력을 키우면 영재 된다. 중앙일보. 2010.6.21.
- 송형석(2012).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0(1). 181.
- 송형석(2015). ‘태권도 정신’의 교육적 가치: ‘인내’와 ‘엄치’를 중심으로. 과학논총.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41. 45.
- 스포츠조선(2015). “해병은 해병을 때리지 않는다.” 해병대사령부 5대 해병 생활신조 보니. 2015. 7. 26.
- 신기철. 신용철(1989).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 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김은경, 원영실(2013).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석령(2004).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과 정신력과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40.
- 심성보(2008). 도덕교육의 새로운 지평. 서울: 서현사. 208.
- 아시아뉴스통신(2015). 정례조화에 새내기 공무원 윤리헌장 낭독. 2015.6.4.
<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838546&thread=09r02>
- 안도희, 정재우(2009). 음악재능 청소년의 열정이 성취목적과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7 (1). 한국교육학회. 77-78.
- 안용규(1998).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 대한태권도협회 연구개발특별위원회.
- 안용규(2000). 태권도 역사·정신·철학. 서울: 21세기교육사. 119.
- 안용규(2007). 태권도 정신교육의 구체적 원리. 국기원 편. 태권도 역사·정신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국기원연구소.
- 연합뉴스(2009).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6일 개막. 2009.8.5.
- 연합뉴스(2010). LA 8개 공립교서 태권도 가르친다. 2010.8.3.
- 우리말유의어사전. 어휘정보처리연구소. <http://www.wordnet.co.kr>
- 장용선(2005). 도덕성과 교육. 서울: 붕명. 293.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 연합뉴스(2015). "해병은 해병을 때리지 않는다". 5대 해병생활신조 제정. 2015.7.25.
- 오화영(2010).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과제와 홍익인간 사상의 의미. Vol. 9. 선도문화.
- 왕석순(2004). 제7차 가정과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인성교육 내용 체계화 방안. 한국가정교육학 회지. 16(2). 14.
- 유재봉(2004). 교육평가용어사전. 한국교육평가학회. 서울: 학지사.
- 윤병오(2012). 긍정심리학의 VIA 성격 강점 및 덕목 분류체계의 윤리학적 특성. 도덕윤리과교육 37호. 467.
- 윤병오(2013). 성격강점 및 덕목에 대한 VIA 분류체계의 윤리학적 특성. 윤리철학교육학회 제 18집. 97.
- 이경명(2006). 빛깔있는 책들, 태권도. 서울: 대원사. 7.
- 이경명, 김영관, 김우규, 김주연, 서민학, 정현도, 조춘환, 지유선, 허홍택(2011a), W.T.F 태권도 용어정보사전. 세계태권도연맹. 서울: 상아기획.
- 이경명(2011b). 태권도 수련인 신조를 체득하자. 태권풍류
<http://tkdphil.egloos.com/1548922>.
- 이규석, 이승환, 한형조, 안용규(2006).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 이규형(2002). 초등학교 아동의 태권도수련과 인성발달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105-106.
- 이규형(2012). 청소년 인성교육과 태권도. 올림픽정신과 태권도. 제 6회 국제올림픽심포지움. 태권도진흥재단. 33-34. 43.
- 이덕주(2012). 현대 무도의 본질적 가치성에 대한 탐구.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이상수(2006).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서울: 신원문화사.
- 이원국(1968). 태권도교범. 서울: 진수당. 50.
- 이원목(2005). 중용사상의 논리구조와 그 가치의 실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이정우(1999). 지구촌 시대의 예절교육의 필요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
- 이종관(2009). 태권도 정신 ⑦. 서정운의 태권영어 (22). 태권도신문 제 631호. 2009.3.24.
<http://www.tk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0>
- 이창후(2007). 태권도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정신. 태권도문화연대 편. 태권도학 연구. 서울: 도서출판 상아기획, 101-120.
- 이창후(2013). 태권도인의 덕윤리. 태권도연구. 4(3). 국기원

- 이희성편저(2007). 국어대사전. 파주: 민중서림.
- 임재해(2006). 국학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지표와 연구방향 구상. 동아시아 문화연구. 30.
- 정미경(2003). 실과 가정과영역을 통한 인성교육의 방안.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6(3). 144.
- 정문자,최중구,김병준,김윤희(2015). KTA 자존감을 높이는 코칭언어. 애니빅출판사.
- 정범모(1997). 인간의 자아실현. 서울: 나남. 273-274.
- 정영훈(1999).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와 현대적 의의. 홍익인간 이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1.
- 정영훈(2002). 홍익인간 사상과 한국문화. 한민족연구 제8호. 한민족학회. 97-117.
- 정유근, 김용한(2011). 태권도 인성 실천덕목 개념화. 대한무도학회지. 13(2). 49
- 정재민(2012). 신라 무인담의 전승 양상과 의미 - ‘삼국사기’소재 전공담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국문학회. Vol. 25. 5.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2002). 21세기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서울: 아카데미아리서치.
- 채명신(2006). 채명신 회고록. 베트남전쟁과 나. 서울: 팔복원. 238-239.
- 최홍희(1959). 태권도교본. 서울: 성화문화사. 9.
- 최홍희(1966). 태권도지침. 서울: 정연사. 19-20.
- 최홍희(1972). 태권도교서. 서울: 정연사.
- 태권마루(2008). 태권도명사들이 말하는 태권도 정신.
<http://www.taekwonmaru.com/2510850>
- 하태은(1998). 실전태권도. 대구: 공학사. 51-53.
- 하우동철(1995).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대 교육연구소.
- 한국경제뉴스통신사(2013). 안정은이 만난 사람; 문대성 의원,“中 태권도 정규수업 채택, 한류 콘텐츠 넓히는 발판”. 2013.8.5. <http://www.nspna.com>
- 한국경제웹신문(2015). 해병대 구타-가혹행위 근절 5대 생활신조 제정. 2015.7.25.
<http://starn.hankyung.com/news/index.html?no=394732>
- 한국교육심리학회(2000). 교육심리학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한정란(2002). 청소년의 예절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교육연구. 15(1).
- 황경식(2013).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J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서울: 철학과 현실사.
- 황기(1958). 당수도교본. 서울: 계량문화사.
- 허인욱, 김 산, 남덕현(2014). 태권도 9대관 정신 및 기존 정신 리뷰 연구. 국기원 용역과제.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81-82.

허태균(2015). 선택의 심리학, 더 나은 세상 위해 불공정 감수할 수 없다. 2015년 5월호. 신동아.

허성도(2007). 한자이야기 200: 慈故能勇(자고능용). dongA.com뉴스. 2007.5.7.

<http://news.donga.com/3/all/20070507/8438573/1>

홍정표(1971). 태권도 소고. 정신을 모아보고 힘을 모아보고. 태권도 창간호. 1971년 3월. 대한태권도협회. 32-33.

許名奎. 100忍耐箴言. 東方覺忍 編著. 허명규의 인내경. 이성희역(2009). 서울: 파라북스.

崔樞華·何宗慧編(2000). 說文解字. 北京: 師範大學出版社. 590.

Braford, B. (2003). The problem if courage. <http://www.ashbrook.org/publicat/thesis/brafford>.

Colan. L. J. (2003). Sticking to it : The Art of Adherence. Cornerstone Leadership Institute. 송경근역 (2006). 끈질김이 이끄는 성공. 서울: 한인.

Grayling A. C.(2001) The Meaning of Things : Applying Philosophy to Life, Weidenfeld & Nicolson. 남경태 역(2006). 미덕과 악덕에 관한 철학사전. 서울: 에코의 서재.

Kida Gen(1996). Tetsugaku no Koten 101 Mongatari. Tokyo: Shin Sho Kan. 이야기 철학의 명저 101(1997). 김석민역. 서울: 새길.

Lickona T. 인격교육론. 박장호역(1998). 서울: 백의. 71-72.

Michael S. (2015), 김명철역.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미래엔.

Norton, P. J., Weiss B. J. (2009). The role of courage on behavioral approach in a fear-eliciting situation: a proof-of-concept pilot study.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문용린, 김인자 외 공역 (2009), 긍정심리학의 입장에서 본 성격 강점과 덕목의 분류.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62-63.

Peterson & Seligman(2006).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Free Press.

Renzulli, J. S. (2000). The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s a paradigm for school reform.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and Technology, 9(2), 95-114.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태권도 인성교육’ 표제어 검색결과.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ED%83%9C%EA%B6%8C%EB%8F%84+%EC%9D%B8%EC%84%B1%EA%B5%90%EC%9C%A1>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김인자 역(2009).

긍정심리학. 서울: 물푸레. 13.

Schunk, D. H. (1989).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behavior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 173-208.

Sigmund L. (2014), *Fairness and Justice in Sports*. Edited by Cesar R. Torres. The Bloomsbury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Sport.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Plc.

Vergez & Huisman(1990). Nouveau "Cours de Philo". 이재형역. 철학강의. 서울: 청하.

wiktionary. <http://en.wiktionary.org/wiki/cor>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V 태권도 지도자
행동강령



국기원
세 계 태 권 도 본 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태권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줄곧 양적 팽창에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국내에서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 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고, 지금은 세계화에 성공하여 완속한 세계의 서브컬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주요 부작용 가운데 한 가지로 태권도 지도자의 자질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지도자의 폭언, 폭행, 성추행, 안전소홀, 편파판정, 판정불복, 금품수수와 횡령,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 태권도가 양적 성장에 머물지 않고 질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반성과 각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도자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 태권도의 전수자이며 동시에 전달자이다. 이들의 노력 없이는 태권도의 지속적 계승은 불가능하다. 지도자들은 역할모델로서 태권도수련자들에게 귀감을 보여야하며 태권도에 내재된 여러 가지 선들을 이들에게 온전하게 전수해주어야 할 책임을 지닌다. 이와 같은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이들이 따라야할 분명한 행동지침을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2) 연구의 목적

■ 국내·외 유관기관의 각종 강령 사례의 수집 및 분석: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생활체육협의회 등 국내 체육관련 기관과 미국 및 일본의 체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각종 강령을 수집하고, 설정된 분석틀에 의거하여 이를 분석한다.

■ 지도자 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지침의 개발: 태권도지도자가 추구해야할 핵심가치를 선정하여, 그 가치의 하위 의제 및 범주를 분류한 후, 범주 내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계화 시켜나가는 방식으로 지도자 강령을 위한 지침을 도출해낸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 태권도지도자 행동강령 시안의 구성: 도출한 지침에 의거하여 태권도지도자가 추구해야할 가치를 반영한 행동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가시화한 강령 표준안을 제시한다. 이것은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태권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의 행동지침으로 기능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분석틀

1) 연구의 방법

■ 이 연구의 방법은 비교분석 방법이다. 비교분석 방법이란 사안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유사 사례를 수집하여 상호 비교, 분석하여 주어진 사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요구되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검증이다(한태룡 외, 2007).

■ 문헌연구는 선행 연구 자료와 각종 강령 사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선행 연구 자료는 강령제정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연구논문, 보고서, 세미나자료집, 각종 간행물 등을 뜻하며, 강령의 의미, 강령의 제정 원칙, 기존 강령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태권도 지도자강령 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육관련 단체 강령 제정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해야하지만,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선행 연구 자료는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과는 무관한 각종 기업 및 단체의 자료도 함께 참고할 것이다.

■ 강령 사례 문헌은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도 포함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 체육단체의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자료를 참고할 것이며, 국내자료로는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생활체육협의회의 각종 강령을 참고할 것이다.

■ 전문가 검증은 3차례의 ‘태권도정신체계제정위원회’와 2차례의 ‘태권도정신체계공청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진이 시안을 마련하여 ‘태권도정신체계제정위원회’에 제출하여 1차 검증을 받고, 보완 또는 수정의 지시가 있을 경우 수정, 보완하여 1차 공청회에 발의할 것이며, 관련자들의 반응을 수렴하여 반영한 후 2차 태권도정신체

계제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검증하고 다시 공청회를 거친 후, 최종안을 3차 태권도정신체 계제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밟을 것이다.

2) 분석틀

- 각종 강령의 분석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강령의 의제 및 범주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기존 강령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주체-대상 중심의 분석틀을 개발하여 이를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였다(한태룡 외, 2007).

- 주체-대상 중심의 분석틀이란 각종 강령의 문구에 나타난 강령 준수의 주체와 대상자에 따라 강령의 내용을 분석하는 틀이다. 이 틀에 따라 강령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 기관, 고객, 국가, 사회, 코치, 체육인, 체육지도자 같은 주체-대상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태권도지도자가 준수해야할 강령 시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와 관련된 주체-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분석하였다(한태룡 외, 2007).

3. 강령의 의미

1) 강령의 정의

‘강령(code)’은 나무줄기(tree trunk, 樹幹)를 의미하는 라틴어인 ‘codex’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런 의미에서 강령이란 한 집단이 준수해야 할 이념적 근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령(code)’은 “특정한 조직이나 전문가 및 직능집단 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 회계사, 공직자 등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스러운 가치를 명문화한 것”을 의미하는데, 개별 집단의 정체성과 지향하는 바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윤리강령은 한 집단이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임직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 판단이나 의사결정의 기준을 담고 있으며, 기관의 법적·경제적 책임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규범성, 실천성 등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부패방지위원회, 2004).

2) 강령의 단계별 분류

특정 조직의 강령은 조직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측면과 내용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동일한 집단 및 단체의 강령 내에서도 행동의 구체성에 따라 그 내용이 몇 가지 단계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같은 강령의 단계별 분류는 헌장/윤리강령/행동지침 유형과 윤리강령/행동강령/실천강령 유형으로 구분된다.

■ 헌장/윤리강령/행동지침 유형: 이 유형은 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형으로서 간단한 문구로 표현된 기업의 신념(사훈社訓)에 입각하여 ‘헌장(charter)’, ‘윤리강령(code of ethics)’, ‘행동지침(guidelines for conduct)’의 형태로 사원이 따라야 할 행동을 구체화 시킨 형태를 말한다(전경련, 2003). 일부 기업은 행동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행동지침 문답(Q & A on the conduct guideline)’을 발행하기도 한다. 헌장은 단체의 기본 가치



그림 V-1. 윤리헌장의 예 : 축구인 헌장

관이나 신념을 표현한 문서로서 대개 1~2쪽 정도의 분량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축구협회(KFA)의 축구인 헌장을 들 수 있다.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문서이며, 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기본 방향을 명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8쪽 분량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윤리강령이 헌장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윤리규정’, ‘행동헌장’이란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행동지침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구체적 행동지침을 문서화한 것으로, 윤리강령이 기본적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행동준칙을 명시화함으로써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한태룡 외, 2007).

■ 윤리강령/행동강령/실천강령 유형: 이 유형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기초한 분류체계이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적 지침은 윤리강령(Code of Ethics),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의 3단계로 구체화된다. 윤리강령은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규정한 윤리지침을 의미한다. 행동강령은 윤리강령이 보다 구체화된 상태로서 윤리강령에서 선언한 가치별로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는 강령으로서 행동의 표준적 지표가 된다. 실천강령은 행동강령의 하위요소로서 가치의 표현을 넘어서, 특정 영역 혹은 행위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가 준수해야할 표준화된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국가청렴위원회, 2006).

3) 강령의 구성

강령은 개별 집단의 정체성과 지향하는 바의 집합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집단이 추구하는 바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므로 개별 기관의 강령이 모든 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다만 강령이 구성되는 형식은 보편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부분의 강령은 ‘전문’, ‘본문’, ‘서약’ 3가지로 구분된다(한태룡 외,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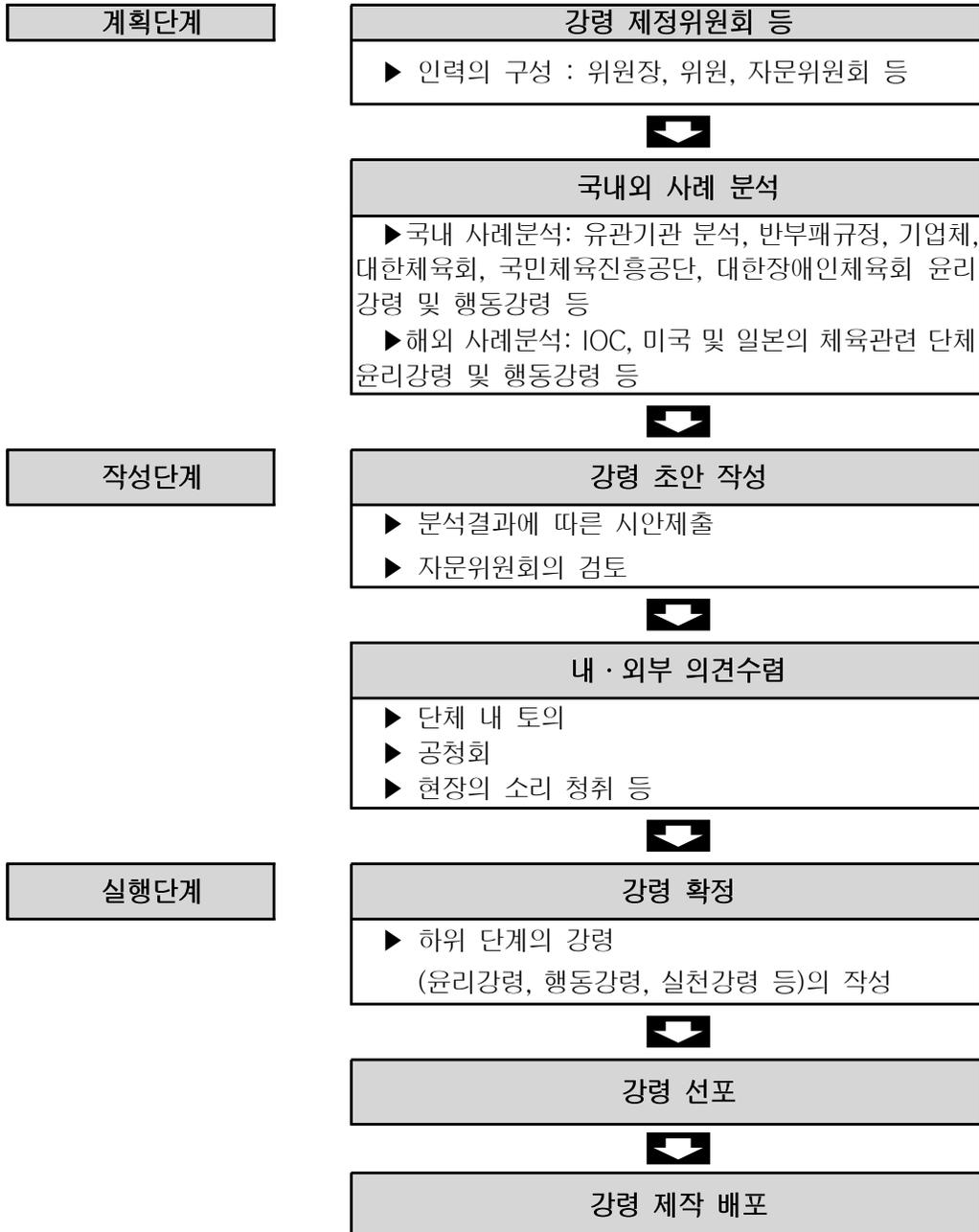
- 전문(preamble)은 개별 집단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관을 표현한다. 또한 강령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기도 한다.

- 본문은 그 구성방식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체가 지향하는 기본이념(또는 기본방침), 행위 당사자와 그 행위 및 이해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단체와 이해 관련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행위기준 및 세부 행동의 범주, 강령 준수를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서약은 개별 구성원에게 강령의 의미를 전파하며, 이에 대한 준수를 다짐 받는 의미로 명문화되는데 이는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규정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서약의 내용에는 강령의 숙지여부, 강령 내용에 대한 철저한 준수, 실제 업무에 있어 의문점 발견, 위반 가능성 대두 시 신고여부, 서약자의 성명, 소속부서, 서명일자 등이 포함된다,

4. 강령의 제정 절차

표 V-1. 강령 제정 절차



5. 강령의 제정 지침

1) 분석 대상으로서 유사기관 강령의 범주

(국제)

■ IOC 윤리강령: 존엄(dignity), 성실(integrity), 자원(resources), 입후보(candidatures), 국가와의 관계(relations with states), 기밀(confidentiality), 이행(implementation) 등 7개 범주

(미국)

■ 미국스포츠체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코치 행동강령: 코치의 역할 및 영향, 선수의 보호 및 교육, 코칭의 전문성 및 책무성 등 3개 범주

■ 미국스포츠체육협회 스포츠 및 체육 지도자 행동강령: 기본 태도, 참여 및 보급, 학문성 및 전문성 습득, 사회적 책무 실현 등 4개 범주

■ 미국스포츠심판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Sport Officials) 스포츠심판 행동강령: 공정성(청렴성), 전문성, 품위 유지 등 3개 범주

■ 미국건강교육협회(AAHE) 건강교육자 윤리 강령: 공공에 대한 책임, 전문성의 유지 책임, 사용자에 대한 책임, 건강교육 보급 책임, 연구와 평가의 책임 등 5개 범주

(일본)

■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 임직원 윤리 규정: 책무성, 공정성, 청렴성, 공공성, 명예중시 및 배려 등 5개 범주

■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 및 가맹단체의 윤리 가이드라인: 인권보호, 청렴성, 공공성, 실천성 등 4개 범주

■ 일본체조협회 윤리 규정: 명예와 신용 유지, 협회 운영 방해 금지, 사회 법규의 준수, 편익 도모 금지, 역할 의무의 성실 이행, 재정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실천 등 7개 범

주

- 재단법인 일본 럭비풋볼협회 임직원 윤리규정: 존중 및 차별 금지, 비밀 누설 금지, 사익 추구 금지, 공정 거래, 실천 등 5개 범주
- 사단법인 일본 아마추어 복싱연맹 아마추어 복싱 헌장: 복싱 애호와 참여, 정관 및 규칙 준수(페어플레이), 선수존중과 최선수행, 부당한 물질적 이익 추구 금지, 경기자나 임직원으로서 얻은 명성의 상업적 이용 금지
- 재단법인 일본 스모연맹 윤리 강령: 성실, 책무, 존중(예의), 개발

(국내)

- 대한체육회 체육인 윤리강령: 스포츠 고유 가치에 대한 존중, 국가와 사회에 대한 체육인의 역할, 존경받는 체육인 상의 정립, 체육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 4개 범주
- 대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시의 조치 등 4개 범주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윤리강령: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보칙 등 6개 범주
-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시의 조치 등 4개 범주
-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행위의 처리 등 4개 범주
- 오춘성 외 4인의 태권도 사도강령: 스승과 제자의 관계, 스승의 자질, 스승의 책임, 지도자와 단체, 스승과 사회 등 5개 범주

2) 적용 대상별 유사기관 강령의 범주

(도장지도자)

- 미국스포츠체육협회 스포츠 및 체육 지도자 행동강령: 기본 태도, 참여 및 보급, 학문성 및 전문성 습득, 사회적 책무 실현 등 4개 범주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 미국건강교육협회(AAHE) 건강교육자 윤리 강령: 공공에 대한 책임, 전문성의 유지 책임, 사용자에게 대한 책임, 건강교육 보급 책임, 연구와 평가의 책임 등 5개 범주
- 오춘성 외 4인의 태권도 사도강령: 스승과 제자의 관계, 스승의 자질, 스승의 책임, 지도자와 단체, 스승과 사회 등 5개 범주

(경기지도자)

- 미국스포츠체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코치 행동강령: 코치의 역할 및 영향, 선수의 보호 및 교육, 코칭의 전문성 및 책무성 등 3개 범주

(판정지도자)

- 미국스포츠심판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Sport Officials) 스포츠심판 행동강령: 공정성(청렴성), 전문성, 품위 유지 등 3개 범주

(행정지도자)

-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 임직원 윤리 규정: 책무성, 공정성, 청렴성, 공공성, 명예중시 및 배려 등 5개 범주
- 재단법인 일본 럭비풋볼협회 임직원 윤리규정: 존중 및 차별 금지, 비밀 누설 금지, 사익 추구 금지, 공정 거래, 실천 등 5개 범주
- 대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시의 조치 등 4개 범주
-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시의 조치 등 4개 범주
-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행위의 처리

(체육인)

- 사단법인 일본 아마추어 복싱연맹 아마추어 복싱 헌장: 복싱 애호와 참여, 정관 및 규칙 준수(페어플레이), 선수존중과 최선수행, 부당한 물질적 이익 추구 금지, 경기자나

임직원으로서 얻은 명성의 상업적 이용 금지

- 대한체육회 체육인 윤리강령: 스포츠 고유 가치에 대한 존중, 국가와 사회에 대한 체육인의 역할, 존경받는 체육인 상의 정립, 체육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 4개 범주

(체육단체)

- IOC 윤리강령: 존엄(dignity), 성실(integrity), 자원(resources), 입후보(candidatures), 국가와의 관계(relations with states), 기밀(confidentiality), 이행(implementation) 등 7개 범주

-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 및 가맹단체의 윤리 가이드라인: 인권보호, 청렴성, 공공성, 실천성 등 4개 범주

- 재단법인 일본 스모연맹 윤리 강령: 성실, 책무, 존중(예의), 개발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윤리강령: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보칙 등 6개 범주

3) 적용대상 별 강령의 범주

- 도장지도자 행동강령: 4개 범주

- 태권도 참여 및 보급에 대한 책임
- 태권도수련자에 대한 책임
- 태권도지도자로서 전문적 자질에 대한 책임
-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책임

- 경기지도자 행동강령: 3개 범주

- 경기지도자의 역할 및 영향
- 선수의 보호 및 교육
- 전문성 및 책무성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 판정지도자 행동강령: 4개 범주
 - 공정성
 - 청렴성
 - 전문성
 - 품위 유지

- 행정지도자 행동강령: 4개 범주
 - 공정한 직무수행
 -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교육 및 위반 시의 조치

6. 태권도 지도자 행동강령(시안)

태권도 지도자 행동강령(안)

전 문

태권도지도자는 한국에서 발원하여 전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발전한 태권도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의무를 지닌다. 태권도지도자는 부단한 극기克己의 과정을 동반하는 태권도 지도를 통해 개별 수련자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의 화합을 위해 애쓰며, 전 지구적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자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직분에 대해 무궁한 자긍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지녀야만 한다. 태권도 지도자는 한 사람의 태권도인으로서 태권도에 대한 강한 열정과 탁월한 기량을 습득하고, 습득한 자신의 기량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수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어린 수련자들을 태권도세계로 입문시키는 교육자이자 세계인의 문화유산 태권도의 전수자傳授者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탁월한 인품과 소양, 그리고 태권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태권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미래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계승되기 위해서는 태권도지도자가 자신의 직분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하는 바, 이하의 태권도지도자 강령은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도자 행동강령은 태권도계의 부패방지과 성실한 근무풍토 조성 및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태권도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태권도지도자가 따라야 할 가치 판단과 기준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행동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태권도지도자”라 함은 도장지도자, 경기지도자, 판정지도자, 행정지도자를 총칭한다.
- ② “도장지도자”라 함은 일선 도장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사범이나 관장을 의미한다.
- ③ “경기지도자”라 함은 각 급 학교나 기관 또는 기업에 소속된 태권도 팀이나 단을 지도하는 코치, 감독, 단장 등을 의미한다.
- ④ “판정지도자”라 함은 각종 경기나 승품·단 심사에서 규칙의 준수여부, 성과의 정도여부, 심사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판정하는 심판이나 심사평가위원을 의미한다.
- ⑤ “행정지도자”라 함은 지역, 국가, 세계 모든 차원의 태권도 관련기관에서 태권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장하는 직원과 임원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행동강령은 일선 도장에서 태권도를 직접 지도하는 사범이나 관장뿐만 아니라 팀이나 단을 이끌어가는 코치나 감독 그리고 단장, 경기나 심사에서 판정을 담당하는 심판과 심사평가위원, 그리고 태권도 관련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과 업무 관련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 의무와 책임) ① 모든 태권도 지도자 및 직무 관련자는 각자에 해당되는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의 발생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태권도 관련단체의 장과 임원, 각 부서의 장은 각 관할 지역 태권도지도자 및 업무 관련자의 강령 준수를 독려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장 도장지도자 행동강령

제5조(수련참여 및 보급에 대한 책임) ① 지도자는 삶의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태권도수련에 참여하고, 그 좋은 점을 드러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태권도수련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② 지도자는 공격과 방어로 이루어진 태권도의 기술 수련만이 아니라 태권도의 역사,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안목을 터득하고, 수련자들이 이를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수련자에 대한 책임) ① 지도자는 수련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폭언,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자는 수련생으로 하여금 성적 유혹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도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혈연, 지연, 학연, 성, 사회계층, 인종, 종교, 신체 및 정신 장애 등을 이유로 수련생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도자는 수련자가 단순히 기능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훌륭한 성품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 지도자는 수련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수련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련과정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수련환경을 제공한다.

제7조(전문적 자질에 대한 책임) ① 지도자는 태권도분야의 전문인이자 아동 및 청소년 교육자로서 자신의 직분을 자각하고 이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만 한다.

② 지도자는 태권도전문인으로서 태권도 수련 및 지도에 필요한 재덕, 즉 재능과 심성을 갖추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만 한다.

③ 지도자는 교육자로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모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만 한다.

④ 지도자는 세계인의 문화유산 태권도의 전수자로서 태권도의 세계를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과 안목을 갖추어 어린 세대를 태권도세계에 성공적으로 입문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제8조(사회에 대한 책임) ① 지도자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태권도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태권도의 보급에 힘써야 한다.

③ 지도자는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태권도인 상의 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도자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국내외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경기지도자 행동강령

제9조(지도자의 역할 및 영향) ① 지도자는 선수들의 역할 모델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도자는 시합의 결과에 상관없이 정직, 도덕,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선수들을 독려해야만 한다.

③ 지도자는 연습과 시합상황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선수의 보호 및 교육) ① 지도자는 선수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폭언,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자는 선수로 하여금 성적 유혹 및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도자는 지연, 혈연, 성, 계층, 인종, 장애 등에 따른 선수 차별을 금하여야 한다.

④ 지도자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그들이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⑤ 지도자는 선수들이 식품보조제나 불법 약물을 이용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전문성 및 책무성) ① 지도자는 선수들의 안전과 정신적 안녕에 헌신해야 하고, 선수들의 건전한 생활습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영양, 안전하고 건강한 체중감량 및 체중증량, 건강한 식습관 등에 대해 적절한 지식을 제공해야만 한다.
- ③ 지도자는 최신의 훈련방법과 컨디션 조절 기술을 배우고 선수 지도에 활용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 ④ 지도자는 심각한 상해가 유발될 수 있는 위험한 연습환경을 제거해야 한다.
- ⑤ 지도자는 선수의 발달 및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훈련프로그램을 계획해야만 한다.

제4장 판정지도자 행동강령

제12조(공정성) ① 지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편파판정과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자는 편견 없고 공정한 스포츠 경기의 판정 이외에 다른 의무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한다.

③ 지도자는 실제로 혹은 외형상으로 오해를 받을만한 행동을 자제해야만 한다. 예컨대 선물, 호감, 특별대우, 특권 같이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처신을 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이 판정을 담당하게 될 선수들이 속한 학교나 팀과 고용 또는 친분관계 맺는 일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④ 우연히 자신의 친인척이거나 친분이 두터운 자의 판정을 맡았을 경우에 속히 보고하고 집행부의 지시에 따른다.

제13조(청렴성) ① 지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승부 조작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자는 대회 전이나 후에 팀의 관계자와 사적인 회합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③ 지도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심판이라는 자리를 이용하고자하는 일상의 유희과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야만 한다.

④ 지도자는 심판이나 심사 보는 일을 불공정하게 제한하거나 구속하는 세력과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제14조(전문성) ① 지도자는 경력, 성실, 중립, 존중, 민감성, 전문성, 판단력, 재치 등과 같은 심판의 기본소양을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지도자는 경기 규칙과 경기 규칙 강화에 필요한 기술 두 가지를 완벽하게 습득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확고하며, 통제된 방식으로 판정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제15조(품위 유지) ① 지도자는 학생선수, 코치, 학교 임원, 동료, 대중과의 상호작용에서 전문가의 명예와 위함을 지켜야 한다.

② 지도자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 소통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스스로 준비해야하고, 단정하고 적절하게 옷을 입어야 하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처신해야 한다.

제5장 행정지도자 행동강령

제16조(공명정대-공정한 직무수행) ① 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언제나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게 임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상사와 외부 인사 등으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직무의 수행을 지시, 청탁 받을 경우 단체의 장 혹은 해당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지도자는 단체가 정한 바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등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지연, 학연, 성별, 종교, 사상, 혈연 등을 이유로 배타적인 파벌조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청렴결백-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① 지도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의 통념과 상식을 벗어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금품과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다.

③ 지도자는 부당한 인사 청탁의 강요 또는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강요 또는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하여야 한다.

제18조(명예-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① 지도자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자는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직무 및 업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과도한 경조금품의 요구와 수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교육 및 위반 시의 조치) ① 단체의 장은 지도자 또는 업무 관련자의 비윤리적 행위의 방지 및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단체의 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지도자 또는 업무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제6장 서약

제20조(서약) ① 지도자로서 다음 내용을 서약한다.

태권도 지도자 행동강령

1. 태권도지도자는 태권도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고 삶의 전 기간에 걸쳐 태권도수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수련 열정).
2. 태권도지도자는 아동 및 청소년 교육자로서 자신의 직분을 자각하고 이에 필요한 재능과 심성을 갖추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한다(예의와 책임).
3. 태권도지도자는 태권도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수련생의 역할 모델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생활태도와 언행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예의).
4. 태권도지도자는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태권도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정의).
5. 태권도지도자는 수련을 통해 얻은 신체 및 심리적 힘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절제력을 갖추어야 한다(인내).
6. 태권도지도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충동과 감정에 휩싸여 쉽게 화내거나 폭력성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인내).
7. 태권도지도자는 수련과정에서 겪게 되는 신체 및 심리적 고통을 이겨내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용기).
8. 태권도지도자는 불의에 맞서 자신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지녀야 한다(홍익-정의).

V. 태권도 지도자 행동강령 ■■■

9. 태권도지도자는 지연, 혈연, 성, 계층,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수련생을 차별하지 말아야하며, 각 개인의 인권을 그 자체로 존중해주어야 한다(정의).

10. 태권도지도자는 수련생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폭언, 협박 등의 가혹행위나 성적 유혹 및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예외).

참고문헌

- 국가청렴위원회(2006). 2007 공무원 행동강령업무편람.
- 대한체육회(2004). 새경기력향상중장기발전계획. 서울: 체육과학연구원.
- 미국스포츠체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최의창 역, 2015). 스포츠코치 국가표준: 코치가 갖추어야 할 필수 자질. 2판. 서울: 레인보우박스.
- 부패방지위원회(2004). 공직유관단체 윤리경영지원매뉴얼. 서울: 부패방지위원회.
- 전경련 윤리경영T/F팀(2007). 윤리경영 이해와 실천. 서울: FKT미디어.
- 한태룡, 송형석, 유태호, 김홍식, 김정효(2007). 체육부문기관 윤리강령 수립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VI 태권도인 상(像)



국기원
세 계 태 권 도 본 부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계가 지향해야만 할 바람직한 태권도인의 상을 명문화된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최소 두 가지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첫째는 현재의 태권도계가 방향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전제이고, 둘째는 바람직한 태권도인의 상이 방향을 상실한 태권도계에 규범적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이다. 연구의 필요성은 이 두 가지 전제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먼저 첫째 전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의 태권도계, 특히 국내의 태권도계는 방향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진단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황적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일상에서 두 가지 극명하게 대조되는 태권도인의 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태권도인은 여러 문헌이나 보도 프로그램에서 매우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로 그려지고 있다. 즉, 무도인으로서 강한 몸과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정의롭고 예의바른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태권도인의 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에서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1999, 어메리칸 태권도 방송).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태권도인을 전신 장애나 척추마비 같이 심각한 신체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을 지닌 인물로 묘사하고 있고, 태권도지도자는 마약과 폭력에 빠진 청소년을 선도하여 건전한 시민을 길러내는 참된 교육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한편 이와는 정반대로 태권도인은 대중매체의 뉴스나 보도에서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즉, 태권도인은 탈세, 공금횡령, 승부조작, 편파판정, 학위논문표절 등 부정부패를 일삼는 몰염치한 인간이며, 난폭하고 폭력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태권도인의 상은 표류하는 태권도계의 위기적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태권도계는 태권도의 정체성 문제로 오래전부터 심각한 분란을 겪어왔다. 1980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년대 중반까지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무예로서의 굳건한 위상을 지켜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태권도현대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커지면서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무예인가 가라테의 아류인가?’, ‘태권도와 태권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무예인가 아니면 무관한 영역인가?’ 같은 역사성 관련 물음이 빈번히 제기되었으며, 스포츠화가 진전되면서 ‘태권도는 스포츠인가 무도인가?’ 같은 정체성 관련 물음도 제기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스포츠화에 부가해서 공연예술화 및 생활체육화에 따라 품새, 겨루기, 시범의 운동원리가 이질화되면서 태권도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태권도가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 점점 더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태권도의 정체성 혼란은 태권도계의 방향상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재 국내 및 해외 태권도계에서 국기원의 월단심사 실행계획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총본산 격인 국기원은 2015년 10월 22일 17개 시도협회의 건의와 이사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여러 이유에서 승단 시기를 놓친 태권도계 인사들에게 월단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태권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태권도계의 위계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기원의 월단심사 실행 의지는 곧 바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태권도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도장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국기원의 처사가 태권도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퇴행에 일조할 수 있다며 주장하면서 월단심사 사업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월단심사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은 승단 기준이 오직 태권도수련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 결실인 실력만으로 해야만 한다는 입장이고, 강행하려는 이들은 수련에 들인 노력과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 예컨대 국제대회 입상이나 어느 정도의 기부금, 태권도관련조직에서의 행정활동 또는 태권도관련 연구 활동 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³⁾ 이렇듯 태권도계는 태권도의 정체성 문제만이 아니라 태권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승단 기준을 놓고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3) 우리 사회에는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주는 일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예컨대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장시간 줄서야 되는 번거로움은 거액을 주고 구입한 VIP회 원권으로 대체될 수 있고, 스키장의 리프트 타는 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의 기여 입학제도 이에 대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는 대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나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골프의 프로선수시험이나 바둑의 프로기사시험의 경우 대체물이 없으며 시험 합격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유도과 검도에서 승단심사 역시 철저하게 실력과 연륜에 기반하고 있다.

러한 첨예한 대립 상황 역시 태권도계의 방향상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예로 든 태권도인에 대한 이미지, 태권도의 기원 및 정체성, 승단심사의 기준 등과 관련한 상이한 관점들의 첨예한 대립 상황은 한국의 태권도계가 방향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 과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태권도계의 방향상실 위기는 그동안 양적 팽창에 주력해왔던 태권도가 질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겪는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즉, 이 상황은 인간의 성숙단계에서 청소년에 겪는 사춘기적 현상에 비유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양적인 면에서 성장이 완결된 시기이지만 아직 뚜렷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해 갈등하고 방황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바람직한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일은 한 인간의 지속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진다. 태권도 역시 차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규범적 방향, 즉 이정표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바람직한 태권도인의 상이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태권도인의 상이 방황하는 태권도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 학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간상이 방향안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언급하였다. 교육학자 마인베르그(E. Meinerberg)에 따르면 “인간 개개인은 매 순간 순간,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다. … 종종 이러한 자신의 물음에 대해 개인은 내가 누구라는 자신에 관한 상을 구상함으로써 대답을 한다. 이러한 자아상은 인간 개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지식은 내가 어떻게 행위 해야만 하는가라는 실천적 물음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1988, 1-2). 철학자 란트만 역시 그의 저서 『철학적 인간학』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자기 해석은 자기 형성이 수행되는 목표와 지표가 된다. … 물론, 인간의 모든 자기형성이 그가 자기 자신에 관하여 형성하는 상 -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또한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상 - 에 근거해서 수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에 관해서 그려내는 위대한 자화상과 이와 동시에 일어나는 문화적 및 인격적 존재의 형성 사이에 존재하는 내면적인 연관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그 이유인즉, 인간은 그들이 그 본성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또한 더욱 가까워지려고 원하기 때문이다”(1993, 13-14).

마인베르그가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관련하여 인간상의 방향안내 기능을 이야기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했다면, 란트만은 종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관련하여 인간상의 방향안내 기능을 이야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두 사람은 인간상이 개인에게든 인류 전체에게든 인간에게 삶의 방향을 안내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바람직한 태권도인의 상이 태권도계, 즉 태권도인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태권도인 상 연구가 태권도인의 존재를 초시간적·초공간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태권도인 상 연구는 오히려 변화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태권도인의 존재특성을 탐구하며, 동시에 태권도인의 유동적 행위구조를 확립해 보려는 이론적 시도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세계개방적 존재이기 때문에 초시간적·초공간적 존재특성을 지닐 수 없다. 이러한 인간이해가 태권도인 상 연구의 이론적 출발점이다. 태권도인 상 연구가 구성하고자 시도하는 하나의 인간상은 단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상”일 뿐이다. 다시 말해 시대정신의 구현체인 인간상이다.

2) 연구의 방법과 절차

이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태권도인의 상을 명문화된 형식으로 도출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인의 상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권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의 목록을 제시해야만 한다. 바람직한 태권도인이란 태권도인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을 구현하는 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태권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의 목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태권도라는 인간 활동의 성격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한다. 태권도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태권도를 하는 사람의 덕을 규명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덕 윤리학의 관점, 정확하게 말해 맥킨타이어의 덕 윤리학의 관점에서 태권도라는 인간 활동의 성격을 규명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에 근거하여 태권도라는 인간 활동에 직접 관계하는 자(태권도인)가 갖추어야 할 덕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바람직한 태권도인의 상을 기술할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연구의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덕 윤리학의 관점에서 태권도라는 인간 활동의 성격을 규명한다. 둘째, 규명된 태권도의 성격에 근거하여 태권도를 수련하는 자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덕의 목록을 제

시하고, 그 타당성을 논증한다. 셋째, 태권도수련자가 갖추어야할 덕의 구현자로서 태권도인의 상을 구체적으로 기술記述한다.

2 태권도의 이해

1) 기존 이해의 문제점

우리는 태권도인의 덕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인간의 활동양식으로서 태권도가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태권도에 대한 이해 없이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태권도인)’의 덕을 논하는 일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이나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그래서 태권도인의 덕 윤리를 연구한 이창후(2013: 13)도 “태권도인의 덕 윤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태권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창후는 태권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는 태권도가 “자신과 상대와의 극단적인 생존의 대립관계를 세상 안에 설정하거나 가정하고 정신적·육체적 활동을 통해 그 대립관계를 극복하는 가운데 인간의 조화된 성장과 개선을 지향하는 활동양식”(2013: 13)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말을 다시금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기법 및 그 기법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원리들의 체계”(2013: 15)로 약술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태권도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궁극적으로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격투기법인 셈이다. 다음의 진술은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태권도는 살법(殺法)이 아니라 활법(活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태권도를 지나치게 미화함으로써 오히려 그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창후, 2000: 42)이다. 태권도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창후, 2000: 42)이다.

이창후는 이처럼 태권도의 본질을 격투기법에서 찾고 있다. 다음 인용문은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태권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격투기법의 체계라는 점이기 때문에, 태권도를 태권도이게끔 하는 것, 즉 태권도와 다른 것이 구분되도록 하는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본질은 태권도의 기법에 있다”(이창후, 2007: 134).⁴⁾

태권도를 격투기법으로 규정하고, 그 목적을 생사를 건 실전격투에서의 승리에서 찾는 이창후의 주장에는 무리가 많다. 과연 태권도는 생사를 건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활용하는 무예이며 실전격투기술인가?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이유는 태권도와 같은 도수무예의 기술은 예외적인 경우⁵⁾를 제외하고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런 방식으로 규정되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예 연구가 최복규의 말을 들어보자.

전통적인 의미의 ‘무예’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태권도나 가라테 · 택견 · 유도 등에도 무예란 말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맨손 기예 혹은 호신술은 사실 무예라고 할 수 없다. 혹자는 『무예도보통지』에도 맨손 기술인 권법을 수록하고 있지 않느냐고 강변하겠지만 『무예도보통지』의 「권법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맨손 기술은 큰 싸움(戰爭)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체력을 키움으로써 무예를 배우기 위한 초학자가 익혀야 하는 기본 기술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무예는 아니다(최복규, 2008: 19).

최복규가 말하고 있는 무예는 전쟁에서 적을 살상하는 기술이다. 무예를 그렇게 이해할 때 태권도 같은 맨손무예는 참된 의미의 무예로 보기 어렵다. 병기무예의 보조수단

4) 태권도의 본질이 무예라는 이창후의 결론은 전형적인 구조기능주의적 사유의 결과이다. 구조기능주의는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는 이론으로서 고대 그리스의 실체론, 근대의 본질주의 철학, 근대의 법칙 중심 과학, 20세기 초기의 구조주의의 논리를 계승하는 이론이다. 먼저 구조를 결정하고, 이 구조에 입각해서 기능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들이 전제하는 구조는 사실 여러 구별들 가운데 하나의 구별일 따름이다. 결국 태권도의 무예적 속성은 우연적 속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전통철학의 의미에서 본질은 아닌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투입되어 태권도의 새로운 구조들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다양한 태권도의 구조가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는 여전히 태권도의 본질 운운하는 이론은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5) 오끼나와테(가라테의 다른 명칭)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양의 도수무예는 실전격투 기법의 의미 보다는 무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체련단련의 의미가 강한 활동이었다. 일본은 16세기 경 오끼나와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무기를 몰수한 후, 무기금지령을 내렸다.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된 오끼나와인들은 인적이 드문 밤에 외진 곳에서 맨손 또는 농기구를 이용하여 전투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격필살’을 목적으로 하는 전투기법이 발달하였다(김용욱, 1990).

은 될 수 있을지언정 무예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조선시대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1996: 337)에도 “권법은 흡사 전투기술로서의 예비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사실은 수족을 활동시키고 지체의 힘쓰는 법을 익히기 위한 무예의 초보이다.”고 하여 도수무예를 실전 무예 그 자체로 볼 수는 없지만 무예를 익히기 위한 기초기술로는 인정된다고 하였다. 병기를 잘 다루기 위한 기초체력배양을 목적으로 몸을 단련하는 방식과 상대를 살상하기 위해 몸을 단련하는 방식 간에는 원리적으로 엄연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태권도가 살상기술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기술적 원리를 도출해내려고 노력했던 이창후의 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백번 양보해서 맨손기술도 생사를 건 실전무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도, 여전히 그러한 동기와 목적규정이 타당성을 지닐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무예의 수련동기 및 목적규정은 역사의 변화와 사회분위기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동양의 재래식 무예는 평화시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화기의 등장으로 점차 그 실용성을 상실해갔으며, 실전무예적인 의미 보다 인간교육수단이나 건강과 양생수단 또는 취미생활의 방편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태권도수련자들에게 태권도를 수련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과연 이들 가운데 몇 명이나 생사를 건 격투에서의 승리를 위해 그것을 한다고 답할 것인가? 아마도 그렇게 답할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재미, 건강, 친교, 예절 및 인성 교육, 자아실현, 다이어트 등과 같은 현실적인 동기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시간을 태권도수련에 투입하고 있는 태권도 겨루기선수들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살상이나 자기방어 보다는 득점을 얻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훈련에 매진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태권도를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격투기법으로 보는 이창후의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며, 뭔가 대상을 비켜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격투기법은 태권도의 주요 요소이긴 하지만 태권도의 모두는 아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태권도는 격투기법 + α 이다. 연구자의 생각에 α 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수련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경우 태권도에서 α 가 차지하는 비중이 격투기법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태권도는 덕 윤리학자 맥킨타이어(McIntyre)가 말하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는 실천전통(practice) 개념에 부합하는 인간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맥킨타이어에 따르면 삼목 놓기, 미식축구공을 숙련되게 던지기, 벽돌쌓기, 무 심기 등과 같은 기법만으로는 실천전통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기법들에 사회적으로 확립된 어떤 정신적 가치와 덕목, 그리고 전통이 가미될 때만이 실천전통이 될 수 있다. 즉, 삼목 놓기, 미식축구공을 숙련되게 던지기, 벽돌쌓기, 무 심기 같은 기법에 어떤 사회적으로 확립된 가치와 덕목, 전통이 가미되어 형성된 장기, 축구, 건축, 농사 등이 실천전통이라는 말이다(맥킨타이어, 1997: 278).

태권도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이창후가 말하는 기법들, 즉 주먹지르기, 발차기, 막기, 피하기 같은 공방기법들만으로는 태권도가 되지 못한다. 여기에 어떤 가치와 덕목, 전통이 가미되어야 비로소 태권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런 태권도라야 맥킨타이어가 말하는 실천전통의 의미에 부합하는 활동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에서는 맥킨타이어의 덕 윤리학에서 말하는 실천전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닌 활동을 의미하고, 어떤 인간 활동이 실천전통으로 지칭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하는지, 그리고 태권도는 과연 그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활동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실천전통으로서 태권도의 이해

(1) 실천전통의 의미

태권도가 실천전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논하기에 앞서 실천전통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자. 실천전통은 덕 윤리학자 맥킨타이어의 프랙티스(practice)에 대한 번역어이다. 학자들에 따라서 실천(맥킨타이어, 2007; 오현택, 2008; 강성민, 2013), 사회적 실제(유재봉, 2000; 김철중, 2005), 실천전통(홍은숙, 2009) 등으로 각기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실천전통으로 쓰겠다. 맥킨타이어는 실천전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실천전통이라는 말로 “나는 정합적이고 복합적인 형식의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동적 인간 활동을 뜻하는데, 그 형식에 적당하고 일부 그것의 규정이기도 한 탁월성 기준에 도

달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활동에 내재된 선(internal goods)이 실현되고, 그 결과 탁월성을 획득하려는 인간 능력과 그 활동과 관련된 목적과 선에 대한 인간 개념이 체계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활동을 말한다”(MacIntyre, 1984: 187; 김미영, 2011: 86에서 재인용).

이 정의로부터 알 수 있듯이 실천전통은 인간의 활동이지만 인간의 모든 활동이 실천전통은 아니다. 어떤 인간 활동이 실천전통이 되기 위해서는 위 인용문이 말하고 있듯이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유재봉(2000: 53)은 이 조건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질문으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그 활동이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으로서 모종의 일관되고 복잡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그 활동이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가? 셋째, 그 활동 속에 내재하는 탁월성의 기준이 있는가? 넷째, 그 활동이 따라야 할 규칙이 있는가? 다섯째, 그 활동은 누적적인 전통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전하는가?”. 홍은숙(2009)은 이와는 조금 달리 실천전통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립된 인간 활동, 모종의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 탁월성의 기준, 내재적 가치, 덕, 규칙에 대한 복종, 역사적 전통의 발전, 구성원의 성장 여덟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강성민(2013)은 다시금 어떤 활동이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으로서 모종의 일관되고 복잡한 양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내재적 가치를 구비하고 있어야하고, 탁월성의 기준이 존재하며, 규칙에 대한 복종을 전제해야만 실천전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홍은숙은 실천전통의 조건을 너무 풀어서 설명하였고, 강성민은 너무 압축적으로 요약하였다. 여기서는 유재봉의 관점에 입각해서 태권도가 실천전통의 조건을 만족하는 활동인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2) 실천전통으로서 태권도

① 첫 번째 기준: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으로서 모종의 일관되고 복잡한 양식

실천전통의 첫 번째 기준은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 인간 활동’, ‘어느 정도 복잡한 인간 활동’, ‘다소 일관된 인간 활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즉, 어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인간 활동이 실천전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것이어야 하고, 어느 정도 복잡해야 하며, 다소 일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태권도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활동일까? 그렇다. 첫째 기준을 요소별로 분리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실천전통은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이라고 했다. 태권도 역시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 인간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태권도는 어느 한 개인만의 창작품이 아니며 여러 사람이 협동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며, 사회적으로 폭넓게 확립된 인간 활동이기 때문이다. 먼저 태권도가 협동적 인간 활동이라는 점을 검토해 보자. 태권도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기법은 물론이고 추구하는 가치들도 특정 개인의 노력만으로 발전하고 확산될 수 없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제지간의 관계형성과 선후배의 공조체제, 그리고 동료들의 격려와 도움이 없으면 태권도수련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종 난관을 쉽게 극복해내기 어렵다. 산 속에서 외롭게 태권도를 수련하는 자일지라도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낸 각종 기법들을 반복, 숙달해야만 하며, 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태권도는 혼자 추는 춤이 아니기 때문이다. 겉보기에 혼자서 하는 품새도 언제나 가상의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렇게 볼 때 태권도는 철저하게 사회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태권도의 발전과 확산은 태권도를 구심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동 결과이다. 한편 태권도가 사회적으로 확립된 인간 활동이라는 점은 구태여 부연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무예로서 출발하여 이제는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발달하였다. 태권도는 어린이의 인성교육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연예술의 새로운 장르로 변모하고 있고, 취미활동과 다이어트를 위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다.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 보급되어 있고, 수련자 수만 8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태권도는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세계 사회에 견실하게 뿌리 내린 인간 활동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이상의 간략한 설명만으로도 우리는 태권도가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동적 인간 활동이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실천전통은 다소간의 복잡한 인간 활동 양식이다. 맥킨타이어(1997)는 축구공던지기나 무심기, 벽돌쌓기 같은 단순한 활동은 실천전통이 아니지만 축구, 농업, 건축은 실천전통이라고 말한다. 즉 실천전통은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다소간 복잡한 인간 활동 양식을 지칭한다는 의미이다. 태권도 역시 단순한 기술

들만으로 이루어진 활동이 아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서기, 차기, 막기, 지르기 같은 단순 동작들만을 배우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고난도의 복잡한 기술들을 습득해야만 한다. 겨루기, 품새, 시범의 기술들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며 어느 정도 경지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만이 습득할 수 있는 복잡한 인간 활동이다. 여기에 태권도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의례, 띠와 단, 심사, 예절 같은 규범적 요소들이 부가될 경우에 태권도의 복잡성은 더욱 커진다. 이로써 태권도가 어느 정도 복잡한 인간 활동이라는 점은 명백해졌다.

셋째, 실천전통은 일관된 활동이어야만 한다. 어떤 활동이 복잡한 형식을 가졌다고 무조건 실천전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실천전통이 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일관된 활동이어야만 한다. 태권도는 분명히 다소 일관된 인간 활동이다. 예를 들어보자. 태권도겨루기를 할 때, 선수들은 마구잡이로 손이나 발을 휘두르거나 차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유효타를 얻기 위해 틈을 보아 다른 선수를 정확하게 공격한다. 품새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어떻게 품새를 수련하는지 알고 있다. 품새는 마구잡이로 몸을 놀리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시범에서도 이와 같은 일관성은 늘 유지되기 마련이다. 태권도의 기법은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으며, 세계 어느 곳의 도장을 가더라도 일관된 수련과정을 기대할 수 있다. 태권도인의 예절도 마찬가지이다. 도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사범님께 인사하고, 도장의 수련프로그램을 질서 있게 따르는 일은 태권도의 일관된 관행에 속한다. 오늘날 태권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변모하고 있지만 그러한 변환도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도장에서의 수련방식, 경기장에서의 경기방식, 공연장에서의 시범방식은 각기 상이하게 보이지만 복장, 태도, 기본 기술 등에서 일관성을 지니며, 그런 의미에서 태권도가 일관된 인간 활동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② 두 번째 기준: 내재적인 선(善)의 성취

어떤 인간 활동이 실천전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두 번째 기준은 그것이 내재적인 선들을 추구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태권도가 내재적인 선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재적 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둘째, 태권도의 내재적 선(善)은 무엇이며, 셋째, 태권도의 수련 목적이 이와 같은 선의 성취인지를 검토해보아야만 할 것이다.

첫째, 내재적 선이란 어떤 것인가? 내재적 선은 외재적 선과 대비를 이루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먼저 외재적 선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외재적 선이란 사회적 상황의 우연적 사건들에 의해 실천전통들과 외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선들을 뜻한다. 예컨대 체스 같은 실천전통의 경우, 체스를 하는 외적 동인, 즉 체스의 외재적 선은 아이들의 경우 승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탕들이 될 수 있으며, 어른들의 경우 특권, 지위, 돈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 외재적 선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항상 존재하며, 그것의 성취는 결코 특정한 실천과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 한편 내재적 선이란 특정한 실천전통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뜻한다. 다시 체스 경기를 예로 들어 보자. 체스경기의 내재적 선들은 오직 체스나 이것과 유사한 종류의 경기를 함으로써만 획득될 수 있는 것들이다. 맥킨타이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선들을 내재적 선들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미 암시한 바와 같이, 체스 또는 이런 종류의 다른 경기의 의미에서만 그리고 이러한 경기들로부터의 도움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둘째, 그것들은 문제되고 있는 실천에의 참여 경험을 통해 규정되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은 내재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맥킨타이어, 1997: 279).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내재적 선은 외재적 선과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내재적 선은 한편으로 그 활동에 의해서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선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 활동에 참여 경험을 통해서만 확인되고 인식될 수 있는 선이다.

둘째, 태권도의 내재적 선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태권도는 무엇인가 좋음(善)이 있는 것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그 속에 이미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면 그는 무엇인가 좋음이 있는 것을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전달받고 있거나 전달받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태권도수련과 좋음이 있는 것과의 이러한 관련은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개입시키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태권도수련을 함으로써 전달받게 되는 선 또는 좋음이란 어떤 것일까? 오직 태권도 활동에 의해서만 드러날 수 있고, 태권도 활동에 참여 경험을 통해서만 확인되고 인식될 수 있는 선은 어떤 것일까?

태권도에는 여러 종류의 내재적 선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선들은 크게 (신체)기능적, 심리적, 도덕적 세 측면으로 나뉘어 고려될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 내재적 선을 (신체)기능적인 면으로만 국한시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강성민, 2013) 이러한 이해는 실천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의에 수용하기 어렵다.

(신체)기능적인 선이란 오랜 세월 동안 태권도를 수련한 자가 얻게 된 능숙한 몸놀림과 발차기 기술 같은 좋음을 말한다. 이러한 선은 오직 태권도 활동에 의해서만 드러나고, 태권도 활동에 참가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좋음이라는 점에서 태권도의 내재적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 게임을 능숙하게 운영할 줄 아는 능력이나 낚싯대를 이용하여 고기를 재빠르게 낚아채는 기술 또는 검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능력도 장기, 낚시, 검도 같은 실천전통의 내재적 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태권도의 (신체)기능적 선을 정식화해서 표현하면 ‘맨손 공격과 방어 기법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은 오직 태권도 또는 그 유사활동이라는 실천전통에 참여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태권도라는 실천전통에서 탁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맨손 공격과 방어 기법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태권도의 내재적 선을 성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선은 그것을 성취한 자의 선일뿐만 아니라 이 실천전통과 관련된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선이기도 한 것이다.

태권도의 내재적 선은 반드시 탁월한 신체적 기능의 성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외에도 특정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의미충만감이나 발휘할 수 있는 심적 능력의 성취도 내재적 선이 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를 심리적 선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즉, 심리적인 선이란 탁월한 기능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련과정에서 느끼는 의미충만감(쾌감, 성취감 등)과 길러지고 단련되는 심적 능력(인내심, 집중력, 판단력, 협동심 등)을 뜻한다. 의미충만감이란 태권도수련자가 수련과정에서 스스로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을 뜻한다. 미끼를 문 물고기의 몸부림으로 인해 낚싯대를 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낚시꾼의 쾌감(손맛)이나 돌려차기로 샌드백이나 미트를 가격했을 때 “퍽” 소리와 함께 발등에 느껴지는 경쾌한 느낌은 오직 낚시나 태권도 또는 그 유사 활동에 참여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이다. 한편 심적 능력은 상대와의 겨루기 상황에서 상대의 노림수에 휘둘리지 않고 사태를 관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상대의 빈틈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안목과 판단력, 강한 상대를 만난 경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우라도 결코 심적으로 동요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평소와 다름없이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심리적 선은 태권도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습득될 수 있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치라는 점에서 태권도의 내재적 선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의 여유, 안목과 판단력, 용기 등과 같은 심적 능력은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습득 가능한 선이기 때문에 태권도의 내재적 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론은 태권도 수련 상황에서 경험하고 강화되는 심적 능력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 동일한 용기일 지라도 태권도수련을 통해 경험하고 강화되는 용기와 축구경기를 통해 경험하고 강화되는 용기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위에서 언급한 심적 능력을 태권도의 내재적 선으로 볼 수 있다.

도덕적인 선은 태권도의 성립과정에서 내재화된 예의나 정의 같은 가치들을 의미한다. 태권도가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우월성을 기반으로 한 격투기법만을 뜻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전 세계인이 즐기는 보편 문화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태권도는 공격과 방어를 목적으로 한 신체적 기법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중시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인간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태권도는 법질서가 정착된 세계 사회 내에서 하나의 확실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도덕적 선들 덕분이었다. 도덕적 선은 다른 선들과 달리 태권도인의 덕과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차후에 논의하겠지만 인간의 어떤 성향이 덕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전통의 내재적 선을 성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덕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내재적 선과 덕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체)기능적 선은 덕과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심리적 선과 도덕적 선은 덕과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다. 도덕적 선의 경우 경계의 애매성은 더욱 심해진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할 점은 양자의 변증법적 관련성이다(김미영, 2011). 양자는 서로 순환적 관계를 맺고 있다. 예컨대 탁월한 기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련자에게 극기의 성향이 전제로서 요구되지만, 극기의 성향은 단지 수련자가 갖추어야 할 전제일 뿐만 아니라 수련의 결과이기도 하다. 수련자는 수련과정에서 자신의 자질인 극기의 성향을 더욱 계발시키고 강화시켜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극기의 성향은 태권도라는 실천전통의 내재적 선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의 성취를 추구하는 태권도인의 덕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덕의 이해는 전통적 수단-목적 관계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것이 덕 윤리학자 맥킨타이어

의 의도이기도 했다(김미영, 2011).

셋째, 태권도수련은 내재적 선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인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수련과정에서 수련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탁월한 신체 기능, 수련과정에서 경험하는 즐거움과 형성되는 심적 태도, 그리고 예의, 정의 같은 윤리적 가치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수련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다른 이유에서 태권도를 수련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태권도를 수련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태권도를 실행함으로써 돈이나 명예 또는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태권도장 열고, 관원을 모집한 후 그들을 지도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고, 각종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명예를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명예를 기반으로 하여 인지도를 얻어 문대성선수처럼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태권도관련 단체에 높은 지위를 얻어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돈, 명예, 권력은 반드시 태권도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얻을 수 있는 선들이다. 통닭집을 운영하거나 좋은 논문을 발표하거나 정치권에 뛰어들어서도 돈, 명예,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선들은 반드시 태권도나 그것과 유사한 활동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을 태권도의 외재적 선들이라고 부른다.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이 외재적 선을 추구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태권도수련을 통해 이와 같은 외재적 선들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태권도에 내재적 선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에 내재적 선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통해 외재적 선을 추구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실천전통의 외재적 선을 추구하는 자들은 내재적 선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 셈인 것이다. 나아가 외재적 선의 과도한 추구는 내재적 선의 쇠퇴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맥킨다이어의 말처럼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재적 선의 추구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결국 태권도라는 실천전통은 쇠퇴하게 되고 결국 존속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태권도라는 실천전통에 내재하는 선들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태권도에는 세 가지 유형의 내재적 선들이 있으며, 태권도수련의 궁극적 목적은 이와 같은 내재적 선들의 추구하고 성취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③ 세 번째 기준: 탁월성의 기준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실천은 탁월성의 기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탁월성을 지닌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데 잘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의 구분이 가능하고 그 구분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김미영, 2011: 88). 그렇다면 태권도에는 탁월성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가? 그렇다. 주지하다시피 태권도는 신체적 탁월성, 심리적 탁월성, 도덕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태권도수련자가 그와 같은 탁월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태권도에 탁월성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태권도경기와 심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권도경기는 신체적 기량의 우월을 겨루는 활동이다. 두 선수의 기량에 있어서 우월을 가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기준이 없다면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 알 수 없다. 태권도경기에는 여러 가지 허용기술 및 득점 관련 규칙들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칙이 선수들의 탁월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 승품단심사도 마찬가지이다. 심사의례에서 심사평가위원들은 지원자들의 시범, 겨루기, 격파 같은 기법을 심사하여 실력이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다시 말해 탁월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못하는지 심사하여 당락을 결정한다. 만일 탁월성의 기준이 없다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한편, 태권도수련자들이 추구하는 탁월성에는 기법의 탁월성만이 아니라 성품의 탁월성도 있다. 태권도인으로서 탁월한 덕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태권도인으로서 탁월한 기법을 체득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비해 불명확하겠지만 그것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를 탁월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④ 네 번째 기준: 따라야할 규칙

태권도의 하위 영역인 품새, 겨루기, 시범에는 따라야할 규칙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기술을 시연하기에 앞서 예를 갖추는 행위도 크게 보면 태권도에서 따라야할 규칙으로 이해될 수 있다. 품새의 경우 지르기, 막기, 차기, 이동하기, 동작의 순서, 힘의 강약, 속도의 완급 등에 분명한 규칙이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특정인의 품새 시연이 다른 이의 시연 보다 뛰어나다거나 떨어진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겨루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기에서 허용되는 기술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 있다. 경기규칙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시범의 경우 품새나 겨루기와 달리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 발전과정에서 시범단원이라면 누구나 암묵적으로 따라야하는 규칙이 존재한다. 요즘은 시범경연대회가 별도로 개최되고 있어 나름대로의 명문화된 규칙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태권도에는 분명하게 따라야할 규칙이 있다는 점에서 태권도는 실천전통의 네 번째 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⑤ 다섯 번째 기준: 전통을 통한 계속적 발전

태권도는 전통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고병익(1981)에 따르면 어떤 것이 전통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전제해야만 하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어야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하며, 현재에도 여전히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태권도는 지난 70년 동안 꾸준히 변화해왔으며(변화성), 3세대 이상 지속되어 왔고(지속성), 가라테나 우수와는 다른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으며(고유성), 춤, 에어로빅, 스포츠 등과 결합하여 현재에서 많은 이들에 의해 수련되고 있는(현재성) 활동이다. 이러한 특성은 태권도가 전통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되어 온 인간의 행위양식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즉 태권도는 실천전통의 다섯 번째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해 보았듯이 태권도는 하나의 실천전통으로서 손색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태권도는 단순한 막기나 지르기 또는 발차기 기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미식축구공을 능숙하게 던지는 기술이 미식축구가 아니고, 무심기가 농업이 아니며, 벽돌쌓기가 건축이 아닌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기법적인 면에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실천전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태권도는 확립된 기법적 요소를 지닐 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활동영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실천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태권도인의 덕

1) 덕의 조건

덕 윤리학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인간의 성향을 덕으로 부를 수 있으려면 그것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첫째, 덕은 어떤 실천전통에 내재하는 선들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성향이어야 한다. 둘째, 덕은 인간 삶의 총체적 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성향이어야 한다. 셋째, 덕은 전통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성향이어야 한다(맥킨타이어, 1997; 강철중, 2005; 오현택, 2008). 이 세 가지 덕의 조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덕은 실천전통의 내재적 선을 성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성향이다.

주지하다시피 실천전통 개념은 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맥킨타이어는 실천전통의 의미를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이 덕에 관한 최초의 정의를 시도한다. “덕은 하나의 습득한 인간의 성질로서, 그것의 소유와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천전통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며 또 그것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들의 성취를 방해하는 그러한 성질이다”(맥킨타이어 1997: 282). 이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덕이란 무엇보다도 어떤 실천전통에 내재하는 선들을 성취하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성향이라는 점이다. 뒤집어 말하면 덕의 결핍은 어떤 실천전통의 내재적 선을 성취하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

(2) 덕은 인간 삶의 총체적 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성향이다.

어떤 성향을 덕으로 부를 수 있기 위해서 요구되는 둘째 조건은 인간 삶의 총체적 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왜 이런 조건이 요구되는가? 이 조건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요구된다(맥킨타이어, 1997; 강철중, 2005: 49-53에서 재인용).

첫째, 인간의 삶은 무엇보다도 너무나 많은 갈등과 너무 많은 자의로 가득 차있어서 인간 삶의 전체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한 실천의 요구에 충실한 사람이라 해도 수많은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화가 고갱은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가면서 화가로서의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괴로워했다. 만일 덕이 가정생활이라는 실천에 내재하는 선들만을 실현하기 위한 성향이거나 예술이라는 실천에 내재하는 선들만을 실현하기 위한 성향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며, 양자선택은 결국 자의적인 결정에 내맡겨질 것이다. 맥킨타이어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덕은 어떤 실천에 내재한 선을 실현하기 위한 성향이면서 동시에 전체적 인간 삶의 선에 기여하는 성향이라는 전제를 덧붙였다.

둘째, 하나의 통일성으로 파악된 ‘삶의 목적’ 개념이 없다면 낱낱의 덕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라는 덕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정의의 덕과 관련하여 우리가 타자의 공적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우리 자신이 참여하는 실천 전통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실천전통에 내재한 선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개개의 선들 너머에 있는 선 일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이해 없이는 타자의 공적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간 삶의 총체적 선에 대한 고려 없이는 정의의 덕이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성향이 덕으로 지칭될 수 있으려면 인간 삶의 총체적 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셋째, 오직 인간 삶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때만 인정될 수 있는 덕목이 있기 때문이다. 성실 같은 덕목이 이 경우에 속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성실하다고 말할 경우에 그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또는 단기간 동안만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험해 보고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듯 성실이라는 덕목은 오직 삶의 총체적 삶 속에서만 이해되고 말해질 수 있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맥킨타이어는 이제까지 살펴본 두 번째 기준을 추가하여 덕을 다음과 같이 재 정의하였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덕은 실천전통을 유지하고 그것에 내재된 덕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성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딪치는 고통, 위협, 유혹, 고민거리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선에 대한 적절한 탐구를 유지시켜주는 성향이며, 그로 인해 우리에게 선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자기 이해를 증진시켜주는 성향이다”(맥킨타이어, 1997: 229).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덕이란 단지 어떤 하나의 실천전통에 “내재하는 선을 실현하는 성향일 뿐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에서 부딪칠 수 있는 여러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잘 영위하게끔 하는 성향”(강철중, 2005: 52-53)임을 알 수 있다.

(3) 덕은 전통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성향이다.

맥킨타이어에 의하면 삶을 총체성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면 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강철중, 2005: 53). “나는 누군가의 아들 또는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 또는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동업조합 또는 저 직업집단의 구성원이다. 나는 이 씨족에 속하고, 저 부족에 속하며, 이 민족에 속한다”(맥킨타이어, 1997: 324). 이렇듯 “나의 삶의 역사는 항상 내가 그것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도출해내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다”(맥킨타이어, 1997: 325). 나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사와 전통의 담지자들 중의 한 사람이다. 따라서 자신의 선에 대한 추구는 전통에 의해 정의된 하나의 콘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전통은 우리의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배경인 것이다. 전통이 쇠퇴하고, 분해되고, 사라지면 실천전통과 그 내재적 선도 동시에 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의 유지와 존속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통을 유지하고 강화시켜주는가? 그리고 무엇이 전통을 약화시키고 파괴시키는가? 맥킨타이어(1997: 328)는 바로 관련된 덕들의 실행 또는 실행의 실패라고 대답한다. 따라서 그는 덕들의 목표와 목적은 실천전통에 내재된 선들의 성취에 기여하는 일 뿐만 아니라 삶의 총체적 선에 기여하는 일이고, 나아가 전통을 유지하고

강화시켜주는 일이라고 말한다. 전통은 실천전통과 개인적 삶 모두에게 필요한 역사적 콘텍스트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제 최종적으로 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덕의 의미와 목적은 실천전통에 내재된 다양한 선들이 성취되는데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으며, 개인이 전체 삶의 선으로서 자신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실천전통과 개인의 삶에 필요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는 전통을 유지하는데 있다”(MacIntyre, 1984: 223).

이상에서 어떤 인간의 성향이 덕으로 지칭될 수 있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언급하였다. 강성민(2013: 58)은 이와 같은 덕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덕은 실천을 유지하고 실천의 내재적 선을 추구하는데 있어 기본 전제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덕은 개인에게 자기 이해와 선에 대한 인식을 풍부하게 만들어 서사적 자아로서 삶의 통일성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더해, 덕은 개인과 실천에게 역사적 맥락을 제공해 주는 전통을 유지하게 한다. 전통은 역사적 산물이며, 긴 시간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의 정립된 전통은 그것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며, 전통을 통해서 역사적 맥락을 부여받은 개인과 실천은 사회적인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덕의 함양과 배양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실천전통의 내재적 선 성취, 인간 삶의 총체적 선에 기여, 전통의 유지와 존속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맥킨타이어는 덕의 목록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즉, 그는 어떤 가치가 덕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러 곳에서 덕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정의, 용기, 정직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는 실천전통의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덕의 목록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덕의 목록은 태권도의 덕 목록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것 이외의 태권도 특수적 덕 목록을 제시하고 한다. 태권도의 덕은 일반 보편적 덕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차별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2) 태권도인의 덕

연구자들은 여기에서 용기, 인내, 예의, 정의를 태권도인의 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네 가지 덕목은 연구자들이 태권도정신으로 제안한 자기를 이기고(克己)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함(弘益)으로부터 도출된 것들이다. 자신을 이긴다는 의미의 극기에서 이겨야 할 자신이 약한 자신일 경우에 극기는 용기와 인내의 의미를 갖게 되며, 이겨야 할 자신이 오만하고 충동적인 자신일 경우에 극기는 (겸손/절제를 통한 타자 존중의 태도를 함축하고 있는) 예의의 의미를 갖게 된다. 한편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의 홍익과 관련하여 강조되어야 할 덕목은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정의는 특히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공정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태권도인의 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존 롤즈, 1988).

표 VI-1. 태권도인의 덕

나를 이기고(극기)		세상을 이롭게 한다(홍익).	
용기	인내	예의	정의

그렇다면 과연 이 덕들은 태권도라는 실천전통에 내재하는 선들의 성취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총체적 삶의 선에 기여하며, 나아가 전통을 유지하고 강화시켜주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 살펴보자.

(1) 태권도에 내재하는 선들의 성취에 필요한 성향인가?

용기, 인내, 예의, 정직은 태권도에 내재하는 선들⁶⁾의 성취에 필요한 성향인가? 그렇

6) 태권도의 내재적 선은 신체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도덕적 측면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태권도의 내재적 선은 먼저 탁월한 신체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맨손으로 이루어지는 공격과 방어 기법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겨루기, 품새, 시범, 호신술 등의 기법들로서, 수련자들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기법의 연습을 목적으로 수련에 매진한다. 터득한 기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에 익히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인고의 과정

다. 어떤 사람이 태권도라는 실천전통에 내재하는 선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덕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만일 이 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태권도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용기와 인내는 태권도의 내재적 선인 ‘맨손 공격과 방어 기법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향이다. 용기와 인내 없이는 결코 이와 같은 고도의 신체적 기능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수련과정은 종종 ‘부단한 자기부정의 과정’으로 표현된다. 그만큼 큰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이다. 부정되어야 할 자기, 이겨내야 할 자기는 수련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 드러난다. 그 상황은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혹독한 훈련과정일수도 있고, 수련 과정이나 겨루기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강한 상대일 수도 있으며, 자신감의 결여에서 생겨나는 마음의 장벽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련자는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소심해지거나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 도피하거나 수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탁월한 신체적 기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인내라는 성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덕이 부족할 경우에 태권도의 내재적 선들, 특히 신체적 기능과 관련된 선들을 성취하는 일은 방해받게 될 것이다.

용기와 인내는 태권도의 내재적 선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덕목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태권도수련을 통해 성취하게 되는 탁월성의 대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태권도수련 과정은 용기와 인내라는 성향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성향을 길러주거나 강화시켜준다. 한 마디로 용기와 인내는 태권도수련의 전제이자 결과인 것이다. 태권도수련과 용기/인내라는 성향은 한 마디로 상호 순환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태권도수련자는 용기와 인내의 성향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이 애초 견지하고 있던 용기와 인내 같은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해 태권도의 총체적인 선도 확장될 수 있다.

예의는 태권도를 비롯한 동양무예의 내재적 선이며 동시에 덕이다. 동양무예에서 예의가 차지하는 위상은 ‘예에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는 예시예종의 원칙에서도 잘 드

을 동반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몸짓은 각자의 움직임 구조에 간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폐쇄적 틀을 깨고 자신의 몸의 움직임의 가능성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이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예의는 태권도를 포함한 동양무예의 내재적 선이자 동시에 덕이 되었을까? 간단히 말해서 예의 없이는 그와 같은 무예문화가 존속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태권도는 한국에서 도수무예로서 발원하여 세계화에 성공한 하나의 실천 전통(practice)이다. 태권도의 세계적 성공은 태권도에 내재된 여러 가지 좋음善들로 인해 가능했다. 이 좋음에는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힘들을 얻게 해주는 요소들뿐만 아니라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심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없었다면 태권도를 통해 얻게 되는 힘들은 폭력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될 경우에 태권도는 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고, 나아가 하나의 실천 전통으로 자리 잡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태권도가 오늘날 이와 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힘의 얻음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얻은 힘을 바르게 쓰려는 성향의 얻음도 함께 지향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태권도는 한편으로 힘을 얻는 과정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마음 씩씩이를 길러주는 과정을 뜻한다. 여기서 힘의 남용을 막아주는 마음 씩씩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자신을 억제하고 낮추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의라는 덕목이다. 예의의 핵심은 상대와 동등시민을 존중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예의는 태권도의 발달과정에서 그 내부에 뿌리를 내린 선, 즉 태권도의 구성적 요소가 되었다. 발차기가 태권도를 구성하는 요소이듯이 예의라는 가치도 명백한 태권도의 구성요소이다. 초창기 태권도지도자들이 태권도정신으로 특히 예의를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도관의 창시자 이원국에 따르면 예의는 “상대에 대한 자신의 인격을 지키고 남이 범치 못하게 하는 자위(自衛)적인 수단과 권리로서 형식적인 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태도로서 신중을 기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태권도 행정단체 차원에서 예의를 중요시하는 실천 방침이 공표된 바도 있다. 1971년 제정된 ‘태권도인들의 예의규범’에는 예의의 의미는 물론 인사법, 자리 앉는 법, 도복착용과 관리, 바른 말씨, 생활 복장, 승차, 전화, 식사, 사교장, 방문, 수행 의례, 음주와 흡연, 지도자의 자세 등 다양한 생활 상황에서 태권도인의 구체적인 예절 법식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중 특기할만한 것은 태권도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인사법으로서 “발뒤축을 힘 있게 붙인 차려 자세에서 머리는 45도로 숙이면서 허리는 15도로 굽힌다.”라는 인사예법의 기준이다. 이 기준이 태권도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점은 태권도제도권에서도 예의가 태권도의 구성적 요소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이다. 이상

에서 알아보았듯이 예의는 늘 태권도와 함께 공존해온 태권도의 내재적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는 공정의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다(존 롤즈, 1988). 그리고 공정이란 모든 이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덕 윤리학자 맥킨타이어(맥킨타이어, 1997: 284)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적 또는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또 한결같은 비인격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태권도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기원의 특별 심사 강행방침은 많은 태권도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93372&ref=A>). 태권도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국기원의 조치가 태권도 승단심사에서 정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태권도에서 승단은 태권도의 내재적 선인 신체기능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거쳐야할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탁월성의 척도를 가름하는 기준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차별적으로 적용될 경우에, 예컨대 다수의 심사응시자들에게는 수련 경력과 신체기능적 능력을 평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행정 경험이나 학문 활동 또는 금전적 기여도 등을 평가할 경우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승단했거나 승단하려는 다수는 크나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감정은 태권도의 내재적 선을 성취하는데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특혜와 같은 예외가 자주 발행하는 집단에서는 개인의 집단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 집단의 실천들은 사회에서 융성할 수 없게 된다. 정의의 가치가 존중되어야만 구성원들은 실천의 내재적 선을 추구하는데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는 태권도의 내재적 선의 성취에 기여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간의 총체적 삶의 선에 기여하는 성향인가?

용기, 인내, 예의, 정의는 태권도수련자 개인의 총체적 삶의 선에 기여하는 성향이기도 하다. 태권도수련의 전제이자 결과인 용기와 인내는 단순히 태권도를 수련하는 과정에만 나타나는 성향은 아니다. 수련과정에서 용기를 잘 발휘하고 인내를 잘 하는 사람은 일상적인 삶에도 이와 같은 성향을 잘 드러낼 수 있다. 태권도수련이 주는 고통과 난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 만나게 되는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항상 성공적이고 순탄한 삶만 살아갈 수는 없으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용기의 덕은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하여 한 인간의 전체적인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인내의 덕 역시 자칫 잘못 감정에 사로잡혀 폭력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억제시켜 줌으로써 한 인간의 삶을 정상적으로 보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성향들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총체적 삶의 선에 기여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의라는 덕은 태권도를 통해 얻은 신체 및 심리적 힘들이 폭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완충기제로서, 태권도의 선을 성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성향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타인 및 공동체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한 인간의 총체적 삶의 선에 기여하는 성향이 되기도 한다. 예의바르지 못한 인간이 태권도를 통해 힘을 얻게 되었을 경우에 그 힘은 자칫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태권도에서는 이 힘의 무절제한 남용을 막기 위해 인내(여기서는 절제)와 예의라는 덕목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덕목은 단순히 태권도수련 과정에서만 그 효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습득한 자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총체적 삶의 선에 기여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태권도에 처음 입문한 자는 태권도 겨루기 경기 중에 상대 수련자에게 한 대 맞았을 경우 흥분하게 되고, 양갈음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상대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태권도지도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코 이성을 잃지 않고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켜가면서 겨루기를 하도록 지도한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감정이 격앙되기 쉬운 겨루기의 극한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예의를 다해 상대와 실력을 겨룰 줄 아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태권도와 같은 무예의 수련과 인성교육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정의는 개인의 이익 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성향이다. 태권도수련자에게 정의감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 그의 삶은 매우 이기적이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며, 흔히 사회악으로 지적되어온 패거리문화를 형성하여 집단적 이기심을 발휘하는 좋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전

혀 없는 것이 아니다. 태권도인들 가운데 정의 보다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보다 큰 사회적 맥락이나 태권도의 계승과 발전이 아니라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작은 집단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렇게 행동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무시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등 무리를 많이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태권도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온다. 태권도계가 부패되고 타락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태권도가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세계 사회에서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더 많은 태권도인들이 정의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의 덕으로 정의는 이미 맥킨타이어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인간의 총체적 삶의 선에 기여하는 성향이다. 정의는 태권도수련을 통해 얻은 힘들을 자신의 탁월성을 드러내는데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덕목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태권도에서 탁월성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은 그 자체로 그렇게 노력하는 개인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태권도와 관련된 모든 이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3) 태권도 전통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성향인가?

용기, 인내, 예의, 정의는 태권도의 전통을 유지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데 기여하는 성향이다. 이와 같은 덕목 없이는 태권도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전통을 형성하지도 못했고, 이렇게까지 발전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왜 그런가? 전통의 유지와 발전은 불변적 계승을 통해서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의 적응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태권도 역시 고유성을 기반으로 세계화에 성공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서식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이와 같은 적응과 자기 변화과정은 태권도인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용기, 인내, 예의, 정의 같은 덕들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새로운 서식환경과의 개방적 교류와 자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종 난관과 적응과정의 고통을 이겨내려는 인내,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 자신과 다른 세계관을 지닌 타자에 대한 존중과 예의, 그리고 공정하고 균형적인 태도를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요청하는 정의 같은 덕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태권도라는 실천전통의 유지와 발전은 어려웠을 것이다. 타 문화와의 교류과정에서 이질적인 생활양식의 자기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그리고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용기, 인내, 예의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전통들의 역사가 보여준다. 태권도 보다 훨씬 일찍 세계화의 길을 걸었지만 결국 태권도에게 선두주자의 자리를 내주어야만 했던 중국의 우슈와 일본의 가라테에는 용기/인내는 있었을지언정 예의 또는 타문화 및 이질적 가치에 대한 예의가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자기 것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것도 중시하려는 정의의 덕도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태권도의 덕들은 태권도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려는데 크게 기여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덕들은 실천전통으로 하여금 제도들의 횡포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추게 만들어 준다. 그렇다고 제도들이 항상 횡포를 부린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모든 실천전통은 제도를 필요로 한다. 제도 없이는 그것이 유지되고 확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맥킨타이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실천과 제도의 관계는 … 실제로 너무 밀접하여서, 제도들과 실천들은 특징적이게도 하나의 인과적 질서를 형성”(1997: 287)하기도 한다. 양자의 관계가 이렇다보니 실천의 이상은 제도의 탐욕에 의해 피해를 받기 쉬우며, 또 실천의 공동선에 관한 협동적 관심은 항상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의 희생물이 되기 쉽다. 이러한 맥락에서 덕의 본질적 기능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실천전통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성향인 것이다. 덕이 부재하다면 실천들은 자신을 부패시키는 제도들의 힘에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1997: 287).

4. 바람직한 태권도인의 상(象)

1) 열정을 갖고 태권도를 수련하는 인간

태권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태권도인과 비태권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할까? 인간 집단을 분류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종교, 피부색, 성별, 연령, 소속, 자격증, 취향, 정치 성향 등이 그 기준 가운데 몇 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태권도인과 비태권도인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만 할까? 연구자들은 무엇보다도 태권도 수련경험의 유무가 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태권도를 수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태권도인이고 수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비태권도인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태권도를 수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련 기간이나 수련 깊이 또는 수련의 지속성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태권도인이라고 불러도 될까?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물음이다. 어떤 사람은 최소 초단 이상의 실력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초단 이상의 단증을 보유한 사람만을 태권도인이라고 칭하자고 제안한다. 아마도 태권도수련자의 실력 검증이 초단 이전까지는 개별 도장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초단부터는 국기원 또는 국기원에 의해 위임받은 태권도유관기관에 의해 ‘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우리는 급중에 ‘공인’이라는 명칭을 붙이지는 않는다. 초단 이상의 단증부터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공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그런 의미에서 초단 이상 실력을 보유한 자들부터 태권도인으로 부르자는 제안은 일정 부분 수긍이 간다.

이번 장의 목적은 단순한 태권도인의 상이 아니라 ‘바람직한’ 태권도인의 상을 규정하는 것이다. 태권도인의 앞에 ‘바람직한’이란 수식어를 붙이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조건은 태권도수련의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련에 대한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수련에 임하는 자야 말로 바람직한 태권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에 오랫동안 태권도를 수련하여 높은 단을 취득한 자일지라도 현재 더 이상 태권도를 수련하지 않는 사람, 태권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 버린 사람도 비록 태권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바람직한 태권도인으로 칭하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기는 어렵다. 바람직한 태권도인은 우선적으로 현재에도 여전히 열정을 갖고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2) 태권도인의 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련하는 인간

태권도수련에 대한 열정은 바람직한 태권도인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태권도인으로 지칭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태권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이라야만 한다. 즉, 태권도수련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용기를 갖고 인내하고, 태권도수련을 통해 습득한 힘들을 남용하지 않도록 절제하며 타자에게 예의를 다하며, 궁극적으로 공정하게 공동체의 선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바람직한 태권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1) 용기 있는 인간과 인내하는 인간

먼저 태권도인은 용기 있고, 인내하면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태권도의 내재적 선을 성취하는 과정은 용기와 인내라는 덕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덕목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태권도의 내재적 선, 즉 공격과 방어 기법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탁월한 신체 기능을 갖추기 어렵다. 탁월한 신체 기능은 큰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는 좋음이라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및 심리적 한계를 넘어서기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좋음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큰 고통을 동반한다. 수련자들은 체력의 한계에 직면했거나 기술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먼저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며, 심한 고통의 느낌은 부상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갈등하게 된다. 고통을 참고 수련을 계속해서 한계를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수련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용기와 인내이다. 이와 같은 성향이 부족한 사람은 고통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실력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태권도수련자가 수련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장애는 반복적 수련이 주는 지루함이다. 20세기 최고의 무예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최영의는 하나의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천회에서 1만회 이상 반복 수련을 해야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적은 형이어도 그것을 참되게 몸에 익혀야 하며 몸에 익힌 것이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하나의 형을 3천회에서 1만회씩 행해야 비로소 몸에 익히게 된다. 한 번에 열 번씩 행한다 해도 1년이 걸린다.”(최영의, 1996: 124). 수 없이 반복되는 수련과정은 수련자를 지치게 만들며, 지루하게 만들고, 결국 의욕을 약화시켜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지루하기 때문에 또는 힘들기 때문에 포기할 경우에 현재의 신체기능을 넘어서는 탁월한 기법의 습득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 초월은 한 번의 달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반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모든 탁월한 기법은 반복과정을 통해 자동화단계에 이르러야 만이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지난至難한 수련 과정에서 나약한 자기를 이기려는 용기와 인내의 덕이 없다면 탁월한 기법의 습득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겨루기 또는 실전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강하거나 또는 강하게 보이는 상대 역시 수련자를 약하게 만든다. 상대의 큰 체구나 기민한 몸놀림, 또는 분노에 찬 시선이나 험악한 표정은 태권도수련자를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으며, 이로써 탁월한 기술을 성취하려는 의지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나약한 자신을 이겨내려는 성향, 즉 용기와 인내의 성향이 결여되어 있다면 태권도의 내재적 선을 성취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태권도인은 무엇보다도 용기를 갖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이다.

(2) 예의 바른 인간

예의바른 인간이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화합하는 인간을 말한다. 또한 염치 있는, 즉 체면을 차릴 줄 알며 자신의 그릇된 언행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인간이다. 태권도수련은 인간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먼저 몸이 강해지고 다음으로 마음도 강해진다. 수련자는 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인해 과시욕에 빠질 수 있으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했을 경우 자신이 얻은 강함을 충동적으로 발휘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예의 바른 인간은 이와 같은 강하고 과시적인 자신을 억누를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인간이다. 예의는 그런 의미에서 절제와 겸손의 의미를 지닌다. 자신의 강함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절제하고, 약한 상대일지라도 존중심을 갖고 대하는 겸손함은 태권도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수련자들이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미덕이다. 이러한 덕이 결여될 때 태권도는 단순한 폭력적 행위 이상의 것이 되기 어렵다.

(3) 정의로운 인간

바람직한 태권도인은 정의로운 인간이다. 정의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우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하는 마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의 마음과 상통한다. 홍익인간이 이념이 전해주고 있듯이 한 민족은 예로부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기적인 민족이 아니었다. 우리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을 최상의 원리로 여겼던 민족이었다. 이와 같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발상은 태권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태권도인의 덕으로 정의는 이와 같은 민족의 고유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정의는 공정, 봉사, 희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성적 취향을 불문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하고, 태권도를 통한 얻음을 모든 이에게 골고루 나누어줌으로써 인류에 봉사하는 인간, 때로는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인간이 정의로운 인간이며, 이것이 바람직한 태권도인의 모습인 것이다. 정의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태권도를 수련할 경우에 태권도를 통한 얻음은 수련자 개인 또는 태권도인들 만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가 추구하는 가치는 단순한 수련자 개인이나 태권도인들 만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다.

3) 바람직한 태권도인의 상

태권도인은 성심(誠心)으로 태권도를 수련하고(修練熱情), 수련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각종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며(克己), 가능성의 확장을 통해 얻은 좋음(善)을 타자와 함께 나눔으로써 널리 세상을 이롭게(弘益) 하는 자이다. 즉, 태권도인은 첫째, “성심으로 태권도를 수련하는 자”이고, 둘째, “수련과정의 모든 난관과 고통을 용기를 갖고 인내함으로써 이겨내는 자”이며, 셋째,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수련에 임하여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이다. 압축적으로 표현하자면 태권도인은 수련에 대한 열정을 갖고 태권도정신 ‘극기’와 ‘홍익’을 구현하면서 자아실현 하는 자이다.

참고문헌

- 강성민(2013).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대한 탐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고병익(1981). 전통의 의미. 차하순·이기백 편.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미영(2011). 실천과 탁월성 그리고 공과의 정의. 사회와 이론 18, 77-106.
- 김용옥(1990).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 서울: 통나무.
- 김철중(2005). 맥킨타이어의 덕론에 기초한 도덕교육론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맥킨타이어(1997). 덕의 상실(이진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 오현택(2008). 맥킨타이어 덕론의 체육철학적 탐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 유재봉(2000). 맥킨타이어의 ‘사회적 실재’ 개념에 대한 논의. 교육철학 24, 49-72.
- 이덕무, 박제가(1996). 실연·완역 무예도보통지(임동규 주해). 서울: 학민사.
- 이창후(2000). 태권도의 철학적 원리. 서울: 지성사
- 이창후(2007). 태권도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정신. 태권도학 연구(1). 101-120, 서울: 도서출판 상아기획.
- 이창후(2013). 태권도인의 덕윤리 연구. 국기원 태권도연구. 4(3), 1-28.
- 장용규, 이창후(2013). 태권도인의 상(像) 정립을 위한 연구. 4(2), 19-49.
- 존 롤즈(1988). 공정으로서의 정의(황경식 외 옮김). 서울: 서광사.
- 최복규(2008). 한국의 전통 무예 십팔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최영의(1996). 실전 공수도교본. 서울: 서림문화사.
- 홍은숙(2009). 교육의 개념: 실천전통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 KBS(2015. 12. 04). 뉴스 후. ‘4단계 월단 가능’...국기원 특별심사에 태권도계 ‘부글부글’ In: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93372&ref=A>.
- iTV(인천방송) 제작국(1999). American Taekwondo.
- MacIntyre, A.(1984). After Virtue. University of Nortre Dame Press.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VII 결론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1.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 정신, 수련자 신조, 지도자 행동강령, 태권도인 상(像) 등으로 구성된 태권도 정신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태권도 정신체계는 태권도수련자 개인에게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조직과 단체를 포함한 태권도계 전체에 태권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표준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수립된 태권도 정신체계는 태권도 일선 현장에서 중요한 교육적 소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건전한 태권도계 풍토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진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별화, 명료화, 체계화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 정신과 관련이 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수합, 분석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반구조화된 전문가 견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태권도 정신체계의 첫째 구성요소인 ‘태권도 정신’은 수련자 신조나 지도자 행동강령과 의미적, 기능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그 구성을 위해 태권도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이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정신적 어휘들을 선택하였다.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의지력과 태권도의 원대한 이념, 그리고 태권도인이 준수해야 할 사회 덕목을 의미적으로 모두 포괄하는 두 가지 기조 정신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태권도 정신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overcome oneself to benefit the world).”이다.

태권도인들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아실현(self actualization)’ 또는 ‘인간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아실현 개념의 의미에 대한 학술적 해석은 다양하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인간성의 실현’ 또는 ‘타고난 소질의 계발’을 뜻한다. 따라서 태권도인의 자아실현이란 태권도인으로서 태권도 수련과 지도 등 제반 활동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성 실현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사회적 공동선(共同善)의 추구를 통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 역시 인간성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이다.

‘수련자 신조’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 라는 태권도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태권도인들이 수련과 일상생활에서 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덕목이다. 연구진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열정, 용기, 인내, 예의, 정의 다섯 가지 덕목을 채택하였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다. 이 덕목 중 ‘인내’, ‘예의’, ‘용기’는 그 동안 가장 자주 언급되었던 태권도 정신의 구성 항목이다. ‘(태권도)열정’은 ‘태권도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덕목이며, 공정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정의’는 현재 태권도계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가치이다. 그런 이유에서 이 두 가지 덕목을 수련자 신조에 포함시켰다.

‘지도자 행동강령’은 전문, 본문, 서약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지도자의 역할 및 직무에 따라 태권도지도자는 도장지도자, 경기지도자, 판정지도자, 행정지도자로 분류될 수 있다. 행동강령 전문(全文)은 네 종류 지도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본문은 각 지도자별로 차별성을 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종류의 태권도지도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10개 항목들을 채택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태권도 지도자 행동강령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태권도인 상(像)’은 수련자 신조에 근거하여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태권도를 수련하는 자이며(열정), 수련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종 난관과 고통을 용기와 인내로써 극복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시켜나가는 사람이다(용기, 인내). 아울러 가능성 확장을 통해 얻은 신체 및 심리적 힘들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으며 언제나 타자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예의바른 자이며(예의), 태권도 활동에서 공정성을 발휘하며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자이다(정의). 바람직한 태권도인은 한 마디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는 인간’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결론지어진 태권도 정신체계의 네 가지 구성요소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간단히 표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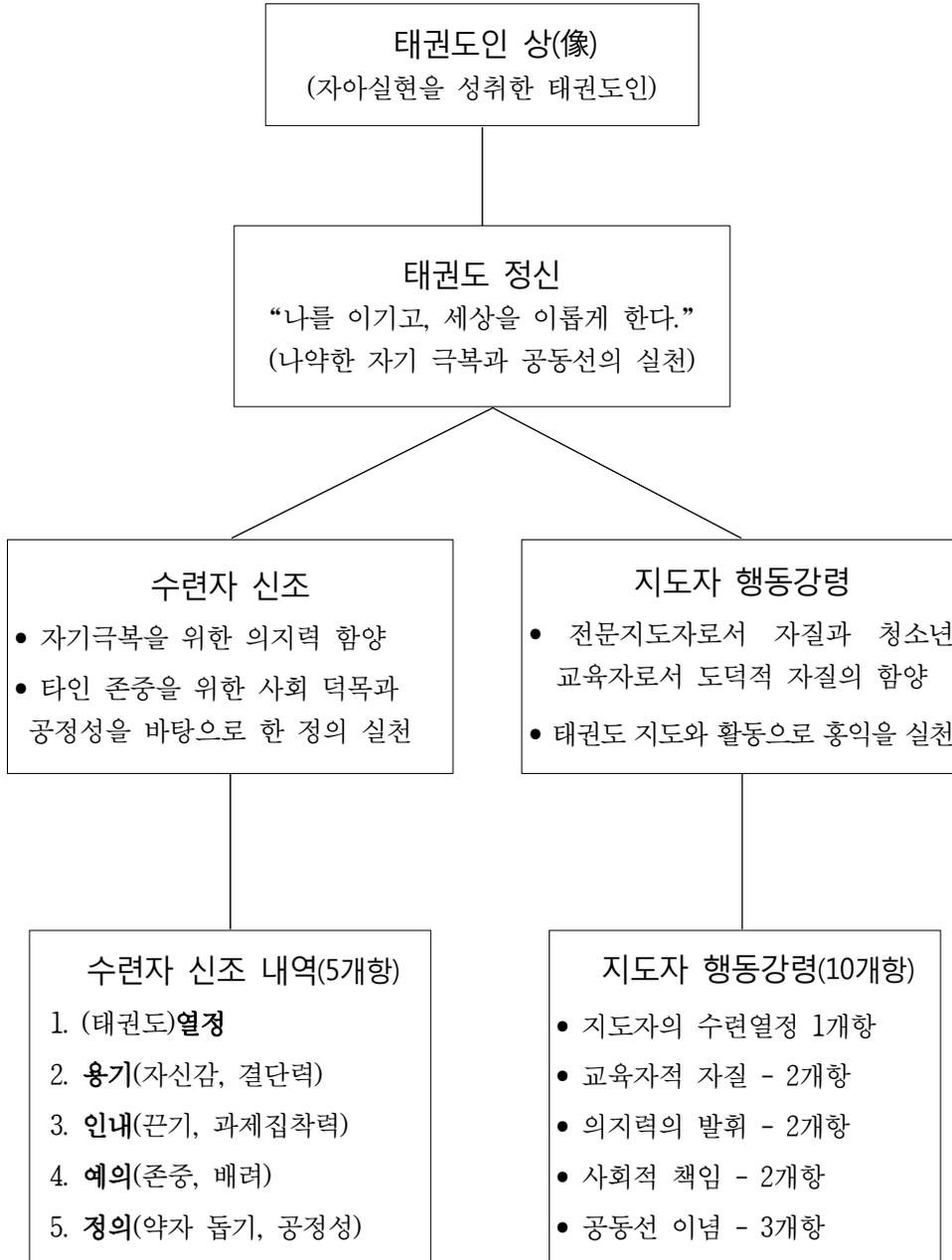


그림 VII-1. 태권도 정신체계의 구성 요소와 세부 내용

2. 향후 보완책과 연구 방향

태권도 정신체계를 수립하고 구현해 나가는 작업은 일회적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은 바람직한 태권도계 풍토 조성을 위해 국기원 같은 행정기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래야 태권도계가 개선되고, 태권도 정신문화가 발전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태권도 정신 주제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수합, 분석하고, 기존 연구들의 취약점을 검토, 보완하여 태권도 정신체계의 내용을 수립하였다. 그렇지만 여기에 제시된 태권도 정신체계 패러다임은 태권도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인 만큼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시간적 압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차후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전체적인 정신체계의 틀의 설정, 연구 방법 및 절차, 그리고 태권도 정신과 수련자 신조, 지도자 행동강령, 지도자상의 세부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차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여기에 제시된 내용이 수정, 보완되어진다면 보다 질 높은 ‘태권도 정신체계’가 탄생할 것이다. 사실 연구진은 연구진행 중 중간발표회를 가질 수 있었고, 여기서 20여명의 전문 연구자들과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논의는 연구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 태권도정신의 이론화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2차, 3차로 이어지는 학술발표회나 공청회가 개최되길 희망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만 태권도 정신에 관한 이론적, 학술적 발전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후속 작업은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그 실용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일이다. 본 연구는 애초 태권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체계, 즉 태권도 수련생과 지도자들이 수월히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체계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3. 정신문화 홍보 및 보급을 위한 제언

추후 본 태권도 정신체계 이론이 엄밀한 수정, 보완을 거쳐 많은 태권도인들이 공감할 만한 명실상부한 태권도 정신체계로서 확립된다는 전제 하에서 다음 사항들을 제안한다.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급 방안들이 마련될 때 태권도계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고, 태권도계 전반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태권도 정신체계를 널리 알리는 구체적 홍보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극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바람직한 정신적 가치가 확립되면 그것을 실천하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은 자료집 또는 태권도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일선도장과 지도자들에게 효율적인 보급되어야만 한다. 탄탄한 태권도 정신체계 이론이 수립되면 이것을 기술체계처럼 국내외 수련자들에게 널리 보급함으로써 정신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도장 및 경기 분야 지도자용 태권도 정신체계 요약 리플렛 또는 지도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지도자들의 인식 변화와 건전한 풍토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청소년 대상 인성교육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 가치를 갖는다. 국내용으로 간단한 요약집과 지도자용 해설집 두 종류로 만들고, 해외 지도자용 자료도 국제어로 별도로 만들 필요도 있다.

셋째, 태권도 정신체계를 해외에 확산시키기 위해 영어를 비롯한 주요 외국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배부할 필요가 있다. 태권도정신의 특성상 복잡다단한 철학적 개념과 용어가 사용되므로 원래의 의미가 곡해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번역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태권도 정신의 이미지를 담은 시각물 제작도 필요하다. 도장 벽보용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태권도 정신과 수련자 5대 신조 문장 등을 패넬, 포스터, 붓글씨 등 다양한 시각 디자인 제품으로 제작,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상의 태권도 정신체계는 태권도 정신에 관한 지식의 총체이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 정신체계는 수련생, 지도자할 것 없이 태권도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인생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긴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기도 하다. 본 정신체계는 태권도인들의 건전한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나침반이자 좌우명(座右銘)이 될 것이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다.

태권도인들은 정신체계의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끊임없는 자기 다짐을 통해 신념화시키고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한다. 물론 개인의 심적 능력 뿐 아니라 사회적 덕목과 이념을 현실 생활에서 구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참된 태권도인이라면 항상 자신의 투철한 가치관과 올바른 행위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살아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참다운 태권도인의 삶에서는 태권도 수련과 더불어 덕목과 이념을 실천하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태권도인이라면 태권도 수련과 인격 함양을 부단히 수행함으로써, 강건한 몸과 탁월한 기량으로 자신의 실력을 직접 보여주고, 예의바르고 기품 있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고귀함을 직접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태권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태권도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끝 -



견해조사 결과



국기원
세계유산본부

'공인 태권도 정신' 수립을 위한 견해조사 결과

- 목 차 -

1. 견해조사 개요
 2. 견해 조사지 결과 분석
 - 1) 개요
 - 2) 주제별 내역
 3. 견해조사 결과 전문
- 부록 1. 견해조사지
- 부록 2.
- 1) 견해조사 협조 요청문
 - 2) 제정 취지문
 - 3) 연구진 약력
 - 4) 견해조사 협조자 명단

1. 견해조사 개요

- 본 연구에 실시된 견해조사는 그 동안 연구되어진 태권도 정신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7개의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본 견해 조사를 위해 대상자를 지도자, 학자, 행정가들로 구성하였다.
- 견해 조사는 지도자 24명, 학자 17명, 행정가 9명으로 총 51명이 태권도 정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2. 견해조사지 결과 분석

1) 개요

(1) 본 견해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견해조사는 공인 태권도 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실시되었다. 태권도는 세계적 무예스포츠로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태권도 정신이 확립되지 않았다. 1959년에 주창된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등 5대정신이 편의상 지금까지도 태권도 정신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1세기 현 시대의 가치관에 적합한 태권도 정신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본 연구는 보편타당한 태권도 정신을 수립함으로써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태권도인들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에 이바지하며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와 지식의 표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조사 대상

태권도 공인 5단 이상의 오랜 수련 경험과 태권도 정신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태권도인들로 선정되었다. 국기원 연구소와 연수원에 재직 중인 행정가 9명, 태권도전공 학자 17명 그리고 일선 지도자 24명 등 세 집단으로 구분된 총 51명이 본 조사에 참여했다. 지도자 집단은 국기원연수원 소속의 강사진과 국내 및 해외 주재 한국인 사범, 외국인 사범 등으로서 태권도계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면담자들로 구성되었다.

(3) 조사 도구

견해조사는 각각 주제, 배경설명, 질문으로 이루어진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배경 설명이 삽입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사연구는 대개 응답자들의 생각을 계량화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양적 연구와 응답자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질문만으로 이루어진 설문 또는 인터뷰를 이용해 수행되는 질적 연구로 나누어진다.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설문지는 대개 폐쇄적으로 구조를 지니고 있

다. 설문응답자는 연구자가 사전에 폐쇄적으로 설정해놓은 응답의 범위 내에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질적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설문이나 인터뷰는 비교적 개방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설문응답자는 해당 주제에 관해 연구자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폐쇄적 구조를 지닌 양적 연구 도구와 개방적 구조를 지닌 질적 연구 도구의 중간 형식을 띠고 있지만, 질적 연구 도구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한다. 응답자의 다수는 오랜 태권도수련경험을 지니고 있지만 태권도정신에 관한 학습경험이 풍부하지 않아 피상적 답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 문항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문항마다 배경설명을 삽입하였다. 배경설명의 제공은 응답자들에게 각 물음에 대한 사유의 폭을 좁혀주는 배제 효과뿐만 아니라 사유의 폭을 넓혀주는 포함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이 반-구조화된 조사도구는 배경설명 제공을 통해, 응답자들이 특정한 범위 내에서 사유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유의 폭을 좁혀주고, 주제와 관련된 학습 효과를 가져다주어 응답자의 사유가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유의 폭을 넓혀준다.

부록. 표 1. 견해조사 문항별 주제 내역

순서	주제	비고
제 1문항	태권도정신 용어의 개념	
제 2문항	‘공인’ 태권도 정신 제정의 필요성	
제 3문항	태권도 5대 정신(최홍희)의 반영 여부	
제 4문항	‘공인’ 태권도 정신의 하위 영역	
제 5문항	‘공인’ 태권도 정신의 근원	
제 6문항	‘공인’ 태권도 정신의 언어적 형식과 내용 규정	
제 7문항	‘공인’ 태권도 정신의 제정 절차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4)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응답자들의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심층면접과 응답지 작성 형식을 실행되었다. 견해조사는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원하는 보다 정교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 전체 응답자에게 견해조사의 취지와 각 문항별 질문 내용에 대한 상세한 배경설명을 제시하고 응답자의 답변을 받았다. 거주 지역이 멀리 떨어진 일부 응답자는 전화 면담 대화 방식과 메일 교신으로 자필로 응답지를 제출한 응답자도 있었다.

(5) 조사 과정

연구자들의 당초 예측대로 다수의 응답자들이 반 구조화된 조사 문항별로 제시된 배경 설명의 논리에 의존하거나 그것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 이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것은 복잡다단하고 난해한 태권도 정신에 관한 7개의 질문 항목들이 즉문즉답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었으므로 장시간 또는 2주간의 응답기간이 소요되었다. 응답자들은 대부분은 태권도 정신과 정체성 발전에 동참한다는 취지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성심성의껏 견해를 피력하였다. 연구자들은 면담 문항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진지한 사고를 알고자 했기 때문에 응답자에 따라 여러 차례 면담 기회를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문항의 특성이 ‘공인’ 태권도 정신 차원의 개념과 상세 내용을 알고자 했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태권도정신에 대한 이해는 나름대로 있었지만 시간을 두고 보다 진지한 사고를 거친 응답자들은 즉석 대답 결과보다 충실한 답변이 도출되었다.

(6) 분량 면에서 문항별, 답변자별로 답변 내용 사이에 편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관심 없음”으로 답변한 응답자에서부터 문항 당 2쪽 이상의 답변을 제시한 응답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답변이 쏟아졌다. 어떤 답변은 질문과 무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7) 답변자 가운데 소수는 연구자들이 제시한 구분 틀과 설명논리를 비판적으로 보거나 거부하고 있었다.

(8) 견해조사의 결과물은 여러 응답자들의 다양한 식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 특기할만한 내용들은 본 과제 연구팀들에게 탁월한 시사점과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다. 태권도 정신에 대한 다각적인 견해들과 지적 사항은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본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2) 주제별 내역

(1) ‘태권도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자들이 물음에 대한 부연설명에 나타냈듯이 태권도 정신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었다. 한편 구체적인 물음과 관련하여 다수의 답변자들이 태권도 정신을 태권도인의 정신 보다는 태권도의 정신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태권도 수련을 통해 추구하거나 습득될 수 있는 다양한 정신적 가치들을 태권도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답변자들이 많았다.

(2) ‘공인’ 태권도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다수의 응답자들이 ‘공인’ 태권도정신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더욱이 답변자들의 대부분은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답하였다. 답변자들은 ‘공인’ 태권도정신이 필요한 이유로서 태권도 수련 또는 교육이 지향해야할 규범적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주는 효과를 내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태권도수련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였다. 이러한 통일성 부재의 문제는 국기원 자체 내의 교육프로그램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6년 국기원 태권도교본의 태권도정신과 2010년 국기원 사범연수교재의 태권도정신, 그리고 2011년 WTA 기본교재의 태권도정신의 교육내용, 2015년 국기원 홈페이지 상에 나타난 태권도정신의 내용은 모두 다르다. 답변자들은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을 통해 이와 같은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떤 답변자는 ‘공인’의 범위를 국기원으로 축소시켜, ‘공인’ 태권도정신을 “국기원 원훈”으로 바꿔 표기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기원 공인 태권도정신”과 “국기원 원훈” 두 안 가운데 어떤 표기방법이 현실적합성이 높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답변자는 ‘공인’의 의미를 의미 그대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기원의 차원이 아니라 태권도를 대표하는 각 기관과 태권도가 보급된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는 시간적 및 재정적 측면에서 이번 연구프로그램에서 실현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지기는 하지만 ‘공인’ 태권도정신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들은 대부분 태권도의 다양한 가치가 공인화 과정을 통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태권도는 세계화되었고, 경기화되었으며, 예술화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가치를 지닌 문화복합체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 태권도정신을 제정할 경우 이와 같은 태권도의 다양한 가치들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공인’ 태권도정신을 제정함에 있어서 협소하거나 폐쇄적인 개념 보다는 다소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개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 ‘공인’ 태권도정신을 제정함에 있어서 최홍희씨의 ‘태권도5대 정신’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홍희씨가 주창한 ‘태권도 5대 정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고, 태권도 지도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공인 아닌 공인’ 태권도정신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이것을 ‘공인’ 태권도정신으로 삼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견해조사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은 공인 태권도정신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것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최홍희의 ‘태권도 5대 정신’은 좋은 덕목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간단명료하고, 인지도도 높다는 장점을 갖지만, 그 포괄 범위가 협소하고 동일한 의미를 지닌 덕목이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시의 적절하지 않은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홍희의 ‘태권도 5대 정신’을 이루고 있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다섯 가지 덕목은 모두 수련자 개인의 마음자세와 관련이 있는 가치들이며, 여기에는 태권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이념이나 한국의 전통사상 같은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포괄 범위가 협소하다고 말 할 수 있다. 한편 인내, 극기, 백절불굴 세 덕목은 다소 뉘앙스는 다르지만 대동소이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중복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덕목인 백절불굴은 군사-문화적 분위기를 질게 풍기고 있어,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현대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적지 않은 응답자들은 ‘태권도 5대 정신’은 현존하는 태권도 정신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태권도지도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태권도정신의 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공인’ 태권도정신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특히 이 다섯 가지 덕목은 예의와 인내 두 가지 덕목으로 압축시킬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라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두 덕목은 일본의 무사도에 포함된 덕목이기 때문에 그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4) ‘공인’ 태권도정신의 하위 영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개 태권도정신 하면 태권도수련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인격과 관련된 가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태권도관련단체 홈페이지나 서적 또는 논문 등에 소개된 태권도정신에는 태권도에 스며들어 있는 한국 전통사상이나 태권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이념 같은 가치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는 태권도가 단순한 개인의 수련 차원을 넘어서 사회의 안녕과 인류의 공영을 함께 추구하는 보편 문화로 발전했음을 암시해 준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공인’ 태권도정신 역시 개인 차원의 덕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른 차원의 가치들까지 함께 포괄해서 제정되어야할 것이다.

태권도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태권도정신을 제각기 상이한 차원으로 범주화하여 이해하고 있다. 전병술과 노영선은 태권도정신을 태권도 안에 스며들어 있는 한국 전통 사상과 태권도인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두 차원으로 범주화했고, 한형조는 수련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몸과 마음의 고양된 상태와 수련에 임하는 자세나 수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 두 차원으로 범주화 했으며, 김영선은 이념, 사회적 덕목, 정신력 세 가지 차원으로 범주화 했고, 송형석은 기술, 심리, 윤리 세 가지 차원으로 범주화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할 때 태권도정신은 태권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념, 태권도수련자가 응당 갖추어야할 사회적 덕목, 태권도수련을 통해 기르고자하는 심적 능력 세 가지 차원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념 차원의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자체나 태권도관련단체가 태권도를 통해 이루고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나 이상을 뜻하는 바, 홍인인간이나 인류공영, 세계평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덕목 차원의 태권도정신은 태권도수련자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갖추어야할 윤리적 소양을 뜻하는 바, 예의, 관용, 정직 같은 가치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심적 능력 차원의 태권도정신이란 태권도수련을 통해 기를 수 있

는 마음의 힘을 뜻하는 바, 인내, 용기, 자신감 같은 가치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인’ 태권도정신을 단일한 차원에 속한 덕목들의 모음이 아니라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차원에 속한 덕목들의 모음으로 간주했고, 이 세 차원을 이념, 사회적 덕목, 심적 능력으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에게 공인 태권도정신이 이 세 차원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이 세 차원 모두에 포함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그 중요도와 관련하여 첫째 차원인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이념 차원의 태권도정신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홍익인간과 평화였다.

(5) ‘공인’ 태권도정신의 근원

태권도 정신의 근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수련과정, 한국 전통사상, 인류공영의 보편적 이상 세 가지였으며, 기술과의 연관성과 태권도 수련 열정을 언급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태권도수련과정이란 태권도기술체계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본기술, 품새, 겨루기, 시범, 격파 같은 태권도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시합이나 공연 같은 상황에서 발휘하는 과정을 포괄한다. 이러한 과정은 각종 장애와 고통을 극복하는 극기와 인내의 과정을 동반하며 이 과정에서 자기통제력, 인내심, 극기심, 집중력, 용기, 결단력, 협동심 같은 능력이 길러진다. 아울러 이 과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의나 공정성, 책임의식 같은 사회적 덕목을 함양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태권도정신의 근원이 수련과정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수련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없는 가치들도 있다. 홍익인간사상 같은 한국 전통사상이나 평화, 인류공영 같은 범세계적 보편 가치가 그것이다. 태권도는 한국적이며 세계적인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특수하며 보편적인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정신은 태권도가 몸담고 있는 외부세계인 한국의 전통과 세계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들을 포함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태권도정신의 근원을 한국 전통사상과 범세계적 보편 가치에서 찾은 응답자들의 견해는 타당성을 지닌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한편 태권도정신이 태권도기술과 그렇게 큰 연관이 없다는 다수 응답자들의 견해는 숙고할 가치가 있다. 안용규와 이창후의 선행연구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태권도정신이 태권도기술에서 나와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태권도정신과 태권도기술의 긴밀한 연관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응답자들은 양자를 연관시키려는 노력은 비약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답하였다. 이 점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련과정에서 태권도정신이 나타난다는 견해와 태권도기술과 태권도정신은 무관하다는 말은 서로 모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련은 정신적 가치를 습득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공격과 방어 몸짓(몸기술)으로도 이루어진 과정이기 때문이다.

(6)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공인’ 태권도정신을 기술해 주세요.

첫 번째 물음에서처럼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견해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개인 마다 상이한 태권도정신관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첫 번째 물음에서처럼 그냥 태권도정신의 의미를 물은 것이 아니라 ‘공인’을 강조한 태권도정신을 물었기 때문에 이념 차원의 가치들도 적지 않게 제시되었다. 사회적 덕목과 심적 능력도 제안되었다. 세 가지 가치들이 종합적으로 혼합된 형식의 답안도 있었고, 특정 차원의 가치만이 제안된 경우도 있었다. 제시된 답변들 가운데 자주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덕목으로 홍익인간, 예의, 극기, 인내, 평화 등과 같은 개념들을 들 수 있다.

태권도 정신의 표기방식으로서 개념들의 단순 나열 외에도 간단명료한 문장표기도 제안되었다. 예컨대 ‘태권도와 함께 하나 되는 세상’ 같은 표어를 제안하는 이도 있었다. 이로 부터 태권도 정신을 제정함에 있어서 다수 명사의 나열 방식만 고수하지 말고 문장 또는 표어 형식의 방식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7) 공인 태권도 정신의 제정 절차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1명의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가 제정 절차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1명이 다소 우려 섞인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4명이 “의견 없음” 또는 “답변 생략”으로 표기했다. 이 4명의 의견은 긍정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공인 태권도 정신을 제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인 태권도 정신' 수립을 위한 견해 조사 결과 전문

구 분	내 용
【주제 1】	‘태권도 정신’ 용어의 개념
【질문 1】	‘태권도 정신’ 용어의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답변 1】 K S C (지-01)</p>	
<p>태권도 정신은 태권도라는 문화 안에 깃든 정신입니다.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 실천적 가치로서 태권도인의 정신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권도 정신에는 태권도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내포되어야 하겠습니까.</p>	
<p>【답변 1】 K G S (지-02)</p>	
<p>첫째 항에 대한 나의 견해는 사실상 태권도인의 정신이 옳다고 보지만 편의상 태권도의 정신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 항에 대한 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p> <p>태권도가 지닌 특징을 살펴본다면 전신운동으로서 인체의 관절을 주로 무기화한 투기행위로서 현대에 이르러 스포츠화에 역점을 둔 무예 스포츠임을 알 수 있겠다. 태권도는 한국 고유무예의 맥을 이은 무예스포츠로서 한국인에 의해 전 세계에 보급, 전파되어 태권도 하면 코리아, 코리아 하면 태권도를 연상할 정도로 국위선양은 물론 국익에 막대한 보탬이 되는 한류의 원조로서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시사하는 바 크다 할 것 이다.</p> <p>태권도의 목적은 신체의 발달이나 건강을 통한 호신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활동을 매개로 해서 인간을 형성하는 정신함양을 위한 행동철학으로서 자리 매김 하는데 있는 것이라 하겠다.</p> <p>태권도 수련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인격수양 방법의 하나로 인간의 기본 체형을 체계적으로 동작 화시켜 신체부위를 체계적으로 단련시켜 나감으로서 육체적인 단련과 정신적인 수련을 병행하여 인격 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인간을 형성하는 자기인격 완성의 심신수련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p> <p>그럼으로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수련에 의해 얻어지는 기술의 소산 이라 할 것이다.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심신 단련을 꾀함으로써 민감한 반응감각에 의한 반응속도를 향상시키고 강인한 체력과 굳은 의지를 키우며 정확한 판단력과 자신력을 길러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유하며 예절바른 태도를 익히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p> <p>수련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예와 사범에 대한 예를 표하도록 함으로서 예시에종 하는 습관을 기르게 함으로서 수련생 스스로 자신의 덕을 닦게 하며 수련 중에는 한 목표를 향해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통일케 함으로서 무아경에 이르게 함으로서 힘을 썩듯게 하며 수련을 통해 기량을 익히게 함으로서 자기보다 강한 상대자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담력을 키우게 하며 담력은 모든 일에 자신을 불어 넣어주고 자 신력은 심리적으로 안전성을 나타나게 하며 매사에 의연한 태도를 취 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p> <p>의연한 태도는 인내심을 길러주게 되며 인내는 겸손과 겸양의 인격을 인격을 구현시켜 주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겸손과 겸양은 희생정신을 길러줌으로서 자아를 극복하게 하고 협동과 질서를 유지케 하며 정돈된 사회를 이룩케 함으로서 이웃과 사회, 국가 와 민족에게 봉사할 수 있는 뚜렷한 개성을 창조케 하는 것이라 하겠다. 봉사정신이란 약</p>	

<p>자를 돕는 아량과 여유로서 불의를 다스릴 수 있는 인품을 쌓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고매한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정의에 앞장 설 수 있는 성품으로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추구토록 하는 것이 곧 태권도의 정신철학이라 할 것이다.</p>
<p>【답변 1】 G K O (지-03)</p>
<p>태권도정신이란 태권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정신을 얻을 것인가 이고, 태권도인의 정신이란 내가 태권도를 배운 사람으로서 어떤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p> <p>태권도정신에 포괄점을 주어 제정하고 각자의 태권도인은 자기자신에 필요한 태권도정신을 여기에 접목시켜 가야 할 것이다.</p>
<p>【답변 1】 K K M (지-04)</p>
<p>태권도 자체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p> <p>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태권도를 하는데 태권도 정신이라는 개념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정리한다면 그 결과는 천차만별의 개개인 각각의 정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p> <p>태권도 정신은 절대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따라야하는 목표로 잡을 수 있도록 태권도 자체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답변 1】 K M S (지-05)</p>
<p>위 두 번째와 세 번째 응답이 제 생각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태권도 수련자가 의식적으로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정신적 가치를 태권도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권도 기술과 신체적 수련을 통해 바람직한 정신을 갖고자 하는 것이 태권도정신입니다.</p>
<p>【답변 1】 K Y H (지-06)</p>
<p>위 안용규 교수의 주장 대로 태권도 수련에 임하는 자세로서 태권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가 요구 됨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태권도 정신은 곧 태권도의 생명이라 생각하며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태권도 메카인 국기원으로부터 공인된 태권도 정신은 제정 되어야 합니다.</p>
<p>【답변 1】 K J J (지-07)</p>
<p>‘태권도정신’이란 태권도가 가고자하는 목표로서 태권도가 추구하는 철학이나 사상 기술의 본질을 나타내는 총칭이며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바람직한 태권도인 형성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올림픽 종목으로서 세계인들에게 태권도를 인지하게 하는 철학적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정신은 태권도인만으로 국한해서는 안되며 세계인들이 우리의 전통사상이나 혼이 담긴 태권도정신을 통해 누구나 태권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그 정신은 태권도 수련과정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함양해야할 덕목이며 태권도 수련으로 고양된 정신은 행동철학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p> <p>따라서 태권도의 정신은 당연히 ‘태권도정신’이어야 한다. 만약 ‘태권도인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태권도의 정신은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만의 정신일 수 있기 때문이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p>【답변 1】K T S (지-08)</p>
<p>현재 태권도정신 용어로는 5대정신이있다. 저로서는 그 5대정신을 가르쳐왔고 그 정신을 바탕으로 나름 생활에 왔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근본으로 삼아 배우고 익힌 사상을 누군가 본인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바꿀려고 한다면 좋게 보기 어렵다. 5대정신이 태권도인으로서 수행하면 멋진 정신이라 생각한다. 될 수 있으면 자꾸 바꿀 생각 하지 말고 계승 발전했으면 좋겠다.</p>
<p>【답변 1】P J H (지-09)</p>
<p>태권도 품세는 방어와 공격으로 구성되어 있고, 손과 발의 공격도 바르게 지르고 바르게 차는 동작으로 되어 있 으며, 특히 태권도는 인사에서 인사로 끝나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태권도 자체에 갖든 정신은 예의, 정의감, 배려심이라 고 하겠다. 따라서 태권도 정신은 지도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태권도 수련을 통해 예의, 정의감, 배려심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몸과 마음의 고양된 상태라 하겠다.</p>
<p>【답변 1】S M H (지-10)</p>
<p>태권도정신에서 정신이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나 사상으로 태권도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태권도는 맨손무예로 호신을 위한 싸움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싸움의 기술은 싸움을 하기 위해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를 통해 단련된 몸과 정신으로 자신과 가 족을 지키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국가의 평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주변국가로 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국가를 지켜왔고 침략으로 부터 국가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무예들이 발전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싸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위함이라 생각한다. 또한 옛날부터 우리민족은 백색(白色)옷, 즉 흰옷을 즐겨 입었던 백의민족으로 백색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현재의 도복의 색깔이 흰색인 것은 평화를 상징하며 태권도의 정신이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화는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대사회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태권도정신은 평화(平和.peace)라고 주장합니다.</p>
<p>【답변 1】S S D (지-11)</p>
<p>위 배경설명에도 말했듯 태권도 정신의 구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조차 조그마한 의미의 차이로 말이 바뀌는 것과 같이 태권도정신은 태권도의 정신 또는 태권도인의 정신 으로 구분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태권도의 정신’ 속에 태권도 수련에 임하는 자세, 태권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 태권도 수련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몸과 마음의 고양된 상태가 되지 않나 합니다. ‘태권도인의 정신’은 태권도를 통한 인격양성, 태권도 를 통한 사회 활동을 함으로 인하여 태권도 적인 인간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태권도인의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사회 라는 특수한 공간속에서의 옹고 그릇을 판단 할 줄 아는 정신, 정치적으로는 불의에 맞서 굽히지 않는 정신으로, 문 화적으로 어울림 속에서 같이 즐기고 웃을 수 있는 삶에 모든 분야에서의 기본이 되는 태권도인의 정신으로 의미되 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답변 1】S B H (지-12)
<p>跆拳道 精神> 한자풀이를 살펴보자</p> <p>跆拳道 精神은 먼저 역사적으로 사용된 올림픽정신, 스포츠정신, 등에서 선행된 것을 보면 몸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말하고 있으며 정신만은 살아야 한다는 것에서 몸속 마음속 깊이 수련을 통해서 자리 잡는 것 힘들어도 할 수 있는 뼈속에</p> <p>(태권도 수련에 목표와 수련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 아닌가)</p>
【답변 1】S B A (지-13)
<p>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 갈수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p>
【답변 1】A Y T (지-14)
<p>진정한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수련 과정을 통하여 얻어졌을 때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체득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관이며 태권도인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 양식이기도 하다.</p>
【답변 1】A J R (지-15)
<p>태권도 수련에 임하는 자세 및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p>
【답변 1】Y T K (지-16)
<p>‘태권도정신’이란 위 글에서 밝혔듯이 태권도와 정신의 합성어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태권도를 기본 바탕으로 태권도 안에 내재된 정신을 태권도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태권도는 무도라 일컫습니다. 무도라 하면 ‘몸’만을 가지고 수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권도 역시 육체적 힘만으로 수련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이란 개념이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서양의 이원론에서 바라보는 ‘육체’와 ‘정신’을 어떻게 합일 시키느냐에 있습니다.</p> <p>이러한 측면에서 ‘태권도정신’이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수련자 내면의 변화로 인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태권도를 무도라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그러한 측면에서 태권도정신을 바라본다면</p> <p>‘태권도정신’은 ‘태권도인의 정신’으로 인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태권도인의 인격 자체가 ‘태권도정신’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p>
【답변 1】I B S (지-17)
<p>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올바른 인간행동의 바탕이며 주된 수련목표의 하나이다, 동의합니다.</p> <p>※ 태권 道 : 1. 우리가 가야할 옳은 길 2. 우리가 터득해야할 옳은 정신 3. 우리가 가져야할 덕</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p>【답변 1】 I H S 1 (지-18)</p>
<p>복잡 다양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몸과 마음을 옹고 빠르게 유지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p>
<p>【답변 1】 I H S 2 (지-19)</p>
<p>태권도인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적 가치와 철학이 담긴 이념과, 교육지침의 통일성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p>【답변 1】 J D W (지-20)</p>
<p>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얻어지는 수련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도자가 수련시킴과 동시에 하는 결과물이 이에 속하며 수련 과정 속에서 스스로 느껴지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도자의 인격, 주변 환경에 의한 운동 문화, 개인의 성취도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습득되는 정신적 결과물이다.</p>
<p>【답변 1】 J S I (지-21)</p>
<p>우선 짧은 개인적 소견으로는 ‘태권도’는 ‘행위’이고, ‘정신’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이나 생각’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태권도 정신이란 행위를 하기 전과 후의 상태라 생각하는 바. 전이란 태권도 수련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하고, 후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고양된 상태라 생각한다. 이것은 위 배경설명에서 언급한 셋째와 넷째 부분과 일맥상통한 것 같다.</p> <p>우선 수련을 시작하기 전 가지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는 수련과정 중 아무리 큰 고난과 시련, 그 힘듦의 무게가 클지라도, 수련 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초지일관(初志一貫), 그리고 자기중심적 시각이 아닌, 상대의 시각에서 헤아려 볼 수 있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지고 수련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p> <p>그리고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신의 고양된 상태란 일상적 행동에서도 자연스럽게 옹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의 고양, 외부의 질병이나 환경으로부터 스스로의 신체를 건강히 지킬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의 고양, 이것이 태권도 정신이라 생각한다.</p>
<p>【답변 1】 J I C (지-22)</p>
<p>우선 정신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태권도 정신을 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신’의 개념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 경험적 사고를 바탕으로 ‘태권도 정신’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런 사유의 결과물인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p> <p>‘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와 ‘정신’의 합성어입니다. 때문에 태권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범주를 확실히 하고 ‘정신’의 개념을 확실히 한 후에 ‘태권도 정신’을 논해야 마땅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태까지 많은 체육학 석, 박사들의 ‘태권도 철학’이나 ‘태권도 정신’에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 필자들 스스로 사용하는 어휘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두루뭉실한 이야기 수준에 머문다는 것입니다.</p> <p>그러다보니 본인이 사용하는 많은 철학적 용어들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나 글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스운 것은 그것을 바로잡는 사람도 없고, 그런 논문을 후학들이 인용하고 또 인용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정설이 되어버리는 현실입니다.</p>

정신이 무엇인지 논하려면 사상, 철학과의 관계를 비교하여 개념 정리하는 것이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예전에 서울대 이창후 박사가 정신, 사상, 철학 세가지 용어의 관계를 잘 정리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정신,사상,철학의 개념
(이창후,2007b: WTA 태권도기본교재,2012)

평가기준	내용
철학	인간의 문제 해결책에 도달하는 지적과정,여러 해결책들(즉,사상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상	문제해결을 위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물로서, 구체적이고 개념화되고 관념화된 해결책
정신	사상체계의 일부분, 문제해결책으로서의 사상에서 그 해결을 수행할 주체들의 심리적 태도 및 신념체계.

저 역시 위의 분류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단, 사상을 ‘해결책’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념화되고 관념화된 생각의 틀, 체계’ 정도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철학이 먼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상이 있으며, 또한 사상체계에서 정신이 나옵니다. 때문에 정신은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제시되어야 합니다.

제시된 [배경설명] 본문과 위의 표를 전제하고 제 생각을 반영하여 요약하자면,
태권도 정신이란,
1.태권도 자체에 깃든 정신,
2.태권도인으로서 추구할 마땅한 가치, 신념체계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1번은 태권도의 어떤 동작을 통해 우리가 새길수 있고 새겨야 하는 정신입니다.
예를들어 품새 시작과 끝을 똑같은 준비자세로 마무리하는 것에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새길수 있고, 또한 새겨야 합니다.

앞굽이 자세에서 상대보다 낮아지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 여기서 우리는 “겸손하지만 당당함” 이라는 정신을 배우고 그것을 새깁니다.

2번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는 심신의 경지, 태권도를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태도와 자세, 사회속의 태권도인으로서의 처세 등등 태권도를 배우고 수련하고 가르치고 태권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전반에 새겨야 할 마땅한 가치이자 신념체계입니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1】 C S J (지-23)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의 근본적인 의미를 말하며 태권도를 수련하여 겉으로 표현되는 품위, 언어, 심리, 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답변 1】 W I S (학-24)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만 얻을 수 있는 정신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1】 K M S (학-25)
태권도정신이란 태권도를 하는 사람의 영성적(靈性的) 마음이라고 본다. 태권도는 신체기능에서 지나치게 지배되지 않고 도(道)로서 가치관을 보완하여 인간생활을 밝게 하여주는 것이다.
【답변 1】 K Y S (학-26)
<p>‘태권도정신’이란 화제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같은 말이라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개념을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용어 개념상의 문제는 특히 학술적인 논의에 앞서 시초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주요 사안이다. 위 배경설명에서 제시된 ‘태권도정신’에 대한 네 가지 해설과 결부시켜 논의하기로 한다.</p> <p>일반적인 의미로 ‘태권도정신’이란 “태권도 수련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정신”으로 볼 수 있다. 수련자들이 태권도 교본이나 지침서 또는 사범님의 훈시나 계시물을 통해 접할 수 있는 태권도정신은 모두 이 의미 영역에 속할 수 있다. 위 배경해설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정의와 유사한 내용이다.</p> <p>첫 번째 설명과 관련해서, 태권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의해 그 존재가 나타나는 인간의 무형문화이다. 태권도정신 역시 태권도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신념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행동으로 구체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위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나온 해설과 밀접한데 그러한 복잡한 설명들을 편의상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태권도인의 정신’ → ‘태권도의 정신’ → ‘태권도정신’이 될 수 있다.</p> <p>네 번째 정의는 이해하기 쉽지는 않는데 ‘태권도정신’의 속성에 대해 중요한 논점이 포함되었다. 그 정의에 나온 ‘몸과 마음이 고양된 상태’란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태권도 수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바람직한 정신 또는 심리 상태가 아닐까? 수련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침착성’, ‘평정심’, ‘용기’ 등이 떠오른다.</p>
【답변 1】 N C M (학-27)
<p>철학적 성찰을 통해 태권도정신이라는 용어 개념에 대해 내재적으로 접근하여 태권도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내재적 접근이란 태권도 정신을 외부적인 요인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 자체가 갖는 본질적인 특성을 말한다. 이를테면, 태권도를 태권도답게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특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태권도정신은 태권도의 정체를 규명하는 일과 관련하여 태권도 수련자 및 지도자, 일반인들에게 태권도가 인간의 실천적 행위로서 지향해야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p> <p>따라서 본 응답자는 ‘태권도, 태권도인이 지니고 있어야 할 이념으로서, 태권도 수련자가 태권도를 생각하는 마음과 수련에 임하는 태도, 즉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는 태권도수련을 통해 이 이념을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또한 이것을 획득하게 되면 태권도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수련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신념을 함양시켜 주어 태권도수련자들로 하여금 바르고 참된 인식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p> <p>(태권도인이 태권도의 이념을 만들고, 만들어진 태권도 이념은 곧 태권도인이 추구해야할 관념적 도식이라고 할 수 있다.)</p>

<p>【답변 1】N S H (학-28)</p>
<p>태권도의 정신으로써 태권도의 수련자가 수련을 통해 깨닫고 얻게 되는 인간의 모범된 모습이다.</p>
<p>【답변 1】S H S (학-29)</p>
<p>태권도는 공격과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 기술의 체계이다. 이 기술의 체계를 반복적으로 익힐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강해지고, 빨라진다. 또한 신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인내심, 집중력, 판단력, 의사결정력 같은 심리적인 힘들도 강해진다. 이와 같은 신체적 및 심리적 힘의 증가는 수련자에게 건강, 자신감 같은 유익함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자가 소유했을 때 그것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태권도를 수련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기술을 익히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억제하고, 인간을 존중하며, 자신이 습득한 기술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내면적 태도를 갖추어야만 한다. 태권도정신은 태권도수련자가 기술 수련에 앞서 갖추어야할 이와 같은 내면적 태도이다. 나아가 태권도가 궁극적인 지향해야할 이상적 가치 군을 의미한다.</p>
<p>【답변 1】S C (학-30)</p>
<p>우선 “정신”이란 어구가 일본 무술/무도의 역사, 전통, 철학을 연상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을 굳이 사용해야 한다면 “태권도 수련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자와 타의 관계 (yourself and others) 그리고 자기와 사는 세상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궁극적인 변화/발전이 발생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 말도 막연하긴 합니다만.</p>
<p>【답변 1】Y J B (학-31)</p>
<p>태권도정신은 태권도계, 특히 태권도 수련현장에서 당시대(1950-1990년대)의 문화-의식적 맥락에서 쓰여 지기 시작했던 개념이다. 개념적 엄밀성에 대한 학문적 고찰이 없이 일상적 사용에 따라 그 개념이 구성적으로 형성되었다. 정신이라는 개념의 보편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특히 태권도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현상을 감안할 때, 다른 문화권에서 정신이라는 개념이 한자문화권과 같은 의미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중요할 것이다.</p> <p>정신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태권도정신”과 같은 어떤 의미군으로 구성하고자 했을 때, 과연 최상위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중요할 것이다. 이미 위에서 예를 든 몇 가지 가치개념들과 비교해 보아도 이미 “정신”이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최상위 개념은 아닌듯하다. 그렇다면 “태권도정신”이라는 개념아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나열 또는 설정하였을 때 바로 그 논리적 정합성이나 내적 논리 타당성이 의문 받게 되지 않을까?</p> <p>태권도 정신 또는 더욱 넓게로는 “OOO정신”이 과연 지금과 같은, 그리고 미래처럼 더욱, 다양화, 상대화, 개성화되어가는 시대에 적응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설령 일정한 맥락에서 그 효용성이 통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태권도 수련인들의 의식과 사고, 사상적 해석의 폭과 깊이가 오히려 천박해지게 하는 위험성은 없을 것인가?</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1】 U M
<p>I think that ‘taekwondo spirit’ is a very relative and/or personal concept, varying among different people. Historically, such ideas originate from the Japanese bushido concept.</p> <p>내가 생각하기에 태권도정신은 사람들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한 아이디어는 일본의 무사도 개념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p>
【답변 1】 Y U Y (학-33)
<p>저는 태권도정신이란 태권도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술종목을 예를 든다면 중국 무술의 경우는 무덕(武德)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것은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규범입니다. 따라서 기술을 지도하면서 항상 수련자에게 무술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윤리적 개념을 강조해야 진정한 “도”를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답변 1】 L S J (학-34)
<p>다 좋은 말 같습니다. 저는 태권도 수련에 임하는 자세(윤리성)이며, 태권도수련(기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신적 가치 둘다 있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좋은 정식적 덕목은 중용이나 논어등 고전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이론적인 것은 불 필요). - 태권도는 한국적이면서 세계적 보편성을 지녀야 됨. - 기술적 측면에서 동작(차고,지르고,품새,겨루기 등)을 완성 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가치(다른 무도종목과 차별화와 특수성을 지닌 정신이 채택해야 함)
【답변 1】 L S Y (학-35)
<p>태권도(도)는 태권도인들의 수련자로서 배워야 할 덕목으로서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 ‘태권’의 단어 속에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태권도는 수련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올바른 인간행동의 바탕이며 주된 수련 목표의 하나이다”(국기원, 1987). 포괄적으로 태권도 정신의 용어 이해해야할 필요성 있음</p>
【답변 1】 L J D (학-36)
<p>2014년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때는 제가 국기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사건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질문지에 대해서는 한 명의 “태권도인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p> <p>태권도정신 = 跆拳道 精神</p> <p>→ 자구적 해석 1 : 跆拳道를 통해 道를 추구하려는 精神</p> <p>→ 의미 해석 2 : 신체(특히 손기술과 발기술)의 단련을 통해 자아완성(道)을 하고자 하는 것+정신(이념/윤리/마음가짐/심리적인 것)</p> <p>결국 “태권”의 “도”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정신”이라 생각됩니다.</p> <p>부가적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p> <p>질문에서 제시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p>

태권도	정신
태권도 그 자체	태권도인의 정신(이념/윤리/마음가짐/심리)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올바른 인간 행동의 바탕이며, 주된 수련 목표의 하나이다.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수련에	임하는 자세,
태권도를 통해	연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자아완성 그 자체가 아닐까요?)
태권도 수련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몸과 마음의 고양된 상태
(태권도 수련을 통한 자아완성)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원훈 (태권도인의 이념/윤리/마음가짐/심리) (태권도인의 정신) (국기원 공인 태권도 정신) ((국기원) 공인 태권도 정신 제정위원회) (국기원 원장의 국기원 비전(훈/이념/정책)) (이제부터 우리는 이것을 태권도정신이라 합시다) (태권도정신은 태권도기술과 더불어 태권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럼 지금까지 어떤 정신이었는지?)
불변	가변(1950년대, 1980년대, 2010년대)

따라서 태권도정신이라는 표현보다는 국기원 원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인들이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이념이 있다면,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의 원훈/이념으로 설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태권도정신이라는 표현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태권도 그 자체에서 궁극의 도를 깨우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신은 부수적이며, 개인적이고, 충분히 가변적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해당 시대의 윤리와 도덕, 이념, 사상은 끊임없이 변해 왔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인 어떤 단어나 문장을 수렴한다고 해서 향후에 변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국기원 원장”이 취임하셨는데, 그 분이 태권도정신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 국태정에서 태권도정신을 정해 놓은 것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국기원 원장이 되실 분이 새로운 국태정을 구성해서 바꾼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태권도 정신세계에 관한 연구

【답변 1】 I S J (학-37)

태권도라는 용어는 ‘사람’ ‘동물’ ‘산’ ‘강’ 등등과 같이 여러 가지 사물의 특성을 지칭하는 일반명사 또는 보통명사이다. 이러한 용어는 다른 사물과 구별하기위해 특별히 명명되어진 그 사물의 특징, 성격, 목적에 따라 규정되어진다. 따라서 ‘태권도’ 용어의 개념은 ‘태권도’ 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본질적 개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정의되어지며, 같은 맥락에서 ‘태권도’라는 명칭을 최초 창안하고 제안했던 최홍희 원로의 ‘跆拳道’라는 언어적 의미 해석을 통한 개념 정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다만, 跆拳道 <밧을 태>의 보완적 의미 해석이 필요함).

또한 정신이란 개념 역시 태권도를 근본으로 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체계 그리고 신념과 같은 심동적 개념들로 해석되어야한다. 특히 ‘정신’은 인간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데카르트에 의해서 주창되어 온 신체와 대비되는 심신 이원론적 개념으로서 몸을 이해하는 핵심 영역이며 스포츠와 태권도계에서도 최근까지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일반철학에서는 신체보다는 정신을 강조하고 신체를 정신의 감옥이라고 불렀던 플라톤의 말처럼 정신은 주체이고 신체는 객체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이원론적 개념은 개인이 정신을 가진 존재이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신체와 동일화가 필요하다는 메트로폰티의 상호 신체성인 ‘몸’이라는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정신의 신체’와 ‘신체의 정신’이 서로 교차해야 하고, 이런 교차지점에 ‘인간’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태권도정신’ 용어의 개념은 태권도 자체에 깃든 정신적 의미보다는 태권도를 하고 있는 대상인 인간에 주목 해야 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 운동으로서의 정신이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태권도정신이란 ‘태권도라는 격투술을 수련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심동적 가치체계’ 라고 할 수 있다.

【답변 1】 J S W (학-38)

1) 태권도는 사람의 행위이므로 사람을 떠나 그 자체로 독립적인 ‘태권도 정신’을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행위와 별개로 ‘태권도인의 정신’을 기존의 특정한 사상 체계(예컨대 유교)의 윤리적 덕목에서 차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태권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은 태권도라는 무도-스포츠에 고유하고도 특화된 가치, 즉 ‘수련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내·외의 가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용어상으로는 ‘태권도인의 정신’보다 ‘태권도 정신’이 좀 더 합당한 표현이다.

2) 그러면 왜 ‘내·외의 가치’인가? 위에서 언급한 둘째에서 넷째까지의 정의는 내적 가치에 치중되어 있다. 기존의 도장에 걸린 여러 덕목들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한류’의 핵심으로서의 태권도의 위상은 그 추구하는 바 내적 가치가 어떻게 인류의 문화에 기여하는가에 의해 판가름된다. 태권도 정신은 세계인이 그것을 수용하고 추구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와 직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면의 가치는 실로 다양하다. 이를 몇 개의 덕목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태권도인이라 해서 단일한 가치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선수와 일반 수련생 간에도 가치의 차이가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태권도가 일정한 가치 지향성을 표방할 수 있다. 기존의 태권도 정신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재표현될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p>【답변 1】C S G (학-39)</p>
<p>태권도가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무도의 전통과 정통성 제고를 위해 ‘태권도 정신’이란 용어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인격도야를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태권도가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무술인 동시에 정신수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보다 강한 기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라는 무술을 ‘태권도정신’에 입각하여 수련이 완성되어야 함을 볼 때, ‘태권도정신’ 용어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p>
<p>【답변 1】C U C (학-40)</p>
<p>‘태권도’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다듬은 하나의 ‘실천전통’(a practice)입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는 ‘문화’(a cultu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가이아 가설처럼, 태권도도 하나의 문화생명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안에는 그것을 움직이는 ‘정신’(spirit/soul)이 있겠지요, 당연히. 이런 맥락에서 ‘태권도정신’의 뜻은 ‘태권도의 정신’, 즉, 태권도가 지닌, 태권도에 담겨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의 기와 도에서, 도의 차원인 것입니다. 태권도의 도적 차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해서 이해시키려고 할 때,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의 정신은 태권정신을 강조하는 표현이며, 이 둘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표현이라고 보아야겠습니다.</p> <p>비유를 하자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채나 과일, 혹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혹은 생선 등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데, 각각에는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섭취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음식물에 ‘원래부터’ 들어있지 않다면, 아무리 먹어도 영양소나 비타민은 생기지 않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요리해서 섭취하는가에 따라서, (변형되거나 파괴되지 않은 수준으로) 내 몸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온전하게 섭취되고 소화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해야만, 바라는바 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태권도의 정신을 태권도인의 정신으로 만드는 데에는 그러한 과정과 작용이 연관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p>
<p>【답변 1】H P (학-41)</p>
<p>발차기와 주먹을 쓰는 수련을 의미하는 ‘태권’에서는 다른 스포츠 활동과는 달리 ‘도’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태권’의 ‘도’는 ‘도’를 탐구하는 태권도인의 정신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태권도의 정신’보다는 ‘태권도인의 정신’이 보다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수련에 임하는 자세, 혹은 태권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이다”라는 표현은 모호하다. 태권도 수련에서 추구하는 것이 ‘도’인가 아니면 ‘정신’인가? 당연히 태권도 수련에서의 목적은 ‘도’를 깨우치는 것이다. 그리고 ‘태권도정신’이 ‘도’를 깨우치는 것에 방향 잡혀 있다면 ‘태권도정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태권도 정신’은 발과 주먹의 활동에서 체험되는 ‘도’를 탐구하고자 학문적 태도이다. 2)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는 ‘도’를 몸과 마음에서 체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3)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도’를 깨우쳐 몸과 마음이 고양된 상태를 지칭한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1】 K B Y (행-42)

태권도 정신이란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정립된 태권도인의 가치관이다. 태권도 수련 과정에서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과 행동이 변했을 때 태권도 정신이 형성되어간다고 본다. 태권도와 태권도인의 정신은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같다고 본다).

(보충 설명) 태권도 정신이나 태권도인의 정신은 구분해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앞으로 태권도 정신으로 통일하면 좋겠습니다.

태권도 정신이란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정립된 태권도 인의 가치관이다. 태권도 수련 과정에서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과 행동이 변했을 때 태권도 정신이 형성되어간다고 본다.

태권도에서의 術 과 藝와 道의 삼차원적 본질을 내면화시켜 행동 철학과 정신 철학이 정립되었을 때 완전한 태권도 정신이 형성되었다 할 수 있다.

형이상학적 개념인 신체와 형이상학적 개념인 정신이 조화롭게 발전해 그것이 합치된 느낌, 생각, 행동이 일치된 것이 태권도 정신의 궁극적 이상이다.

【답변 1】 K H S (행-43)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라는 무예의 고유명사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 이상을 정하여 태권도 정신을 만들어, 태권도 지도자가 태권도를 수련하는 수련자에게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인간답게 살기위한 인생훈을 심어주는 것이다. 태권도의 정신이나 태권도인의 정신이나 논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태권도의 정신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에서 나오는 인생훈이 되어야 한다.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얻고자 하는 권위, 존엄성, 가치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일상의 삶에서 육체적으로는 건강과 체력에 강함이 있어야 하고, 정신적으로는 수련과 단련을 통하여 갖추어진 고상한 인품이 뿜어져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답변 1】 M I (행-44)

“태권도정신”은 태권도라는 무도에 내제된 우주만물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이념사상이다.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수련자는 태권도정신 속에 숨 쉬고 있는 행동철학을 통해 옳은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며 건전한 신체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신을 가진 ‘태권도인’으로 변해간다.

【답변 1】 P J H (행-45)

태권도의 정신과 태권도인의 정신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인의 정신이 곧 태권도의 정신으로 드러나고, 태권도의 정신은 다시 태권도인의 정신으로 수용되는 순환적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태권도정신이 하나의 통일된 정신으로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상향식으론 하향식으론 간에 합의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먼저 상향식 과정이라 함은, ①수련자가 스스로 획득하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 ②수련 과정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정신적 가치, ③수련 후에 생성된 정신적 가치 등, 개인 수준에서 생성되는 정신적 요소들이 개인 간 개인 또는 집단 간 집단에서 발현되며, 간주관적 특성을 지닌 정신적 요소가 특정 집단 또는 단체의 정신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는, 역으로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선 도출한 후, 하향식으로 소조직(협회)이나 구성원(지도자, 수련생)들에게 전달 또는 학습되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기원에서 제정하여 태권도계에 전달해주고자 하는 태권도정신은 ‘국기원 태권도정신’이

<p>올바른 표현이라 생각하며, 이것은 국기원이라는 조직 차원에서의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제정하여 소속된 지도자, 수련생에게 하향식으로 교육 홍보를 통해 보급하면 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p>
<p>【답변 1】 B M G (행-46)</p>
<p>제가 답을 하는 것은 순수한 개인적 주관에 의한 사견임을 말씀 드립니다 태권도 정신 : 위에 예를 든 네 가지는 어느 하나가 태권도를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고, 어느 것들은 태권도 정신의 개념이 아니다 라고 정의 하기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시마다 조금씩은 태권도 정신의 개념이 묻어 있기 때문이죠. 다만 태권도가 추구하는 정신이 무엇이가를 두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되며, 이것이 태권도정신에 기인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태권도인의 정신이 아니라 태권도정신이 우선이고 그 정신을 태권도하는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 태권도가 추구하는 정신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신이 사람의 내면에서 조금씩 유사하게 변형될 수 있으며 이는 체형의 다름으로 같은 동작을 조금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 해야함.</p>
<p>【답변 1】 Y G D (행-47)</p>
<p>검도의 검도정신, 합기도의 합기도정신이 있듯이 태권도정신 또는 의미를 둘 수 있다. 여기에 태권도인의 정신이 가미되면 그 의미는 다르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인의 정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답변 1】 L J C (행-48)</p>
<p>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수련의 결과인가? 아니면 수련에 필요한 조건?인가의 정의 필요. 따라서 태권도정신이란 태권도수련의 결과물이라 생각됨.</p>
<p>【답변 1】 J H S (행-49)</p>
<p>태권도인의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태권도를 수련하며 초단이 되고 고단자가 되어가며 기술적으로 발전하며 정신적인 뒷받침이 되어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태권도 수련이 도움이 될 기반을 마련했으면 합니다.</p>
<p>【답변 1】 C S H (행-50)</p>
<p>정신이란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것으로 단정 할 수 있겠으나, 태권도정신이라고 할 때에는 태권도의 역사적 기원과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형성된 특수한 문화와 정서를 모두 아울러서 태권도를 접하는 사람의 마음(자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태권도정신이란 태권도기술(공격과 방어)을 접하는데 있어서 수련자(태권도인)가 갖어야 할 이상적이고 올바른 마음가짐과 / 태권도를 수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얻게 되는 정신력(가치)이라고 생각합니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1】 C J G (행-51)
<p>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정신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태권도 수련생은 태권도를 수련함으로써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태권도 정신을 익히고 고양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p>

구 분	내 용
<p>【주제 2】 【질문 2】</p>	<p>‘공인’ 태권도 정신의 제정 필요성 ‘공인’ 태권도 정신의 제정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답변 2】 K S C (지-01)	
<p>공인이라는 용어가 꼭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태권도정신은 지도자마다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으며 그것은 다름이지 틀림은 아닙니다. 공인태권도정신이 제정된다면 간혹 해외의 여러 태권도 원로사범들의 철학은 틀린 것이냐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굳이 공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국기원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제정하는 태권도정신 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것입니다.</p>	
【답변 2】 K G S (지-02)	
<p>‘공인’ 태권도정신의 필요성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정을 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들만이 아닌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 모두가 함께 태권도가 지향해야할 규범적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제시 해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으로서 타 무술과 차별화된 국기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평화에 도 기여한다는 취지가 함축함으로서 태권도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근거도 되도록 조속한 제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p>	
【답변 2】 G K O (지-03)	
<p>태권도는 상대방을 살상 할 수 있는 무예이므로 그것을 억제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차원에서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의 확립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전세계에 똑 같은 정신을 보급하여 태권도인을 모두 한마음으로 이해시키고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국기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p>	
【답변 2】 K K M (지-04)	
<p>동의합니다. 태권도는 행위적인 기술뿐 아니라 분명히 정신적인 심신수련을 통한 내재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이 태권도정신의 기준이 삽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찬성합니다.</p>	
【답변 2】 K M S	
<p>필요합니다. 국기원은 세계태권도의 중앙도장(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며 지도자 교육이나 연구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태권도정체성 과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연구 업무입니다.</p>	

<p>【답변 2】K Y H (지-06)</p>
<p>태권도 수련을 크게 보면 내공과 외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손과 발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로 엮어진 기술로서 외공이라 하겠으며 또 하나는 기술적 가치 속에 잠재 하는 태권도 수련의 자세 즉, 이를 내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p> <p>따라서 내공과 외공이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된 태권도라 하겠으며 태권도 수련 현장에서 [태권도 정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를 설명 하려면 마땅히 설명하기가 어려워 [태권도 정신]을 메카인 국기원에서 제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p> <p>[태권도 정신]이 국기원으로부터 제정 공인 된다면 교육적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사회속에 그 이미지는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믿습니다.</p>
<p>【답변 2】K J J (지-07)</p>
<p>해방을 전후한 태권도는 무도적 측면이 강조되었고 태권도인의 자세를 정의(正義), 공명정대(公明正大), 엄치(廉恥), 청렴결백(淸廉潔白), 신성(信誠) 등을 중히 여겼다고 볼 수 있다. 수련과정을 통해서도 예의(禮義), 겸손(謙遜), 성실(誠實), 극기(克己), 노력(努力), 무실(務實), 인내(忍耐), 백절불굴(百折不屈)등의 정신들을 강조했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정된 것이 현재의 태권도의 5대 정신(최홍희)이라고 본다.</p> <p>하지만 현재의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이 되면서 경기중심의 스포츠로 인식되고 모든 경기가 승패로 좌우되다보니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추구해야할 이념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 호국(護國), 올림픽종목으로서 공유해야할 사회적 덕목으로 평화(平和), 희생(犧牲), 공명정대(公明正大), 봉사(奉仕), 수련과정속에서 길러야할 심적 능력으로 예의(禮義), 인내(忍耐), 자신감(自信感)등의 철학적사고가 대두되는 실정에 있어 현재의 태권도 5대정신은 패러다임(paradigm)에 부합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 필요성에 동의 한다.</p>
<p>【답변 2】K T S (지-08)</p>
<p>태권도를 수련한 태권도인은 반듯이 태권도정신이 무엇인지 태권도인으로서 어느 누구든 본인이 소속된 국적이 있을 것이다.</p> <p>태권도인은 반듯이 나라에 충성, 부모에 효도, 비열하지 않고 정직한 성품과 너그러운 배려와 봉사와 희생을 할 줄 아는 정신을 필히 지도하여 태권도인으로써 누구나 지키고 실천하여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노력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태권도가 더욱 세계만방에 최고의 각국무도이며 스포츠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p>
<p>【답변 2】P J H (지-09)</p>
<p>태권도 정신의 제정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태권도 자체가 품고 있는 고귀한 정신(예의, 정의감, 배려심)을 제외한, 아무리 훌륭한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다고 해도, 참된 태권도 정신과는 관계가 없는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스포츠 태권도는, 태권도정신이 아니라 경기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2】 S M H (지-10)
<p>공인 태권도정신의 필요성은 태권도를 수련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지도자와 수련자가 몸과 마음으로 수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p> <p>태권도 수련을 통해 신체의 단련과 정신 그리고 기술만 강조하고 지도한다면 태권도의 가치는 없으며 단순한 신체활동 또는 가치가 없는 무도스포츠일 뿐이다. 태권도정신은 태권도를 지도하는 지도자와 수련자에게는 명확한 목적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태권도정신을 바탕으로 태권도를 수련하며 가치를 알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태권도를 수련할 것이다. 태권도의 정신이 없다면 그냥 싸우는 기술이다.. 그러므로 태권도정신의 필요성은 지도자나 수련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p>
【답변 2】 S S D (지-11)
<p>태권도를 지도하는 사람으로써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p> <p>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에게도 태권도가 궁금한 사람에게도 공식적인 태권도 정신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진다.</p>
【답변 2】 S B H (지-12)
<p>정신이라 함은 무도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신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태권도에서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색깔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도, 운동, 공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은 그 의미를 상실하기 쉽습니다.</p>
【답변 2】 S B A (지-13)
<p>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현재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올바른 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립된 기준이 있다면 태권도의 체계화로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답변 2】 A Y T (지-14)
<p>국기원은 태권도를 “심신을 단련하여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전통무예 스포츠”라 정의하고 있다. 몸을 단련하는 법(태권도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여 전파되어 온 반면, 마음을 단련하는 법(태권도정신)은 발전의 노력도, 전파의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가 추구하는 ‘완성된 인격’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p>
【답변 2】 A J R (지-15)
<p>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답변 2】Y T K
<p>당연한 문제입니다. 태권도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철학과 정신이 필요합니다. 태권도는 기술적인 차원과 정신적인 차원의 두 개의 큰 교집합이 존재합니다. 이 중 보다 더 큰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정신적인 차원이 더 크게 작용해야 합니다. 태권도 역시 지금까지 학자마다 다양하게 태권도 정신에 대해 말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고 통일된 가치를 구체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이란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인 태권도 정신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확립하여 인식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본문에서 ‘태권도는 흥미 위주의 스포츠나 운동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이자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한 심신수련의 주요 종목’이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태권도 제도권(국기원, 협회, 대학 등)에 있는 분들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문구가 아닌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할 수 있는 운동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p>
【답변 2】I B S (지-17)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2】I H S 2 (지-18)
의견 없음.
【답변 2】I H S 1 (지-19)
<p>태권도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감이 될 수 있는 이상적이고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태권도인의 지표가 되고 태권도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련 할 수 있는 적합한 태권도정신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적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수련생들이 일상생활에 교육효과가 반영되어 사회적으로 태권도의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답변 2】J D W (지-20)
<p>일관된 공인 태권도 정신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면, 일선 지도자들 또한 여러 가지 정신? 삼국시대, 화랑정신 등의 표현보다 교육시키기 효과적일 것이다. 끼워 맞추기식의 정신 교육보다는 태권도인 만의 공인 태권도 정신이 정립된다면 특히 초등학생에게 설명이 더욱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p>
【답변 2】J S I (지-21)
<p>우리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곳, 장소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마 미래에도 ‘도장’이라 부를 것이다. 이 도장의 역사적, 시대적 의미는 우선 놓아두고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신체와 정신을 갈고 닦는 곳’이라 한다. 즉 태권도를 배우는 장소인 도장은 기술을 통한 신체적 향상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한 정신적 향상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태권도는 엄연히 상대방을 맨손으로 제압하는 것이 목적인 호신술. 보다 냉정히 말하자면 바로 ‘싸움의 기술’이다. 만약 신체적 향상, 즉 기술적 향상만을 꾀하게 된다면 태권도를 습득한 사람 중, 천성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이라면, 이는 강도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될 것이다. 이에 태권도를 수련함에 있어 태권도 정신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한다.</p> <p>또한 ‘공인’이란 나라나 공공단체가 공적으로 인정함이다.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경기규칙과 같이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일목요연한 규범적 방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었던 태권도 인구 및 양적 성장에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질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힘과 명분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2】 J I C (지-22)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단체도 기법만 존재하고 정신이나 사상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기반이 쉽게 무너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의 태권도가 세계적인 무술로 자리매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최홍희 장군이 만들고 현재 까지 ITF가 쓰고 있는 ‘태권도 정신’을 대신할 새로운 ‘태권도 정신’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일선 도장에서는 아직도 그 출처도 모른체 예의,염치,인내,극기,백절불굴을 가르친다는 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공인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전문가와 학문적 소양을 깊이 갖춘 학자들 중 최고의 인력들이 투입되어 오랜기간 연구와 검증을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2】 C S J (지-23)

첫째, 태권도 계에서 공인된 정신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어떠한 무술의 형태이건 그 행위의 사상적 근원과 문화적 배경을 갖추고 있다. 그럼으로써 유구한 전통성과 체계적 틀을 지니는 무술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술 행위의 바람직한 지표와 이념을 표방할 수 있어 수련자에게 사상을 불어넣고 사회에 대한 존재 가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등의 다른 무술들과 경쟁적 위치에 있는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무술로서의 역사성과 사상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과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즉, 많은 지도자들이 태권도를 지도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요구는 태권도 역사의 정립과 공인된 태권도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무도스포츠로서 입지를 다진 태권도는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은 태권도의 외현적 발전과 더불어 그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주며, 확고한 가치의 설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정립된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가 가고자 하는 목표이며, 그것이 곧 태권도 가치로 대변할 수 있다.

셋째,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교육에 있어서 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

태권도 정신은 도장에서의 교육 교재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태권도 정신은 수련자에게 태권도의 근본 가치를 인식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태권도 교육에서 중요한 기초가 된다. 태권도 지도자라면 누구나 태권도를 지도함에 있어서 기술이나 신체를 발달시키는 것 이상으로 정신 교육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태권도 정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 수련에 내포한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또는 수련외적 인간 관계에 요구되는 덕목의 의미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명확한 설명을 하질 못한다. 기껏해야 지도자 개인의 생각과 신념 기준에서 태권도 교육을 실행할 뿐이다. 이는 태권도 일선 교육 현장에 공급되어야 할 논리 정연한 태권도 정신의 부재에서 기인되는 안타까운 현상이기도 하다.

【답변 2】 W I S (지-24)

‘공인’ 태권도정신이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국기원에서 설명하는 태권도 정신이라면 그 의미가 포함 될 것 같습니다.

【답변 2】K M S (학-25)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높은 태권도정신을 정립하여 제정함으로써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도록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답변 2】K Y S (학-26)
공인 태권도정신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누가 “태권도는 무엇인가요?”라는 태권도의 개념을 묻는다면, 그 한 예로써 “태권도는 발차기 위주의 한국식 맨손격투기술이며 예의, 인내와 같은 바람직한 정신을 추구하는 무도(武道)이다.”라는 식의 답변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이 태권도의 기술과 정신은 태권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두 축이므로 국기원의 ‘공인’ 수준의 체계화된 정신 논지 확립이 시급하다. 그 주된 이유는 그간 학자나 지도자가 주창해온 논지들은 단면적 가치 판단이나 주관적 설정 방식으로 인해 다양각색으로 전개됨으로써 많은 태권도인들이 혼돈스럽게 여기는 상황이다. 국기원 차원의 명확한 태권도정신 체계가 제시되어야 태권도의 체계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고 태권도장의 효율적인 인성교육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답변 2】N C M (학-27)
태권도는 기술과 정신의 혼합체로서, 여기에 어떤 정신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을 때라야 비로소 태권도라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태권도수련자들은 기술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정신에는 소홀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반쪽짜리 태권도수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술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면서 수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각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응답자는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은 위의 배경설명에도 나열하였듯이 태권도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작업으로 판단되어 진다. 물론 공인 태권도정신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명확한 해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보다 철저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세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어떤 태권도인은 “태권도정신이 있는데 뭐하려고 그것을 다시 정하느냐? 있는거 그냥 사용하면 되지!”라는 폄자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본 응답자는 이러한 작업이야말로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답변 2】N S H (학-28)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므로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답변 2】S H S (학-29)
표준화는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태권도가 추구하는 가치의 표준화는 태권도교육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태권도 하면 떠오르는 공통적 이미지를 조성시켜줄 것이며, 이를 통해 태권도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태권도하면 특정 기술체계를 떠올린다. 그리고 이렇게 떠올린 기술체계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태권도도장을 찾아가면 쉽게 만날 수 있다. 최소한 ITF가 아닌 WTF 스타일의 정통 태권도(기타 무술과 접목된 스포츠가 아니라 의미)를 가르치는 도장을 찾아가면 그렇다는 말이다. 이렇게 기술은 표준화를 이루었으며 태권도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태권도가 추구하는 가치는 그렇지 않다. 한 마디로 태권도가 추구하는 이상이나 태권도수련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은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로 여겨진다.

【답변 2】S C

Before we can talk about “공인 태권도 정신” we must decide what “공인 태권도” is. I have stated before that all taekwondo value comes directly from training. I have also emphasized that the type of training one does determines what type of values can be realized. It is our reality that there are two (or more) distinct and separate taekwondos. One is sparring based sport taekwondo, and the other is poomse-basic movements-self-defense based taekwondo. The second taekwondo is what is practiced in most gymnasiums. Can we say that th same values (정신) can be attained equally from both types of training? If so, then what differentiates taekwondo 정신 from karate 정신, since 소위 도장 태권도 is not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도장 karate.

It is my opinion that these two different training systems (or different taekwondos) have different 정신적 요구 and, therefore, provide access to different training values. Therefore, before we can talk about 태권도 정신, we must decide what kind of taekwondo we are talking about.

공인태권도정신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공인태권도정신이 무엇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태권도의 모든 가치는 훈련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온다고 먼저 말하고 싶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훈련의 유형이 실현될 수 있는 가치의 유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유형은 스포츠 태권도에 기반하고 있는 스파링이고, 다른 한 가지 유형은 태권도에 기반하고 있는 품새, 기본 운동, 호신술 등이다. 두 번째 태권도는 대부분의 체육관(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두 가지 유형의 태권도수련으로부터 동일한 가치가 습득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소위 도장 태권도가 도장 가라테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태권도정신을 가라테 정신으로부터 구별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 상이한 태권도수련체계(또는 상이한 태권도)는 상이한 정신을 요구한다. 따라서 상이한 수련의 가치들에 도달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태권도정신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떤 종류의 태권도에 관해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만 한다.

【답변 2】Y J B (학-31)

“태권도정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조작성(조작적 정의 같은 뜻으로)과 제한성(문화적으로, 그리고 규정자 중심적이라는 의미에서)을 감안한다면, 그것에 더하여 “공인”까지 가미되어 “공인 태권도정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정신이 갖는 개인적 세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인”의 효과는 무엇일까?

본 설문항목에 나타나는 “공인”, “제정”, “규범”, “동일”, “통일” 등 언어가 본 연구 추진자들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듯하다. 태권도에서 아직도 필요한 작업이 “FM(Field Manual)”적 동일한 통일성 확립인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통일성 작업이 우리 태권도 정신세계의 척박함과 경직성, 그리고 그 수준을 대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지금 태권도는 전 세계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수련되고 있는 무술 스포츠이다. 보편적이라 함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무술 수련문화라는 의미이다. 특정 경제수준, 문화가치관, 인간관, 종교관으로 통일하기에는 이미 그 존재양태가 너무 커져버린 것이 아닌가?

특정한 태권도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교육적 가치, 강조하는 심리적 특성, 인격적, 윤리적 가치 등은 가능하고 나름의 역할과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태권도(전 세계 모든 연령, 성별, 문화, 지역, 종교, 전통 등)에 공통적으로, 통일적으로 강제되어야 하는 “공인정신”은 시대적으로 좀 부적절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대표 개념으로서 “정신”이 부적절한 것과 같이, 작업 목표로서 “공인화”작업이라는 방향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좀 더 넓은 시각과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태권도 정신, 사상, 철학, 또는 태권도 문화 등의 담론에 놓인 태

<p>권도의 인문학적 이해의 바탕을 넓히고, 태권도 독자들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마련 등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의 리포트로 정립하려하지 말고 다양한 주제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지?</p> <p>“무엇”을 설정하여 누구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감은 이미 때 늦은 발버둥이다. 진솔하게 현장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지금 전 세계 태권도 수련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태권도 교육의 가치 실현,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문화와 해석도 국기원이 태권도의 인문학적 접근에서 시도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정립하여 가르치려 하지 말고, 보고, 기록하고, 토론하고, 생각해야할 필요가 더 큰지도 모른다.</p>
<p>【답변 2】 U M</p>
<p>Such a concept is not necessary. Like I said in question 1, it is rather something personal and relative; therefore, impossible to define officially.</p> <p>그런 개념은 불필요하다. 오히려 내가 질문하고 싶은 점은, 그러한 개념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p>
<p>【답변 2】 Y U Y (학-33)</p>
<p>공인 태권도정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 사람으로서 여릴 때부터 태권도를 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최홍희씨가 제시한 5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WTF와 ITF가 분리되고 현재까지 아주 다르게 발전되어 왔는데, 지금도 꾸준히 5대 정신을 강조하면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것이 약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태권도의 현실에 맞게 공인 태권도정신을 제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p>
<p>【답변 2】 L S J (학-34)</p>
<p>1. 수련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여야 함, 세계 어느곳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 기술 정신내용 이어야 한다고 생각 함.</p> <p>2. 바람직한 인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덕적 내용이 수련과 연관이 되어야 함</p> <p>- 백절불굴,심신일여,홍익인간등 보`다는, 검도에서 말하는 칼날에 몸을 숨긴다와 같이 동작이나 기술 속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p>
<p>【답변 2】 L S Y (학-35)</p>
<p>태권도의 공인정신 제정은 필요하나 우선적으로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것은 타 무술(유도, 검도, 합기도, 가라테 쿡푸 등등) 또한 나름대로의 무술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제정하면서 마치 태권도만이 갖는 유일한 정신이라고 말할 때 타 무술단체와 마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로부터 벗어나 현시대, 21세기에 맞는 태권도정신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만의 태권도정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타무술과 차별화하는 태권도인의 지혜로움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2】L J D (학-36)
<p>앞서 말한 바와 같이, 태권도정신의 제정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태권도정신”이라는 말 자체의 모호함, 부수적 관점 때문에 태권도정신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p> <p>다만 “국기원 원훈”이라 한다면 연구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별화된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 태권도의 가치 고양, 교본/교육과정/교재/홈페이지 등에 활용될 콘텐츠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기원은 세계태권도본부로서 태권도인들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하는 곳으로 인식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p>
【답변 2】I S J (학-37)
의견 없음.
【답변 2】J S W (학-38)
‘공인 태권도 정신’은 세계인들로 하여금 ‘왜 태권도를 수련하는가?’에 대한 종주국의 공식적인 해답이다. 이것 없이 태권도의 세계화는 불가능하다.
【답변 2】C S G (학-39)
<p>태권도는 한국 전통 무예이며, 단일 종목으로서는 가장 많은 수련인구를 가지고 있는 무도 스포츠로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p> <p>이와 같은 시대상황에서 한국무도의 전통과 정통성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태권도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 ‘공인’ 태권도정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답변 2】C U C (학-40)
<p>태권도정신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그에 대해서 반드시 ‘공인’이 필요하다는 생각(혹은 강박관념이나 걱정?)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국기원이 ‘공인’ 인증기관일 수는 있지만, 그리 만들면 ‘공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것 이외의 것들은 정신이 아니게 되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한 합의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와 함께, 분명히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가치가 또 퇴색되어버리고 다른 내용을 덧붙이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태권도는 어떤 단어 몇 가지로 드러낼 수 있는 쉽고도 알은 수준의 인간활동이 아닙니다. 심오하고 깊고 어렵기 때문에 굳이 “도”라는 높은 차원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p> <p>태권도의 정신은 단어 몇 개로 모두 드러낼 수 없습니다. ‘공인’이라는 인증짓기로 다른 많은 훌륭한 가치들을 제외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최소한의 필수적 이해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오랫동안 이같은 작업을 진행시켜 왔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정신은 여러 학자나 여러 교수분들께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야 하며, 현실에서는 그 이야기되는 것들 가운데 사범이나 수련자가 자기의 철학과 체함에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적으로 보아도, 그냥 이것들이 공인이니 다들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도록 하라는 것으로는 태권도정신의 깊은 차원에 대한 터득이 쉽지 않게 됩니다.</p>

<p>【답변 2】H P (학-41)</p>
<p>태권도 수련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도 ‘공인’ 태권도정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롭게 제정되는 ‘공인’ 태권도 정신은 최홍희에 의해 확립된 기존의 ‘태권도 정신’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정초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최홍희의 5대 태권도 정신은 일본의 무사도 정신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무도정신의 근본이 되는 무사도 또한 ‘인내, 예의 그리고 극기’를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강조한다.</p>
<p>【답변 2】K B Y (행-42)</p>
<p>태권도는 육체적 기술과 정신 철학이 결합된 한민족의 무도이다. 따라서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정의에 50%로 갖고 있기에 정립이 극히 필요한 사항이다.</p> <p>우리 무예 태권도는 육체적 기술과 정신 철학이 조화롭게 구성된 한민족 전통 무예로서 오늘날 IOC가 주관한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까지 발전되어 세계적인 무도 스포츠가 되었다. 그러나 그 본체와 본질은 무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p> <p>무도에는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며 무도의 계급을 상징하는 단증이 있어야 된다. 단증이란 승단 심사를 통해 기량의 정도 무인으로서의 정신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수여되는 기술 등급이다. 이것은 육체적 기술과 무도인으로서 바른 인간상을 심사하고 거기에서 일정 기간의 수련 연령 등을 종합 평가한 증명서이다.</p> <p>태권도의 공인단은 국기원에서 주관 운영 발급되고 있다. 태권도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회원국을 갖고 있으며 8천만 명이 넘는 수련 인구를 갖고 있다. 태권도는 ‘80년 IOC 승인을 받아 ’94년에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되었다. 그러나 모든 태권도 인은 무도의 태권도를 계승해 나가면서 부수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p> <p>그동안 태권도 승단 심사에서 정신적 측면에 대한 검증이 일관성이 없었으며 심사 방법도 구구각각이었음을 솔직히 말하고 싶다. 이번 기회를 통해 태권도 정신적 분야 심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기 기대한다.</p>
<p>【답변 2】K H S (행-43)</p>
<p>세계 206개국 수련을 하고 있는 태권도가 태권도의 이념을 표현하는 공인 태권도 정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태권도의 본부라는 국기원이 서둘러야 할 과제다.</p> <p>이번 태권도 정신 과제를 수행하시는 연구팀에서 태권도인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태권도 정신과 강령이 제정 되었으면 한다.</p>
<p>【답변 2】M I (행-44)</p>
<p>정신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객관적인 성격보다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인격, 경험, 철학, 지식, 지혜,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역사와 모든 태권도인들이 포용할 수 있는 태권도정신이 제정된다면 태권도라는 항목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2】 P J H (행-45)

위의 배경설명은 논리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태권도기술이 심사제도의 정착과 경기화로 표준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최근까지도 심사제도와 경기판정 문제는 태권도계의 주요 이슈입니다. 또한, 태권도 정신 자체가 교육과정의 일부가 아니며 단지 교수학습내용으로 선정 및 조직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로서 보아야 합니다. 물론 태권도정신이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철학으로서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게다가 태권도 정신이 지식체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형성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를 지식체계로 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위와 같이 연구진이 생각하는 필요성을 열거한 후 필요성을 물으면 답변자는 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태권도정신의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의견도 함께 제시해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에 대한 응답을 하자면, 공인 태권도정신과 국기원 태권도정신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대한 개념적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 먼저 응답자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에 ‘국기원 태권도정신’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히 제정해야 하지만 ‘공인’ 태권도정신은 국기원이라는 단일 기관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유관기관의 협조와 공조, 그와 함께 태권도계에서의 담론 형성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공인 태권도정신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세계에는 이미 수많은 태권도 관련 협회나 유사단체가 난무하는데, 제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뿐더러 국기원의 한정된 인프라로 보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결국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작년의 연구처럼 태권도인이 인지하고 있는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 요소를 추출하여 상향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국내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할 수 있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로 판단됩니다. 하다못해 국기원 태권도정신도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인’ 태권도정신을 제정한다는 건 무리한 시도 같습니다. 위의 배경설명처럼 조직의 철학이 곧 교육철학이나 조직 비전에 반드시 투영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조차도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기원 태권도정신이라도 먼저 조직적 차원에서 제시하여 최소한 WTA 교육과정에서라도 연수생들이 통일된 태권도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2006 국기원 태권도교본의 태권도정신과 2010 사범연수교재의 태권도정신과 2011 WTA 기본교재의 태권도정신의 교육내용이 모두 상이합니다. 최소한 이러한 교수학습내용만이라도 통일될 수 있는 국기원 차원에서의 태권도정신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2】 B M G (행-46)

공인 : 국가나 공공 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어느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인정함
공인의 뜻은 위와 같으며 국기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공인이라 우선 정의함을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대표기관에서 규정을 재·개정하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은 수련자에게 동작을 가르쳐주는 이상 중요시 되어야 하며, 모든 행동은 머리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그리고 몸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태권도 수련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모두 정신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부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 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표 기관에서 올바른 정신이 보급되면 올바른 수련과 수양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태권도 정신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을 전합니다.

【답변 2】Y G D (행-47)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2】L J C (행-48)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변 2】J H S (행-49)
지극하고도 당연히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 사상이 만연한 현 세태에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며 같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며 불의에 과감히 맞서고 태권도인이 정의의 사도가 될 기반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답변 2】C S H (행-50)
<p>당연히 필요합니다.</p> <p>국기원의 설립목적은 정관 제 2조에 나와 있듯이 태권도정신과 기술을 범 세계화 하여 인류평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세계에 표방할 태권도정신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계태권도연수원(WTA)에서는 태권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철학과 목표조차도 없는 가운데 태권도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그렇게 배출된 태권도지도자들은 자신의 신념과 경험에 따라 각기 다른 태권도 정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p> <p>뿐만 아니라 WTA를 비롯한 태권도 유관단체에서 각종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교재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그 근간이 되는 태권도정신이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과 비 체계적인 개발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p> <p>따라서 시급히 공인 태권도정신을 제정해야 합니다.</p>
【답변 2】C J G (행-51)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이 위와 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면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 분	내 용
<p>【주제 3】</p> <p>【질문 3】</p>	<p>‘태권도 5대 정신’(최홍희)의 반영 여부</p> <p>국기원 ‘공인’ 태권도정신을 제정함에 있어 기존의 ‘5대 정신’의 일부를 반영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방침을 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답변 3】K S C (지-01)	
<p>새로운 방침을 정하더라도 5대정신과 모두 관련성이 있을 것입니다. 5대 정신을 반영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3】K G S (지-02)
<p>굳이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대정신은 예의나 인내는 지금 시대에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숭고하고 적절한 가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제 태권도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닌 지구촌 태권도 가족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기에 ‘공인’ 태권도 정신의 제정은 태권도가 추구해야 할 원대한 이념이나 한국의 전통사상 같은 가치들이 포함되면서도 21세기 현 시점에서 다양한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정신적 가치는 물론이고 차별화된 한국 고유의 이념도 포함하면서 태권도의 정체성도 확립될 수 있도록 글로벌 한류의 원조가 된 작금의 시대에 그에 적합한 이념과 가치가 설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p>
【답변 3】G K O (지-03)
<p>흔히 말하는 태권도의 5대정신은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이라고들 하나 이것은 태권도의 5대 정신이 아니고 최홍희 자신이 만든 최홍희 5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60-70년대 태권도 세계에서 철학적인 기반이 없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태권도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p>
【답변 3】K K M (지-04)
<p>태권도는 단순 사람의 정신을 수양하는 단계의 종목을 넘어 분명 한국을 대표하는 국기의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개인수양의 가치보다 한국의 정신적 가치를 대변하고 글로벌시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의미로써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므로 5대정신 외의 새로운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답변 3】K M S
<p>5대정신 중 예의와 인내 두 가지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중요한 덕목이므로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p>
【답변 3】K Y H (지-06)
<p>최홍희가 주장한 5대 정신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그 내용이 중복된 경우도 있고, 또한 군사적언어 <백절불굴, 극기등>가 있어 참고는 하되 현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제정 되어야 하며 한국 고유의 이념을 참고 하여 단군의 건국 이념으로 세운 弘益人間<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이나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五德 <仁義禮智信>은 그 의미가 높아 참고할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p>
【답변 3】K J J (지-07)
<p>앞으로의 태권도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다양한 연령층과 태권도를 수련하는 목적에 따라 ‘무도로서의 태권도’와 ‘경기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생활 체육으로서의 태권도’로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p> <p>‘홍익인간’이나 ‘백절불굴’같이 사상이나 철학이 담긴 태권도 본연의 무도태권도와 시대흐름에 부합한 올림픽종목으로서 자리매김한 경기스포츠로서의 태권도, 그리고 어린이의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고양하고 또한 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가 그것이다.</p> <p>따라서 ‘태권도의 정신’은 공인으로 통일되어야겠지만 필요시 ‘무도태권도’, ‘경기스포츠 태권도’, ‘생활체육 태권도’로 구분, 수련하는 ‘태권도인의 정신’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p> <p>현 태권도의 5대 정신(최홍희)은 ‘무도를 수련하는 태권도인 으로서의 정신’에 의미있다고 생각하며 공인태권도의 정신을 새로 제정한다면 패러다임[Paradigm]에 부합하는 태권도 정신을 담아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p>

【답변 3】K T S (지-08)
<p>질문1.2에서 언급 하였습니다과 현재 5대정신을 절대 무시하지말고 위 글에 5대정신이 유사한뜻으로 중복되 것은 하나로 묶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국가를 위하고 충성한다는 뜻과 한 인간으로서 본인을 탄생하게 해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외에 근면. 성실 같은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을 태권도정신을 통하여 교육되었으면 좋겠다.</p>
【답변 3】P J H (지-09)
<p>태권도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도 열심히 땀 흘려 운동하면 인내, 극기, 백절불굴 같은 정신이 길러진다. 그러므로 태권도 자체가 품고 있는 고귀한 정신 이외의 것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p>
【답변 3】S M H (지-10)
<p>글로벌 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침을 정해야 하며 태권도 정신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면 안된다.</p>
【답변 3】S S D (지-11)
<p>먼저 태권도정신(ITF의 태권도5대정신)이 ITF에서 가져 왔다는 사실을 아는 태권도 지도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허나 그 태권도정신이 ITF에서 왔다고 해서 그르다거나 필요없는 항목들을 나열해 놓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위의 글과 같이 한국적 정서 또는 전통사상과 부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p> <p>먼저 태권도정신의 제정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기존의 태권도정신이 대한민국 태권도정신인 마냥 배우고 수련을 한 제자들이 엄청 많을 것이라 사료되어 집니다. 만일 ITF의 태권도 정신을 없애고 새로운 태권도 정신을 제정한다면 지금까지 태권도 정신이라고 배웠던 태권도인들에게 혼돈이 예상됩니다. 그 혼돈속에서 갈등과 거부반응이 생길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정신적 가치 또는 한국의 고유 문화로서 태권도 정체성의 확립도 좋지만, 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지도자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 보시는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p>
【답변 3】S B H (지-12)
<p>태권도정신 모두 포함된다고 보지만 그것으로 귀결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p> <p>수련의 목적 수련후 내적으로 배양되는 인성 힘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공자나 맹자 사상처럼 공부를 통해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로 정확하게 예를 들어 공자에 인(仁), 맹자 () 순자(자연)등등 압축이 중요하다</p>
【답변 3】S B A (지-13)
<p>태권도 5대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현대의 이념과 가치관 세계화를 반영한 새로운 방침을 추천합니다.</p>
【답변 3】A Y T (지-14)
<p>지구상 어떤 무예와 스포츠도 그 뿌리와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다. 태권도 5대 정신은 비록 일찍이 국기원의 공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나 그 역시 태권도의 뿌리이며 역사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수 많은 태권도인들이 보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태권도 정신이 아니던가. 국제화도 좋고 글로벌 한류도 좋지만 뿌리와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태권도 5대 정신이 공인 태권도정신 제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이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3】A J R (지-15)
새로운 정신을 정립하여야 한다.
【답변 3】Y T K
<p>신’, 태권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제2의 창시와 같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태권도정신 역시 혁신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p> <p>중국에서는 모든 동양무술은 중국이 원조이므로 ‘태권도 역시 종주국은 중국이다.’, 일본에서는 ‘태권도는 가라테의 아류다.’ 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권도 정신이 그 철학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p> <p>태권도정신은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며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덕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격을 제대로 갖추게 하는 덕목들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 속에 배려가 들어가야 하며, 그러한 측면에서는 최홍희의 5개 영역으로는 부족합니다. 중복되는 개념도 있고 해서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태권도정신 속에 ‘나는 작고 약하나, 우리는 크고 강하다.’는 그런 결집력도 포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답변 3】I B S (지-17)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정신을 새롭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답변 3】I H S 2 (지-18)
의견 없음.
【답변 3】I H S 1 (지-19)
태권도5대정신과 관련하여 위에서 지적했다시피 포괄적 범위에서 의미가 중복된 내용은 새롭게 보완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는 일부는 반영하여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면 함, “예를 든다면” 부정부패가 만연된 우리사회에 “정의”와 관련된 내용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공경에 적합한 “효”의 정신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노력의 정신등을 보완했으면 함.
【답변 3】J D W (지-20)
무도의 기본적인 본질과 현 시대에 맞는 틀을 정립하기엔 근본적으로 대상의 기준이 다르기에 적합한 이념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시예종의 근본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별 범위를 고려하여 정리되길 바란다.
【답변 3】J S I (지-21)
<p>태권도를 광의적 관점에서의 태권도정신과 품새, 겨루기, 격파, 시범 등 세부적인 부분으로 본 협의적 관점의 태권도정신을 구분하여야 한다. 즉, 전체적이거나 아님 세부적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p> <p>태권도의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통영 될 수 있는 광의적 관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종목에 개별적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각각의 종목이 지향하는 점을 수련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련할 수 있는 협의적 관점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p>

【답변 3】J I C (지-22)
<p>기존 ITF의 태권도 정신의 항목들에 의미의 중복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p> <p>새로운 태권도정신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항목들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만 하면 안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합니다.</p> <p>기존의 태권도정신 항목이 ITF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되고, 기존의 것이라고 무조건 고수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한 맥락과 그 뜻이 합치된다면, 필요에 따라 적체적소에 그 항목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p>
【답변 3】C S J (지-23)
<p>국기원에서 표방하는 태권도 정신은 최홍희가 말하는 태권도 5대 정신인데 내용은 禮儀, 廉恥, 忍耐, 克己, 百折不屈인데 내용자체가 모순점과 혼용되는 점이 많다 그러나 그누구도 태권도 관계기관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 없다</p> <p>예를 든다면 예의 안에 엄치가 있고, 인내 극기 백절불굴은 같은 맥락아닌가? 그래서 모두가 공감하는 또한 태권도의 미래지행적인 태권도 정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p>
【답변 3】W I S (지-24)
<p>새로운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태권도의 기술수련 과정이 한민족의 어떤 철학사유와 일맥상통하는지를 정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p>
【답변 3】K M S (학-25)
<p>일부 반영에 동의합니다.</p> <p>태권도정신은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고유의 이념이 포함되어 져야 한다.</p>
【답변 3】K Y S (학-26)
<p>일단 최홍희씨의 5대정신이 그 간단명료성 때문에 지금까지도 태권도 교육 현장에 널리 통용되는 만큼 예의와 인내 두 가지 정도는 ‘공인 태권도정신’의 일부로 반영해도 좋을 듯 하다.</p>
【답변 3】N C M (학-27)
<p>본 응답자는 위 배경설명에서도 나열하였듯이 간단명료하고 인지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태권도정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포괄 범위가 협소하고 항목들의 의미가 중복된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태권도는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특수성과 세계적 신체문화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동양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보편성을 갖는 사상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새로운 태권도 정신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답변 3】N S H (학-28)
<p>어차피 원로들께서 정해놓은 정신이니 기존의 오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p>【답변 3】 S H S (학-29)</p>
<p>5대 정신은 공인 아닌 공인 정신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련 차원의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소 편협한 느낌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참조는 하되 이것을 톨 모델로까지 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5대 정신 가운데 예의와 인내는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덕목이라고 생각한다.</p>
<p>【답변 3】 S C</p>
<p>I think the 5대 정신 concept is too vague and outdated to be of much use. Taekwondo 정신 should be explained as a philosophical and educational system that derives directly from training and the training culture. Therefore, the treatment of 태권도 정신 cannot be done with five “tenets” that have no accompanying pedagogical explanation. We need a concrete and systematic training philosophy that clearly shows how certain values are formed and embodied through specific training regimes and their attendant training culture (etiquette, stoicism, junior-senior relations).</p> <p>Also,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how much of taekwondo training culture derives directly from taekwondo training and how much has come into to taekwondo from general Korean (or Japanese) everyday culture. After this determination is made, it is necessary to decide how much Korean culture should be embedded in taekwondo culture.</p> <p>내가 생각하기에 5대 정신은 그 의미가 너무 애매하고 사용하기에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태권도정신은 수련과 수련문화로부터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철학적 및 교육학적 체계로 설명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태권도정신의 취급은 그 어떤 교육학적 설명도 수반하고 있지 않은 다섯 가지 “교의(敎義)”에 의지하여 수행되어질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수련 체계와 그것에 동반되는 수련문화(에티켓, 금욕주의, 선후배관계 등)을 통해 어떤 가치들이 형성되고 체화되는지 명쾌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련 철학이다.</p> <p>또한 얼마나 많은 태권도수련문화가 태권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도래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한국 또는 일본의 일반적 일상 문화가 태권도로 유입되었는지 규정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규정이 이루어진 후에 얼마나 많은 한국의 문화가 태권도문화에 체화되어야만 하는지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p>
<p>【답변 3】 Y J B (학-31)</p>
<p>엄치, 예의, 극기, 인내, 백절불굴은 심리학적 개념인가? 사회학적 개념인가. 윤리학적 개념인가? 그 의미는? 개념들 간의 관계는? 왜 이 개념군이 여기에서 언급되어야 하는지? 등 을 이해하기 어렵다.</p> <p>이미 스포츠 심리학에서 매우 정교하고도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인간의 행동특성과 그 심리적 배경을 정리해 놓고 있다. 우리는 대학 교과서 수준의 지적 이해력도 참고하지 않는 것인가? 태권도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와 저술(임태희, 김병준, 대한태권도협회 등)도 이미 이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다고 생각한다. 왜 5대 정신 수준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안타깝다.</p> <p>최상의 교육적 가치들을 최고의 문장으로 구성한 “국민교육헌장”의 운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 국민교육헌장은 사장되었는가?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담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헌장제정 자체가 그 보편적 가치들을 죽였기 때문일까?</p> <p>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오늘의 시대는 서양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한국사회만 보더라도, 하나의 이념, 하나의 가치로 무엇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화적 환경이 이미 되어있는 것 아닌가? 이 작업이 가진 시대적 정서는 과연 2015년의 시점과 어우어질 것인가?</p>

【답변 3】U M
<p>I don't know about the Kukkiwon's concept. 국기원이 말하는 5대 정신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p>
【답변 3】Y U Y (학-33)
<p>저는 5대 정신을 반영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의, 엄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이라는 5가지는 모두 자신을 주체로 정한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있는데, 국가, 타인, 사회에게 어떠한 윤리적 규범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모색하면 태권도정신을 더욱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답변 3】L S J (학-34)
<p>새로운 방침이 필요 합니다. - 태권도기술과 관련: 집중력, 자신감, 인내, 결단력, 판단력,포기 하지 않는 마음, 마음의 평상심등(겨루기에서 거리조절, 타이밍, 상대를 공격하거나 반격하기 위한 심리적 준비, 지고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등) 특히 겨루기에서 찾으면 좋을 것 같음 - 태권도에서 필요한 전문체력(순발력,유연성,근력등)을 태권도정신과 연관 예) 유연성: 유연함, 지구력: 인내, 근력: 강인함 - 겨루기,품새,격파,시범 각 종목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정신가치 내용을 각각 찾아냄 ? 한국전통사상, 국제적 정신가치, 보편적 윤리성이 필요하나 포괄적임 잘 모름.</p>
【답변 3】L S Y (학-35)
<p>태권도의 5대 정신(예의, 엄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이나 3대 정신이니 하며 “무엇” 하나의 틀을 미리 맞추어 놓고 끼워 맞추기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국인만이 갖는 정신 이념이나 전통사상을 포함시키려는 것은 국제화시대에 맞지 않는 태권도정신이라고 사료된다. 예를 들면 미국사회에서는 태권도관장님들의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용어 중에 하나는 “존경”이듯이 한국사회에서도 사라져가는 부모님과 스승에 대한 존경, 인류래를 구현한다는 사랑,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도전,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한다는 인내, 이렇게 세계인이 공감을 하는 정신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p>
【답변 3】L J D (학-36)
<p>“공인 태권도정신”이 필요하다면, 논란의 여지가 최소한인 것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여지라는 것은 “태권도정신”과 관련된 언급을 한 사람이나 조직의 권위와도 연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p> <p>유도의 가노 지고로, 가라테의 후나고시 기친, 아이키도의 우에시바 모리헤이, 그렇다면 태권도계에서 상기한 인물들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태권도인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근접한 인물이 김운용 총재님이나 최홍희 총재님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5대 기간도장의 초대 관장님들인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p> <p>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최홍희 전 총재께서 제시한 5대 정신(예의, 엄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은 권위 있는 자에 의해 이미 정립된 것이라 생각합니다.</p> <p>혹여나 하는 마음에, 김운용 총재님이 쓰신 “현명한 사람은 선배에게 길을 찾는다”는 말을 정말 열심히 정독하였</p>

습니다. 밑줄 그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태권도에 관한 예리한 한 마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정책이나 제도, 행사, 사람과 관련된 언급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김운용 총재님께서 태권도계 전체를 진두지휘하실 때 태권도 정신과 관련하여 한 마디만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 공부가 짧아 그러한 표현이나 문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반면 권위 있는 자에 의해 정립이 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기원 공인 태권도정신 제정위원회가 최홍희 전 총재를 뛰어넘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수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국기원의 권위로 태권도정신을 제정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쯤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태정”이 연구소 이외의 부서 또는 국기원 전체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기원 스스로도 전 세계 태권도계에서 얼마만큼의 권위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기원 단종의 가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5대 정신이 비판을 받는 중요 이유가 단어의 유사함에 대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것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이 다섯 단어가 단어별로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 의미를 구분하여 쓰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어야 할 때와, 염치가 있어야 할 때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인내해야 할 상황과 극기가 필요한 상황이 다르며 그 인내와 극기의 지향점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평생을 인내하였으나 끝끝내 극기하지 못했다는 말처럼 쉽게 구분이 됩니다.

아울러 백절불굴이라는 것은 굴하지 않는 당당한 기상을 의미한다고 볼 때 인내와 극기, 그리고 백절불굴은 다른 의미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courtesy, integrity, perseverance, self-control, indomitable spirit*으로 명확히 다른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한편 예의와 인내 두 가지를 채택할 경우 결국 최홍희 총재가 선택한 5개 단어 중 필요한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린다는 것인데, IIF 계열에서 본다면 국기원의 태권도정신은 IIF의 모방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만의 독자적인 것을 찾는 것이야 쉽겠지만, 과연 전 세계태권도인이 수용 가능한 것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될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무력이 강조되던 시기에 적합한 단어들이라 할지라도, 태권도의 태생 자체가 싸움, 투쟁에 기반한다면 태권도가 존재하는 한 인내, 극기, 백절불굴과 같은 단어는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예의나 염치가 태권도에 꼭 필요한 단어인지 반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승과 패가 중요한 투쟁의 상황에서라면 예의나 염치는 불필요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태권도 정신을 공인화 한다면, 새로 만들기보다는, 전 세계에 가장 널리 퍼져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태권도 사범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태권도정신 중 가장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최홍희 총재의 5대 정신’을 그대로 공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답변 3】I S J (학-37)</p>
<p>이미 주지하고 있듯이 ‘태권도 정신’이란 1950년대 명칭을 제정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 1950년 초기 명칭을 제정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해방이후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로 인해서 태권도계에서도 여러 유파가 각 지역에 산재해 있었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 하기위해서 각 계파 간 분규가 심화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태권도 정신’의 최초 문헌 출현은 최홍희 원로에 의해 제기된다.</p> <p>태권도를 약화되는 국민의 체위(體位)와 예의(禮儀)를 존중하여 일기당천(一騎當千)하는 기백(氣魄)과 저력(底力)을 자랑하는 태권도... 군의 심신수련에 게을리 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고유무술인 태권도를 육군의 전형적인 무술로 채택한다(태권도교본, 1959년).</p> <p>이것은 당시의 태권도가 군인들의 체력향상과 국방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태권도의 역사적 연계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신라의 화랑 낭도들이 연무했던 시절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태권도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p> <p>즉,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사적 목적의 정신, 역사적 연계성 확보를 위한 화랑정신, 무사도의 기백을 고양시키기 위한 무사정신 등이 혼재 된 채, 현재의 태권도 정신을 만들었다. 물론, 이렇게 구성된 지금의 태권도 정신이 무조건 무가치하다고 평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다만 이런 정신적 가치들이 군사문화의 군국주의적 유물로서 시대에 뒤떨어진 정신적 개념은 아닌지 염려스럽다.</p> <p>연구자들께서 질의하신 태권도정신 제정의 필요성은 ‘태권도 정신’에서 ‘정신’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군국주의적’, ‘전투적’, ‘폭력적’, ‘집단적’ 의미를 풍기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인격과 자유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태권도 정신’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고수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p> <p>‘태권도 정신’ 이기 보다는 ‘태권도 人의 000.’ 라는 새로운 용어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개인의 인격과 구체적 실천적 의지가 포함될 수 있는 다의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용어의 틀이 필요하다.</p> <p>주제 3의 질의는 같은 맥락에서 최홍희 원로의 태권도 5대정신이 지금까지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의미해석을 통해서 활용하고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 체계 안에서 재 해석됐으면 한다.</p>
<p>【답변 3】J S W (학-38)</p>
<p>위의 5대 정신 외에도 ‘정도선행’ ‘파사현정’ 등 좋은 말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좀 더 보편적인 가치의 하위 개념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p>
<p>【답변 3】C S G (학-39)</p>
<p>세계 많은 격투기적 운동과의 차별화와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무도의 전통과 정통성 제고를 위해 태권도의 역사적으로 사실화 되어 있는 ‘5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p>【답변 3】 C U C (학-40)</p>
<p>주제 2번의 답변과 같은 맥락에서 이 3번에 대한 대답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만약 최홍희씨를 태권도의 창시자라고 본다면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창시자가 말한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p> <p>그런데, 초기 성립에 큰 공헌을 했더라도 창시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의 주장을 바꾸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보다 가치있는 정신의 다른 내용들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5대 정신을 태권도정신을 말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의견(혹은 방식)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수련자, 혹은 사범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의견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p>
<p>【답변 3】 H P (학-41)</p>
<p>배경설명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태권도 ‘5대 정신’은 중복되는 점이 있다. 그리고 중복을 피해 ‘5대 정신’은 ‘예의와 인내’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기원 ‘공인’ 태권도정신을 새롭게 제정함에 있어 ‘예의와 인내’는 유지하고 다른 세 가지의 정신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무도정신 또한 ‘예의와 인내’를 강조한다는 것이다.</p>
<p>【답변 3】 K B Y (행-42)</p>
<p>최홍희 씨가 기술한 태권도 5대 정신은 절대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첫째, 기술한 내용이 개인이 임의로 창작한 소견이며 그 종목도 중복성이 있다. 예의와 염치는 같은 의미이며 인내와 극기도 같은 뜻이다. 또한 민족의 역사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더욱 문제된 것은 정치적으로 북한으로 망명한 인사인데다 북한에 가서 ITF를 창건한 주인공이며 ITF, GAISF 등 국제 무대에서 고유 무대에서 고유 문화 유산 태권도를 비방 모략을 일삼아왔던 인물이기에 그의 기술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p> <p>태권도 정신은 역사적 근거를 제일 중요 목표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기원이 주관한 연구소를 통해 추가 혹은 삭제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 너무 소란스럽게 하는 것보다 은밀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p>
<p>【답변 3】 K H S (행-43)</p>
<p>태권도는 한국에서 태동된 무예지만 현재는 206개국에 수련을 하는 무예다. 한국의 정서가 담긴 정신이 토대가 되어 세계의 태권도 수련자들의 귀감이 되는 정신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권도 정신이 지식적이거나 교과서적인 것 보다는 태권도 단련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모아져 만들어지는, 그러한 바탕을 둔 정신이 정립이 되었으면 한다.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5대 정신은 참 좋은 이념이다. 그러나 내적인 면을 개괄적인 면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이며, 외면적인 면을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꼭 필요한 단어라면 반영도 무관 하겠다.</p>
<p>【답변 3】 M I (행-44)</p>
<p>태권도인들의 지식상태가 높아진 만큼 연구를 통하여 태권도학문의 발전을 이루었고, 태권도정신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되어왔다. 태권도는 여러 시대를 걸쳐오면서 예로부터 내세운 정신문화가 변함이 없었어도 사회의 발달에 따라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왔음을 틀림없다.</p> <p>최홍희로부터 보급된 5대 정신을 부정하여 새로운 방침을 정하는 것보다 5대정신이라는 항목을 정리해서 더 세련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반영해야만 한다.</p>

<p>【답변 3】P J H (행-45)</p>
<p>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국기원의 이사든, 연구소든, 기술심의회든 조직적 차원에서 판단하여 공표하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p> <p>이와는 별개로 응답자는 5대 정신을 위와 같이 분석한 결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용어라는 것은 무수한 유의어가 존재하고 전문가 집단일수록 비슷한 단어라도 좀 더 명확하고 올바른 표현을 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나는 최홍희가 학자는 아닐지라도 저렇게 비슷한 범주의 용어를 여러 개씩 나열한 것은, 의미가 중복되는 것을 놓쳐서가 아니라, 저러한 영역의 키워드들을 여러 개씩 제시해야만 할 정도로 ‘중요한 덕목’이라고 판단해서라 생각합니다. 특히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대해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그만큼 범위가 분명하다는 것이며, 더욱이 위에서 제시한 대로 5대 정신은 간단하고 명료한 장점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태권도 수련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는 기관 수준에서 제시해야 할 태권도정신은 “좀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존의 5대 정신은 태권도지도수련장에서의 덕목 정도로 다루어주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p>
<p>【답변 3】B M G (행-46)</p>
<p>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상표나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p> <p>즉, 나무, 바다, 물 이런 것들은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 소유의 전유물로 만들 수 없는 것이죠.</p> <p>최홍희씨가 주장한 5대정신은 최홍희씨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할 중요 정신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단, 단어속에 기인하는 정신적 해석과 합리성은 다를수 있겠죠)</p> <p>다만 태권도가 오랜 역사와 시련을 거쳐 지금까지 다듬어 졌듯이 의지력과 자애로움과 배려의 덕목을 살릴 수 정신적 단어가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p>
<p>【답변 3】Y G D (행-47)</p>
<p>사회적 덕목영역에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할 다섯 가지 덕목중 인과 의를 포함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p>
<p>【답변 3】L J C (행-48)</p>
<p>정신이란?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됨, 따라서 이시대 또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담은 공인“정신”을 제정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기존(공인은 아니라도)정신이라고 표현되어 온 것들의 정의를 한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료됨.</p> <p>단, 어떠한 형태 즉 반영이든 새롭게 만들든 정신이 수련의 부산물? 수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 또는 수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제시되어야하고 그 것이 구성원의 동의를 얻고 이해가 될 때 진정한 정신이 될 수있을 것이라 생각 됨.</p>
<p>【답변 3】J H S (행-49)</p>
<p>서양에 30여년을 살면 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표현의 방법만 다를 뿐 인간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통사상을 반영하고 예의 와 엄치를 가르키고 더욱 깊고 심오한 정신적인 철학을 담았으면 합니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3】 C S H (행-50)
<p>혹시 최종 결론이 최홍희의 5대 정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시작부터 최홍희의 5대 정신을 염두에 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p> <p>정신, 덕목이라고 하는 것도 학문에 따라서 그 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으나 어떻게 분류하든 그 개념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서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전통사상을 기반으로 신인류가 추구해야 할 이념과 가치체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따라서 그렇게 정립된 이념과 가치체계를 전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태권도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결론적으로 새로운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p>
【답변 3】 C J G (행-51)
<p>이미 태권도 5대 정신이 국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기에 전혀 다른 새로운 방침의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p> <p>기존의 ‘태권도 5대 정신’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p>

구 분	내 용
<p>【주제 4】</p> <p>【질문 4】</p>	<p>‘공인’ 태권도정신의 하위 영역</p> <p>‘공인’ 태권도정신으로서 이념, 덕목, 심적 능력 중 어떤 하위 영역이 중요한지 또는 세 가지 하위 영역을 모두 포괄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답변 4】 K S C (지-01)	
<p>전 세계 태권도 인들이 통일된 태권도정신 아래 수련을 추구해야 한다면 단순명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10가지 정도로 구성하여 궁극적 이념, 이를 실천해야 할 덕목, 심적 능력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p>	
【답변 4】 K G S (지-02)	
<p>태권도정신에 포함된 이 뜻하는 세 가지 모든 의미 모두 다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공인’ 태권도정신 역시 사회적 덕목이나 심적 능력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념 영역의 가치들까지 포괄해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 는 견해에 동의합니다.</p>	
【답변 4】 G K O (지-03)	
<p>공인 태권도정신을 논하자면 세가지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첫째, 둘째로 구분을 지을 것이 아니라 이제가지를 아울러 5개에서 10개 정도의 공인 태권도정신을 만들어 전 세계태권도인이 숙지하고 이행 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좋을듯하다.</p>	

【답변 4】K K M (지-04)
태권도정신을 한가지의 하위영역으로 정하기보다 세 가지 하위영역을 모두 포괄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4】K M S
한국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이념을 기초로 해서 예의 등의 사회적 덕목과 인내 등 심적 능력을 두루 포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 4】K Y H (지-06)
<p>대한민국은 단군의 후예로서 弘益人間을 건국이념으로 세웠으며, 따라서 유교의 영향을 받아 五德 <仁義禮智信>을 중요시 하며 국가의 질서를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p> <p>이런 여러가지를 감안할 때 인간 사회에서는 이념, 덕목, 심적 능력등 모두 좋은것이 태권도를 하면서 <1.좋은 생각 2.좋은말 3.좋은행동>도 생각한바 있습니다.</p> <p>태권도 정신이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너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은 일선에서 받아 들이기 쉽지 않아 가장 쉽고 평범한 내용을 생각한 것입니다.</p>
【답변 4】K J J (지-07)
태권도는 우리가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기스포츠로서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따라서 태권도에 한민족의 전통사상 등의 태권도의 철학이 담긴 이념과 사회적 덕목, 심적 능력이 포괄된 태권도의 정신이 이유 있다고 본다.
【답변 4】K T S (지-08)
<p>저는 위 3가지 정신 중에 덕목을 중요시하고 싶군요.</p> <p>너무 많은 것을 원하다보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다든지 자기 밥도 못 찾아먹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p> <p>마치 예수나 부처처럼 무조건 모든걸 다 용서하고 양보하는 것보단 하늘의 이치라든가 도리를 잘 가르쳐 덕을 쌓고 세상을 반듯이 순리대로 살아감이 올바르고 진실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모든 이들이 이 말을 깨달을 수있다면 가장 좋은 세상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p>
【답변 4】P J H (지-09)
모든 상품에는 생산 국가와 생산 회사가 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운동에도 생생 나라가 있고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세계화된 태권도 정신에, 추구해야 할 이념을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으나 인내, 용기 등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므로, 태권도 정신 영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답변 4】S M H (지-10)
태권도정신을 기준으로 하위영역인 이념, 덕목, 심적 세가지 하위 영역을 모두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4】 S S D (지-11)
<p>첫 번째로 산에 가면 울창한 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많다고 해서 모두 산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사상이나 이념 굳이 태권도가 말해주지 않아도 전통이라는 개념아래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역사로 때로는 문화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산에 나무가 많은들 토양의 질이 좋지 않으면 보기 좋은 나무들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즉, 마음이 없는 실천덕목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실천한다면 본인 마음에 가식된 행동과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거짓된 망상 행동들이 즐비 할 것이라 봅니다. 태권도 수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태권도정신은 심적능력을 배양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적능력은 나무를 키울 수 있는 토양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의 목적을 심신단련에 둔다면 심적능력은 태권도정신의 주(主)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ITF의 태권도 5대정신 또한 심적능력을 많이 제시 해 놓은 이유도 이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태권도장에서 태권도정신을 가르치고, 지도자가 또는 제자들이 태권도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배워야한다면 심적능력을 가장 많이 가르쳐야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p>
【답변 4】 S B H (지-12)
<p>태권도 하면 - 자신감 예절, 발표력, 인내, 용기 등등 연구결과 수련 후 너무 많은 것들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정신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 정신 학술회가보면 거의 비슷한 것을 나열해 놓고 태권도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설문지를 통해 데이터 수치일 뿐이고 연구결과 이므로 심도 있는 태권도 정신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p>
【답변 4】 S B A (지-13)
<p>세 가지 하위 영역이 반영되면서 현대화 된 태권도의 정신을 확립했으면 합니다.</p>
【답변 4】 A Y T (지-14)
<p>앞서 기술하였듯이 진정한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수련 과정을 통하여 얻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무도로서의 태권도가 무엇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덕목과 심적 능력 등은 태권도 수련과정을 통해 충분히 체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p>
【답변 4】 A J R (지-15)
<p>다 포함해야 한다.</p>
【답변 4】 Y T K
<p>물론 3가지 영역이 다 중요합니다. 이제 태권도는 우리만의 태권도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대중지향스포츠로 성장하였습니다. 세계인이 향유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은 ‘남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철학입니다. 그 홍익철학은 태권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화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 안에 우리나라의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정립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하위영역에 3가지 덕목을 포함 시켜야 합니다. 태권도는 태권도 정신을 통해 태권도 수련자 개인의 행동철학이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건강을 위하고, 사회성도 키우고, 그 속에서 배려심도 키우는 그러한 영역이 들어가야 합니다.</p>

【답변 4】I B S (지-17)
<p>세가지 하위영역을 모두 포괄해야 하지만 첫째 홍익인간 인류공영 태권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이념으로 제정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p>
【답변 4】I H S 2 (지-18)
<p>먼저 개인적인 견해는 세 가지 하위 영역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통 이념과 철학이 깃든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의 세계화와 국제적인 올림픽 경기종목 채택과 더불어 단지 태권도 수련자의 마음가짐과 인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화적인 태권도의 이념과 가치가 표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의 중심은 전 세계가 추구하는 이념과 태권도 정신의 이념이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홍익인간의 이념, 인류공영의 공동체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p>
【답변 4】I H S 1 (지-19)
<p>태권도정신의 하위 영역과 관련하여 모두가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수련자가 실천해야할 사회적 덕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구성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일상의 수련에서 인지 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으면 함,</p>
【답변 4】J D W (지-20)
<p>개인적으로의 생각은 세 가지 영역을 모두 포함시키고 뜻 풀이를 어렵지 않게 표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p>
【답변 4】J S I (지-21)
<p>3번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념, 덕목, 심적 능력이라는 약간은 추상적으로 상징적인 부분을 상위 즉 광의적 요소로 두고, 태권도 종목을 세부화하여 (겨루기, 품새, 격파, 시범 등) 수련생들과 비 태권도인의 관계에서 이해 할 수 있는 협의이고 보편 타당하게 이해 할 수 있는 하위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언하면, 짧은 소견에 이 문구가 떠오른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태권도 수련을 위해,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태권도 정신으로서의 하위 영역 중 심적 능력은 ‘수신’이 될 것이고, 덕목 능력은 ‘제가’가 될 것이고, 이념 능력은 ‘치국평천하’ 즉 모든 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홍익인간, 인류 공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이념, 덕목, 심적 하위 영역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포괄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수련의 성장 과정이라 하는 것 또한 어떻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p>
【답변 4】J I C (지-22)
<p>세가지 영역이 다 포함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권도를 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갈고닦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학집요(聖學輯要)”나 “대학(大學)” 같은 유학의 경전들을 보면 어느 한 분야에만 치우쳐있지 않습니다. 성학집요(聖學輯要)의 경우 chapter 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고하니, 수기(修己), 정가(正家), 위정(爲政) 이런식으로 먼저 크게 분류가 되고난 후에 수기(修己)- 1.입지(立志) 2.수렴(收斂) 3.궁리(窮理) 4.성실(誠實) 5.교기질(矯氣質) 6.양기(陽氣) 7.정심(正心) 8.검신(檢身) 9. 회덕량(恢德量) 10.보덕(輔德) 11.돈독(敦篤) 12. 수기공효(修己功效) 정가(正家)- 1.효경(孝敬) 2.형내(刑內) 3.교자(教子) 4.친친(親親) 5.근엄(謹嚴) 6.절검(節儉) 7.정가공효(正家功效)</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위정(爲政)- 1.용현(用賢) 2.취선(取善) 3.식시무(識時務) 4.법선왕(法先王) 5.근천계(謹天戒) 6.입기강(立紀綱) 7.안민(安民) 8.명교(明教) 9.위정공효(爲政功效)

위와같이 큰 항목의 하위영역들이 제시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大學)”은 왕의 정치철학에 관련된 책으로써, 우리가 잘 아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가 이 책의 “(정치)8조목” CHAPTER 에 해당됩니다.

덕목의 분류에 있어 참고하시라고 제가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첨부합니다.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태도와 겉으로 드러나는 자세 두 측면을 분류한 내용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국어사전에 보면 ‘태도=자세’, ‘자세=태도’ 로 해석이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무단 복제나 사용을 금합니다.

배우는 사람의 태도(態度)

정심(正心)	- 바르게 먹은 마음
청심(淸心)	- 맑은 마음
명심(明心)	- 밝은 마음 (정명(淸明)으로부터 온다)
하심(下心)	- 낮은 마음
명심(銘心)	- 마음에 새김
열심(熱心)	- 뜨거운 마음

배우는 사람의 자세(姿勢)

정안색(正顔色)	- 얼굴 빛을 바르게
공사기(恭辭氣)	- 말하는 기세를 공손하게
근신(勤愼)	-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조심 (삼감)
실행(實行)	- 배운 것을 행함

이제부터는 저의 사견입니다만,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배경설명] 본문에 나오는 덕목이라는 용어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덕목이라는 것은 어떠한 덕스러움, 덕스러운 모습, 덕의 항목을 말합니다.

때문에 덕목은 사회적 덕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 수기(修己)를 통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과 관련한 덕목도 있습니다. 인내와 용기는 심적(心的)능력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사적(思的)능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한 것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내나 용기는 인간의 마음 그자체로부터 나오는 항목이라기 보다는 교육과 새김에 의해 먼저 생각에 자리잡고, 그 후에 그것이 새겨지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내와 용기를 갖고 태어나지는 않지요.

또한 ‘심적능력’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생각과 마음에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심적능력’이라는 용어는 마치 영어를 번역한 듯한 용어로 느껴집니다.

차라리 덕목 하나에 사회적 덕목, 개인적 덕목 등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도 영어권이냐 기타 다른 언어권이 아닌, 한국 문화권의 사고와 그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한국어의 특성상 과반수 이상이 한자이고, 특별히 태권도의 정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의미를 단 몇자에 함축할 수 있는 한자용어가 사용될 것이므로, 한자로 된 용어와 우리 토속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용하

<p>고자 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립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p> <p>한국은 유학의 계통이 끊겨버린 상황에서 단기간에 무분별한 서구문화 도입이 이루어지다 보니, 전통문화와 언어가 변질되고 훼손되어 버렸습니다.</p> <p>그래서 국립국어원이나 기타 국어사전에도 누락이 되거나 혹은 말도 안되게 해석된 용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과반수 이상이 한자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국어대사전을 만들 당시 자본금의 한계로 인해 유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p> <p>가끔 여러 학회의 논문에서 한자로 된 용어들을 무분별하게, 맞지않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마치 태권도 전문가가 아닌 타무술 전문가가 태권도복과 호구를 착용하고 겨루기 스태를 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습을 국가대표 코치가 보면 어떨까요?</p> <p>이번에 태권도정신을 만드는 것이 태권도를 위한 백년지대계라 생각하고, 이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오랜기간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용어에 관련해서는 한자가 많이 쓰일것이므로 유학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답변 4】 C S J (지-23)</p>
<p>태권도 정신이 외형적 의미보다 내적인 정신이 바로 태권도 정신이라 생각한다. 이념과 덕목이 중요하다. 도복을 입고 나쁜행동이나 거짓된 행동을 하지 못한다. 도복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도인으로서 품위, 정직, 배려에 대한 정의와 태권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답변 4】 W I S (지-24)</p>
<p>이념 속에 덕목, 심적 능력이 포괄되어지는 것 아닐까요?</p>
<p style="text-align: center;">【답변 4】 K M S (학-25)</p>
<p>첫째 추구하여야 할 이념 포괄 제정 홍익인간의 이념은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국조 단군의 건국이념으로 홍익인간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태권도정신은 새로운 문화태권도 창조하는 이념이 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답변 4】 K Y S (학-26)</p>
<p>정신 개념이 이념, 사회적 덕목, 심적 능력으로 나누어진다면 모두 포괄해야한다. 지금까지 태권도정신이라고 하면 사회적 덕목과 심적 능력 등 두 가지를 일컬어 왔지만 태권도가 세계화된 현 시점에서는 인류공영의 이념도 정신 요인 속에 포함되는 것이 좋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4】N C M (학-27)
<p>본 응답자는 태권도정신으로서 이념, 덕목, 심적 능력 이 세 가지 하위영역을 모두 포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태권도는 일차적으로 격투기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터득한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태권도를 하는 자 역시 한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써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권도수련자가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의미에서 사회적 덕목이 필요하다.</p>
【답변 4】N S H (학-28)
<p>관심 없음.</p>
【답변 4】S H S (학-29)
<p>국기원이 세계에 보급해야할 태권도정신은 사회적 덕목이나 심적 능력 보다는 이념 차원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덕목이나 심적 능력은 행동강령 차원에서 언급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이 모든 차원의 가치와 덕목을 포괄해도 좋을 것이다.</p>
【답변 4】S C
<p>의견 없음.</p>
【답변 4】Y J B (학-31)
<p>자칫하면 원래 하위개념인 “정신”을 상위에 두고 상위인 그 무엇을 “하위”에 들지 고민하는 모순을 안고 가는 것 아닌지? 이념, 덕목, 심적능력 세 가지 각각 하나만 해도 책이 한권은 될 것 같은 데(이들 각각에 대한 참고서적을 찾아도 수백 권이 될 듯), 이 큰 주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들(이념, 덕목, 심적능력)이 태권도 정신의 내용이 된다는 전제를 암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미 이 작업은 단순히 “이것이 태권도 정신이야”라고 하고 싶은 소박한 필요성의 출발점을 훨씬 넘어버리는 것 아닌가? 이것은 이 주제가 단순하게 “태권도정신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듯하다.</p>
【답변 4】U M
<p>When the taekwondo community talks about ‘virtues’, they simply cite Confucian virtues. Taekwondo’s ‘philosophy’ is a bewildering mix of Asian philosophies and religious or esoteric systems. The taekwondo community confuses or elevates Asian cultural norms and values with taekwondo philosophy, virtues, and mentality. The whole system should be simplified. Many of taekwondo’s philosophical points, especially, should be replaced with simple sport values.</p> <p>태권도공동체가 덕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단순히 유교의 덕들을 인용한다. 태권도의 철학은 당황스러운 정도로 많은 아시아의 철학들과 종교들과 밀교체계들의 혼합물이다. 태권도공동체는 태권도 철학, 덕목, 정신성 등과 아시아의 문화 규범 및 가치들을 혼동하거나 이것들을 부추겨 세운다. 전체 체계는 단순화되어야만 한다. 태권도의 철학적 요소들의 다수는, 특히, 단순한 스포츠적 가치들로 대체되어야만 한다.</p>

<p>【답변 4】Y U Y (학-33)</p>
<p>저는 이념과 덕목을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는 태권도의 수련자로서 국가, 타인, 사회에 대한 도덕·윤리적 규범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술로서 태권도의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신체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태권도 수련자들은 무인으로서 국가를 보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무술을 통해 국가를 보위하기가 어렵지만 무인으로서 국가를 지켜야 할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무강국(尙武強國)이라는 이념입니다. 또한 덕목적으로는 사회, 타인에게 의리(義理)라는 윤리적 가치관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양 고대에서부터 각 나라에서 색깔이 같은 무인 계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성격은 의리(義理)였습니다. 오늘날에 사회적 흐름에 따라 사람들은 의리라는 윤리적 가치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태권도 수련자는 무인으로서 의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p>
<p>【답변 4】L S J (학-34)</p>
<p>세 가지 다 중요함. 그러나 이념에 대해서는 너무 이상적이고 다른데에서도 사용 하는 것보다는 태권도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면 좋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인인간 보다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가정,이웃건강 상생, 사회기여등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와 닿을 수 있는 내용. - 사회에서 결여된 부분을 태권도를 통해서 가장 얻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도덕경,중용,고대 중국 고전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적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음
<p>【답변 4】L S Y (학-35)</p>
<p>태권도 공인정신 제정에 있어 하위영역도 대단히 중요하며 모두 포괄적으로 삽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는 “심신”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발달에 근원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태권도 정신의 하위영역도 태권도 수련자의 중요한 자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p>
<p>【답변 4】L J D (학-36)</p>
<p>반복되지만, 태권도정신이라는 말과 그에 따른 개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정신을 공인화 한다면, 최홍희 총재의 태권도 5대 정신을 공인화 하자는 것입니다.</p> <p>그러나 반드시 새로이 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이념”이나, “사회적 덕목”은 충분히 가변적이고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불변할 수 있는 인류의 영원한 “심적 능력”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p> <p>1천 년 전의 조상들이 전투와 싸움에 임하면서 자신감과 용기가 중요했고, 100년 전의 조상들에게도 자신감과 용기가 중요했으며, 2015년 오늘 날에도 여전히 자신감과 용기는 인간이 신체를 이용해 상대방과 겨룸에 있어서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는 종교인은 아닙니다만,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념은 성경에 나온 예수의 말씀일 것이고, 이슬람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란에 담긴 알라의 말씀일 것입니다. 혹여 이념적인 단어가 잘 못 사용될 경우, 문화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며 동북공정에 눈이 벌건 중국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국적인 유교, 한국적인 불교, 한국적인 도교(선)를 얘기해도 중국의 논리에 맞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있다고 생각합니다.</p> <p>하지만 태권도인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이념이나 도덕적(윤리적)이며, 사회적인 덕목이라 할 경우 국가원의 원훈이</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p>라면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 할지언정 어느 정도 부합할 것 같습니다.</p> <p>아울러 국기원 이지훈 박사님이 얘기하기도 했는데, 반드시 어떤 단어 단위의 정신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공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슬로건처럼 문장 단위의 정신도 필요하다면 채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Unifying the World with Taekwondo)”, 지금까지 들어본 표현 중에 가장 와 닿는 것입니다.</p>
<p>【답변 4】 I S J (학-37)</p>
<p>태권도의 정신과 이념, 덕목, 심적능력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영역구분 일까? 지금까지 태권도 정신, 가치, 이념은 태권도인 스스로 실천하기보다는 타인(아이들이 지켜야하는 도덕 율이었다. 세상의 모든 선(善)은 다 모아 놓고 덧칠해 놓으면서 자신을 제외한 타인이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강요하는 듯하다(물론, 태권도의 수련 층이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주요 대상이라면 강제적 규율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p> <p>정신과 이념은 실천을 전제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실천 없는 구호는 언제나 공허할 뿐이다. 그래서 ‘태권도 정신’ 이 지금까지 우리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한 이유이다. 태권도는 이제 연구자들께서 제시했듯 인류공영을 추구하는 보편 문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종교, 인종의 구분 없이 전 세계 모든 태권도 인들(성인포함)이 실천 가능한 가치들로 개발되어야하고, 특히 아이들과 성인들의 심적 능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역구분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p> <p>태권도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이고 그 안에 태권도만이 추구할 수 있는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우선 논의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차후, 이것을 토대로 청소년들에게 맞는 교육적 가치들이 분리되어 구성되었으면 한다.</p>
<p>【답변 4】 J S W (학-38)</p>
<p>‘이념’은 궁극적 가치를 표상하는 용어다. 태권도에 있어 근본이념은 불가결의 요소이다. 다만 본인은 이를 현재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근본가치 즉 <인간 존엄>과 내·외의 평화의 구현>이라 하고 싶다. ‘무(武)’를 아는 자, 진실로 평화를 희구한다. 한편 이 궁극이념의 하위 영역으로 사회적 덕목과 심적 능력을 배치하는 것은 나무랄 데 없다. 그러나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주변세계와 단절된 내적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인내와 용기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현되며 예의와 공정은 인격의 도야를 통해 비로소 발현될 수 있다.</p> <p>몸과 마음은 준별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서로를 몸과 몸짓, 그리고 말을 통해 인식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우러난다. 그러므로 태권도인은 몸의 수련을 통해 내적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외적으로는 ‘사회성’을 함양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경기와 시범, 도장에서 일상적 수련 등 태권도의 모든 국면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도 이에 알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2인 품새(맞춤 겨루기라 할 수 있다)’는 부상의 위험이 없으면서 좋은 기량을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맞는 게 두렵거나 몸이 약한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또 습득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즐겁게 동료와 스승과 제자로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 여기에는 속임수가 없다. 한편 경기에서는 얼마든지 속임수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승자는 ‘겸비함’을 미덕으로 삼음으로써 패자가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경기 규칙을 통해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태권도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단호히 심판의 권한으로 ‘실격패’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불공정한 심판의 퇴출 역시 태권도 정신이 엄정히 확립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p>

<p>【답변 4】C S G (학-39)</p>
<p>‘공인’ 태권도정신 역시 사회적 덕목이나 심적 능력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념 영역의 가치들까지 포괄해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답변 4】C U C (학-40)</p>
<p>태권도정신은 다양한 (영역이라기보다는) ‘층위’ 혹은 ‘차원’에서 바라보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태권도정신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그리고 우주적(인류적) 차원 등에서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 차원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보아집니다. 개인적 차원의 정신이 온전히 충족되어야만 사회적, 국가적, 우주적 차원의 성취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거창한 수준에서 홍익인간, 인류공영 등만 포함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수련자가 개인적 수준에서 자기와는 그다지 상관없는 정신이라고 생각해버리기가 쉽습니다.</p> <p>그런데, 태권도정신으로서 지나치게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어진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거시적인 여러 차원을 모두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 세 차원을 모두 포함할 때에 중요한 것들을 그냥 나열할 것인지? 좀더 나아가 몇 가지를 나열하고 그것들을 차원별로 (예를 들면, 수신제가치국평천하처럼) 순서지어서 제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할 것입니다.</p>
<p>【답변 4】H P (학-41)</p>
<p>유도, 카라테가 일본의 문화 정신을 대표하는 무술이라면 태권도는 한국의 문화 정신이 깃든 무술이다. 하지만 태권도정신은 국수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에 널리 퍼진 태권도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한다. 다시 말해서 태권도 수련이 단지 싸움하는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이념과 철학에 기초하여 단순히 개인의 수련 차원을 넘어서 사회의 안녕과 인류의 공용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가치는 문화적 문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추상적인 보편성이 아니라 문화에 뿌리박고 있는 구체적인 보편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태권도가 말하는 보편적인 가치는 한국의 고유한 전통사상, 예를 들어 홍익인간 개념에서 찾아져야 한다. 더 나아가 ‘공인’ 태권도정신은 이념, 덕목, 그리고 심적 능력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답변 4】K B Y (행-42)</p>
<p>태권도 정신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한국 전통 사상이나 이념, 덕목, 심적 능력 모두 포괄되어야 된다고 본다. 태권도 정신 영역은 조사지에 나온 세 가지 영역을 모두 포괄해야 된다고 본다.</p> <p>첫째, 역사적 한민족 전통사상의 흐름인 홍익인간 사상 선 사상, 화랑정신, 선비사상 등을 내포하고 그것들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주력해 나가야 된다. 전 세계에 있는 태권도 수련자에게 한민족의 전통사상과 혼을 직 간접으로 홍보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p> <p>둘째, 태권도 인의 바른 정신을 무도적 차원에서 교육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다. 노자가 그의 도덕경에서 “道生之 德畜之 友者 道之動”이라 하였다. 육체의 움직임엔 덕이 쌓인다는 것은 육체와 정신 관계를 말한 것이라 본다. 정신에 대한 바르고 일원화된 개념을 만들어 교육시켜야 된다.</p> <p>셋째, 태권도인은 강인한 육체와 기술을 겸비하기 위해 꾸준히 계속 수련해 나가야 된다. 따라서 바른 인간으로서 인류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간 정신, 평화 정신이 있어야 된다. 태권도 정신으로서 이념, 덕목, 심적 능력이 모두 포함된 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4】K H S (행-43)				
<p>태권도 강령과 태권도 정신을 구분해서, 태권도 강령 속에 태권도인의 육체적 강함, 덕목, 심적 능력을 제정하고, 태권도 정신은 이념적으로 정립하여 태권도 수련자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며 세계평화”를 구현 한다 는 뜻이 담긴 태권도 정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p>				
【답변 4】M I (행-44)				
<p>태권도정신의 궁극적 이념, 이를 실천하는 덕목, 태권도인들이 가져야할 심적 능력 모두를 포괄하여 전세계 태권도인들이 이를 바탕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p>				
【답변 4】P J H (행-45)				
<p>태권도정신에 대한 위계 구분이 필요합니다. 간략히 예시를 들어보면, ※ 위계 구분 예시</p>				
구분	제1수준	제2수준	제3수준	제4수준
층위	태권도계	기관/단체	소조직	개인
정신	범세계적	국기원	등록도장	지도자/수련생
수준	태권도를 통해 인류평화에 기여한다.		태권도인으로서 의 예의를 갖추고 모범을 보인다.	도전, 용기, 자신감, 책임의식
설명	<p>사상 또는 이념 수준 →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남 ← 왼쪽으로 갈수록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드러남</p>			
<p>국기원에서 제시해야 할 태권도정신이라 함은 제2수준에서의 태권도정신을 일컬으며, 기준처럼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찌하다.”라는 의미로 구성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p>				
【답변 4】B M G (행-46)				
<p>이념은 정치적인 측면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태권도를 하면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번영을 줄 수 있을까요? 뭐 다 틀리지는 않겠지만 이상적 추구... 즉, 과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할까요? 답변이 궁색합니다...</p> <p>개인적인 생각이 편견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p> <p>위 질문에 답해 드렸듯이 오랜 세월 시련을 극복했던 강한 인내력이 강한 정신적 역사가 되고, 후에 면도리가 되면서 자애롭고 후덕한 부분을 포함시켜 준다면 태권도의 역사성과 강인함 그리고 포용심이 어우러진 정신이 생성되리라 생각합니다.</p>				
【답변 4】Y G D (행-47)				
<p>사회적 덕목이 가장 중요하며, 사회적 덕목에 도덕성을 추가하면 좋을 듯합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도덕성에서 찾아야 하고, 인간의 본질은 그의 정신에 있고, 정신은 도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인 선비 정신도 도덕성을 추구하고 때문이다.</p>				

【답변 4】L J C (행-48)	
<p>하위영역이라는 표현을 굳이 써야 하는지? 하위 영역이라는 것 보다는 정신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구성요소 또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순서(체계)로 표현되는 것은 어떤가! 서열을 정하려 한다면 굳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 본다! 따라서 태권도정신이란? 태권도수련을 통해 여러 얻어지는 것 중 하나인 정신 또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으려는 여러 가지 것 중 하나인 정신을 얻는데 필요한 포괄적 개념의 구성 요소로 봐야 한다고 사료 됨.</p>	
【답변 4】J H S (행-49)	
<p>새로운 덕목이나 심적 능력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념 영역의 가치들까지 포괄해서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세가지 하위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p>	
【답변 4】C S H (행-50)	
<p>모두 다 중요하지요. 이념은 태권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상으로서 사실상 태권도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덕목이라 함은 그 이념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심적 능력이란 태권도를 수련하는데 필요한 마음가짐 또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과정에서 고양되는 정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하위 덕목과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고양되는 대표적인 정신력을 압축해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역의 구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논리와 영역을 구분하는데 사용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p>	
【답변 4】C J G (행-51)	
<p>모두 포괄하는 것이 좋겠다.</p>	

구 분	내 용
【주제 5】	‘공인’ 태권도정신의 근원
【질문 5】	귀하께서는 위 다섯 가지 중 ‘공인’ 태권도정신의 근거로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과 이유를 서술 바랍니다)?
【답변 5】K S C (지-01)	
<p>다섯째입니다. 태권도는 이제 세계인의 무술입니다. 한국이 태권도의 산모역할을 했다면 기술발전과 학문적 발전은 세계인들이 앞 다투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분야의 연구 또는 이론개발 조차 외국의 학자들 보다 그다지 앞서 있지 않은 상황 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변함없이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은 한국 전통사상에 근거한 무술이라는 점입니다. 훗날 세계의 태권도 인들이 진정한 태권도의 뿌리와 정신을 찾고자 한다면 당연히 한국을 방문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의 전통사상이 태권도정신에 깃들여져야 할 것입니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5】K G S (지-02)
태권도정신은 근거로서 위 다섯 가지 견해 모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가지 첨언한다면 태권도의 수련을 통해 수양을 쌓을 수 있으며 실천윤리 의식에 따른 도덕적 규범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답변 5】G K O (지-03)
각 사범마다 태권도정신을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며 수련생이 태권도를 배우며 느끼는 정신감정이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태권도정신을 논하자면 태권도 전문가의 힘도 필요하지만 동양철학의 개념, 올림픽이념, 스포츠이념과 태권도이념 등을 분석하고 정립하여 합의 일체를 찾아내는 일반정신을 연구하는 학자,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본다.
【답변 5】K K M (지-04)
'공인'태권도정신의 근거로써 5가지 중 2번과 4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의 내부적인 의미로는 2번의 의미가 가까우며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태권도의 위상으로 보면 4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5】K M S
태권도 기술 수련과 더불어 바람직한 태권도 정신을 얻겠다는 수련목적의 의식적으로 가져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 자아성취, 자아실현, 홍익인간 등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는 태권도정신의 근원으로서 위에 언급된 다섯 가지 근원들을 두루 포용해서 표현될 수 있는 태권도정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5】K Y H (지-06)
위의 5가지 내용은 모두 태권도 정신에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면서 태권도 종주국이 대한민국임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다섯째 한국 전통성과 접목 되어야 합니다. 불교의 나라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태권도 사범의 예화로써 수련생에게 도장에 들어 올 때 국기에 경례하라고 하니 못하겠다 하여 그럼 태권도를 배울 수 없다, 태권도가 한국에서 발생 되었는데 국기에 경례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장하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별개일수 없으므로 한국 전통과 접목됨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답변 5】K J J (지-07)
첫째는 태권도정신은 한민족의 전통사상이 반영된 한국전통성과도 접목되어야 태권도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런 철학적 사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종주국으로서의 태권도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태권도가 세계적 보급과 올림픽 경기로 전개되는 만큼 인류공영의 이상향을 성취하는데 기여해야 하므로 이런 관점도 정신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수들이 태권도 정신을 통해 스포츠맨십을 발휘 정당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태권도정신은 태권도인이 수련에 임하는 자세나 태권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일수 있습니다. 태권도인이 수련이나 경기활동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강인한 심신 배양과 자아성취를 이루 수 있는 목표가 태권도 정신이라고 봅니다.

【답변 5】K T S (지-08)
태권도정신 근거로는 우선 내 나라에 대한 충성심. 부모에대한 효도심. 인간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법보다는 도리와 순리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예의와 질서를 지킬줄 아는 사람으로 정신의 근거로 뒤야 좋을듯 합니다.
【답변 5】P J H (지-09)
스포츠 태권도는 다른 경기 종목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정신을 고취하고, 경기 규칙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태권도가 세계화된 이 때, 우리의 전통사상을 반영하여, 태권도 정체성을 구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답변 5】S M H (지-10)
태권도의 시작은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수련하고 있으며 태권도는 우리의 자랑이며 자긍심으로 한류의 바탕이라고 하겠습니다. 태권도정신의 근거 속에 한민족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전통성이 전략적으로 숨어 있어야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민족주의자적 발상이고 해도 태권도정신은 인류공영의 목적인 평화의정신이 있고 이것이 뿌리이면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5】S S D (지-11)
상황에 따라 두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첫째,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태권도정신은 태권도를 사랑하고 초지일관하는 태도로 평생 태권도 수련하거나 또는 태권도 번영을 위한 헌신적 행위를 실천 하고 또한 나아가서 태권도정신이라는 의미로 인하여 기꺼히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의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련생의 측면에서 태권도정신을 보면 수련이나 경기를 통하여 고난을 극복, 심신배양, 자아성취, 예의범절, 리더쉽배양 등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태권도 수련의 의미를 볼 때 변화되지 않은 개인의 정신적 가치관을 깨치려는 실천적 행동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변화,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이라는 끊임없는 마음 수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답변 5】S B H (지-12)
태권도인이 수련을 게을리 해서 태권도 동작이 잘 안되고 실력이 줄어도 태권도 정신만큼 살아 있어야 되며 그 정신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것이 공인 태권도 정신의 근거라고 생각 합니다
【답변 5】S B A (지-13)
개인적으로 지도자의 관점에서 “둘째, 태권도 정신은 수련자가 수련 경기 활동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강인한 심신 배양과 자아성취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덕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지도하는 관점에서 태권도를 통해 발전되어가는 모습이 제일 크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5】A Y T (지-14)
앞서 기술하였듯이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수련 과정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자아성취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기인한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한 근거라고 사료된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5】A J R (지-15)
<p>넷째, 인류공영의 이상형을 성취하는데 기여 다섯째, 한민족의 전통사상이 반영된 한국전통성과도 접목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글로벌한 세상이다. 태권도는 누구 한사람보다는 지구촌전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념과 종교에 대한 편해가 더해가는 지금 태권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또한 태권도는 우리의 랜드마크인 만큼 한민족 전통사상이 한두 가지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답변 5】Y T K
<p>본문에서 ‘어떤 지도자나 학자가 태권도의 어떤 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태권도정신의 지향점이나 구성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견해와 ‘태권도정신은 당연히 태권도 수련이나 본질 또는 특성으로부터 기인한다.’ 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는 태권도 수련을 하는 사람만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 태권도정신’은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태권도 수련자가 태권도를 수행하면서 다져지는 정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보더라도 ‘아! 그렇구나, 태권도를 하면 이런 면이 향상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국악인의 말처럼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라는 말과 같이 한국을 떠난 태권도는 존재할 수 없는 정신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p>
【답변 5】I H S 1 (지-17)
<p>“태권도에 대한 수련자의 투철한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련자가 투철한 열정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고난을 극복하고 자기보호 능력을 완성해 갈 때 태권도에 대한 애착과 의지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나아가서 자아성취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답변 5】I B S (지-18)
<p>넷째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체육이기 때문입니다</p>
【답변 5】I H S 2 (지-19)
<p>다섯 가지 논리 중 세 번째가 우선되어야 한다. 태권도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손기술과 발기술 등 태권도를 동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극한 수련과장을 거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을 알 수 없다. 첫 번째 항목 : 정신, 열정, 열렬한 사랑, 평생수련, 지도, 헌신적 행위에 이를 수 없다. 두 번째 항목 : 고난극복, 강인한 심신배양 과정에 이를 수 없다. 네 번째 항목 : 올림픽 경기 종목은 태권도 뿐 만이 아니다. 경기 종목에 특성상 이상에 이를 수 없다. 다섯 번째 항목 : 한민족 전통사상 한국 전통성 접목은 태권도 정체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태권도는 기본적으로 행동철학이다. 9단 입신의 경지까지 도달하기 위해 보고 배우며 행동으로 습득하는 과정 중에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 - 위 5가지 항목중 3번째 항목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함. 태권도를 동작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이의 동적 표현임. 기의 표현은 정적 표현 기술과 이론 2가지가 구체적으로 연관되어야 바른 태권도 수련과정에 이를 수 있다. 태권도는 태권도로서의 분명함이 있어야 한다. 말로 가르치니 따지고 행동으로 가르치니 따르더라는 글과 같이 태권도는 시작도 행동이며 마지막도 행동이라 생각한다.</p>

【답변 5】J D W (지-20)
의견 없음
【답변 5】J S I (지-21)
<p>우선 위에 언급된 배경지식 중 다섯 가지로 정리된 태권도 정신에 깊은 공감과 큰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행위의 실천과 수련과정, 그리고 그 과정의 구체성, 그 후 이 세 정신 수련 과정을 통해 자아 성찰된 단계에서의 타인에 대한 조명, 멀리는 인류 공영이라는 이상향의 성취, 끝으로 태권도의 뿌리인 한민족의 전통성은 태권도를 수련하는 이로서 다시 한번 깊은 공감을 느끼게 하며,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생각한다.</p> <p>그렇지만 현장에서 도복을 입고 수련생을 지도하는 지도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둘째와 셋째인 것 같다. 수련생들에게 수련과정중 느낄 수 있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극기심과 심신배양, 또한 태권도 수련의 큰 맥인 겨루기 수련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닌, 상대에 대한 예의와 배려 즉 이타심을 배우고, 상대에 대한 범위를 보다 넓혀, 상대를 부모라 생각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 그리고 상대를 나라라 생각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충 정신까지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도자로서 바른 태권도 기술의 원리를 연구, 체득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스승의 모습이라 생각한다.</p>
【답변 5】J I C (지-22)
<p>가장 중요한 근거는 태권도 그 자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측면만 중요하게 부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p> <p>위에 언급한 것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태권도 정신의 항목들과 영역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것은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답변 5】C S J (지-23)
<p>태권도 정신의 중요한점을 찾으려면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p> <p>태권도 수련자가 다년간 수련을 하면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느끼는 사고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신이라 할수 있다.</p> <p>기술적인 면보다 대외적인 면보다 중요하다고 말할수 있는데 그것은 태도, 행동, 말의 표현등으로 나타난다.</p>
【답변 5】W I S (지-24)
<p>연구자가 제시하신 다섯 가지의 내용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셋째항의 ‘발차기 위주의 원리나’라는 설명은 자칫 태권도 기술이 차기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p>
【답변 5】K M S (학-25)
<p>태권도를 수련 함으로서 수련자 자신이 체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투철한 열정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수련은 몸과 마음의 성장에 근거하는 것이 중요하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5】K Y S (학-26)
<p>‘공인 태권도정신’의 근원은 당연히 태권도의 본질이나 특성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경설명에 나온 셋째 항인 기술 연관성을 제외한 네 가지가 중요하다. 기술 연관성을 공인 태권도정신 근거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태권도 기술과 정신은 각각 특성과 차원이 다른 영역이므로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태권도인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술을 정신에 접목시키는 주창자 개인의 사변적이고 관념적 설정 때문에 강렬한 주관성의 틀 속에 갇히게 되어 다른 태권도인들로부터 보편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예컨대 ‘한철학의 기술 관련성’, ‘삼재강유론’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기술 연관성보다도 태권도 수련에 대한 열렬한 애착심이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아성취를 위한 과정이 정신에 반영되어야 한다. 정신 능력이나 사회적 덕목과 더불어 올림픽 이념이나 세계적 이상향과도 결부될 수 있는 한국 특색이 갖는 사상이나 숭고한 이념도 반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p>
【답변 5】N C M (학-27)
<p>본 응답자는 ‘공인’ 태권도정신의 근거로서 첫째, 둘째, 넷째 관점에서 기인한다는 견해이다. 그 이유는? 태권도 정신은 수련자가 태권도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강인한 심신 배양과 자아성취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생겨나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태권도에 대한 수련자의 투철한 열정이 생기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태권도에 헌신하는 사명감이 함양될 수 있다고 보며, 그렇게 될 때 태권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p>
【답변 5】N S H (학-28)
<p>첫째 근거에 준하며 태권도정신은 수련자가 꾸준한 수련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p>
【답변 5】S H S (학-29)
<p>역사성과 사회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태권도정신은 한국의 전통사상 가운데(역사성)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시사성을 지닐 수 있는(사회성) 이념이나 덕목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p>
【답변 5】S C
<p>As I said above, taekwondo's educational values (정신?) can only be learned from 1) the experience of training and competing and 2) the lessons found in the training culture (interaction with instructor/coach, seniors, juniors, training partners, etc). That is why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at “공인” taekwondo is. 겨루기위주로 한 태권도 and 소위 전통 태권도 수련 방식, 수련 목적, 동반되는 문화와 환경 are very different and contain different values. The question of which ones are the most important to, and representative of, taekwondo must be answered before any definitive definition of taekwondo spirit can be made.</p> <p>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들(정신?)은 오직 첫째, 수련 및 경쟁 경험, 둘째, 수련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레슨(지도자/코치, 선배, 후배, 수련 동료 등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배워질 수 있다. 이것이 공인 태권도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이다. 겨루기위주로 한 태권도와 소위 전통 태권도 수련 방식, 수련 목적, 동반되는 문화와 환경은 매우 다르며 상이한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단정적인 태권도정신의 정의가 만들어질 수 있기 전에 먼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대표적인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먼저 대답되어야만 한다.</p>

<p>【답변 5】 Y J B (학-31)</p>
<p>그렇습니다. 이처럼 태권도정신이라는 것이 (만약 성립 가능하다면) 다양한 근거, 다양한 사고로부터, 다양한 맥락으로 나타나거나 주장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몇 사람에게 물어서 다수결로 정하여 무엇이 중요한지 규정하려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오늘과 같은 다원화한 상대적 가치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의 질문은 무리가 있는 듯. 오히려 이 밖에도 어떤 맥락에서 태권도 정신이 나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할 듯.</p> <p>과연 여기에서 “근거”라는 개념이 적절한지? 태권도정신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탐구하고자 할 때, 그 사색의 범위가, 관련 개념, 영역들의 한계가? 과연 어떻게 접근하여 어떠한 개념적 맵을 그려야 할지? 가장 기초적인 Brain Storm과정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p>
<p>【답변 5】 U M</p>
<p>Because I don't believe in the necessity of an official version of the taekwondo spirit, I have no answer. 나는 공식적인 태권도정신 버전의 필요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게 없다.</p>
<p>【답변 5】 Y U Y (학-33)</p>
<p>저는 다섯 째, 태권도정신은 한민족의 전통사상이 반영된 한국전통성과도 접목되어야 태권도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찬성합니다. 오늘날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 또는 올림픽종목이 되면서 스포츠로서 매우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기(國技), 대표무술로서의 정체성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태권도정신에 대해서는 동양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것은 태권도의 정체성, 그리고 무(武)적인 성격을 강하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답변 5】 L S J (학-34)</p>
<p>세 번째 기술적 요인과 연관된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 됨. 태권도 수련속에서 얻어지는 정신적 가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다른 것들은 축구를 하면서도 얻을 수 있음</p>
<p>【답변 5】 L S Y (학-35)</p>
<p>태권도 정신의 근원은 태권도의 유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태권도인의 정신세계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런 관점에서 정신세계는 수련자의 자아고난을 극복하고 강인한 심신배양과 자아성취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태권도정신이 근원이 된다고 생각한다.</p>
<p>【답변 5】 L J D (학-36)</p>
<p>토를 다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질문에서 보면 “어떤 지도자나 학자가 태권도의 어떤 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태권도 정신의 지향점이나 구성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과연 태권도 정신이 지도자나 학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태권도정신은 그러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태권도정신을 통일할 필요성이나 방향성을 찾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즉 임의로 태권도정신을 통일한다고 그것이 통일되거나 몇 마디 단어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p> <p>연구자분들께서 의도한 바와 같이 공인 태권도정신을 제정하신다면, 둘째, 태권도정신은 수련자가 수련 또는 경</p>

■■■ 태권도 정신세계에 관한 연구

<p>기활동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강인한 심신 배양과 자아성취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만약 국가원의 원훈을 정립하는 관점이라면,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과 같이 넷째, 태권도가 세계적 보급과 올림픽 경기로 전개되는 만큼 인류공영의 이상향을 성취하는 데 기여해야 하므로 이런 관점을 정신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p>
<p>【답변 5】 I S J (학-37)</p>
<p>의견 없음.</p>
<p>【답변 5】 J S W (학-38)</p>
<p>한국은 이미 다원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다. 전통 사상은 계승하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생각건대 발상지의 특수성과 세계화의 보편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이념적 지평을 특정 용어로 적시하는 것이 지난한 일이긴 하나 방향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 기술과 관련하여 태권도 정신을 정립하는 것은 그 역도 성립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합기도가 경기화를 두고 내부적 논란을 벌인 것이 좋은 예다. 태권도가 호구를 착용하고 풀 콘택을 하게 한 것, 주먹으로 얼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기술에서 필연적으로 연역된 것이 아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태권도의 보급이라는 의식이 존재를 규정한 것이다.</p>
<p>【답변 5】 C S G (학-39)</p>
<p>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한민족의 전통사상이 반영된 한국전통성과접목되어야 태권도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p> <p>이는 곧 태권도가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무술인 동시에 정신수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보다 강한 기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라는 무술을 ‘태권도정신’에 입각하여 수련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답변 5】 C U C (학-40)</p>
<p>질문 1에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실천전통’ 또는 ‘문화’로서 태권도의 성격에 근거를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Alasdair MacIntyre(1984)가 주장한 ‘실천전통’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확립된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 내적인 가치, 덕, 탁월성의 기준, 규칙에 대한 복종, 역사적 전통의 발전, 구성원의 성장 등의 특징(기준)을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유재봉 2002; 홍은숙, 2007). 태권도가 하나의 실천전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야만 하며, 이 기준들이 정신이 찾아질 수 있는 ‘근거’로서 보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p> <p>이 기준들이 질문5에서 제시하는 5가지 근거들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내적인 가치, 둘째는 규칙에 대한 복종과 탁월성의 기준, 셋째는 사회적으로 확립된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 넷째는 덕, 다섯째는 역사적 전통의 발전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p> <p>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만 태권도는 태권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중요한 근거, 근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굳이 나누라면, 태권도 자체를 중심으로 외적인 근거와 내적인 근거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으며, 보다 본질적으로 내적인 근거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가 시작이고, 둘째, 그리고 다섯째의 순서로 근거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첫째와 넷째는 외적인 근거인 것 같습니다.</p>

<p>【답변 5】 H P (학-41)</p>
<p>배경설명에서 제시된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에 나타나는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수련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활동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태권도 정신의 고유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태권도 정신의 고유성은 다섯 째 근거에서 더 명확하게 발견된다. 왜냐하면 “태권도정신은 한민족의 전통사상이 반영된 한국전통 성과도 접목되어야 한다”는 다섯 번째 근거는 한국의 고유한 정신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럽에 기독교 정신이 있고 중국에 유교 정신이 있고 또한 일본에 무사도 정신이 있다면 한국에는 태권도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정신이 올바르게 확립되기 위해서는 이 점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태권도 수련은 단순한 격투기를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무예를 수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고유의 무예 태권도에서 태권도정신이 기원한다. 태권도 정신에서 한민족이 전통사상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고유의 태권도정신은 한민족의 전통사상을 무시하고서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p>
<p>【답변 5】 K B Y (행-42)</p>
<p>태권도 정신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한국 전통 사상이나 이념, 덕목, 심적 능력 모두 포괄되어야 된다고 본다. 태권도 정신 영역은 조사지에 나온 세 가지 영역을 모두 포괄해야 된다고 본다.</p> <p>첫째, 역사적 한민족 전통사상의 흐름인 홍익인간 사상 선 사상, 화랑정신, 선비사상 등을 내포하고 그것들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주력해 나가야 된다. 전 세계에 있는 태권도 수련자에게 한민족의 전통사상과 혼을 직 간접으로 홍보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p> <p>둘째, 태권도 인의 바른 정신을 무도적 차원에서 교육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다. 노자가 그의 도덕경에서 “道生之 德畜之友者 道之動”이라 하였다. 육체의 움직임엔 덕이 쌓인다는 것은 육체와 정신 관계를 말한 것이라 본다. 정신에 대한 바르고 일원화된 개념을 만들어 교육시켜야 된다.</p> <p>셋째, 태권도인은 강인한 육체와 기술을 겸비하기 위해 꾸준히 계속 수련해 나가야 된다. 따라서 바른 인간으로서 인류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간 정신, 평화 정신이 있어야 된다. 태권도 정신으로서 이념, 덕목, 심적 능력이 모두 포함한 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p>
<p>【답변 5】 K H S (행-43)</p>
<p>4번 문항과 비슷한 질문이다.</p> <p>이번 과제를 태권도 정신만 다루지 않고, 태권도 강령과 태권도 정신을 함께 다루어 정리를 하면 더 훌륭한 과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나누어 정리를 하면 강령에 위 다섯 가지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귀납법적 접근으로 강령이 잘 정리가 되면 정신은 태권도 인이 추구하는 이념으로 정리가 되어도 좋을 것 같다.</p>
<p>【답변 5】 M I (행-44)</p>
<p>한국이 태권도의 국기인 만큼 태권도의 역사와 정신은 한국전통성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태권도의 뿌리는 한민족의 전통사상이 반영된 무도이다. 태권도의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수련자들이 태권도정신의 근본을 알지 못한다면 진일보 하지 못 할 것이다. 때문에 ‘공인’태권도정신의 근거로서 한국의 전통사상이 반영되어야 한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5】P J H (행-45)
<p>다 중요합니다. 단지, 질문 4에서 답변한 것처럼 수준이 다르게 구분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진의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p>
【답변 5】B M G (행-46)
<p>태권도 정신의 근원은 절대적으로 행동과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석기시대로 거슬러 예를 든다면 야생동물과 견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기기 위한 또는 동물을 잡기위한 체력과 정신 무장이 필요했을 겁니다. 따라서 모든 근원은 할 수 있다는 정신에서 나오며 이러한 정신이 없다면 절대로 행동에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의 예를 든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여러 힘든 여건을 극복하는 것이 육체수련을 통한 정신수련이고 하겠다는 정신에 기인된 행동실천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도 태권도 정신적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주관으로는 두 번째가 가장 가까운 태권도 정신의 근원이라 생각합니다.</p>
【답변 5】Y G D (행-47)
<p>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모든 종목의 무도가 추구하는바가 다를 수 없기에 당연히 다섯 째 입니다. 태권도하면 한국이란 등식이 성립되는 한국을 대표하는 운동으로써 그 근원을 뒤야한다. 그 내용으로 겸손을 꼽고 싶다. 겸손이란 예로부터 심신의 수양과 대인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중요시해 왔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다. 무조건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모자람을 이야기하는 것 이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둔 것이 존중이다.</p>
【답변 5】L J C (행-48)
<p>위 다섯 가지 모두를 포함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영역의 확대도 추천 합니다.</p>
【답변 5】J H S (행-49)
<p>태권도 수련이 궁극적으로 참 인간이 되어갈 수 있는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인류 공영에 이상행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며 가능한 한국의 전통성과 접목을 할 방법을 찾아야 될것이라 생각 됩니다. 갓 쓰고 도포입고 자전거 타는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며 우리의 전통 사상과 어떻게 접목을 해야 하는지는 학자들의 깊은 생각이 필요할듯 합니다.</p>
【답변 5】C S H (행-50)
<p>1번 질문지의 답에 대한 연장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한국의 전통사상을 기반으로 한 인류공영의 이상향 이유: 이념과 사상은 어느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상적인 근원이 있기 때문임 둘째,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심신의 변화 이유: 태권도는 몸의 움직임을 통한 실천적인 행동양식이기 때문임.</p>

【답변 5】C J G (행-51)	
<p>태권도 정신은 수련생이 태권도를 통하여 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태권도 정신은 수련자가 수련과 경기 활동 등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심신배양과 자아 성취의 목표를 이루려하는 것이 중요하다.</p>	

구 분	내 용
【주제 6】 【질문 6】	<p>‘공인’ 태권도정신의 언어 형식과 내용의 규정 단어나 문장 등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에 준해서 귀하께서는 ‘공인’ 태권도정신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p>
【답변 6】K S C (지-01)	
홍익인간, 파사현정, 경천애인	
【답변 6】K G S (지-02)	
태권도 정신은 “기술의 소산으로서 예, 의, 인,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답변 6】G K O (지-03)	
<p>‘공인’ 태권도정신의 언어적 형식과 내용의 규정 현 시대와 현대인에 맞는 언어로 태권도정신을 만들어 전세계태권도인들이 한마음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듯하다.</p>	
【답변 6】K K M (지-04)	
태권도정신이란 예의, 신념, 가치, 백절불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시작과 끝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6】K M S	
태권도 정신은 “홍익인간 정신을 구현하기위한 자기수양이다”.	
【답변 6】K Y H (지-06)	
<p>태권도 수련에 있어서 위 이경명씨의 정의대로 그 목적은 인간적 성취와 상생 정신이란 표현을 압축하면 弘益人間을 나타낸 것이며 위의 안용규, 이창후의 내용은 수련의 세부지침이며 목표를 향한 행동지침이라 보입니다. 그러므로 [좋은생각, 좋은말, 좋은행동]은 어떨까 생각합니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6】K J J (지-07)
<p>‘태권도정신’은 누구나 태권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플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도적 측면과 경기스포츠적 측면 생활스포츠로서의 의미를 담아 우리고유의 4자 성어를 인용 3가지로 제안해봅니다.</p> <p>첫째.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혼과 태권도 기원의 철학적 의미를 담아 정신수양을 통한 내면적 인간상을 구현하는 무도적 측면의 정신 이념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 단군신화에 의하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이며</p> <p>둘째. 올림픽종목의 경기스포츠로서 스포츠맨십과 감투정신 인류평화, 화합, 평등의 올림픽정신에 부합하는 사회적 덕목으로 “공명정대”(公明正大 하는 일이나 행동이 아주 공정하고 떳떳함)가 좋을듯하며</p> <p>셋째. 생활스포츠로서 태권도를 통한 전인교육은 교육철학에서 기원하는 것이며, 특히 어린수련자의 전인교육은 태권도장에서 접하는 태권도정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심적 능력으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다섯 가지의 도리. 곧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이다. 어질고, 의로우며, 예절을 지키고, 지혜롭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이 부합하다고 봅니다.</p>
【답변 6】K T S (지-08)
<p>충.효.정직.근면.순리에 따라 세상을 살자</p>
【답변 6】P J H (지-09)
<p>태권도는 인사에서 인사로 끝나며, 언제나 바르게 지르고, 바르게 차는 동작으로서, 다른 운동 종목에 있는 도루나 폐인팅 같은 동작이 없다. 그리고 적의 공격이 있을 때만 방어하고 공격하는 품세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권도 정신은 예의, 정의감, 배려심이라고 정의하고 싶다.</p>
【답변 6】S M H (지-10)
<p>태권도정신은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자신의 평화를 지키고, 외부의 침략이나 전쟁으로부터 가족과 국가를 지키는 평화의 정신이다.</p> <p>태권도정신은 평화이다.</p>
【답변 6】S S D (지-11)
<p>현재까지의 질문 중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공인’태권도정신을 본인의 견해로 정의내려보겠습니다.</p> <p>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상징화 하고 동,서,남,북/하늘,바다,해,달을 형상화 해서 4가지의 덕목을 정의내려볼까합니다.</p> <p>동(東)으로는 하늘과 같은 높은 마음을 가진 민족이라 하여 예의(禮義) 서(西)로는 땅과 같이 자연속의 거짓이 없음을 뜻하는 정의(正義) 남(南)으로는 해와 같은 열정과 강인함을 뜻하는 극기(克己) 북(北)으로는 보름달과 같은 소망의 기운을 담아 정성(精誠)</p> <p>부족 지식이나마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보다더 태권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여 두서없이 써내려 갔습니다. 혹, 말이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태권도 발전에 큰 도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생하시는 모든 연구원님들에게 태권도인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해 주시는 덕분에 미래의 태권도가 또 한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p>

<p>【답변 6】S B H (지-12)</p>
<p>위 모든 용어를 함축해서 기나도로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문열 작품중 금시도에서 스승과 제자가 ‘기가먼저다’. ‘도가 먼저다’ 논쟁하는 것이 있는데 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한국 : 서예, 일본서도 중국서법)</p>
<p>【답변 6】S B A (지-13)</p>
<p>개인적인 관점으로 예의, 염치, 인내, 조화, 사랑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p>
<p>【답변 6】A Y T (지-14)</p>
<p>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태권도정신은 예의, 신뢰(약속), 인내라고 말 할 수 있다. 예의와 인내는 5대 정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겠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뢰이다. 옛 말에 남아 일언중천금이란 말도 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하고, 입 밖으로 낸 약속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신뢰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예의 및 인내와 함께 신뢰가 중요한 태권도정신이라고 생각한다.</p>
<p>【답변 6】A J R (지-15)</p>
<p>존중- 상대에 대한 인정 및 배려 경청- 남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 정직- 속임이 없는 참 화합- 어울림 리더- 사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p>
<p>【답변 6】Y T K</p>
<p>‘배려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태권도는 개인 운동이 되다 보니 경기에 나가서 상대를 속이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는 이기심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그것이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p> <p>상대를 배려해준다는 것은 남을 올려줌으로써 내가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 것이 태권도의 신체적인 단련과 함께 정신적인 문제로 결합되어 태권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p> <p>그러한 측면에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 삼원(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오행의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 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중 삼원은 수련법으로 가고 오행은 정신으로 들어와도 될 듯 합니다. 우리의 전통사상 안에 있는 문구이기 때문입니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6】 I B S (지-17)
<p>홍익인간 이화세계 : (오늘의 삶을 내가 즐겁게 멋있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흐뭇함을 느끼며 살자. 나를먼저 더하여 채우고 그로서 나누며 내가 너를 보듬고 더불어 어우러져서 우리가 되어 함께살리라) 조성열 시인.</p>
【답변 6】 I H S 2 (지-18)
<p>태권도 정신은 “무성” 이다 (무성 : 무예의 성스러움을 간직한다) 1. 효연 : 부모님을 효도하고 남을 사랑한다. 2. 예도 : 예절을 수련 하는 곳. 3. 유심 : 깊은 마음을 닦는 곳. 4. 부직 : 끝까지 자란다.</p>
【답변 6】 I H S 1 (지-19)
<p>태권도 수련시 구호로 사용할 수 있는 간결하고도 의미가 있는 단어로 구성하여 일상의 수련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미의 해석은 하위 영역에서 문장으로서 압기 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으면 함. “예· (예의, 인내, 노력, 정의, 충효,)</p>
【답변 6】 J D W (지-20)
<p>의견 없음</p>
【답변 6】 J S I (지-21)
<p>“태권도정신은 신체로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수련하고, 이러한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다.”</p>
【답변 6】 J I C (지-22)
<p>앞서말한 여러 영역에 대한 제정 이후, 최종적으로 그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과 그 용어를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인,의,예,지,신,용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정심, 입교등등 별의별 좋은 용어들이 아무리 있다해도, 그것은 우선 새로운 태권도정신이 정해진 후에 생각해 볼 문제인 듯 합니다. 물론 큰 하나의 뿌리를 먼저 정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여태까지 저자신의 무력함과 낮은 학덕 때문에, 태권도 정신을 새로이 제정한다는 발상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정신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만큼 생각이 정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의,염치,인내,극기,백절불굴을 조금 수정할 생각만 해봤었지요.</p>

【답변 6】C S J (지-23)
<p>기존서적과 일반적인 태권도 정신을 말할 때 최홍희의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현재의 태권도 정신을 말할 때 예의, 인내, 배려, 정직, 품위 등으로 말할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태권인에게 가장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듯 싶다.</p> <p>첫째, 예의가 있는 사람은 예, 안에는 예, 효, 충, 염치등이 있고 둘째, 인내가 있는 사람은 인내, 안에는 극기, 불굴, 투지가 있고 셋째, 배려가 있는 사람은 배려, 안에는 무도인으로서 인간적 자세, 인간성을 나타낸다. 넷째, 정직이 있는 사람은 정직, 안에는 거짓이 없고 바르게 진실된 사람을 말한다. 다섯째, 품위가 있는 사람은 품위, 안에는 행동, 말, 생각을 무도인으로서 바르게 해야한다.</p>
【답변 6】W I S (지-24)
태권도 정신은 기술의 소산이며 바람직한 인간육성을 위한 체계이다.
【답변 6】K M S (학-25)
<p>태권도는 인간의 삶에서 경(敬)을 실천하는 자아실현이다. 태권도수련은 무도정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면적인 자아를 초월하여 다양한 기술의 투쟁적인 잠재력을 공식화된 경쟁을 통하여 발휘되며, 자아를 실현하는 삶의 방법을 알게 된다.</p>
【답변 6】K Y S (학-26)
답변 생략.
【답변 6】N C M (학-27)37세
<p>본 응답자의 견해로 보는 “태권도 정신”은 기술(격투기법)을 통해 보다 탁월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집중: 태권도 기술, 즉 막고, 지르고, 차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생기고, 절제: 집중력을 통해 수련자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존경: 타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며, 용기: 자신이 하고자 마음먹은 것을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긴다.</p>
【답변 6】N S H (학-28)
태권도정신은 인간의 모범된 모습이다.
【답변 6】S C (학-29)
의견 없음.
【답변 6】S H S (학-30)
태권도정신은 극기, 예의, 화합, 평화이다. 태권도수련이 제공하는 부단한 극기 과정을 통해 예의바른 태도를 갖 추고, 예의바른 태도를 통해 타자와 원만하게 화합(和合)하며, 화합을 통해 인류의 평화와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태권도정신은 흥익인간의 이념을 그 바탕으로 한다.

■■■ 태권도 정신세계에 관한 연구

【답변 6】Y J B (학-31)
「어떻게 표현하려고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받아들여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듯함. “공인 태권도정신”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의 접근이 더 적절하다면, 표현의 문제보다는 과정의 문제와 주제의 문제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답변 6】U M
Fight, self-discipline, strength 격투, 자기규율, 힘
【답변 6】Y U Y (학-33)
동양적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무인으로서 “의(義), 예(禮), 신(信), 용(勇)”이라는 4가지 이념을 가지고 강국화세(強國和世)를 추구합니다.
【답변 6】L S J (학-34)
태권도 품새, 겨루기, 격파, 시범의 고된 훈련을 통한 자기성취로 사회봉사 하는것이다
【답변 6】L S Y (학-35)
위 내용의 모든 결정체는 단 한가지입니다. 태권도를 통해 “올바른 삶”을 통해 인간완성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답변 6】L J D (학-36)
<p>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았던 저 만의 “태권도 정신”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으로 또 다른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관점에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p> <p>2011년 국기원에서 논문집을 발간할 때, 해당 호의 주제가 “태권도 정신”이었습니다. 그 때도 저는 학생들에게 “최홍희 총재의 5대 정신”을 한글, 한자, 영문으로 모두 외우고 시험까지 보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p> <p>그런데 국기원에서 던진 주제가 태권도 정신이니, 태권도 정신에 대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논문을 썼는데, 그 때도 전 세계의 많은 문헌과 인터넷 자료에서 “태권도 5대 정신”이 광범위하게 태권도 정신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면서도 “왜 바뀌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최홍희 총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기원의 분위기라면, 앞으로 바뀌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단어의 유사함”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생각에 비추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연구를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p> <p>그래서 제시한 것이 무도적(기술적) 측면에서 “강, 속, 정”의 3대 정신이었으며, 스포츠적 관점에서 “공정함, 예의, 인내, 조화, 만족” 등의 5가지 정신 이었습니다.</p> <p>그러나 국기원에 와서 보니 그다지 최홍희 총재에 대해 적대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p> <p>그럼 이 태권도정신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문제가 왜 발생했으며, 누가 주장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학자의 일방적인 견해인 것인지, 국기원의 누군가에 의한 견해였는지 말입니다.</p>

<p>혹여 기존의 ‘태권도 5대 정신’을 부정하면서 이를 대체할 태권도 정신을 확립하지 않은 채 급급하게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는 아닐까요? 마치 분서(焚書)처럼 정치적인 갈등관계로 인해 예전에 만들어 놓은 모든 산물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p> <p>단어나 문장 등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태권도 정신은, 지금 이 글을 쓰는 과정에도 또 한 단어가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해서 톡 던질 수 있는 것이 태권도 정신은 아닌지, 우리가 너무 단어나 문장에 얽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의무감으로 인해 자신만의 태권도정신이 있거나 아니면 아무런 관심이 없는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p> <p>이미 그 답은 “跆拳道”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p>
<p>【답변 6】 I S J (학-37)</p>
<p>연구자들께서 제시된 5가지 태권도 근원 모두 의미가 있다. 다만, 태권도 분석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이 이제는 필요하다.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안위와 행복이 아닐까? 행복이라는 주제 속에 자아와 타인의 관계를 원만하게 지향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인류의 공영과 평화를 이루어 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향점일수 있다.</p> <p>태권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뇌 새김의 고정관념을 통한 정형화된 정신교육이 아닌 신체를 통해서 마음작동을 일으키고 결국, 정신과 신체가 함께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체득하는 일이며, 이것이 태권도에서 道의 진정한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p> <p>타인을 무엇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 자발적 교육의 형태로 자신을 깨닫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체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통한 깨달음이 몸을 통한 깨달음으로의 인식전환을 이루고, 이러한 인식전환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작은 태권도 동작 하나 하나에 의미와 주위를 기울여 체득된 습관들이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실천의지들이 강화될 수 있는 진정한 태권도 실천정신이 형성되어야 한다.</p>
<p>【답변 6】 J S W (학-38)</p>
<p>잠정적으로, 대단히 추상적이지만 <인간 존엄>과 내·외의 평화의 구현>이라 하겠습니다.</p>
<p>【답변 6】 C S G (학-39)</p>
<p>“태권도정신은 한민족의 선비정신이다.” ★선비정신은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p>
<p>【답변 6】 C U C (학-40)</p>
<p>질문 1의 비유를 연장하자면,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의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야채로서 당근을 모양과 맛에 근거해서 먹게 되지만, 결국 그 당근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것이 지닌 영양소 때문입니다. 당근의 영양소(비타민A, 식이섬유, 철분 등)가 우리 몸에 소화되어 신체 각 기관에 효용(시력개선, 변비치료,</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빈혈개선 등)을 가져다주는 것이며, 당근이 다른 야채들과 공동으로 지니고 있는 것과 당근만의 독특한 영양소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는 그로 인한 효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태권도가 만들어내는 신체건강상의 효과는 다른 무술도 함께 지니고 있는 공동된 영양소입니다. 태권도의 정신은 태권도만이 지닌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질문 6은 그 태권도만의 영양소의 내용(비타민 D 등)을 밝혀내라는 것입니다. 태권도정신의 개념을 정의하라는 것과 그 개념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라는 것은 두 가지 질문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또는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라는 두개의 질문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사람의 실존이나 의미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 후자는 외양상 특징이 무엇인지를 묻는 생물적 질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 6은 지금 전자의 질문으로도, 후자의 질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후자를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제 답변의 포인트는, 태권도의 정신을 구성요소중심으로 정의하고 기술하려는 시도가 많은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즉, ‘공인’이 가능한) 방식의 답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태권도정신에 대한 연구가 제자리를 맴돈 이유도, 연구자의 역량부족이라기 보다는, 바로 이 주제가 원래부터 그러한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태권도정신의 개념을 고민할 때에는, 전자의 방식으로 그 개념을 규정하고, 그 안에 포함되는 세부사항(덕목, 가치 등)은 학자나 고수들이 제시하는 개념으로 열어두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인” 태권도정신은 개념적 수준으로만 정의하고, 구체적인 가치덕목적 단어나 어휘의 선정은 오픈 시켜두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태권도정신의 개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봅니다.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태권도정신은 태권도를 태권도이도록 하는 본질이다. 태권도정신은 태권도의 기적 차원과 도적 차원 중에서 도적 차원을 구성한다. 태권도의 기술을 습득할 때에 반드시 함께 전수되는 차원이다. 태권도정신은 태권도가 추구하는 궁극적 이상을 담고 있으며, 수련자 각 개인이 스스로 발견하는 차원이다. 공맹이나 노장의 누구도 “도란 무엇 무엇이다”라고 한 가지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동양의 현자들은 도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그것은 결국 수련과 공부를 통하여 당사자가 스스로 체득할 수밖에 없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도는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그 순간 그것은 도가 아니게 되어버린다.

노자가 도덕경 1장에서 “도가도비상도, 명가명비상명”이라고 갈파한지 3천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도가 무엇인지 찾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도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소 명확한 이해를 갖게는 되었지만,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답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태권도“정신”은 “도”보다는 구체적인 개념이 되어야 하겠지만, 여전히 도와 같은 모호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모호하다는 것은 머리로서, 논리로서 그것의 전모를 파악하려는 시도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다. 태권도정신은 지속적인 성찰적인 수련의 경지를 통해서 온몸과 마음으로 체득될 때에서야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보다는 느낌에 더욱 가깝기 때문에 머리로 정리되기 힘든 것이다. 문장으로 정의되기는 더 어렵다. “깨달음”은 주관적 지식이기 때문이다. 예전 현자들이 도의 개념과 내용을 글자로 정의, 규정하지 않은 것도 결국, 도(혹은 정신)이란 수련자의 깨달음이라는 본질을 적시하라는 명령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련자로 하여금 “태권도정신은 무엇인가?” “무엇이 태권도정신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수련에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태권도정신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보다 더 주목할 일이다. 즉, 태권도정신이란 일종의 ‘화두’(공안)와 같은 것으로서, 수련자가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고 고민하는 그 노력의 종착지에서 스스로 찾게 되는 것이지, 수련의 출발점에서 남이 준 것을 지니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 고독한 길 위에서 수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A사범이, B씨가, C원로가, D교수가 찾은 태권도정신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성찰적 이야기와 에세이들을 듣고 읽으면서, 이정표와 길잡이로 삼는다. 그렇지만 이들이 발견한 정신은 여전히 이 사람들이 찾아낸 정신이다. 최종적으로 수련자는 자신이 스스로 태권도정신을 발견해야하는 것이다.

<p>태권도정신은 “이것, 이것, 이것이다”라고 “공인”해버리고 나면, 이 모든 과정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격을 따기 위해서 외우고는 곧 잊어버리게 되는 규칙이나 명칭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까지도 있다. “태권도정신”이라는 아이디어는, 학습과 교육을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끌어내야 하는 개념이 되어야지, 그것을 기능적, 효율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p> <p>국기원 등 태권도를 이끄는 기관에서는 “태권도정신은 00, 00, 00이다”라고 개념규정이 명료해지면 무엇인가 일사불란한 방향성이 결정되고 교육의 지향점이 결정될 것처럼 기대가 되겠지만, 스포츠교육학자로서 국가교육과정이나 기타 교육목표의 실현을 위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아주는 아니고 대략 만족스러운 정도라도) 그러한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획일화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창의성을 저하시킨다. 통일성을 높이지만, 자율성을 깎아먹는다. 무엇보다도, 태권도 수련의 과정은 철학적인 사색과 성찰의 과정이 되어야만 하는데, 주입식 교육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p>
<p>【답변 6】 H P (학-41)</p>
<p>태권도정신은 “(동양적) 예의,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모험정신, 웃어른에 대한 존경심, 남을 위한 희생정신, 올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판단하는 성찰이다.</p>
<p>【답변 6】 K B Y (행-42)</p>
<p>① 충 忠 loyalty ② 효 孝 piety ③ 신 信 trust ④ 용 勇 bravery ⑤ 인 仁 mercy ⑥ 덕 德 moral character 신라의 화랑도 정신 5개에 ‘덕’을 추가한 것이다.</p> <p>본인은 삼국시대에 화랑도, 선배, 무사도 등이 수련했던 수벽치기(수박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가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화랑도 정신으로 익숙되어 온 것도 좋은 장점으로 봅니다. 충, 효, 신, 용, 인의 5대 정신을 태권도 기본 정신으로 하고 근대에 맞는 2~3 개를 추가 혹은 삭제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봅니다.</p> <p>그동안 태권도 정신에 대한 요약 표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다양하고 일관성 객관성이 없었다고 본다. 그 근본 줄기는 역사적 근본이 있어야 될 것이며 실제 적용성이 강해야 된다고 본다. 삼국 시대를 기점으로 뿌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신라의 화랑도, 고구려의 선배, 백제의 무사도가 수련했던 ‘수벽치기’의 무예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근대시대에 가장 맞는 것들 1~2개 추가했으면 좋다고 본다.</p> <p>근대에 와서 태권도 정신이 추락했다고들 말하는 종합적 이유는 선후배간의 위계질서 몰락, 집단이기주의의 탄생으로 인한 파벌 분열, 음해 몰락이 난무, 행사장 경기장에서의 난동 추태, 경기 경연의 승부 조작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덕성(德性)이라고 본다. 이것을 요약해서 덕으로 추가했으면 한다.</p> <p>1. 충 忠 loyalty ----- 애국심 2. 효 孝 piety ----- 동방예의 의 지표 3. 신 信 trust ----- 신뢰, 믿음 4. 용 勇 bravery ----- 강인한 힘, 용기 5. 인 仁 mercy ----- 자비, 예의 6. 덕 德 mural character ----- 도덕성, 겸손, 관용?, 예절</p> <p>※ 6개의 용어가 간단한 태권도 정신으로 규정했으면 좋겠다. 국기원 연구소를 통해 1~2개는 시대와 여론을 토대로 계속 추가 삭제해 나갔으면 좋겠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p>【답변 6】 K H S (행-43)</p>
<p>태권도 강령은 함축된 문장으로 정리하고, 태권도 정신은 사자성어 같은 단어로 표현됨이 어떨지? (내가 주장하고 싶은 태권도 정신):~외유내강, 세계평화, 인류행복</p> <p>-외유내강:~태권도 정신에는 고수가 삶에서 도량을 펼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수가 못되면 진정한 태권도 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고수는 6단, 18년 이상을 수련하여야 고수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고수가 삶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외유는 고수의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겸손이 될 것이고, 내강은 몸의 건강과 강함을 나타내는 고수를 대변하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p> <p>-세계평화:~외유내강(고수의 겸손) 태권도 정신으로 태권도 인이 앞장을 서서 분쟁이 없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태권도 정신이다.</p> <p>-인류행복:~태권도 수련과 단련을 통하여 지구촌 모든 인류가 건강하고 강한 몸(고수)으로 겸손히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태권도 정신이다.</p> <p>태권도 강령과 정신에 대하여 서술된 설명집(정신 강령 참고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자 세분께서 충분히 만들어 내리라 생각한다.</p>
<p>【답변 6】 M I (행-44)</p>
<p>홍익인간, 파사현정, 심신일여</p>
<p>【답변 6】 P J H (행-45)</p>
<p>질문 4의 답변을 참조하여 연구진의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p>
<p>【답변 6】 B M G (행-46)</p>
<p>다시한번 개인적 소견임을 말씀드리며 강조하는 이유는 위에 강조하는 단어들은 그분들의 주관적 정의인 것이죠.. 저와는 생각이 달라 그런 것입니다</p> <p>무엇인가를 추구할 때는 우리 것만의 태권도가 표현되는 특색이 곁들여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추구하는 사상이라 하더라도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독특함이 필요하다는 애깁니다. 따라서 평화, 조화 이런 단어는 실질적으로 너무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단어입니다</p> <p>따라서 우리 태권도가 가질수 있는 단어를 나열해 보라 한다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극기보다 큰 의미로 볼 수 있는 극복, ② 예의보다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절, ③ 겸손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낮춤, ④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깨닫는 자각, ⑤ 정의를 위하는 의로움....포용 등이 태권도 정신과 연계된 단어가 생각합니다.

【답변 6】 Y G D (행-47)	
도덕성과 겸손으로 정의한다.	
【답변 6】 L J C (행-48)	
예의, 얹치, 인내, 사랑, 극기, 나눔	
【답변 6】 J H S (행-49)	
이경명 선배님의 정의에 동감 합니다 다른 분들의 말씀도 동감하며 저는 몇가지 단어로 정의를 못하겠습니다.	
【답변 6】 C S H (행-50)	
4번 질문지 답의 연장선에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p>태권도정신의 사상적 근원(이념)은 한국의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이라 말할 수 있겠고, 홍익인간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덕목(마음가짐)으로는 효(나의 근본을 알고), 공동체의식(우리의 의미를 알고), 도전의식(삶의 이유를 알고), 책임의식(나를 발견하고 완성해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태권도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신력으로 극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따라서 태권도정신이란 극기를 통하여 사람의 도리를 알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p> <p>물론 전자에 언급한 말(단어)들은 태권도수련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것으로 논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p>	
【답변 6】 C J G (행-51)	
태권도는 수신(修身)이다	

구 분	내 용
【주제 7】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 절차
【질문 7】	위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 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7】 K S C (지-01)	
원로회의나 고단자회, 해외 개척사범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또 외국인 고단자의 의견도 수집했으면 합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인 보다 태권도와 한국문화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7】K G S (지-02)
제시한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 절차에 대해 동의합니다.
【답변 7】G K O (지-03)
의견 없음.
【답변 7】K K M (지-04)
위 1~5안을 찬성합니다. 태권도를 정의하고 교육의 초안을 작성하는 일이니 만큼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1~5차까지 함께 심의하고, 수정 보완 후 최종안을 의결 작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7】K M S
찬성합니다. 다만 제정위원회나 공청회 참석자들이 태권도정신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을 가진 태권도인들이 모여 태권도정신에 대한 합당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토론하다보면 중지가 모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주제가 산만해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수도 있으므로 참석자 모두가 주지했으면 합니다.
【답변 7】K Y H (지-06)
위 연구팀의 계획이 신중을 더한 모습을 엿 볼 수 있습니다. 진즉 제정되었어야 할 [태권도 정신] 늦게나마 제정함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여 일선 태권도 현장에서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 실현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구팀이 계획한 과정은 걸쳐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7】K J J (지-07)
절차는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7】K T S (지-08)
만약 새롭게 공인 태권도 정신을 제정한다면 위와 같이 연구하고 검토에 검토를 거치고 또한 보다 더 여러 사람의 견해를 듣다보면 분명 아주 적절하고 진리적인 명답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답변 7】P J H (지-09)
잘 된 절차로 생각되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답변 7】S M H (지-10)
제정절차를 6단계로 구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정 절차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소리를 듣기 위함이라 판단합니다. 태권도는 지구촌 모두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지도자도 많이 동참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설문 방법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온라인으로 다양한 계층과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많은 소리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권도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7】 S S D (지-11)
의견 없음.
【답변 7】 S B H (지-12)
<p>절차 만족 합니다</p> <p>다만 현재 정신은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것입니다. 정신은 하나로 인이나 의, 신 등 어려운 일이지만 정신이 들어가고 나오고 현재를 나타낼 수 있는 것</p> <p>anytime anywhere</p>
【답변 7】 S B A (지-13)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7】 A Y T (지-14)
의견 없음.
【답변 7】 A J R (지-15)
의견 없음.
【답변 7】 Y T K
<p>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p> <p>어떤 절차로 하는 것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완성해서 태권도인 모두가 따라갈 수 있고, 바뀌질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절차라 생각합니다.</p> <p>‘공인 태권도정신’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p>
【답변 7】 I B S (지-17)
3단계
【답변 7】 I H S 1 (지-18)
<p>식견이 넓은 학자들과 전문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p>
【답변 7】 I H S 2 (지-19)
의견 없음.
【답변 7】 J D W (지-20)
의견 없음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p>【답변 7】J S I (지-21)</p>
<p>우선 국기원의 열정있는 연구자분들의 노력이 없다면 위와 같은 제정 절차가 이루어 질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TF팀 구성후 3번의 제정위원회 개최, 그리고 2번의 공청회 개최는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것이며, 그런 시간과 노력 끝에 반드시 포괄적이며 규범된 ‘공인’태권도 정신이 나오리라 생각된다.</p> <p>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짧은 소견에 첨언하자면 ‘정신’이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할 때는 철학 또는 인문 분야도 중요 하지만, 제정위원회 및 공청회의 참여하는 연구자 및 참여자는 반드시 현장 지도자 및 다양한 전공의 전, 현직 연구자를 참여 시킨다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태권도라는 문화유산이자 국기태권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준자료의 기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p> <p>그리고 태권도의 ‘정신’을 만드는 팀과 위원회를 구성할 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연, 학연이 관여된 사람이나, 편협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를 구성원에 넣어서는 안된다 단 말은 너무도 당연하여서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p>
<p>【답변 7】J I C (지-22)</p>
<p>좋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 한학과 동양철학의 전문가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학의 대가 끊겨서 제대로 된 왕실의 유학을 전승한 분들이 거의 없으나, 추천할만한 대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p>
<p>【답변 7】C S J (지-23)</p>
<p>6단계의 공청회와 수정이 좋습니다.</p> <p>그러나 공청회의 인물들이 누구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태권도 정신의 제정이 태권도인들의 공감대 형성될 것이다.</p> <p>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일부 인사들이 제안하고 만들고 지정하므로 인해 문제점이 지금도 있지 않은가??</p> <p>첫째 제안 방법, 문헌 분석, 단어 해석을 한다.</p> <p>둘째 공청회의 대상선정, 수련자중 현직사범, 태권도 코치, 선수, 태권도 학과 학자, 비수련자, 언어학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가 되도록</p> <p>셋째 의견을 여러번 모아져도 최종적으로 일선 사범과 학자, 일반인들에게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p> <p>넷째 용어제정, 홍보, 교육안 제시</p>
<p>【답변 7】W I S (지-24)</p>
<p>연구자들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각 단계 시기를 얼마로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짧은시간 안에 내용을 정리해서 완성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열린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연구자들의 노력과 세계 태권도인들의 가치체계가 포괄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p>
<p>【답변 7】K M S (학-25)</p>
<p>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절차는 적절합니다.</p>

【답변 7】K Y S (학-26)
답변 생략,
【답변 7】N C M (학-27)
본 응답자는 “국태정”에서 계획한 위의 세부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차 제정위원회를 개최하고 -> 1차 공청회를 개최 -> 2차 제정위원회 개최 -> 2차 공청회 개최 -> 3차 제정위원회 개최를 하고 난후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순이 보다 적합한 ‘공인’ 태권도정신을 도출하는 수렴단계라고 생각한다.
【답변 7】N S H (학-28)
관심 없음.
【답변 7】S H S (학-29)
가용한 시간 내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우 효율적이고 적절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답변 7】S C
의견 없음.
【답변 7】Y J B (학-31)
<p>다수결을 통한 정신의 제정 ?</p> <p>당급 태권도계에서 태권도정신을 제정할 수 있는 올바른 정신을 가진 인사는?</p> <p>지금 국기원에서 태권도정신을 공포하면, ???</p> <p>급하게 정신을 「제정」하려고 하지 말고 태권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인문학적 주제의 논의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태권도계가 정신 차릴 수 있는 인문학적 깊이를 추구하는 장기적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함. 그 과정에서 “태권도정신”, “태권도사상”, “태권도철학”, “태권도문화” “태권도적 사고“ 등이 의미하는 바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태권도계가 이 주제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소통해 나가야할 것인지를 차근차근하게 추구하는 작업 그 자체가 태권도정신의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으로 생각됨.</p>
【답변 7】U M
<p>These steps are fine and good, but I don't believe in the necessity or possibility in defining officially the concept of 'taekwondo spirit.' In reality, ordinary practitioners will not care about the outcome of this study, but rather define their concept of a taekwondo spirit and taekwondo's value in a personal way.</p> <p>이 단계들은 좋고 훌륭하다. 그러나 나는 태권도정신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일이 필요하다거나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실제로 평균적인 태권도수련자들은 대개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히려 개인적인 방식으로 자신만의 태권도정신 및 태권도 가치의 개념을 정의한다.</p>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7】Y U Y (학-33)
저는 태권도정신의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지도자, 학자들의 의견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7】L S J (학-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나 사범, 교수,관장등의 설문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집 분석 - 외국인 지도자 포함 - 국내,외 지도자 대상 공청회 - 태권도정신이 대상, 연령에 따라 적용이 다를 것이라 생각 됨 <p>예전 태권도정신 제정시 성인이나 청소년이 많았음, 현재 국내 어린이, 외국 어른이 많음</p>
【답변 7】L S Y (학-35)
제정 절차의 과정은 짜임새 있게 전개되는 것 같아 충분한 공청회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답변 7】L J D (학-36)
<p>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태권도정신이, 태권도 5대 정신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야 전 세계의 태권도인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계획하신 절차대로 잘 추진하셔서 국제정 스스로 그러한 권위를 얻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p> <p>이 질문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 말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생각은 다를 지언정 연구의 결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응원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p>
【답변 7】I S J (학-37)
<p>준비된 세부절차에 관해서는 잘 구성됐다고 생각된다. 다만, 쫓기듯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절차에 따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관련자 모두 장고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다.</p> <p>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연구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시는 연구자들에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p>
【답변 7】J S W (학-38)
동의합니다.
【답변 7】C S G (학-39)
합리적 절차라 생각합니다
【답변 7】C U C (학-40)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7】 H P (학-41)
위에서 제시한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 절차는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
【답변 7】 K B Y (행-42)
제시된 태권도 제정 절차 6단계를 지지합니다. 그동안 태권도 정신에 대한 정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일관성, 객관성 없이 다양하게 교육되었고 교육 방법도 심사(승단) 규정에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기회에 개념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정, 교육방법 홍보 방법, 승단 심사에 적용 등을 전개해야 된다고 본다. 이것은 세계 각국에 지침을 시달하고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본다. 종주국의 잘못된 모습은 지나치게 노출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용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답변 7】 K H S (행-43)
돈이 문제가 되겠지요.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더 요구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답변 7】 M I (행-44)
1단계 질의문항작성/전문가인터뷰의 역할을 강조하여 양질의 의견을 수립하는데 있어 다양한 계층,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해외사범등 넓은 범위의 설문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수준 높은 결과를 얻어서 1안을 작성하고 투명한 단계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되어야 한다.
【답변 7】 P J H (행-45)
이 부분은 조직적 차원에서 태권도정신을 제시하고 표현방법에 대해서는 순수 철학 전공자와의 전문가 협의회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똑같은 수정보완을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렵겠지만 수정보완보다는 초안을 도출하기 전 태권도계의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답변 7】 B M G (행-46)
예전과 달리 무엇을 하나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결정과정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많은 태권도인 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점을 고려하여 위 단계를 시행한다면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7】 Y G D (행-47)
적절한 절차라 사료됩니다.
【답변 7】 L J C (행-48)
절차는 동의 합니다 보급계획도 함께 세우고 진행하시면 더 빛날 것 같습니다.
【답변 7】 J H S (행-49)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대 찬성입니다. 학자들의 탁상 공론이 안 되도록 가능하면 일선에서 뛰어난 전문가들의 견해도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태권도계에서 이런 공론이 생겼다는 자체도 반길만 하며 좋은 결과가 나와 우리 태권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될 정신적인 뒷받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답변 7】C S H (행-50)
적극 동의하며, 과정 중에 태권도인상, 태권도지도자 행동강령, 태권도수련지침도 함께 다루어 졌으면 합니다.
【답변 7】C J G (행-51)
초등단계 일선관장들의 공칭을 개척하는 것은 어떨까요?

- 끝 -

부록 1. '공인 태권도정신' 제정을 위한 견해 조사지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설문에 응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문은 '공인' 태권도 정신 수립을 위해 지도자급 주요 인사와 학자들을 대상으로, 기명으로 실시되는 견해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국기원 '공인' 태권도 정신 확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차후 편성될 '공인 태권도정신 제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인사의 선발 근거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늘날 태권도는 일선 지도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거듭했으며, 그 결과 전 세계인이 선호하는 신체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태권도가 선도적인 고급문화로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인' 태권도정신의 확립입니다. '공인' 태권도정신은 태권도가 추구하는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줌으로써 태권도 이미지 쇄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태권도관련단체 및 개별수련자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태권도의 내재적 가치 증대와 발전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부디 본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길 깊이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2015. 6. 국기원 태권도정신 연구팀

김영선, 송형석, 최중구 드림

010-6292-7089 kystae@naver.com

- ☞ 본 <기명식 견해조사지>는 귀하의 지론을 바탕으로 '공인' 태권도정신의 근거를 도출하고 적절한 제정 방안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 ☞ 귀하께서 본 <기명식 견해조사>에 응하시는 것은 연구 참여는 물론 추후 발간될 연구 결과 자료집 출판에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총 7개 항목의 **【세부주제】**와 **【배경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숙고하신 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응답파일은 다음 e-mail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ystae@naver.com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주제 1】 일반적으로 제안된 태권도정신의 의미

【배경설명】 ‘공인’ 태권도정신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태권도정신의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권도정신은 ‘태권도’와 ‘정신’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특히 정신 개념의 난해함으로 인해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권도정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첫째, 태권도정신은 ‘태권도의 정신’ 혹은 ‘태권도인의 정신’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이재돈, 2014). 즉,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자체에 깃든 정신’의 의미나 ‘수련자의 행위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가치’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둘째,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함양될 수 있고, 올바른 인간 행동의 바탕이 되는 태권도수련의 주된 목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국기원, 1987). 셋째,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수련에 임하는 자세’ 혹은 ‘태권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안용규, 2006). 넷째,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몸과 마음의 고양된 상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한형조, 2006)”. 이렇듯 태권도정신은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질문 1】 귀하께서는 태권도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제 2】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 필요성

【배경설명】 태권도정신은 태권도기술과 더불어 태권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태권도기술은 현재 심사제도의 정착과 경기화의 결과 상당한 정도로 표준화되어 있는 반면에, 태권도정신은 일선 현장에서 중시되어야 할 교육의 핵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1972년 국기원이 출범한 이래 아직도 이렇다 할 구체적인 내용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공인’ 태권도정신이 제정된다면 태권도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주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며, 다른 무술과 차별화된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태권도는 흥미 위주의 스포츠나 운동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한 심신수련의 주요 종목이므로, 공인 태권도정신의 확립은 태권도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근거도 될 것입니다. 또한 ‘공인’ 태권도정신은 국기원에서 발간하는 태권도 교본이나 지도자 연수 교재 뿐 아니라 국기원 공식 홈페이지에도 명시되어야 할 주요 지식체계입니다. ‘공인’ 태권도정신을 제정한다면,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태권도수련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통일된 태권도의 이미지 형성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질문 2】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주제 3】 ‘태권도 5대 정신’ (최홍희)의 반영 여부

【배경설명】 그간 태권도정신으로서 56년 전 최홍희씨가 주창한 ‘태권도 5대 정신’이 널리 통용되어 왔습니다. 이 ‘5대 정신’은 간단명료하고 인지도가 높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그 포괄 범위가 협소하고 항목들의 의미가 중복된다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염치’는 보다 포괄적인 ‘예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고, ‘극기’, ‘백절불굴’ 역시 의미 상 ‘인내’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정신’은 ‘예의, 염치’라는 사회적 덕목과 ‘인내, 극기, 백절불굴’이라는 심적 능력 두 차원의 정신 영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태권도가 추구해야할 원대한 이념이나 한국의 전통사상 같은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1세기 현 시점에서 태권도정신은 다양한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정신적 가치는 물론이고 차별화된 한국 고유의 이념도 포괄할 수 있어야만합니다. 그래야만 한국의 고유문화로서 태권도의 정체성도 확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경기 정식 종목으로 자리 잡았고, 글로벌 한류의 원조가 된 작금의 시대에 그에 적합한 이념과 가치가 설정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니다.

【질문 3】 국기원 ‘공인’ 태권도정신을 제정함에 있어 기존의 ‘5대 정신’의 일부를 반영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방침을 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4】 ‘공인’ 태권도정신의 하위 영역

【배경설명】 대개 태권도정신 하면 ‘태권도수련자의 마음가짐이나 인격’ 과 관련된 가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관련단체 홈페이지나 서적 또는 논문 등에 소개된 태권도정신에는 태권도에 스며들어 있는 한국 전통사상이나 태권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상, 즉 이념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태권도가 단순한 개인의 수련 차원을 넘어서 사회의 안녕과 인류의 공영을 추구하는 보편 문화로 발전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 간의 연구에 의하면 태권도정신은 ‘정신’ 이란 개념 구성에 따라 다음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홍익인간, 인류공영 등 태권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념, 둘째, 예의, 공정 등 태권도수련자가 갖추고 실천해야 할 사회적 덕목, 셋째, 인내, 용기 등 태권도수련을 통해 기르고자하는 심적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공인’ 태권도정신 역시 사회적 덕목이나 심적 능력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념 영역의 가치들까지 포괄해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4】 ‘공인’ 태권도정신으로서 이념, 덕목, 심적 능력 중 어떤 하위 영역이 중요한지 또는 세 가지 하위 영역을 모두 포괄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주제 5】 ‘공인’ 태권도정신의 근원

【배경설명】 어떤 지도자나 학자가 태권도의 어떤 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태권도정신의 지향점이나 구성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권도정신은 당연히 태권도 수련이나 본질 또는 특성으로부터 기인하며 그 근거는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태권도정신의 근원은 태권도에 대한 수련자의 투철한 열정에서 나온다는 관점입니다. 즉 진정한 태권도정신이란 어떤 사람이 태권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초지일관한 태도로 평생 태권도 수련과 지도 뿐 아니라 태권도 번영을 위한 헌신적 행위를 실천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둘째, 태권도정신은 수련자가 수련 또는 경기 활동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강인한 심신 배양과 자아성취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기인한다는 견해입니다. 셋째, 태권도정신은 태권도의 발차기 위주의 원리나 겨루기, 품새 등 기술과 구체적으로 연관되어야 합당하다는 견해입니다. 넷째, 태권도가 세계적 보급과 올림픽 경기로 전개되는 만큼 인류공영의 이상향을 성취하는 데 기여해야 하므로 이런 관점을 정신에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다섯째, 태권도정신은 한민족의 전통사상이 반영된 한국전통성과도 접목되어야 태권도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질문 5】 귀하께서는 위 다섯 가지 중 ‘공인’ 태권도정신의 근거로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그 내용과 이유를 서술 바랍니다.)?

【세부주제 6】 ‘공인’ 태권도정신의 언어 형식과 내용의 규정

【배경설명】 ‘공인’ 태권도정신은 태권도인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장 보편타당한 항목과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인’ 태권도정신을 규정하는 언어적 표현형식도 중요합니다. 즉, 엄선된 핵심 단어들을 간결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태권도정신은 OO이다.” 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에 포함된 핵심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태권도정신인지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태권도정신을 규정한 기존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최홍희(1959)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등 다섯 개의 단어를 제시했고, 안용규(2006)는 극기, 예의, 평화, 조화 등 네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이창후(2007)는 “삶의 안쪽으로의 초월이며 세부 내용은 의(義), 예(禮), 경(敬), 성(誠)이다” 라고 했고, 이경명(2007)은 “기술의 소산이며 인간적 성취와 상생정신” 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태권도정신의 핵심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언어적 표현 방법으로서 여러 단어나 간명한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질문 6】 단어나 문장 등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에 준해서 귀하께서는 ‘공인’ 태권도정신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세부주제 7】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 절차

【배경설명】 ‘공인’ 태권도정신은 전체 태권도인 차원에서 보편타당한 항목과 내용을 정하는 만큼 태권도정신을 구현해온 지도자들과 전공 학자들의 적절한 견해들을 반영하고, 태권도 전문가 집단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T.F 팀이 구성되고 태권도 이론 및 실기 분야에 오랜 경력을 지닌 지도자 및 전문 학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공인’ 태권도정신 초안이 작성됩니다. 이후 태권도정신에 탁견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인태권도정신 제정위원회’와 ‘공청회’ 등에서 다섯 차례 심층적 협의를 통해 초안이 수정, 보완된 후에 최종안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1안 작성 - TF팀 구성 후 질의문항작성/전문가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1안 작성
- 2단계: 2안 작성 - 제정위원 선임 및 1차 제정위원회 개최/1안 수정보완/2안 작성
- 3단계: 3안 작성 - 1차 공청회 개최/2안 발의, 수정, 보완/3안 작성
- 4단계: 4안 작성 - 2차 제정위원회 개최/3안 검토, 수정, 보완/4안 작성
- 5단계: 5안 작성 - 2차 공청회 개최/4안 발의, 수정, 보완/5안 작성
- 6단계: 최종안 작성 - 3차 제정위원회 개최/5안 검토, 수정, 보완/최종안 작성

【질문 7】 위 ‘공인’ 태권도정신의 제정 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 -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태권도 고위 지도자 및 학자 분께 드리는 '국기원 공인 태권도정신'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문

본 견해조사지는

'태권도정신'에 대해 식견 있는 지도자와 학자를 대상으로
'공인 태권도정신'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오랫동안 태권도를 수련하시면서 마음 깊이 새겼던
'태권도정신'에 관한 지론들을 바탕으로
전 세계 태권도인들로부터 가장 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공인 태권도정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본 견해 조사에 적극 호응해주신다면
'공인 태권도정신'과 관련하여
첨부된 상세 내용과 조건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작성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기원 태권도정신 연구팀

김영선, 송형석, 최중구 드림

☎ 010-6292-7089 kystae@naver.com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바쁘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공인 태권도정신’ 을 제정하기 위한 견해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잘 아시듯이 세계 널리 퍼져 나간 태권도가 기술적 개발과 올림픽 경기 확산과 더불어 수련자의 바람직한 행위의 근본이 되는 ‘태권도정신’ 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태권도정신’ 은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세계적 보급과 저변확대를 원활하게하고 바람직한 태권도인 형성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기원 차원에서 표준화시켜야 ‘원천 이론 지식’ 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계 태권도 보급과 발전을 주도해 온 국기원의 입장에서 ‘공인 태권도정신 제정’ 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부상되어 본 연구 과제가 착수되었습니다.

부디 태권도의 내재적 가치 증대와 철학적 발전에 동참하신다는 취지로 본 조사에 응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5

국기원 태권도정신 연구팀

김영선, 송형석, 최종구 드림

◎ ‘국태정 견해 조사지’ 활용 목적

1. 답변하신 자료는 ‘공인 태권도정신’ 의 제정을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응답 결과는 발간 예정인 ‘태권도정신 자료집’ 에 게재됩니다.
3. 차후 편성될 ‘국태정 제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4) '국기원 공인 태권도정신(국태정)' 제정을 위한 취지문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기술과 더불어 태권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2년 국기원이 출범한 이후로 40년이 넘도록 아직도 이렇다 할 태권도 정신이 공식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권도 기술의 표준화 작업과 병행하여 '공인 태권도정신' 도 정립되어야 합니다.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 차원에서 '공인 태권도정신' 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은 지도자교육, 대학, 태권도장 등 태권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인 태권도 정신론' 을 확립함으로써 바람직한 태권도인을 양성하는 근거를 확립하고 태권도 이론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국기원 공인 태권도정신(국태정)'제정의 필요성

1. 태권도는 흥미 위주의 스포츠나 운동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이자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한 심신 통합 수련의 주요 종목이므로 공인 태권도정신의 확립은 태권도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국태정' 은 태권도 보급과 저변 확대에도 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선도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 교육의 주요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국태정' 은 태권도인의 건전한 가치관과 신념 체계를 형성시키는 바탕이 됨으로써 태권도계에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무술과 차별화된 '국기(國技) 태권도의 정신 철학적 정체성' 을 확립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국태정' 은 국기원에서 발간하는 태권도 교본이나 지도자 연수 교재 뿐 아니라 국기원 공식 홈페이지에도 삽입되어야 할 주요한 지식 체계입니다. 아울러 공인 태권도정신을 제정한 작업의 결과물은 국기원 지도자 교육 현장과 일선 도장에서도 긴요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3) '태권도 정신체계' 과제 연구진 약력

- * 책임연구원 김영선 ☎ 010-6292-7089, e-mail: kystae@naver.com
 - 연세대학교 태권도부 및 국제태권도부 지도사범(공인 8단)
 -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 국기원 연수원 1-2급 지도자교육 <태권도 정신론 과목> 강사
 - 국기원 지도자 연수교재 「태권도 정신론」 집필자
 - 연세대학교 태권도최고지도자과정 대표강사(태권도 정신 및 인성교육 강의)
 - 상명대학교 국제태권도전공 <태권도 정신론 및 역사론> 강사
 - 태권도신문사 태권도 철학·역사 전문위원 역임
 - 「태권도 공인 정신론 정립을 위한 모색(1989)」, 「국기원 공인 태권도정신 정립을 위한 세부방안(2011)」 등 정신 관련 논문 및 신문 기사 다수 게재

- * 공동연구원 송형석 ☎ 010-5190-5941, e-mail: hssong@kmu.ac.kr
 - 서울대학교 및 동대학원 수학(스포츠철학 전공)
 - Deutsche Sporthochschule zu Koeln 박사(스포츠철학 전공)
 - 한국체육철학회 부회장
 -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소장
 - 태권도원 국립태권도역사박물관 운영위원
 - Deutsche Sporthochschule zu Koeln 철학과 객원교수 역임
 - 계명대학교 코리아태권도센터 소장 역임
 - 「태권도정신에 관한 연구」(2012) 외 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50여 편, 『태권도의 철학적 탐구』(2011) 외 공저 및 번역서 포함 학술저서 30여 권 저술

- * 보조연구원 최중구 ☎ 010-3479-1570, e-mail: sangdotkd@hanmail.net
 - 중앙대학교 스포츠산업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태권도전공 지도교수
 - K.T.A 제2회 전국태권도장 경진대회 경영법 금상 수상
 - K.T.A 계간지 편집위원 역임
 - K.T.A 태권도인성교육(교육부인증) 공동저자
 - K.T.A 태권도인성교육 워크북 마음다지기(교육부인증) 공동저자
 - 상도 태권도 인성코칭센터 1-4관 총 대표(공인 7단)
 - 「K.T.A 태권도 인성교육 메뉴얼개발 공동연구원(2012)」, 「W.T.A 청소년 태권도 인성 교육 공동연구원(2014)」, 「W.T.A 운영매뉴얼 개발 공동연구원(2014)」 등

◎ 견해조사 연구 협조사

이 름	소 속	이 름	소 속
강신철(지-01)	이란태권도대부, 남창도장관장	나채만(학-27)	계명대학교 강사
강원식(지-02)	국기원 전 원장	남승현(학-28)	계명대학교 교수
곽기욱(지-03)	국기원 심의위원	송형석(학-29)	본 정신과제 연구원
김기만(지-04)	수성대학교 교수	스티븐(학-30)	서울여대 교수
김영숙(지-05)	월드태권도 아카데미 관장	양진방(학-31)	용인대학교 교수
김용휘(지-06)	국기원 9단 위원회 부회장	우도피니히(학-32)	영산대학교 교수
김재준(지-07)	울산시태권도협회 수석부회장	육우용(학-33)	경희대학교 대학원생
김택수(지-08)	금천구태권도협회 회장	이선장(학-34)	계명대학교 교수
박중화(지-09)	대구 태권도계 원로	이승연(학-35)	태권도 연구가
서민학(지-10)	국기원 연수원 강사	이재돈(학-36)	국기원 선임연구원
손선동(지-11)	참교육태권도장 관장	임신자(학-37)	경희대학교 교수
신병현(지-12)	가천대학교 강사	지승원(학-38)	한동대학교 외래교수
신보애(지-13)	MARTIAL ARTS USA 관장	최성근(학-39)	계명대학교 교수
안영태(지-14)	황계태권도장 관장(9단)	최의창(학-40)	서울대학교 교수
안재로(지-15)	국기원 연수원 강사	하피터(학-41)	경희대학교 교수
윤태기(지-16)	경찰청 무도연구소	김병운(행-42)	전 국기원 기술심의회 의장
임보순(지-17)	세계청도관 사무처장	김현성(행-43)	국기원 연수원장
임현수(지-18)	부산상무태권도장 관장	마르코(행-44)	세계태권도연맹 직원
임현순(지-19)	연수구태권도협회 회장	박정호(행-45)	국기원 주임
정대환(지-20)	고양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방만규(행-46)	국기원 팀장
정순일(지-21)	태랑회 밝은빛 관장	양경덕(행-47)	대구체육연구원 원장
정인철(지-22)	국기원 교육분과 위원	이종천(행-48)	대한태권도협회 책임연구원
최성주(지-23)	현직 지도자	진운섭(행-49)	벨기에 태권도협회장
황인식(지-24)	국기원 연수원 강사	최상환(행-50)	국기원 수석연구원
김명수(학-25)	국기원 원로	최진규(행-51)	성북구태권도협회 회장
김영선(학-26)	본 정신과제 연구원		

■■■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5-04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

2015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처 : 국 기 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전 화 : 02-553-5651

팩 스 : 02-3469-0189

E-mail : research@kukkiwon.or.kr

이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은 국기원에 있으며, 국기원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제7조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